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10. 10 (목) 14:00
- ▣ 장 소 :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박문열(위원장), 김명규, 김영원, 김재열,
김정희, 박은순, 안귀숙, 이주형, 선주선,
조선미, 최성은, 최응천(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6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칠태부인경수연도	공개
2	묘법연화경 권4~7	공개
3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공개
4	황리현명 청동북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반출>	
5	국보 제166호 ‘백자 철화매죽문 향아리’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 16점 국외반출 허가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번호·명칭 변경>	
6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7건 지정번호·명칭 변경	공개

【검토사항】 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	서울 학림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공개
2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공개
3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공개
4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공개
5	홍가신선생교지	공개
6	묘법연화경 권3~4, 5~7	공개
7	이천 영원사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공개

【보고사항】 2건

1	‘증도가자’ 지정가치 검토 자문회의 결과보고	공개
2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국가문화재 지정추진 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3-05-001

1.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

가. 심의사항

‘칠태부인경수연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신청(’07.7.24/’12.3.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9.21)를 실시하였음.
- 또한 지정조사시 ‘여주군경수연도(시도유형문화재 제145호)’와의 비교조사 의견이 제기되어 비교조사(’12.11.26)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3년 제3차 회의(6.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3.7.10~8.8)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
- 신청인 : 부산광역시
- 소유자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
- 수 량 : 1점
- 규 격 : 횡권 전체 세로 63.5cm, 가로 688.3cm
(화면 ; 세로 54.3cm, 가로 148.5cm / 글씨 ; 세로 54.3cm, 가로 423.4cm)

- 재 질 : 지본채색
- 형 식 : 횡권
- 시 대 : 조선시대, 18세기 전반(박정혜)
조선시대 17세기말-18세기초(조인수)
- 현 상 : 표구는 최근에 새로 한 것임. 여러 군데 찢기고 결손된 작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다음에는 같은 비단에 姜世晁이 權朝彦의 부탁으로 적은 서문이 있음

라.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부산박물관 소장 <칠태부인경수연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제작시기의 하한이 1745년 이전으로서, 경수연도 가운데 시기가 상당히 올라간 작품이다.

둘째, 크기가 상당히 크고, 횡권의 전개방식이 뛰어나다. 또한 유연한 필치와 품위 있는 채색법은 물론, 인물들을 도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레 표현하고 있는 점 역시 상당한 회화적 수준을 보여준다.

셋째, 이 작품에는 18세기 藝壇의 총수였던 표암 강세황의 30대의 글씨를 볼 수 있는 점 또한 의미 깊다.

넷째, 조선시대 특유의 경로사상과 아울러 조선 후기 문인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있던 ‘남녀유별’이라는 유교관념의 경화가 단적으로 드러난 회화적 자료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칠태부인경수연도>는 왕의 명령으로 宴需를 보조받아 70세 이상 된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시종신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을 치른 후에 기념으로 제작한 것이다. 좌차에 기록된 인물들의 관직명에 의거하여 그림의 완성 시기는 행사가 끝난 뒤 5개월 후인 1691년 12월과 1692년 1월 초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전하는 <칠태부인경수연도>는 이때 제작된 원작이라기보다 강세황이 서문을 추서한 1745년 이전 어느 때인가 개모된 것으로 판단된다. 후대의 모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특징과 가치에 입각하여 <칠태부인경수연도>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 시기를 떠나 작품의 회화적 수준과 완성도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이 다. 유연하면서도 차분한 필선의 운용, 투박적이지 않은 변화 있는 세부 표현, 행사 내용의 요약적인 전달력 등 행사기록화로서 회화적으로 우수하다. 특히 기록화에서 인물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칠태부인경수연도>는 인물의 반복적 표현을 지양하였으며 자세, 의습선, 얼굴의 형태, 이목구비 등을 모두 다르게 표현하고 노소를 구별하여 각 인물의 개별적인 표현을 추구였다.

둘째, 후대의 모사본이지만 원작을 충실히 반영하여 17세기 말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용마루·내림마루 등 건물 지붕의 가장자리를 진하게 표시하는 방식, 어깨가 좁고 세장한 인물 유형, 발끝이 살짝 나온 긴 옷자락, 목덜미까지 내려온 기녀들의 머리 꾸밈새, 색종이 오려붙인 듯한 평면적인 차일의 형태, 소나무의 묘법, 병풍의 수목산수 화풍, 명암에 대한 무관심 등 17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의 기록화 양식과 상통한다.

셋째, 강세황이 33세에 쓴 필적을 포함한 자료라는 점이다. 남아있는 예가 드문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횡권이라는 화면 형식과 행사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보여주는 희소성이다. 횡권에 행사를 순서에 따라 그린 기록화는 많지 않은데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화면 형식면에서도 이른 시기 행사기록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장면과 장면 사이를 나무로 구분하는 방식이 일찍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섯째, 養老를 중시한 조선시대에 경수연도는 私家行事圖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현전하는 경수연도 중에서 <여주군경수연도>와 함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서 주목된다는 점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선시대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달한 궁중 기록화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어 회화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더욱이 효라는 유교 이념이 잘 반영된 소재와 독특한 형식을 취한 연회도이다. 즉, 왕실에서 주최한 왕족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고관들이 주최한 노모를 위한 행사라는 점, 대형 병풍 형식이나 화첩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예를 쉽게 찾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림의 양식에서도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부감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묘사로 사실적인 장면을 재현했다. 전형적인 진연도가 발달하기 이전의 초기 형식을 보여주며, 음악과 춤이 흥미롭게 등장하여 풍속적인 내용도 충실하게 담고 있다. 뒷부분의 강세황 글씨는 다소 거칠고 빠르게 쓰였지만, 왕희지 전통의 고전적 서체를 따른 명필 강세황 서예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보다 시기가 앞선 <宣廟朝諸宰慶壽宴圖>(1655년 이모)는 5개의 연회 장면이 화첩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모본이어서 화격이 다소 떨어진다.

강세황의 글에 따르면 다른 본에는 서문이 있지만 이것만 없어서 새로 글을 적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이 작품이 1691년 경수연이 열린 당시에 그려졌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기록화는 종종 후대에 임모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조선후기 기록화 중에서 경수연을 주제로 한 매우 이른 사례에 속한다. 그림이 정교하고 장식적이며 강세황이 서문까지 덧붙여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구/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칠태부인경수연도는 조선시대 고위 관리들의 노모를 위한 경로잔치 기록화로 유일하게 현존하여 가치가 높다. 비록 원본이 아닌 모사본이기는 하지만 모사 시기가 50여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원본에 충실한 점, 숙종과 영조 시절의 궁중 기록화 형식이 유사했던 점, 좌차와 서문을 당대의 문예계 총수로 일컬어지는 표암 강세황이 쓴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도 좋은 작품이다. 이와 함께 칠태부인경수연도와 같은 내용의 그림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5호 경수연도가 전한다. 1711년에 쓴 좌목과 서문이 딸려 있는 여주군 소재의 이 경수연도도 재조사하여, 그 가치가 인정되면 동시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도 무방할 듯 하다.

○ 구/문화재위원 (보류)

이 작품의 건본의 상태, 그림의 양식적 특징, 발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우선 이 작품은 1691년의 행사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한동안 발문없이 유지되다가 1745년에 참석자의 후손인 권조언이 강세황에게 부탁하여 뒤늦게 발문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된 또 다른 본의 <경수연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두 작품의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와 유물의 복사본 사진만을 본 상태이므로 선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두 작품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행사를 기록한 두 작품은 동일시기에 제작된 다른 작품들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두 작품 중 하나가 후대의 이모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정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여주본 경수연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지정 여부는 이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구/전문위원 (보류)

현재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된 여주의 또 다른 본의 <경수연도>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시중드는 여인들의 배치라든가 나무 형태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규장각 소장의 <동문송별도>(1682년) 및 서울대박물관의 <권대운기로연회도>(1689년)과 비교해 볼 때 정교함은 다소 떨어진다.

강세황의 글에 따르면 다른 본에는 서문이 있지만 이것만 없어서 새로 글을 적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이 작품이 1691년 경수연이 열린 당시에 그려졌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기록화는 종종 후대에 임모되기 때문에 강세황이 글을 쓴 1745년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임모의 경우에서 종종 나타나는 도식적인 필치, 그리고 특히 그림 부분과 글 부분의 비단의 노화상태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에서 그렇다.

보다 정확한 제작 년대의 판정을 위해서는 여주본 <경수연도>와 정밀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은 아직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구/동산문화재과 의견

○ <칠태부인경수연도>는 같은 내용의 작품이 여러 개 전하고 있어, 추후 우리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괄공모’ 사업 등을 통해 “계획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일제비교·검토 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부산박물관 소장 <칠태부인경수연도>는 1691년(숙종17) 일곱 명의 태부인들의 長壽를 기리는 宴會圖와 아울러 이 연회에 참석한 이들의 座目, 謝箋, 序로 구성된 두루마리(橫卷)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박물관 측이 1979년 7월에 구입했다고 한

다.

현재의 상황은 개장된 것으로서, 비단 바탕에 그림부분은 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동안 박물관에서의 전시기간이 오래된 탓인지 화면에 제법 탈색이 있고 굵은 선으로 박락 부분도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상태이다.

『肅宗實錄』(권23)을 보면, 칠태부인 경수연이 베풀어지게 된 계기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1691년 윤 7월 3일 숙종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侍從臣의 모친으로서 70세 이상인 자에게 食物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다. 성은에 감동한 閔宗道(1633-?)등 16명은 대궐로 나아가 사은전문을 올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노모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숙종은 1603년과 1630년에 치러진 경수연의 예에 의거하여 장차 베풀어질 칠태부인의 경수연에도 음악과 물자를 내리라고 명하였다.(『肅宗實錄』 권23, 17년 윤7월 27일조)

이 경수연은 실제로 음력 8월,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삼청동 관아에서 거행되었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먼저 경로잔치 그림으로 시작된다.

*그림은 세 장면으로 나뉜다. 처음 두 연회장면은 주로 기와가 덮힌 건물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마지막 연회장면은 차일을 치고 야외에서 펼쳐지고 있다. 세 장면의 사이사이 경계에는 울긋 불긋한 활엽수를 각각 포치하여 공간구분을 하였다.

첫 장면은 가장 오른 쪽에 지붕 까지 오를 만큼 높은 키의 노송이 멋진 자태를 뽐내며 서 있고, 기와지붕은 굴곡지게 처리되어 있다. 차일이 펼쳐진 밑으로도 연회장면이 그려져 있다. 정 북쪽에는 산수가 그려진 6폭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7개의 방석과 음식이 놓인 朱漆 소반 7개가 놓여 있다. 이 자리는 분명히 주인공인 七太夫人이 참석하여 앉아있을 자리임이 틀림없지만, 그림에는 부인들은 그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바로 조선 중기 이후 儒敎觀念의 硬化로 인하여 ‘男女有別’이라는 사고가 가일층 심화된 결과로 풀이되며, 이점은 바로 여인초상화가 조선 후기 이후 제작되지 못한 원인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이 점은 1519(중종14년)년에 제작된 <己卯季秋花山養老宴圖>(보물 제1202호)에서 화첩의 한 면은 남자, 또 한 면은 여자 노인들의 연회도가 그려지고, 당시 여자노인들의 모습이 형상화되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東西 쪽에도 5폭 병풍을 두르고 각각 5인분의 방석과 주칠소반이 놓여 있는데, 이 역시 축하하기 위해 온 며느리나 여타 사대부여인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이런 생략된 부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화면의 아래쪽에는 여러 사대부들(시종신들로 추정)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은 烏紗帽에 담홍색 時服 차림에 角帶를 두르고 있는데, 獻壽하는 술잔을 기녀에게 전해주는 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자, 헌수 차례를 기다리면서 오순도순 모여서 있는 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 등 모두 15명이 그려져 있다. 시녀들도 여기저기 보이고, 오른 쪽 아래 구석 주칠한 立床 위에는 花瓶과 백자가 보여 연회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 사이에는 복두를 쓰고 있는 여러 樂工들이 보인다. 안쪽에서는 편경이 연주되고 있으며, 바깥쪽에서는 악공들이 두 열로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규모가 상당히 실록의 기록대로 왕이 내려준 것임을 말해준다. 두 번째 연회장면 역시 기와지붕 밑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기와지붕 위쪽으로는 희미한 산 능선이 보인다. 북쪽에는 5곡병풍이 쳐져 있고, 그 앞에는 역시 연회장면이 펼쳐진다. 북쪽에는 네 명의 사대부가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앞에는 역시 주칠소반이 놓여 있다. 이들은 서문에 의거하면 이날 경수연에 초대된 인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 서쪽으로 10명의 인물들 역시 시복을 입고 부좌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태부인의 아들과 사위라고 생각된다. 아래쪽으로 현악기, 장구, 피리 등 악기 연주자들이 보인다.

세 번째 연회장면은 건물은 없이 마당에 차일 만 치고 연회가 벌어지고 있다. 녹포를 입고 있는데, 위쪽에 9명이 있으며, 동서좌우로 각각 10명씩이 그려져 있다. 아래쪽에 네 명은 등을 보이고 앉아 있다. 아마도 이들은 손자나 외손자, 그리고 신분이 그다지 높지 않은 하객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수연회 그림은 돛자리나 계단, 건물들은 전혀 입체감을 살리지 않고 상당히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인물들은 이목구비와 수염 만을 간단하게 묘사했지만, 한 눈에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일목요연하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능란하게 묘사되어 있고, 인물들의 포즈 역시 다양하게 포착되어 있다. 특히 첫 번째 연회장면에서 경하 드리기 위해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대부이나 몸체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악공들의 자연스런 포즈는 기록화의 도식적 딱딱함을 벗어나 생생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다음에는 「七太夫人會宴座次」가 보인다. 일곱 명의 칠태부인과 경수연에 참석한 자손의 명단을 적은 것이다. 太夫人은 貞敬夫人 安東金氏(78세), 貞夫人 坡平尹氏(80세), 貞夫人 新平李氏(71세), 貞夫人 海南尹氏(71세), 貞夫人 淸州韓氏(79세), 淑人 安東權氏(75세), 孺人 文化柳氏(72세) 등의 순서로 적혀 있는데, 이는 좌차를 말한다. 태부인을 모시고 연회에 참석한 아들, 사위, 손자, 외손자의 명단은 직함, 자, 생년이 함께 적혀있다.

*좌차 다음엔 「侍從臣兵曹判書閔宗道等老母食物謝箋」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숙종으로부터 食物을 하사받은 다음 날 예궐하여 올린 사은전문이다. 시종신을 대표하여 정경부인 안동김씨의 둘째 아들이자 직품이 제일 높았던 민중도가 지어 올린 글이다.

*칠태부인경수연도의 끝부분에는 「慶壽宴圖序」가 보인다. 이 서문은 연회가 베풀어졌을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權璿(1639-1704: 정부인 신평이씨 아들)가 지은 것인데, 권해의 증손인 權朝彦(1710-1778)의 부탁으로 1745년 음력 7월 강세황이 쓴다는 부기가 있어서, 좌차, 전문, 서문 모두를 행사가 치러진 후 54년 만에 姜世晁(1713-1791)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칠태부인경수연도는 그림부분과 글씨부분의 제작시기가 동일하진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권해의 서문에 의하면 경수연을 마치고 시종신들은 ‘화공을 청하여 경수연도를 제작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이 일을 권해에게 맡기고 서문도 짓도록 하였다한다. 그러나 그 후 경수연도가 즉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1745년 강세황이 추서한 시기 이전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까닭은 두루마리에서 그림이 그려진 부분과 강세황이 추서한 글씨 부분이 모두 동일한 바탕 재질과 색을 보여주며, 그림과 글씨 부분을 이은 흔적 또한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시기엔가 그림이 그려지고, 좌차와 사전, 서를 쓸 공간을 비어두었다가 후에 권조연이 강세황에게 부탁하여 써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굳이 그림의 제작시기를 가늠해본다면 현재 여주에 전해오는 또 다른 경수연도가 부산박물관 소장본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채색법과 필법을 보여주고 있어 부산본 역시 여주본의 제작시기인 1711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상 및 소장 경위

- 부산박물관 소장 <七太夫人慶壽宴圖>는 1691년(숙종 17) 태부인 일곱 명의 장수를 축하하는 宴會를 그린 그림과 參宴者의 좌목, 謝箋, 序로 구성된 橫卷이다. 박물관 측 기록에 의하면 1979년 7월 7일에 구입된 유물임이 확인된다.

- <칠태부인경수연도>는 세로 63.5cm, 가로 688.3cm 크기의 황권으로서 현재의 상황은 개장된 것이다. 바탕에 가로·세로로 접히고 갈라진 흔적과 약간의 박락된

부분, 채색이 벗겨진 부분, 흑변 현상이 있는 부분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칠태부인경수연도>의 구성

①경수연 장면, ②경수연의 주인공인 일곱 명의 太夫人과 그들의 아들·사위·손자·외손자의 명단을 적은 「七太夫人會宴座次」, ③병조판서 閔宗道(1633-?)가 지은 「侍從臣兵曹判書閔宗道等老母食物謝箋」, ④참석자 중 한사람인 權階(1639-1704)가 지은 서문을 후손 權朝彦(1710-1778)의 부탁으로 1745년(영조 21) 음력 7월 姜世晁(1713-1791)이 追書한 「慶壽宴圖序」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七太夫人 慶壽宴의 설행 계기

1691년(숙종 17)년 윤7월 3일 대신 및 재신을 소견한 자리에서 숙종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侍從臣의 모친으로서 70세 이상인 자에게 食物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肅宗實錄』 卷23 17年 潤7月 3日條). 食物을 賜與받은 이튿날 민중도 등 16명이 예궐하여 謝恩箋文을 올렸으며, 모친을 모시고 경수연을 베풀어 왕의 은혜를 크게 넓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숙종은 선조와 인조 때의 옛 일, 즉 1603년과 1630년에 치러진 경수연의 예에 의거하여 장차 베풀어질 칠태부인의 경수연에도 음악과 물자를 내리라고 명령하였다(『肅宗實錄』 卷23 17年 潤7月 27日條). 따라서 이 경수연은 양로의 은혜를 베푼 聖恩에 감격한 시종신들이 이에 보답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노모에게 베푼 연회였으며 실질적으로는 賜宴의 형식으로 치러졌다. 권해의 서문에 의하면 이 경수연은 많은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력 8월에 三清洞 公廡에서 거행되었다.

<칠태부인경수연도> 원작의 완성 시기

권해의 서문에 의하면 경수연을 마치고 시종신들은 ‘畫工을 청하여 경수연도를 만들 것’을 논의하였으며 이 일을 권해에게 맡기고 서문도 짓도록 하였다. 정황으로 보아 행사 후 곧 경수연도의 제작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七太夫人會宴座次」에 권해는 홍문관 부제학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숙빈 안동권씨의 셋째아들 許頴은 홍문관 應敎로 기록되어 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권해가 副提學을 지낸 것은 1691년 8월 3일부터 1692년 1월 7일까지이며, 허경이 홍문관 應敎를 지낸 시기는 1691년 12월 10일부터 1692년 2월 17일까지이다. 따라서 애초에 慶壽宴圖가 완성된 시기는 행사 후 약 5개월이 지난, 1691년 12월 10일 이후부터 권해가 대사

헌을 제수받은 1692년 1월 8일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칠태부인경수연도>의 내용

①그림: 신분별로 구별된 세 군대의 宴席이 횡권이라는 화면 형식에 맞추어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 단순한 구도의 그림이다. 첫 번째 건물은 경수연의 중심이 되는 태부인과 여성의 宴席이 마련된 곳이다. 主壁에 한 줄로 앉은 7명의 태부인, 동·서벽에 나누어 앉은 부인들 각 5명의 자리가 산수병풍을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태부인과 부인들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獻壽하는 술잔을 기녀에게 전해주는 시종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시종신, 헌수 차례를 기다리며 이를 지켜보는 시종신 등 모두 15명이 그려져 있다. 시종신들이 헌수한 뒤에는 부인들도 차례로 태부인에게 헌수하였음을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건물 사이에는 編磬을 위시하여 14명의 악공과 執拍典樂이 그려져 있다. 두 번째 건물에는 아들과 사위들이 會습한 장면이 그려져 있다. 주벽에 앉은 4명은 서문에 의거하여 이날 경수연에 초대받은 大臣, 六曹의 判書, 學士大夫 등이라고 생각되며 동·서벽에 각각 10명씩 나누어 앉은 사람들이 바로 태부인의 아들과 사위라고 생각된다. 건물 앞에는 8명의 악공이 한 줄로 앉아 있다.

세 번째의 연석은 손자들의 자리로서 실내가 아닌 마당에 설치된 차일 아래에 설치되었다. 좌차 명단에 의하면 이날 참석한 태부인의 손자와 외손자는 모두 24명인데 화면에는 3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손자들 외에, 참석한 손님들이 추가된 것이라 생각된다. 음력 8월의 가을 정취가 단풍으로 표현되어 있다.

②「七太夫人會宴座次」는 일곱 명의 칠태부인과 경수연에 참석한 자손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座目的 성격을 지닌다. 태부인은 貞敬夫人 安東金氏(78세), 貞夫人 坡平尹氏(80세), 貞夫人 新平李氏(71세), 貞夫人 海南尹氏(71세), 貞夫人 淸州韓氏(79세), 淑人 安東權氏(75세), 孺人 文化柳氏(72세) 등의 순서로 적혀있는데 이는 좌차를 말한다. 자리배치는 태부인의 나이순이 아니라 外命婦의 작첩 순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부인을 모시고 侍宴한 아들, 사위, 손자, 외손자의 명단은 직함, 字, 생년이 함께 적혀 있다. 명단 중에 ‘貞夫人 海南尹氏’ 부분에는 ‘淸州韓’이라고 썼다가 ‘海南尹’으로 고쳐 쓴 흔적이 확인된다.

③「侍從臣兵曹判書閔宗道等老母食物謝箋」은 食物을 하사받은 이튿날 예궐하여 올린 謝恩箋文이다. 시종신을 대표하여 정경부인 안동김씨의 둘째아들이며 職品이 제일 높았던 병조판서 민종도가 지었다.

④「慶壽宴圖序」는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던 權階(1639-1704)가 지은 경수연도의 서문이다. 서문의 끝에 1745년 음력 7월 강세황이 권해의 증손인 權朝彦의 부탁으로 쓴다는 부기가 있어서 좌차, 전문, 서문 모두를 강세황이 행사가 치러진 후 54

년 만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권조언이 친구 강세황에게 이 경수연도를 보여주면서 이 본에는 序文이 빠져 있으므로 서문을 추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좌차, 전문, 서문을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인데 강세황 젊은 시절 글씨와 비교하면 서풍이 상통하므로, <칠태부인경수연도>의 글씨는 강세황이 쓴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현전하는 강세황의 행서는 많지만 이른 시기의 필적은 드물다. 글씨 중에 1737년(25세)에 쓴 『國朝書法』, 1744년에 쓴 『忝齋漫筆』의 「銘句」, 1747년(35세)에 쓴 <玄亭勝集圖>에 쓴 記文 등이 전하는데 그중에서 <현정승집도>의 서문 글씨와 매우 유사한 書風을 보여준다.

- <칠태부인경수연도>의 양식적 특징과 제작시기

전체적으로 중간 먹의 윤곽선은 가늘고 섬세하며 필선의 운용은 가벼우면서도 차분하다. 건물과 인물의 묘사에는 일정한 굵기의 유연한 필선을 구사하였으나 수목의 표현에서는 비수가 있는 한층 탄력있는 필선을 사용하였다. 인물의 이목구비가 모두 표시되었는데 입술은 적색으로 표현하였다. 나란히 열좌한 인물들은 같은 형태의 반복 없이 약간씩 다른 자세와 방향을 취하였다. 얼굴의 형태, 이목구비, 수염이 난 모양과 색, 머리카락 색 등을 각각 달리하여 인물 하나하나의 표현에 차별을 두려하였다.

강세황이 서문을 추서하면서 “蓋其故藏舊有序文而此本獨闕焉”라고 한 말은 원작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칠태부인경수연도>의 울이 가늘고 성긴 바탕은 글씨가 쓰인 부분과 그림이 그려진 부분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즉 비단의 오래된 정도나 재질이 동일하며 화면과 글씨부분을 이은 자국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림을 제작할 때 뒤에 글씨 쓸 것을 계획하고 여분의 비단을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칠태부인경수연도>는 17세기 말의 작품이라 해도 믿겨질 정도로 원작을 충실히 모사한 후대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18세기적인 특징은 입술을 붉은 색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 점, 의습선의 윤곽선 가깝게 복색과 같은 계열의 색으로 살짝 덧선을 긋거나 바림을 하여 풍성한 옷의 느낌이 살린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이본의 존재:** 같은 내용의 그림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5호 <여주군 경수연도>가 있다. 세부묘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양식과 화풍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헌자료>

『肅宗實錄』 및 『承政院日記』

李美也, 「16세기 조선중기 慶壽宴圖의 實跡」, 『釜山市立博物館 年報』 제8집,
부산시립박물관, 1985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1979년 부산박물관 소장될 때부터 현재 두루마리 형태의 상황이었는데, 그다지 오래 전에 상황된 것은 아니다. 몇 군데 비단이 들떠 있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꺾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고 안정된 상태이다. 맨 뒷부분 비단은 노화 및 오염이 덜 되어 밝은 빛을 띤다.

○ 내용 및 특징

1691년(숙종 17)에 고위 관리의 모친으로 70세 이상인 자들에게 나라에서 상을 내리자, 아들과 사위들이 잔치를 열고자 하여, 임금이 다시 물품과 악공을 하사하여 연회가 베풀어진 모습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 그렸다. 기록화에서 자주 쓰이는 부감시를 활용한 건물과 참석 인물, 그리고 악공들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림의 뒤를 이어서 1745년에 姜世晷가 權朝彦의 부탁으로 서문을 적었다. 글씨는 강세황 특유의 부드럽고 우아한 필치를 보여준다.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조선시대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달한 궁중 기록화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어 회화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더욱이 孝라는 유교 이념이 잘 반영된 소재와 독특한 형식을 취한 연회도이다. 즉, 왕실에서 주최한 왕족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고관들이 주최한 노모를 위한 행사라는 점, 대형 병풍 형식이나 화첩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예를 쉽게 찾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림의 양식에서도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부감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묘사로 사실적인 장면을 재현했다. 전형적인 진연도가 발달하기 이전의 초기 형식을 보여주며, 음악과 춤이 흥미롭게 등장하여 풍속적인 내용도 충실하게 담고 있다. 뒷부분의 강세황 글씨는 다소 거칠고 빠르게 쓰였지만, 왕희지 전통의 고전적 서체를 따른 명필 강세황 서예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보다 시기가 앞선 <宣廟朝諸宰慶壽宴圖>(1655년 이모)는 5개의 연회 장면이 화첩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모본이어서 화격이 다소 떨어진다.

강세황의 글에 따르면 다른 본에는 서문이 있지만 이것만 없어서 새로 글을 적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이 작품이 1691년 경수연이 열린 당시에 그려졌다

고 확정할 수는 없다. 기록화는 종종 후대에 임모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에 경기도유형문화재 145호로 지정된 여주의 또 다른 본의 <칠태부인경수연도>와 비교 조사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었다. 이에 2012년 11월 26일 여주본을 실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작품은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여주본의 경우 1711년에 쓰여진 서문과 좌목이 있으므로 이것이 그림의 하한년도가 된다. 따라서 부산박물관본의 경우에도 1691년에서 1711년 사이에 그림이 그려진 후, 1745년에 서문이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후기 기록화 중에서 경수연을 주제로 한 매우 이른 사례에 속한다. 그림이 정교하고 장식적이며 강세황이 서문까지 덧붙여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구/관계전문가

부산박물관 소장 七太夫人慶壽宴圖는 숙종대 관료들의 老母에게 베푼 경로잔치 그림이다. 횡축의 두루마리로 연회 그림, 연회에 참여한 일곱 老夫人과 자손들의 명단을 밝힌 ‘七太夫人會宴 座次’와 왕에게 올린 감사의 箋文, 그리고 그림의 내력을 밝힌 ‘慶壽宴圖序’ 순서로 꾸며져 있다. 본래 숙종 17년(1691) 8월에 가졌던 행사였으니 그 당시에 경수연도가 그려졌을 것인 바, 이 도권은 원본의 손상 때문인지 1745년에 다시 제작된 것이다. 좌차와 서문은 ‘경수연도서’를 지었던 權階(정부인 신평이씨의 아들)의 증손자 權國珍의 부탁으로 강세황이 썼다. 정교하게 쓴 강세황 30대 초반의 행서체를 잘 보여준다. 그림은 묘사기량을 갖춘 도화서 화원의 솜씨이고, 원본을 충실히 移模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본과 이 경수연도를 이모한 시간차가 54년이고, 숙종과 영조시절의 궁중기록화 형식의 변화가 적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도 그렇다.

서문과 좌차에 밝혀진 경노행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肅宗 十七年 八月 추석 즈음에, 왕은 나이 70세 이상의 어머니를 둔 측근 관료 집안에 쌀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安東金氏의 아들 工曹參議 閔安道와 工曹判書 閔宗道 등 일곱 부인의 아들과 사위 十六명이 감사의 상소를 올리고 慶壽宴을 마련하게 되자, 왕이 잔치비용과 樂工을 하사했다. 연회는 8월 19일에 三清洞 관아에서 개최되었다. 太夫人을 모신 7집안의 아들, 딸과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자손들이 연회에 참석하였다. 座次의 七太夫人은 七十八歲의 貞敬夫人 安東金氏, 八十歲의 貞夫人 坡平尹氏, 七十一歲의 貞夫人 海南尹氏, 七

十九歲의 貞夫人 淸州韓氏, 七十五歲의 淑人 安東權氏, 七十二歲의 孺人 文化柳氏 등이다.

경수연회의 그림은 세 장면으로 나뉜다. 그림의 시작은 S字형태의 소나무이다. 노송은 행사를 살짝 가리도록 길게 구부러져 있고, 건물주위 下段部에는 단풍물이 든 갈나무들이 건물 사이와 모서리 네 곳에 배치되어 있다. 건물이나 차일은 정면에서 본 입면도식으로 그리고 인물이나 나무는 측면상이다. 여기에 행사장면은 부감해서 내려다 본 평면도식이다. 이처럼 행사장면의 복합된 구성법은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의 전통으로, 숙종-영조시절의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고위 관료를 둔 노모들의 민간 경로잔치이면서도 궁중화 방식을 취한 것은 이 행사가 숙종의 배려로 진행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행사가 진행된 삼청동의 관아는 그 위치로 보아 掌苑署쯤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연회장면에는 정면의 主賓인 일곱 夫人 및 그 좌우에 마주한 며느리인 고관 부인들이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空席으로 처리되어 있다. 다만 방석과 음식을 얹은 소반은 빈틈없이 ㄷ자 모양으로 平行되게 차려져 있다. 主壁과 東西壁 뒤로는 17세기 화풍의 산수 병풍이 둘러져 있다. 여기에서 주변인 노모와 여인상 표현이 생략된 점이 눈길을 끈다. 궁중기록화에서 어좌로 왕을 대신하듯, 노모에 대한 예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행사장에는 노모에게 술을 올리거나 춤을 추거나 대기해 서있는 고관의 아들과 사위들의 의례가 진행된다.

연회 속의 악단은 둘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의 사이에는 綠衣를 입은 樂工들이 두 열로 앉아 연주한다. 박을 쥐고 선 洪의관복의 지휘자와 編磬을 앞세우고 節鼓와 管絃樂 등을 연주하는 악사의 배치는 임금이 내린 악단답다. 왼쪽 첫 번째 연회 장면을 위한 악단인 셈이다. 가운데 그림으로 칠태부인의 아들과 사위들인 24명의 관료 잔치에는 8명의 악사로 단출하게 축소되어 있다. 이 축소된 악단의 두 번째 연회 장면은 洪포관복 차림의 관리들이 주인공이다. 칠태부인의 아들과 사위들의 연회 장면으로 보인다. 앞의 두 장면이 관아의 기와집에서 진행된 반면, 세 번째 연회 장면은 차일이 쳐진 아래로 떨어져 있다. 갓을 쓴 젊은층들로, 좌차에 밝혀진 대로 칠태부인의 손자나 손녀사위 혹은 외손자 등으로 추정된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조선시대 고위 관리들의 노모를 위한 경노잔치 기록화로 유일하게 현존하여 가치가 높다. 비록 원본이 아닌 모사본이기는 하지만 모사 시기가 50여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원본에 충실한 점, 숙종과 영조 시절의 궁중기록화 형식이 유사했던 점, 좌차와 서문을 당대의 문예계 총수로 일컬어지는 표

암 강세황이 쓴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도 좋은 작품이다. 이와 함께 칠태부인경수연도와 같은 내용의 그림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145호 경수연도가 전한다. 1711년에 쓴 좌목과 서문이 딸려 있는 여주군 소재의 이 경수연도도 재조사하여, 그 가치가 인정되면 동시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도 무방할 듯 하다.

□ 구/문화재위원

- 名 稱: 七太夫人慶壽宴圖
- 時 代: 회화:1691년~1745년, 글씨:1745년
- 數 量: 1점
- 調 査 日 : 2008년 1월 29일
- 調 査 者 : 문화재전문위원 박은순
- 作 成: 2008년 5월 28일

가. 내용 및 특징

이 작품은 크게 세 종류의 그림과 이와 관련된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부분의 첫 번째 장면에는 여러 노부인들이 연회를 즐기는 상황이 재현되었고, 두 번째 장면은 노부인의 자식들인 관료들이 관복과 관모를 착용한 채 연회를 즐기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세 번째 장면은 일반 사대부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연회를 갖는 모습이 실려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 사이에는 주악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이 끝난 다음에는 행사의 내력과 그림을 제작한 연유를 적은 발문이 적혀 있는데, 글씨를 쓴 이는 姜世晁이고 글을 부탁한 이는 權朝彦이다.

기록된 발문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이 그림은 1691년 (숙종17) 8월 신축일에 삼청동의 公廡에서 이루어진 경수연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수연의 주인공은 각신들의 노모들 가운데 70이 넘는 노부인들이고, 경수연을 위하여 국왕인 숙종이 직접 물품을 하사하고 공적인 관아의 건물을 이용하는 등 국가적인 행사로서 치루어진 의미깊은 경수연이었다. 참석자는 7명의 대부인과 그의 자손 및 자손의 부인들, 그리고 특별히 초청받은 일반 사대부들이었다. 그림이 세 장면으로 나뉜 것은 이 다른 그룹의 인사들이 각기 다른 공간에서 연회를 가진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의 구성과 소재, 인물 및 계획의 표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들을 토대로 본다면 이 작품이 17세기 말 잔치를 즈음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문은 이 행사로부터 한참 뒤인 1745년에 강세황이 쓴 것이고, 그 연유는 발문 중에 밝혀져 있다. 강세황이 쓴 발문은 그림과 같은 비단 위에 연결되어 적혀 있고, 비단이 끊겨지거나 중간에 이어진 흔적은 없다. 발문의 서체는 강세황

서풍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어 강세황의 필적으로 여겨진다.

나. 조사자 검토의견

이 작품의 건본의 상태, 그림의 양식적 특징, 발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우선 이 작품은 1691년의 행사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한동안 발문없이 유지되다가 1745년에 참석자의 후손인 권조언이 강세황에게 부탁하여 뒤늦게 발문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유형문화재 145호로 지정된 또 다른 본의 <경수연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두 작품의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와 유물의 복사본 사진만을 본 상태이므로 선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두 작품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행사를 기록한 두 작품은 동일시기에 제작된 다른 작품들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두 작품 중 하나가 후대의 이모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정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여주본 경수연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지정 여부는 이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구/문화재전문위원

- 名 稱: 七太夫人慶壽宴圖
- 時 代: 회화:1691년~1745년, 글씨:1745년
- 數 量: 1점
- 調 査 日: 2008년 1월 29일
- 調 査 者: 문화재전문위원 조인수
- 作 成: 2008년 5월 28일

가. 내용 및 특징

화면 전체에 걸쳐 위쪽에 물결치는 듯한 경계선으로 상단의 구름을 나타내고 그 아래로 세 장면에 걸쳐 연회가 묘사되었다. 처음 두 연회는 기와가 덮인 건물의 내부에서 행해지고 마지막은 야외에 펼쳐진 차일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은 비스듬히 높이 솟은 소나무와 꽃나무 및 단풍나무로 시작하고 있다. 건물은 구름에 덮인 기와지붕에 차일을 높이 들어올린 모습으로 내부 공간이 넓게 보이며 나무 기둥이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다. 건물은 약간 높은 기단에 위치하여 정면에 계단이 있으며 기단의 양쪽 변은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위로 갈수록 좁아

지는 사선을 사용하여 원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연회 장면에는 정작 주인공인 노부인들과 다른 부인들을 묘사하지 않고 칠기상과 네모난 빈 자리로 인물의 참석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군왕, 왕비, 세자 등 중요한 인물은 표현하지 않는 일종의 忌諱에 해당하며, 동시에 조선 후기에 유교 이념의 강화로 여성들의 초상이 거의 제작되지 않았던 결과이다. 반면 시중드는 여인들과 예를 표하는 남성 자손들은 각각마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이목구비에 의한 감정을 드러내는 등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일정한 굵기의 선묘를 구사했는데 필선은 다소 도식적이며 생동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비교적 세장한 신체비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17세기 회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양식이다. 부인들을 위한 자리 뒤편으로는 산수화 병풍이 배열되었는데, 연폭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봉우리가 보인다. 전형적인 단선점준은 보이지 않으며 선염으로 산의 질감을 처리하고 있다.

첫째 연회 장면과 둘째 연회 장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이 있다. 각각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목구비를 표현하여 나이, 표정 등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연회 장면 역시 관복과 관모를 착용한 여러 인물들을 겹치게 배치하고 자세에 변화를 주어 그림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다. 건물의 기둥 부분은 곱팡이로 인하여 검게 변색된 부분이 있다.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하단에 3그루 나무가 채색을 사용하여 그려졌다.

마지막 연회 장면의 인물들의 경우 얼굴 이목구비의 묘법이 18세기 양식을 연상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맨 왼쪽 아래에서 두 번째 인물의 측면 얼굴은 김홍도 화풍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이 작품의 제작연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현재의 표구는 오래된 것이 아니며, 여러 군데 찢기고 결손된 작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다음에는 같은 비단에 姜世晷이 權朝彦의 부탁으로 서문을 적었다. 글씨는 강세황 특유의 부드럽고 우아한 필치를 보여주지만 다소 거칠고 빠르게 쓰여졌다. 그러나 왕희지 전통의 고전적 서체를 따른 강세황 서예의 면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사자 검토의견

현재 경기도유형문화재 145호로 지정된 여주의 또 다른 본의 <경수연도>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시중드는 여인들의 배치라든가 나무 형태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규장각 소장품의 <동문송별도>(1682년) 및

서울대박물관의 <권대운기로연회도>(1689년)과 비교해 볼 때 정교함은 다소 떨어진다.

강세황의 글에 따르면 다른 본에는 서문이 있지만 이것만 없어서 새로 글을 적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이 작품이 1691년 경수연이 열린 당시에 그려졌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기록화는 종종 후대에 임모되기 때문에 강세황이 글을 쓴 1745년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임모의 경우에서 종종 나타나는 도식적인 필치, 그리고 특히 그림 부분과 글 부분의 비단의 노화상태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에서 그렇다.

보다 정확한 제작 연대의 판정을 위해서는 여주본 <경수연도>와 정밀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은 아직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가. 검토사항

‘묘법연화경 권4~7’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묘법연화 권4~7’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3.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5.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3년 제3차 회의(06.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3.7.10~8.8)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 소유자(관리자) : 맹인호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345번길 38-7(경화동) 정암사
- 수 량 : 4권 1책
- 규 격 : 세로 27.0cm 가로 16.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1405년(태종 5)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調査本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翻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註解한 版本을 太宗 5(1405)년에 당시의 名筆家였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가 先親의 冥福을 祈願할 목적으로 書寫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道人 信文(?-?) 등의 주판 아래 全羅道 雲梯縣 兜率山 安心社에서 간행된 木板本의 初印本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板下本은 당시의 名筆家로 趙孟頫(1254-1322)의 趙松雪體에 능숙했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에 의하여 淨書된 것이며, 板刻의 完成度도 매우 높은 편이다. 印出된 紙質은 朝鮮 初期의 얇은 上品의 印經紙이고 墨色도 선명하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板本이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初期의 木板印刷術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妙法蓮華經」과 동일한 板本이 慶尙南道 金海市 大東面 草亭里 208의 圓明寺에 소장되어 있다. 圓明寺 所藏本은 이미 寶物 第961號(1988. 12. 28)로 指定되어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이 『묘법연화경』은 요진시대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 戒環이 주해하고 及南이 序한 계통의 것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성달생과 성개가 필사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에서 간행된 초간본 권4~7의 1책이다. 권말의 권근 발문에는 간행사실을 밝히고 있어서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당시의 명필가인 성달생, 성개 형제의 서체로서 판각도 정교한 편이며 얇은 종이임에도 먹색이 선명하니 다른 판서본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희귀본에 속한다. 이와 동일본이 寶物 第961號(金海 圓明寺 소장: 1988. 12. 28)로 指定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1405년 3월에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현재 원명사 소장의 동일한 판본 1책이 보물 제961호(1988. 12. 28)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을 알 수 있으며, 서지학과 불경 연구에도 도움을 주는 귀한 자료이다. 그 중에는 매우 얇은 종이에 인쇄된 장도 있어 당대의 초지법(抄紙法)이 매우 높은 수준을 알려주는 또 다른 가치를 보여준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妙法蓮華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344-413) 譯 ; 戒環(宋) 解 ; 成達生(1376-1444), 成概(?-1440) 書. -- 木板本. -- [全羅道 雲梯縣] : [兜率山 安心社], [太宗 5(1405) 推定].

4卷1冊(208張) : 上下單邊, 全匡 21.2×26.8cm 內外,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7.0×16.0cm. 楮紙(細薄印經紙). 線裝(五針眼訂).

板下本: 成達生(1376-1444)·成概(?-1440)

卷頭題: 妙法蓮華經

卷末題: 妙法蓮華經

板心題: 法

跋 文: 無上妙法取譬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 之本宗也戒環疏解精深簡切觀者瞭然易曉其/ 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今曹溪宗大選信希/ (6字隔間)等信奉此經誦持既久其於/ 無量義處固已深造而妙悟矣將推利澤廣霑無/ 垠欲以中字繕寫利[刊]行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 者皆得便於披閱其設心亦可謂弘矣前大護軍/ 成君達生時喪嚴君方在衰經間師此志欲爲先/

君追福乃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 道雲梯縣兜率山安心社倩
工鉸梓以壽其傳自// 今觀者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以延洪/國祚下
以普滌含靈功德之大豈易量哉永樂三(을유, 태종 5, 1405)/ 年春三月下
澣陽村權近(1352-1409)跋

施主秩: 兎山郡夫人金氏/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礪山郡夫人宋氏/ 岱三
成万 福大 上佐 元吉 金成 覓尔之/ 隨喜施主// 大功德主 徐元吉 內隱
伊/ 元錫智 韓新京 金元鎮 裴元眞 李珎/ 知印宋扁生/ 前別將金元吉/
前中郎將李仲雨/ 隨喜施主/ 前中顯大夫軍器尹楊鎮/ 前天涯寺住持中德
志頤/ 大施主/ 禪德 達嚴 志安 弘辯 能惠 義明 希珠// 前靈泉寺住持
大選 慶喜/ 同願施主 惣持宗大選 慈玉/ 禪和 德恬 芝粹 尙義/ 禪德
覺禪 鏡明 一沉 信然/ 禪師 覺雲 信了 行禪 信玄/ 大化主 禪師 明會/
前正山寺住持 大選 信沉/ 前五色寺住持 禪師 仁坦/ 前覺林寺住持 禪
師 行湖/ 勸緣

墨書: 上段部 頭註 및 本文部 口訣

未板刻: 第4卷 第34張 左面 未板刻 空白

張數: 卷4(60張), 卷5(37張), 卷6(57張), 卷7(54張)

表紙: 後代 改裝

狀態: 書背 一部 切斷

既指定: 寶物 第961號(卷4-7, 金海 圓明寺, 1988. 12. 28)

□ 現狀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慶尙南道 昌原市 鎭海區 慶和洞 920의 大韓佛教 曹溪宗 淨巖寺에 소장되고 있으며, 慶尙南道 昌原市 鎭海區 慶和洞 921-8의 大韓佛教 曹溪宗 淨巖寺의 住持인 祥雲(孟仁鎬)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祥雲의 道伴인 道學(黃天介)이 그의 恩師로부터 傳受하여 保管해 오다 淨巖寺에서 療養 중이던 1992년경에 祥雲에게 傳授한 幾種의 佛書 중의 하나인 「妙法蓮華經」 1책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保存狀態는 表紙의 改裝과 書背의 一部가 切斷된 것을 제외하면 매우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되지 않은 淨巖寺에 의해 守藏·管理되고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改裝하면서 右匡郭과 眼訂과의 間隔이 너무 좁게 裝訂하여 本文이 書腦 속에 묻혀 있으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한 7卷 28品の 佛敎經典으로 ‘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예로부터 모든 經典 중의 經典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초기 大乘經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佛敎經典이다. 「妙法蓮華經」은 天台宗의 根本經典으로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佛敎專門講院의 隨意科 科目으로 채택되었으며, 「華嚴經」과 함께 韓國 佛敎思想을 확립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經典이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妙法蓮華經」의 대부분은 宋朝의 戒環(?-?)이 宋 欽宗(靖康 1, 高麗 仁宗 4, 1126)년에 註解한 7卷本이며, 戒環(?-?)의 註解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그 내용이 韓國佛敎의 흐름과 일치하고 文章이 簡潔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木板으로 刊行된 가장 오래된 「妙法蓮華經」은 全羅南道 靈光의 佛岬寺 冥府殿의 十王像에서 卷3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략 150여종의 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板本の 系統은 參與 主體나 刊行手段에 따라 크게 成達生版本系와 甲寅字版本系, 乙亥字版本系, 貞喜王后版本系, 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진다.

調査本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翻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註解한 版本을 太宗 5(1405)년에 당시의 名筆家였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가 先親의 冥福을 祈願할 목적으로 書寫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道人 信文(?-?) 등의 주관 아래 全羅道 雲梯縣 兜率山 安心社에서 간행된 木板本の 初印本이다.

調査本 「妙法蓮華經」은 全7卷 중 卷4-7의 4권 1책본으로 卷頭題와 卷末題는 ‘妙法蓮華經’이며 版心題는 ‘法’이다. 冊의 張數는 卷4는 60張, 卷5는 37張, 卷6은 57張, 卷7은 54張으로 도합 208張이며, 第4卷 第34張 左面은 未板刻으로 인한 空白이다.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全匡은 세로 21.2cm 가로 26.8cm 內外이며, 本文은 界線이 없이 10行 20字이다. 板心에는 板口와 魚尾가 없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27.0cm 가로 16.0cm이다. 本文의 上段部에는 墨書의 頭註가 있으며, 本文 중에도 墨書의 口訣이 있다. 紙質은 얇은 楮紙의 上品 印經紙이고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으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으로 改裝된 線裝本이다. 表紙를 改裝할 때 書背의 一部分이 切斷되어 右匡郭과 眼訂과의 間隔이 너무 좁게 裝訂하여 本文이 書腦 속 에 묻혀 있다.

조사본의 冊末에는 陽村 權近(1352-1409)이 永樂 3(을유, 태종 5, 1405)년에 지은 跋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跋文에는 本書의 開板에 관한 來歷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施主秩에는 本書의 開板에 시주한 ‘兎山郡夫人金氏’와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등 數十人의 施主者가 列名되어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板下本은 당시의 名筆家로 趙孟頫(1254-1322)의 趙松雪體에 능숙했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에 의하여 淨書된 것이며, 板刻의 完成度도 매우 높은 편이다. 印出된 紙質은 朝鮮 初期의 얇은 上品의 印經紙이고 墨色도 선명하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板本이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究와 書誌學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初期의 木板印刷術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 발문

跋文: 無上妙法取譬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 之本宗也戒環疏解精深簡切觀者瞭然易曉其/ 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今曹溪宗大選信希/ (6字隔間)等信奉此經誦持既久其於/ 無量義處固已深造而妙悟矣將推利澤廣霑無/ 垠欲以中字繕寫利[刊]行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 者皆得便於披閱其設心亦可謂弘矣前大護軍/ 成君達生時喪嚴君方在衰經間師此志欲爲先/ 君追福乃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 道雲梯縣兜率山安心杜倩工鉸梓以壽其傳自// 今觀者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以延洪/國祚下以普滌含靈功德之大豈易量哉永樂三(을유, 태종 5, 1405)/ 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跋

높음이 없는 오묘한 법이 「妙法蓮華經」만한 것이 있겠는가. 기록을 주고 因果를 證驗함이 실로 漸次가 없으니 이는 모든 佛法의 근본이요 으뜸인 것이다. 戒環스님의 註解는 精深하고 簡切하여 讀者들이 쉽게 그 뜻을 깨우칠 수 있었으므로 역대로 이 법을 받드는 자들은 모두 중히 여겼다. 오늘날 曹溪宗의 大選인 信希스님 등이 이 經을 정성스레 信奉하며 讀誦하고 守持한지 이미 오래 되어 그 한량없는 뜻까지도 참으로 조예가 깊고 妙한 진리도 깨우쳤다. 장차 利로운 혜택이 넓게 번지고 끝이 없기를 기대하며 중간 글자로 繕寫하고 [刊]行하여 耆老들도 볼 수 있고 눈이 어두운 자들도 모두 펼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그 마음의 배품이 크도다. 大護軍을 역임한 成君 達生이 마침 先親의 喪을 당하여 巴야호로 衰經(喪服)을 입고 있을 사이에 成君이 이런 뜻으로 先親을 위하여 冥福을 받고자 이에 동생 概와 함께 이 經을 썼으며, 道人 信文이 全羅道 雲梯懸 兜率山 安心社에 住持하면서 工人들을 초청하여 木板으로 새겨 그 傳함을 오래토록 하였다. 지금부터 讀者들이 註解로써 經을 증명하고 經으로써 課業을 증명함이 계속되어, 위로는 國祚를 크게 드날리며 아래로는 含靈까지도 넓게 스미게 한다면 그 功德의 欸를 어찌 쉽게 헤아릴 것이겠는가. 永樂 3(태종 5, 1405)年 春3月 下澣에 陽村 權近(1352-1409)은 발문하다.

○ 지정사례

조사본 「妙法蓮華經」과 동일한 板本이 慶尙南道 金海市 大東面 草亭里 208의 圓明寺에 소장되어 있다. 圓明寺 所藏本은 이미 寶物 第961號(1988. 12. 28)로 指定되어 있다.

○ 기 타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慶尙南道 昌原市 鎭海區 慶和洞 920의 大韓佛敎 曹溪宗 淨巖寺의 住持인 祥雲(孟仁鎬)에 의하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되지 않은 淨巖寺에 의해 守藏·管理되고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改裝하면서 右匡郭과 眼訂과의 間隔이 너무 좁게 裝訂하여 本文이 書腦 속에 묻혀 있으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필요하다.

<문헌자료>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孟仁鎬 所藏 妙法蓮華經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이용현·김성균·이희정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0.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r/ 보물 제961호 묘법연화경 권4-7.
(圓明寺, 1988. 12. 28)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表紙는 개장되어 書背를 약간 자르고 오침안정을 하였다. 권4 첫 장 하단부가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배접하였고, 발문 마지막 부분은 손상되어 희미하다. 종이가 얇아 비치는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4-7 鳩摩羅什(344-413) 譯 ; 戒環(宋) 解 ; 成達生(1376-1444), 成概(?-1440) 書. 木板本. [全羅道 雲梯縣] : [兜率山 安心社], [太宗 5(1405) 推定].

4卷1冊(208張) : 上下單邊, 上하변 길이 21.1cm, 無界, 半葉 10行20字, 無魚尾 ; 27.0×16.0cm. 楮紙. 線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卷末題: 妙法蓮華經

板心題: 法

跋 文: 無上妙法取譬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 之本宗也戒環疏解精深簡

切觀者瞭然易曉其/ 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今曹溪宗大選信希/ (6字隔間)等信奉此經誦持既久其於/ 無量義處固已深造而妙悟矣將推利澤廣霑無/ 垠欲以中字繕寫利[刊]行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 者皆得便於披閱其設心亦可謂弘矣前大護軍/ 成君達生時喪嚴君方在衰經間師此志欲爲先/ 君追福乃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 道雲梯縣兜率山安心社倩工鉸梓以壽其傳自/ 今觀者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以延洪/國祚下以普滌含靈功德之大豈易量哉永樂三(대종 5, 1405)/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1352-1409)跋

施主秩: 兎山郡夫人金氏/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礪山郡夫人宋氏/ 僖三成万 福大 上佐 元吉 金成 彥尔之/ 隨喜施主// 大功德主 徐元吉 內隱伊/ 元錫智 韓新京 金元鎮 裴元眞 李珎/ 知印宋扁生/ 前別將金元吉/ 前中郎將李仲雨/ 隨喜施主/ 前中顯大夫軍器尹楊鎮/ 前天涯寺住持中德志頰/ 大施主/ 禪德 達嚴 志安 弘辯 能惠 義明 希珠// 前靈泉寺住持大選 慶喜/ 同願施主 摠持宗大選 慈玉/ 禪和 德恬 芝粹 尙義/ 禪德 覺禪 鏡明 一沉 信然/ 禪師 覺雲 信了 行禪 信玄/ 大化主 禪師 明會/ 前正山寺住持 大選 信沉/ 前五色寺住持 禪師 仁坦/ 前覺林寺住持 禪師 行湖/ 勸緣

未板刻: 第4卷 第34張 左面 未板刻 空白

張數: 卷4(60張), 卷5(37張), 卷6(57張), 卷7(54張)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흔히 줄여서 ‘법화경’이라 부르고 있다.

이 묘법연화경은 요진시대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 戒環이 주해하고 及南이 序한 계통의 것이다.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에서 성달생과 성개가 필사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 4~7의 1책이다.

권7말 권근이 태종 5년(1405) 3월에 쓴 발문에 의하면 조계종의 대선 信希 등이 법화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모두 중요시하고 있는데, 종래의 것은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워 이를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간행하여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때마침 부친 상중에 있던 前大護軍 成達生이 이를 듣고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우 成概와 함께 필사하였으며, 이를 도인 信文이 가지고 전라도 운제현 도솔산에 있는 안심사로 가서 판

각하여 보시한 것이 바로 이 판본이다.

그 판각은 대화주 선사 明會 등의 권연과 주선아래 총지종 대선 慈玉 등 여러 스님이 함께 발원시주하고, 또한 兎山郡夫人 김씨·前 司憲侍史 宋潔의 처 영인 元氏·礪山郡夫人 宋氏와 대공덕주 徐元吉·수희시주 前 中顯大夫 軍器 尹楊鎭 등 많은 단월이 시재하여 이루어졌다. 그 판식은 상하단변에 무계이고, 半葉 10行 20字에 좌우계선이 없는 판심에는 ‘法’ 卷·張次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本文의 口訣과 上段部에 頭註는 목서이다.

이 판본은 성달생, 성개의 독특한 서체이며, 판각도 정교한 편이어서 후쇄 또는 번각되어 조선후기까지 유통되었다.

<문헌자료>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孟仁鎬 所藏 妙法蓮華經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이용현·김성균·이희정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0.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88 지정편)』, 서울, 1989.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보통 법화경이라고 한다. “백련 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여러 한역본 중에서 구마라집(344~413)이 406년에 한역한 경전이 많이 간행되고 널리 유통되었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주해한 7권본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되었다. 그래서 고려시대 이후 계환의 주해본 7권본은 많이 간행되었으며, 현재 확인되는 고려시대의 판본만도 11종이나 된다. 조선시대에도 여러 계통의 판본이 전국적으로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 성달생서체(成達生書體)를 바탕으로 새긴 판본이 가장 많다. 성달생은 조선 태종 2년(1402)에 실시된 무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무인이지만 불경을 잘 썼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의 정서본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세종 4년(1422)에는 동생인 성개(成概), 신색(申檣) 등과 함께 금니(金泥)로 묘법연화경을 사성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정암사 소장의 이 책은 1405년에 전라도 안심사에서 당대의 명필인 성달생과 그의 동생인 성개가 필사한 정서본을 새긴 것이다. 성달생서체 계통본 중에서 가장 앞선 판본이다. 성달생은 이 판본 외에도 묘법연화경의 판각용 정서본을 두 차례나 더 마련하였는데 1422년에 고양의 대자암(大慈庵)에서 간행한 판본과 1443년에 고산의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그것이다. 그래서 현전하는 성달생

서체의 묘법연화경은 원간본만도 세 종류가 있다. 이후 조선후기까지 세 종류의 원간본을 바탕으로 근 50차례나 번각 간행되었다. 물론 1405년에 간행된 안심사 간행의 이 판본도 1417년에 전라도 문수사(文殊寺)에서 처음 번각되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이 영락 3년(1405) 3월에 쓴 발문이 있다. 발문에 기록된 간행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계종 대선(大選) 신희(信希) 등이 이 경을 신봉하여 송지(誦持)한지가 오래되었다. 중간 글씨로 잘 베껴 써서 눈이 어두운 노인들이 보기에 편리하게끔 하고자 하였다. 당시 아버지의 상중이었던 성달생(1376~1444)은 마침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우 성개(?~1440)와 함께 필사하였다. 도인 신문(信文)은 이것을 가지고 전라도 운제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 가서 간행하였다.

발문에 이어 “토산군(兎山郡) 부인 김씨” 등 시주질이 세 면에 걸쳐 있다. 전체는 권4(1-60장), 권5(1-37장), 권6(1-57장), 권7(1-54장)이며, 결락된 장은 없다. 다만 첫 장인 권4의 제1장의 판심부분과 마지막 장인 권7의 제54장의 우측 하단이 훼손되어 있다. 근래에 개장하였으나 안쪽의 글씨를 볼 수 없도록 꿰매어 놓은 것이 흠결이다. 향후 서책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가 요구된다. 사주단변, 무계, 10행20자, 무어미, 광곽의 상하크기는 21.2cm이다. 가운데 판심부분의 상부에는 “法”이라는 판심제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권수(卷數) 그리고 하단에는 각 권의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문헌자료>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孟仁鎬 所藏 妙法蓮華經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이용현·김성균·이희정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0.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3.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가. 심의사항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11.2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6.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3년 제4차 회의(8.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3.8.26~9.24)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 소 유 자 : 대한불교천태종 성륜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길7길 32(창천동) 성륜사
- 수 량 : 1책
- 규 격 : 세로 27.2(19.5) × 가로 17.3(13.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1486년(성종 17)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朝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요점을 초록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私見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라 題名한 佛書으로 成宗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明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판본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佛敎學 研究는 물론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 印刷文化 연구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을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현재까지 公開된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國家文化財(寶物)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序>와 <跋> 등의 缺落이 없는 無缺點의 版本인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현재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과 同一한 版本으로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와 韓雪鍾이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222號 등의 2種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는 序文과 跋文이 모두 缺落되었고, 韓雪鍾이박물관 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222號는 跋文은 있으나 序文은 缺落되었다. 그러나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현재까지 공개된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國家文化財(보물)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序>와 <跋> 등의 缺落이 없는 無缺點의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文化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불문에서 수행하는 후학들에게 觀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나라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節要’라 하고 이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삽입하여 찬술한 불서로서 조선 成宗 17년(1486) 여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서문과 발문 등이 갖추어진 완전본이며, 인쇄상태가 선명하니 새기자 바로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권말의 大傑 발문에는 이 책의 간행동기 및 간행제원의 명단이 수록되어 간행경위를 알 수 있고, 보조국사 지눌의 禪思想이 결집되어 있으므로 불교학 및 조선 전기 불서간행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동일본으로 지정된 보물 제1148호(명지대학교 1993.1)에는 서·발문이 모두 결

락되어 있고, 보물 제1222호(한솔제지 1995.7)에는 발문은 있으나 서문이 결락되어 있는데 이 성용사본은 서·발문 등이 완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요점을 간추려 정리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로 撰成하였다.

이번 조사본은 성종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조사본의 編成體裁는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상태가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판본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佛敎學 뿐 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래본이 매우 적은 貴重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同一한 版本의 傳來本으로는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148號>와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222號> 등의 2종이 있으며 모두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전라도 광주 무등산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版本들에 缺落된 <序>와 <跋> 등이 있는 우수한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문화재위원

○ 書誌記述

調査本「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 宗密(780-841) 原著 ; 知訥(1158-1210) 抄錄·私記. -- 木版本. --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推定].

不分卷1冊(61張) : 四周單邊, 半郭 19.5×13.8cm, 無界, 10行21字, 註雙行, 白口, 混上下內向黑魚尾·上下內向1·2葉花紋魚尾 ; 27.2×17.3cm. 楮紙. 線裝(改裝).

序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卷頭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卷末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版心題: 私記

內容目次: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跋, 刊記, 施主秩.

卷頭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八溪比丘蘿月堂 孤翁述/ 聞夫妙道冲虛不可以言語文字求也既非文與言/ 語又何從而悟之是以吾 佛大覺眼不耐見衆生/ 妄受輪轉故生於王者之室捐乎萬乘之榮沈影雪/ 山苦行然後始於鹿苑終至跋提開妙道於三乘乘/ 乘歸實闡一心於悲願願願度生故一佛之教密相/ 之隱顯律禪之異同無不備矣自迦葉已下西天四/ 七唐土二三雖不立文字亦不能忘言而授受之際/ 示靈知之心此不能不振一佛之教也自是以來/ 依悟修證者不可勝數但昧者不知耳予近讀此錄乃/ 成佛之捷徑修行之妙種故以承聖言再明深淺如/ 今學輩迷於禪教修心者以經論爲別宗講說者以/ 禪門爲別法聞談因果修證便推屬經論之家不知/ 修證正是禪門之本業聞說即心即佛便推屬胸襟/ 之禪不知心佛正是經論之本意乃吾訥師若不以/ 權實經論對配深淺禪宗焉得以教照心以心解教/ 耶禪門雖一傳法相違若南悅北秀保唐宣什等息/ 妄修心石頭牛頭下至徑山等無有一法洪州舉體/ 全真是敍各有所悟通少局多也唯荷澤圭峰知訥/ 等悟解昭然遂使迷者開有無之虛實示心性之靈/ 知故寶藏論云知有有壞知無無敗其知之知有無/ 不計如是開示靈知之心即真性能如是則後之學/ 者當取信於此法無取信於餘宗然從上諸祖密教/ 律禪之四宗共傳一佛之旨不可闕也何則教中謂/ 一佛乘無二無三安有四宗之別也譬如四序成一/ 歲之功而春夏秋冬之別也其所不別一歲之功密/ 宗春也教宗夏也律宗秋也禪宗冬也會而歸之密/ 宗乃宣一佛大悲拔濟之心教宗乃闡一佛大智開/ 示之心律宗乃持一佛大行莊嚴之心禪宗乃傳一/ 佛大覺靈知之心也且靈知內不涉思惟計較之情/ 外不可學問修證之功窮劫迄今皆自然了了常知/ 故擬心領荷早涉途程脫體承當翻成鈍置此別中/ 之開示也今之纂要意在斯焉彼按圖索馬者烏足/ 以知之嗚呼從凡趣聖離此無門須將明鏡一一攷/ 之

卷末刊記: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 菴開板

卷末跋文: 竊聞達磨來梁顯揚禪法曹溪已後宗習相垂講者/ 偏彰漸義禪者偏播頓宗禪講相嫌故我國普照國/ 師欲解他縛以如來三種教義印禪宗三種法門集/ 目別行以貽後學其弟子惠謀正宣等募工雕板自/ 是以來歲久字剝學者病焉大傑幸得人身獲聞法/ 要願以此法欲廣將來爲法忘於軀命愍人切於神/ 情故廻茲重鏤於諸梓上助無爲之妙化方冀茲緣/ 流施將日月而無窮斯福遐敷與乾坤而永大伏願/ 主上萬歲 世子千秋 文武和平/ 聖日與佛日常明 金輪與法輪雙運風調雨順歲稔/ 時康萬國歡欣四邊寧靜十方抱識同爲極樂之化/ 生法界含靈共作此因之成佛云成化二十二年丙/ 午(성종 17, 1486)夏孟日大傑謹跋

卷末施主秩: 書大施主李順基兩主/ 乃圭 信敬 正了 鄭童 成衆伊丞伊 長智/ 實相 石牛 性檐 安心 尹明兩主 金淡/ 杉戒 處良 信默 金得兩主 莫德/ 信牛 學乳 性沈 學道 趙哲山兩主 金守

/ 祖衍 惠中 浩月 蔡仁守 妙德/ 惠成 智牛 海澄 添思罔 朴得万 張亡達/ 默修 戒義 性悟 作板善牛 鄭玉江 丹之/ 上瓊 智紹 智正 斗明 尹玉同 矜伊/ 惠正 空印 크雄 信悟 鄭守安 文个/ 達空 크惠 學裕 刻義敬 周同彦 仏德 水山

出處: 佛腹藏遺物인 듯한 흔적이 있음

印文: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海’(卷頭)

狀態: 末張이 褙接되어 있고 部分的으로 漏濕의 痕迹이 있으며 前後의 原表紙 밖으로 表紙를 덧댄 형태로 改裝되었으나,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함

所有者: 大韓佛教 天台宗 星龍寺(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116-5)

管理者: 大韓佛教 天台宗 救仁寺 聖寶博物館(忠淸北道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 132-1)

既指定: 보물 제1148호(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 보물 제1222호(한솔중이博物館 所藏)

○ 現狀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朝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要點을 초록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라 題名한 佛書로, 성종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116-5의 大韓佛教天台宗 星龍寺의 所有로, 현재 소유자가 忠淸北道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 132-1의 大韓佛教 天台宗 救仁寺에 寄託하여 전문적인 保存施設이 갖추어진 救仁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守藏·管理되고 있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5cm 가로 13.8cm 内外이고 冊의 크기는 세로 27.2cm 가로 17.3cm 内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裝訂은 後代에 原表紙 밖으로 새로운 表紙를 덧대어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한 듯하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末張이 褙接되어 있고 部分的으로 漏濕의 痕迹이 있으며, 前後의 原表紙 밖으로 表紙를 덧댄 형태로 改裝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하나 부분적으로 紙類文化財 專門機關이나 褙貼匠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내용 및 특징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入寂 1년 전인 52세 때인 고려 희종 5(1209)년에 唐朝 宗密(780-841)이 저술한 「法集別行錄」에서 要點만을 抄錄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私見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라 제명한 佛書로 ‘節要’라 略稱하기도 한다.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禪思想이 결집된 수행의 指針書로 韓國佛教 講院教材 중의 하나이며, 일찍이 講院教材로 채택된 탓에 우리나라 高僧의 著述로는

드물게도 많이 刊行되었다. 現在까지 公開된 版本으로는 성종 17(1486)년의 無等山 圭峯菴과 順天 松廣寺 開刊本을 비롯하여, 선조 3(1570)년의 大靑山 解脫寺와 海州 神光寺 開刊本, 선조 7(1574)년의 開板處 不明本, 선조 11(1578)년의 五臺山 月精寺 開刊本, 선조 12(1579)년의 智異山 神興寺 開刊本, 선조 21(1588)년의 虎踞山 雲門寺 開刊本, 선조 37(1604)년의 智異山 能仁庵 開刊本, 선조 41(1608)년의 曹溪山 松廣寺 重刊本, 인조 6(1628)년의 朔州 龍服寺 開刊本, 인조 11(1633)년의 雪峰山 釋王寺 開刊本, 인조 13(1635)년의 雲住山 龍藏寺 開刊本, 인조 18(1640)년의 重刊本, 인조 25(1647)년의 慶尙道 普賢山 普賢寺 覆刊本, 숙종 6(1680)년의 妙香山 普賢寺 開刊本, 숙종 7(1681)년의 圓寂山 雲興寺 開刊本, 숙종 12(1686)년의 金華山 澄光寺 開刊本, 숙종 27(1701)년의 曦陽山 鳳巖寺 開刊本 등 무려 24종의 版本이 전래되고 있으며 合綴本과 註釋本도 數種이나 전해지고 있다.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우리나라 高僧의 연구 註釋書로는 淨源(1627-1709)의 「節要私記分要科」를 비롯하여 定慧(1685-1741)의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 有一(1720-1799)의 「法集別行錄節要科目并私記」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秋鵬(1651-1706)이 지은 <私記>도 있었음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唐朝 宗密(780-841)이 著述한 「法集別行錄」의 原著는 전해지지 않는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卷末에 나타나는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菴開板”이라는 刊記와 “...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孟日大傑謹跋”이라는 序文로 보아 成宗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の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公開된 朝鮮時代 刊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刊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명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판본이 아닌가 한다. 특히 蘿月堂 孤翁(?-?)이 지은 序文 2張과 성종 17(1486)년 4월 大傑(?-?)이 지은 跋文 1張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大傑의 跋文에 “永大伏願/ 主上萬歲 世子千秋 文武和平 / 聖日與佛日常明 金輪與法輪雙運風調雨順歲稔/ 時康萬國歡欣四邊寧靜十方抱識同爲極樂之化/ 生法界含靈共作此因之成佛云”이라 나타나듯, 主上和 王世子가 康寧하고 朝廷이 安定되어 온 나라가 和平하기를 祝願하는 마음에서 開板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卷末의 施主秩에는 開板에 관련된 “書大施主李順基兩主/ 乃圭 信敬 正了 鄭童 成衆伊丞伊 長智/ 實相 石牛 性檐 安心 尹明兩主 金淡/ 杉戒 處良 信默 金得兩主 莫德/ 信牛 學乳 性沈 學道 趙哲山兩主 金守/ 祖衍 惠中 浩月 蔡仁守 妙德/ 惠成 智牛 海澄 添思問 朴得万 張亡達/ 默修 戒義 性悟” 등의 施主者名을 비롯하여 “善牛 鄭玉江 丹之/ 上瓊 智紹 智正 斗明 尹玉同 矜伊/ 惠正 空印 크雄 信

悟 鄭守安 文个/ 達空 크惠 學裕” 등의 作板者名 그리고 “義敬 周同彦 仏德 水山” 등의 刻手名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卷頭에는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海’ 등의 印文이 踏印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명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판본이 아닌가 한다. 현재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과 同一한 版本으로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와 韓崙 종이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222號 등 2種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는 序文과 跋文이 모두 缺落되어 있고, 韓崙 종이박물관 所藏의 寶物 第1222號는 跋文은 있으나 序文은 缺落되어 있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현재까지 공개된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國家文化財(寶物)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無缺點의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기 타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116-5의 大韓佛教天台宗 星龍寺의 所有로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하며, 현재 所有者가 忠淸北道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 132-1의 大韓佛教 天台宗 救仁寺에 寄託하여 전문적인 保存施設이 갖추어진 救仁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守藏·管理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紙類文化財 專門機關이나 裱貼匠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關聯 人物 事項

知訥(1158-1210): 고려의 승려로 定慧結社를 조직해 불교의 개혁을 추진했으며, 頓悟漸修와 定慧雙修를 주장하며 禪教一致를 추구하였다. 俗性은 鄭氏이고 號는 牧牛子이며 諡號는 佛日普照國師이다. 고려 의종 12(1158)년에 洞州(黃海道 瑞興)에서 출생하였으며, 부친은 國學의 學正을 역임한 鄭光遇이고 모친은 開興郡(黃海道 延白) 출신의 趙氏이다.

의종 19(1165)년에 8세의 나이로 九山禪門 闍崛山派의 宗暉를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고 명종 3(1173)년에 具足戒를 받아 승려가 되었다. 어려서 큰 병을 앓아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그의 부모가 병만 나으면 출가를 시키겠다고 誓願을 하였으며, 그 뒤 병이 깨끗이 낫자 약속대로 出家를 시켰다고 전해진다.

출가한 뒤에는 25세 무렵까지 특별한 스승을 따르지 않고 經論을 자유롭게 읽으며 禪院을 찾아다니며 독자적인 禪의 사상체계를 세웠다. 명종 12(1182)년에 僧科에 합격하고 개성 普濟寺에서 열린 談禪法會에 참여해 10여명의 동료들과 뒷날

結社하기로 약속하였다. 지눌의 <勸修定慧結社文>에는 “이 모임이 과하거나 名利를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 定慧를 균등히 닦는 것으로 업을 삼는다. 禮佛과 경전 읽기, 노동으로 울력을 하는 데까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하여, 인연을 따라 심성을 수양하면서 평생을 구속 없이 지내 達士와 眞人の 높은 수행을 따른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에 이미 ‘定慧雙修’의 수행관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 뒤 昌平(전남 담양)의 淸源寺에서 중국 南宗禪의 창시자인 曹溪大師 慧能(638-713)의 「六祖壇經」을 보면서 心性の 본바탕을 발견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修道에 더욱 정진하여 28세 때인 1185년 下柯山(慶北 醴泉의 鶴駕山) 普門寺에서 3년 동안 「大藏經」을 공부하였다. 이때 「華嚴經」의 <如來出現品>과 李通玄(635-730)의 「新華嚴經論」의 영향을 받아 禪과 敎의 일치를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명종 18(1188)년에는 公山(慶北 永川 八公山)의 居祖寺로 거처를 옮겨 得才, 夢船 등과 함께 定慧結社를 조직하고, 명종 20(1190)년에 <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러나 명종 27(1197)년에 “미진한 나에게 이토록 많은 이들이 모이니 본래의 내 뜻을 잃을 정도”라며 智異山의 上無住庵으로 거처를 옮기고 수행에 정진했다. 이 무렵 중국 南宋 臨濟宗 楊岐派의 禪僧으로 看話禪을 提唱한 大慧禪師 宗杲(1089-1163)의 「大慧語錄」을 통해 3번째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신종 3(1200)년에 신라시대에 세워진 松廣山 吉祥寺(全南 順天 松廣寺)를 重建하고 그곳으로 定慧結社를 옮겨 수행과 敎化에 주력하였다. 당시 고려에는 義天(1055-1101)이 개창한 天台宗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曹溪大師 慧能(638-713) 이래의 南宗禪을 고수하던 승려들을 曹溪宗이라고 불렀는데, 知訥의 定慧結社는 그 중심으로 떠올랐다. 1205년 崔忠獻(1149-1219)의 武臣政權에 의해 새로 즉위한 熙宗(재위 1204-1211)은 松廣山 吉祥寺의 이름을 曹溪山 修禪社로 바꾸고, 知訥에게 滿繡袈裟를 하사하며 120일 동안 落成法會를 열게 하였다. 이는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敎宗과 天台宗 승려들이 대체로 武臣政權에 敵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립하던 曹溪宗을 지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知訥은 修禪社에 머무르며, 「金剛經」과 慧能의 「六祖壇經」, 宗杲의 「大慧語錄」, 李通玄(635-730)의 「新華嚴經論」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쳤다. 그리고 「圓頓成佛論」(1202), 「誠初心學入門」(1205), 「華嚴論節要」(1207), 「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1209) 등을 저술하며 자신의 사상을 體系化하였다.

知訥은 희종 6(1210)년 3월 27일 53세의 나이로 入寂하였다. 熙宗은 그에게 ‘佛日普照國師’라는 시호와 함께 그의 묘탑에도 ‘甘露’라는 이름을 내렸다. 저술로는

「勸修定慧結社文」, 「修心訣」, 「圓頓成佛論」, 「看話決疑論」, 「眞心直說」, 「誠初心學入門」, 「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 「華嚴論節要」, 「念佛要門」, 「六祖慧能大師法寶壇經跋」 등이 있으며, 그밖에 「法語歌頌」, 「上堂錄」, 「禪覺銘」 등은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제자로는 ‘儒佛一致說’을 주장한 慧謙(1178-1234) 등이 있다.

知訥은 고려 후기 혜능의 南宗禪 전통을 계승한 曹溪宗을 中興시켜 이른바 ‘曹溪宗의 開祖’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宗派로서의 曹溪宗의 名稱은 知訥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知訥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불교의 최대 종파인 ‘大韓佛教 曹溪宗’은 8세기 신라에 禪宗을 들여와 迦智山派를 개창한 道義를 개조로 하고 있으며, 지눌은 中闡祖, 고려 말기의 臨濟宗 승려인 普愚(1301-1382)를 中興祖로 받들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知訥>

<문헌자료>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星龍寺 所藏本.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明智大學校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148호.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한솔종이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222호.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篇, <星龍寺 所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國家文化財(寶物) 指定 申請書>. 서울: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2010.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原表紙 위에 새 표지를 덧댄 改裝 형태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장은 襟接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漏濕의 痕迹이 있으나 판면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서지사항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 知訥(1158~1210)撰述

木板本.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 조선 성종 17(1486)板刻,

不分卷1冊(61張), 四周單邊, 半郭 19.5×13.8cm, 無界, 半葉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7.2×17.3cm. 楮紙. 線裝.

卷頭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卷末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板心題: 私記

序文: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八溪比丘蘿月堂 孤翁述

卷末: 大安元年己巳(고려 희종 5, 1209)夏月日 海東曹溪山牧牛子知訥私記

刊記: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開板.

跋文: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孟日 大傑謹跋.

卷末施主秩: 書大施主李順基兩主 乃圭 信敬 正了..... 漆 思罔 朴得万.....作 板
善牛 鄭玉江.... 刻 義敬 周同彦 仏德 水山

○ 내용 및 특징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불문에서 수행하는 후학들에게 觀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나라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節要’라 하고 이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삽입하여 엮어낸 불서이다. 줄여서 『節要』라고도 한다. 권말에 “大安元年己巳夏月日 海東曹溪山牧牛子知訥私記”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고려 희종 5년(1209) 여름에 찬술되었다.

이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조선 성종 17년(1486) 여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권말의 大傑 발문에 의하면 보조국사의 제자인 惠諶(1178~1234)·正宣 등이 刻工을 모집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그 뒤 오랜 세월이 경과되자 새긴 글자에 剝缺이 생겨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대걸이 그 傳來本에 의거 성종 17년(1486) 여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에서 개간한 것이 바로 이 판본이다. 판각에 있어서 上梓用筆書本은 대시주인 李順基兩主의 시재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밖의 간역은 乃圭등 50여명의 승려와 단월로 부터 지원 받은 시주로 판의 옷칠을 思罔 등이 하고, 作板은 善牛·斗明·信悟 등이 하였으며, 刻手는 義敬 등이 맡아 하였다.

권두 하단에는 ‘石海’, ‘金永源印’과 판독이 안 되는 인장 등이 날인되어 있고, 蘿月堂 孤翁이 지은 서문과 성종 17년(1486)에 대걸이 쓴 발문 등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판본이다. 인쇄상태가 선명하니 새기자 바로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節要』는 지눌의 禪思想을 바탕으로 참다운 수행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 불교전문강원에서 四集科의 필수교재의 하나로 채택 이용되었기 때문에 빈번히 간행되어 20여종이 넘는 다양한 판종이 유통되었다. 그중 조선조에서 간행된 精刻本으로는 간행기록이 명시된 판본으로는 이것이 앞선 善本이며, 같은 판본이 보물 제 1148호(명지대학교 1993. 1)와 보물 제1222호(한솔제지 1995. 7)로 각각 지정되었다.

<문헌자료>

- 서울시文化財委員會편,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시文化財委員會, 2011.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92~93 지정편)』, 서울, 1994.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94~95 지정편)』, 서울, 1996.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관계전문가

○ 書誌記述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 宗密(780-841) 原著 ; 知訥(1158-1210) 抄錄·私記.
-- 木版本. --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1冊(61張) : 四周單邊, 半郭 19.5×13.8cm, 無界, 10行21字, 註雙行, 白口, 混上下內向黑魚尾·上下內向1·2葉花紋魚尾 ; 27.2×17.3cm. 楮紙. 線裝(改裝).

<주기 사항>

序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卷頭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卷末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版心題: 私記

內容目次: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卷頭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卷末刊記: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 菴開板

卷末跋文

卷末施主秩

出處: 佛腹藏의 흔적이 있음.

印文: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海’

○ 現狀

마지막 장을 배접하였고 부분적으로 漏濕의 흔적이 있으며 앞뒤의 原表紙가 있고 겉으로 表紙를 덧대 개장하였으며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보존복원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 동일판본

寶物 第1148號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

寶物 第1222號 (한솔종이박물관 소장)

○ 내용 및 특징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요점을 간추려 정리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로 撰成하였다.

이 불서는 성종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禪思想 수행의 지침서로 여러 차례 刊行되었다. 現在까지 알려진 版本으로는 성종 17(1486)년의 無等山 圭峯菴과 順天 松廣寺의 開刊本을 비롯하여 무려 24종의 版本이 전래되고 있으며 合綴本과 註釋本도 몇종 전해지고 있다.

조사대상 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卷末에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菴開板”라고 刊記와 서문의 “...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孟日大傑謹跋” 기록으로 보아 成宗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朝鮮時代 刊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刊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명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판본으로 보인다. 특히 蘿月堂 孤翁(생몰년 미상)이 지은 序文 2張과 성종 17(1486)년 4월 大傑(생몰년 미상)이 지은 跋文 1張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卷末의 施主秩에는 開板에 관련된 施主者名을 비롯하여 作板者名 그리고 “義敬 周同彦 仏德 水山” 등의 刻手名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卷頭에는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海’ 등의 印文이 새겨진 所藏印 있다.

조사본의 編成體裁는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상태가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판본으로 보인다.

다.

이 판본은 佛敎學 뿐 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래본이 매우 적은 貴重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同一한 版本의 傳來本으로는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148號>와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222號> 등의 2종이 있으며 모두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148號>는 序文과 跋文이 모두 缺落되어 있고,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222號>는 跋文은 있으나 序文은 缺落되어 있다.

이미 國家文化財(寶物)로 지정된 版本들과 비교해 볼 때, 조사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보다 더 우수한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헌자료>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星龍寺 所藏本.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明智大學校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148호.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한솔종이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222호.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篇, <星龍寺 所藏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國家文化財(寶物) 指定 申請書>. 서울 :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2010.

4. 황리현명 청동북(黃利縣銘 靑銅金鼓)

가. 심의사항

‘황리현명 청동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황리현명 청동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2.8.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7.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3년 제4차 회의(8.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지정예고(’13.8.26~9.24)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0호
- 명 칭 : 황리현명 청동북(黃利縣銘 靑銅金鼓)
- 소유자 : 동아대학교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구
- 크 기 : 前面 直徑 32.9cm
前面 撞座 直徑 10.7cm
前面 中區 徑 21.6cm
前面 外區 徑 32.9cm
側面 幅 8.3cm
後面 外徑 35.6cm
後面 內徑 27.5cm
後面 口緣 幅 4.1cm
後面 口緣 윤곽선 0.96cm
고리 幅 3.2cm
고리 高 2.6cm
고리 구멍 직경 0.9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반자형 금고
- 조성연대 : 1085년(고려 선종 2)
- 작 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부산 황리현명 청동북은 고려 선종 2년인 1085년에 현 경기도 여주의 고려 초기 지명인 황리현의 호장(戶長)이자 鄉職의 무산계급 중 정9품인 인용부위 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황리현과 인접한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에서 출토되었다. 법천리는 고려 11세기에 융성했던 法泉寺가 위치한 곳이지만 명문에 施納 사찰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형태는 앞면을 내외구로 구분하여 내구에는 연화문 당좌, 외구에는 운문을 배치한 점, 뒷면에는 넓은 공명구가 뚫려있고 측면에는 현수용 고리와 명문을 음각한 점에서 고려시대 반자의 전형을 갖추고 있다.

이 반자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나 앞면 구성의 짜임새나 뒷면의 凹形線, 측면의 명문 등을 고려할 때 공예기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 통일신라시대의 咸通6年銘 金鼓(865년) 이후 고려시대 작인 咸雍9年銘 瓊巖寺 金鼓(1073년), 大康10年銘 法海寺 金鼓(1084년)에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기년명 금고로는 4번째로 오래된 유물이라는 점, 명문의 명확한 조성연대는 물론 고려시대 지방자치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안원년명 반자는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면서도 명문이 남아있는 11세기의 몇 점 되지 않은 편년 작품이라는 점에서 고려 금고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더욱이 최근 이보다 조금 뒤늦게 제작된 대안 7년명 금인사 반자(1091)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작품 역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전면을 굽은 동심원으로 3부분으로 구획하고, 당좌구와 내구에는 연씨와 연꽃, 외구의 공간에는 비행하는 구름문을 배열한 조화로운 구성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구획

과 문양의 배치는 함옹(咸雍) 9년(1073) 경암사명(瓊巖寺銘) 반자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강(大康) 9년(1084) 법해사명(法海寺銘) 반자나 양산 내원사 청동북(1091년) 등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금고들과도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면을 3등분하여 연씨→연꽃→구름무늬 순으로 문양을 배치한 형식은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고, 이 금고는 이러한 양식의 초기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금고는 측면 음각명문을 통해 대안(大安) 원년(元年) 을축(乙丑, 108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황리현 호장 겸 인용부위인 민(閔)이라는 제작주체, ‘반자(半子)’라는 공예품의 분명한 명칭, 향리에게 무산계 정9품인 인용부위의 관직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11세기 금고 양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고려시대 불교공예사는 물론 관계(官階)·관직(官職)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이 반자는 함통(咸通) 6년명(865) 금구(禁口, 국립중앙박물관), 함옹(咸雍) 9년명(1073) 반자(盤子, 국립중앙박물관), 대강(大康) 10년명(1084) 반자(鉞子, 일본소재)에 이어 4번째로 오래된 것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반자가 원주 법천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므로, 지정명칭은 이미 지정된 출토 공예품의 예에 따라 출토지명을 따서 ‘전 원주 법천리 청동북(傳 原州 法泉里 靑銅金鼓)’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1. 현상 및 소장 경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금고는 뒷면이 넓게 뚫린 일반적인 형태로 앞면 직경이 32.9cm, 중량 6270g인 비교적 소형이다.(그림1) 앞면은 太線의 좌우를 細線으로 장식한 太條線帶로써 內·外區로 나누었는데, 내구는 다시 태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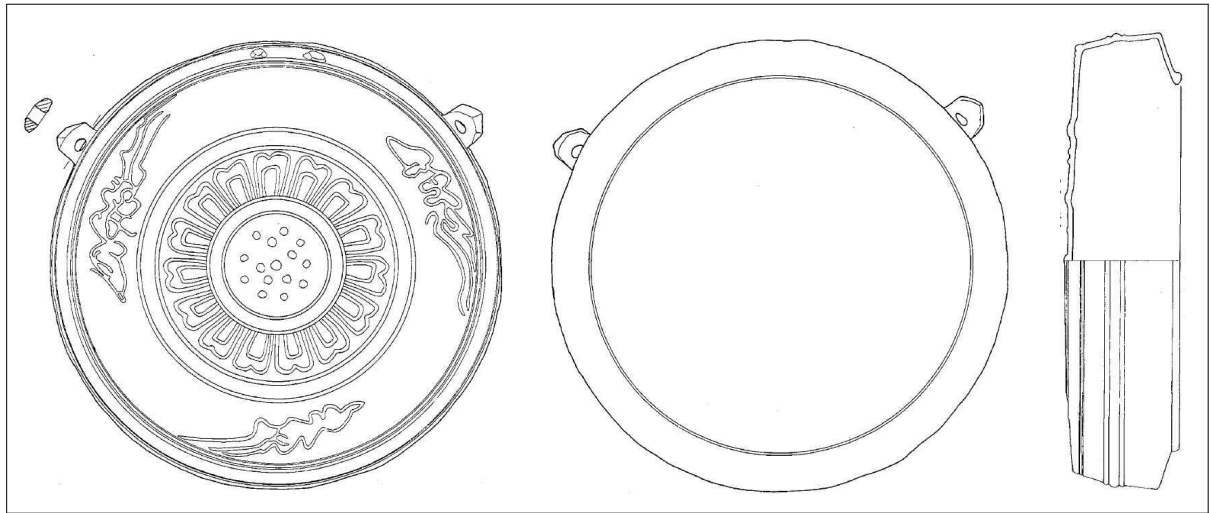
대로써 二分하여 1+5+9의 蓮顆와 15개의 重瓣 연화문을 배치해 당좌로 삼았고 외구에는 3개의 飛雲文을 배치했다.(그림2) 측면에는 懸垂를 위한 2개의 고리와 조성년대를 알려주는 음각명문이 있으며, 뒷면은 짧은 전과 넓은 共鳴口가 형성된 盤子形 금고이다.(그림3)

이 금고는 동아대학교 박물관 유물카드를 참고하면 원래 1966년에 강원도 原成郡(현 원주시) 富論面 法泉里에서 출토된 것을 1970년 4월 22일에 서울(중구 회현동 3가 1번지) 거주 玄基萬으로부터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장해온 것이라고 한다. 표면에는 출토 당시의 흙이 붙어있고 자연적인 산화작용으로 인해 푸른 녹이 넓게 퍼져있으며, 붉은 녹과 부분적인 부식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에 대해서는 심봉근 교수가 연구하여 1986년에 2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¹⁾ 2012년 9월20일에는 보존·관리의 필요성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되었다.

2. 내용 및 특징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많이 슨 이 금고는 고려시대 금고로는 세 번째로 오래된 기년명 금고로 국내에서는 瓊巖寺金鼓(1073년)에 이어 두 번째 오래된 유물이다. 형태는 마치 납작한 鉢처럼 앞면은 약간 배가 나왔고 뒷면 전은 斜面지게 들려있어 풍만감이 있다. 이런 풍만감은 가장 이른 紀年銘인 통일신라시대 咸通六年銘金鼓(865년)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구의 연화문 당좌는 15개의 연과와 15개의 중엽화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연판의 모양은 통일신라시대 연화문 와당에서 보여지는 연판이 변화된 느낌이다. 외구에는 고리가 벌어진 운문 3개가 左→右 방향으로 날고 있다.(삽도1) 이와 유사한 표면구성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충주 안립동 사지에서 출토한 禪義林寺 金鼓(1190년), 안성 봉업사에서 출토된 奉業寺 金鼓(1217년)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두 금고에는 8개의 2중 화형 안에 1+8개의 연과를 배치해 연밥임을 표현한 점과 3개의 운문이 마주 보는 1쌍으로 된 점만 다를 뿐 연판의 표현은 大安七年銘 金鼓가 좀 더 사실적이다.

1) 沈奉謹, 「高麗青銅盤子研究」, 『考古歷史學志』 2(東亞大學校博物館, 1986), pp.85~117; 沈奉謹, 「고려 佛具의 分析-青銅飯子를 中心으로-」, 『石堂論叢』 11(1986), pp.5~42.



삽도1. 대안원년명 반자의 실측도(심봉근, 「高麗 靑銅飯子 研究」, p.99에서 발췌)

측면에 있는 2개의 고리는 일반적인 금고 고리 형태인 [∩]꼴의 半圓形이 아니라 그 끝이 [八]꼴로 각이진 것이었으나 향좌측 고리는 약간 부서진 상태이다.(그림4) 이 고리와 고리 사이인 측면 상단에는 2개의 납작한 돌출부분이 있는데, 이는鑄成할 때 鎔湯이 주입되는 주입구와 공기가 빠져나오는 공기 배출구이다.(그림5) 측면은 굽고 납작한 태조선대로써 二分하여 구연부 쪽에 1행으로 다음과 같은 총 30자의 명문을 음각하여 조성년대와 發願者, 化主, 금고 명칭을 알려주고 있다.

〈銘 文〉

「大安元年乙丑七月日 黃利縣戶長仁勇副尉閔 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이 금고는 현재 표면에 부식이 진행되어 군데군데 조금씩 파인 상태이며 뒷면에도 청녹이 넓게 슬어 있다. 뒷면은 원래 앞면의 태조선대의 돌출부분만큼 무게를 줄이기 위해 똑같은 모양의 凹形線이 있어 면이 고르고 얇게 만든 주조기술은 뛰어났던 것 같다.(그림6, 7) 구연부의 윤곽선도 비교적 두텁고 고르게 마감하였으나 역시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고리부분도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그림8, 9)

내원사 금고(1091년)보다 조형적으로나 보존상태가 다소 떨어지나 명문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명문을 분석해보면 “대안 원년 을축년 7월일에 황리현 호장 인용부위 민(閔) 등의 동량이 마음을 같이하여 반자 1구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고려 선종 2년인 1085년에 주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咸通6年銘 金鼓(865년), 고려시대 작인 咸雍9年銘 瓊巖寺 金鼓(1073년), 大康10年銘 法海寺 金鼓(1084년)에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紀年銘 금고로는 4번째로 오래된 유물

이다. 먼저 ‘大安’은 1085년~1094년까지 쓰여졌던 遼 道宗때의 년호로 도종이 재위 10년마다 바꾼 淸寧, 咸雍, 大康 다음의 4번째 년호이다.²⁾ 요대 연호는 고려 11세기 금속물에 자주 등장하는데 文宗 말년인 1072년부터 북송과의 공식외교를 재개했음에도 여전히 요의 년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해준다. 발원자인 ‘閔’은 황리현의 호장이자 인용부위였는데, 그가 관할한 황리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으로 고려 초에 황려현으로 고친 곳이다. 현종 9년(1018)에 내속시켰으며 뒤에 감무를 두었다.³⁾ 이후 충렬왕 31년에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또한 여주목의 주민 성씨는 이씨와 민씨가 먼저 기록되어 있으므로 발원자 ‘閔’은 성씨로 생각된다. 다음 ‘戶長’이라는 직급은 『高麗史』, 「選舉志」에 인물을 심사하여 적당한 자리를 작정했던 제도인 <銓注> 항목에 “성종2년(983)에 鄉職을 개정하면서 堂大等を 호장으로 하였으며 목종 원년(998)에는 호장의 나이 70세가 되면 安逸호장으로 정했다.”고 한다.⁴⁾ 이후 현종9년(1018)에 인구 1000丁 이상이면 호장을 8명 두는 등 그 수에 따라 차등한 정원이 있었으나 현종13년(1022)에 崔士威의 건의에 의해 향리의 칭호가 너무 복잡하니 이후 모든 주, 부, 군, 현의 아전은 그대로 호장으로 정하였던 것이다.⁵⁾ ‘仁勇副尉’는 무산계인 虛職으로 향리를 우대하면서 그들로부터 役을 징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부여된 것이었다. 『高麗史』, 「百官志」의 <武散階> 항목에 “고려 건국초기에 무관도 역시 대광, 정광, 좌승, 대상이란 품계가 있었고 성종14년(995)에 무관 산계를 제정하였는데 모두 29등급이 있다. 정9품의 상은 인용교위, 하는 인용부위, 중9품의 상은 배용교위, 하는 배용부위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戶長 閔은 정9품의 상인 교위에 이은 부위로 27번째 등급에 해당된다.⁶⁾ ‘棟梁’은 佛事를 성사시키는 化主이다. 명문 중에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 ‘半子’인데 불교의식 범구인 금고

2) 遼 道宗(1055~1101)의 년호는 淸寧(1055~1064), 咸雍(1065~1074), 大康(1075~1084), 大安(1085년~1094), 壽昌(1095~1101)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 <驪州牧>, “本高句麗骨乃斤縣, 新羅景德王, 改名黃驍, 爲泮川郡領縣. 高麗初, 更今名【一云黃利縣】. 顯宗九年, 來屬. 後置監務.”

4) 『高麗史』, 「選舉志」3, <銓注>, [鄉職], “成宗二年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郎中爲戶正, 員外郎爲副戶正, 執事爲史, 兵部卿爲兵正, 筵上爲副兵正, 維乃爲兵史, 倉部卿爲倉正.”; 同 “穆宗元年三月判諸州縣戶長, 年滿七十, 屬安逸.”

5) 『高麗史』, 「選舉志」3, <銓注>, [鄉職], “顯宗九年 定凡州府郡縣, 千丁以上戶長八人副戶長四人, 兵正·副兵正各二人, 倉正·副倉正各二人, 史二十人, 兵倉史各十人, 公須食祿史各六人, 客舍藥店司獄史各四人.”; 同 “十三年四月 崔士威奏, ‘鄉吏稱號混雜, 自今, 諸州府郡縣吏, 仍稱戶長, 鄉部曲津驛吏, 只稱長.’ 從之.”

6) 『高麗史』, 「百官志」2, <武散階>, “國初, 武官亦以大匡·正匡·佐丞·大相爲階, 成宗十四年, 定武散階, 凡二十有九...(중략)...正九品上曰仁勇校尉, 下曰仁勇副尉, 從九品上曰陪戎校尉, 下曰陪戎副尉.”. 무산계는 모두 6등급으로 나누어 녹봉을 받았는데, 인용부위의 녹봉은 5번째 등급으로 전 20결이었다. 『高麗史』, 「食貨志」1, <田制>, “武散階. 田三十五結, 柴八結 冠軍大將軍, 雲摩將軍...(중략).. 田二十結 宣折校尉, 同副尉, 禦侮校尉, 同副尉, 仁勇校尉, 同副尉, 陪戎校尉, 同副尉.”

는 명문에도 盤子·半子·飯子·飯子·鉢子·鉢子·鉢子·鉢子·鉢子·鉢子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동안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이를 구별해서 사용했음을 感恩寺 飯子(1351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명문에 “飯子, 小鐘과 禁口 등을 만드는 일은 왜적이 이 물건들을 훔쳐갔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半자와 禁口를 구별하고 있어 그 형태에 따라 명칭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⁷⁾ 반자가 가장 일반적 형태이고 금구는 반자보다 공명구가 좁은 것을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紀年銘 포함 干支銘 금고는 대략 55점 정도인데, 그중 반자는 한문 표기는 다르나 약 30여점 이상 남아있다.(표1 참조)

3. 조사자 의견

부산 황리현명 청동북은 고려 선종 2년인 1085년에 현 경기도 여주의 고려 초기 지명인 황리현의 호장(戶長)이자 鄉職의 무산계급 중 정9품인 인용부위 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황리현과 인접한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에서 출토되었다. 법천리는 고려 11세기에 융성했던 法泉寺가 위치한 곳이지만 명문에 施納 사찰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형태는 앞면을 내외구로 구분하여 내구에는 연화문 당좌, 외구에는 운문을 배치한 점, 뒷면에는 넓은 공명구가 뚫려있고 측면에는 현수용 고리와 명문을 음각한 점에서 고려시대 반자의 전형을 갖추고 있다.

이 반자는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나 앞면 구성의 짜임새나 뒷면의 凹形線, 측면의 명문 등을 고려할 때 공예기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 통일신라시대의 咸通6年銘 金鼓(865년) 이후 고려시대 작인 咸雍9年銘 瓊巖寺 金鼓(1073년), 大康10年銘 法海寺 金鼓(1084년)에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기년명 금고로는 4번째로 오래된 유물이라는 점, 명문은 명확한 조성년대는 물론 고려시대 지방자치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황리현명 청동북은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금고는 고려시대 작인 固城 玉泉寺 靑銅金鼓(1252년, 보물 제495호), 연세대 소장 奉業寺銘 靑銅金鼓(1217년, 보물 제576호), 內院寺 大安七年銘 靑銅金鼓(1091년, 보물 제1734호)가 있고, 조선시대 작으로 영천 은해사 順治3年銘 金鼓(1646년, 보물 제1604호)와 부산 國淸寺 靑銅金鼓(1666년, 보물 제1733호)까지

7) 감은사반자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至正十一年辛卯十二月初三日雞林府地感恩寺飯子入重三十三斤住持大師主印實代飯子小鐘禁口乙造成爲乎事叱段倭賊人亦同年四月初七日右物之偷取持去爲良在乙造成”; 최웅천 교수는 금고의 형식상 다른 유형임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禁口에 대해 논하면서 형식과 양식을 규명한바 있다. 최웅천,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研究」, 『佛敎美術』 9(1988, 동국대학교박물관), p.69 및 최웅천, 「韓國 金口形 金鼓의 造形과 展開」, 『東岳美術史學』 13(2012. 6), pp.7~32.

총 5점으로 이들 보다 가장 앞선 유물이라는 점에서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참고도판 1)

		
<p>고성 玉泉寺 靑銅金鼓, 1252년 보물 제495호(1968.12.19 지정) 고성 옥천사 소장</p>	<p>奉業寺銘 靑銅金鼓, 1217년, 보물 제576호(1973.12.31 지정) 연세대박물관 소장</p>	<p>內院寺 靑銅金鼓, 1091년, 보물 제1734호(2011.12.23 지정), 양산 내원사 소장</p>

참고도판 1.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금고



그림1. 황리현명 청동북의 前面



그림 2. 뒷면의 共鳴口



그림3. 측면의 음각명문 ‘大安元年’



그림4. 각이 진 고리



그림5. 鎔湯의 鑄入口 및 공기배출구



그림6. 앞면 태조선대와 부식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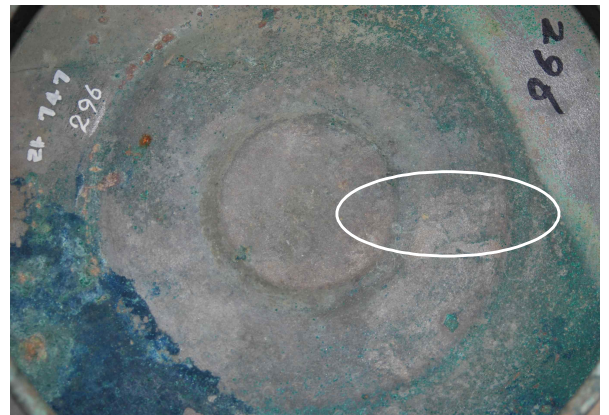


그림7. 뒷면의 凹形 태조선대 흔적



그림8. 뒷면 구연부의 윤곽선



그림9. 고리부분의 부식상태

표1. 고려시대 반자(半子) 목록

No	유물명	년 대	크기(cm)	출토지/소장처	명 문
1	瓊巖寺 金鼓	1073년	직경 60 폭 12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咸雍九年癸丑十月日瓊巖寺盤子入重伍十五斤棟梁僧慶眞
2	法海寺 金鼓	1084년	직경 41 폭 13	미상/ 일본 소재	太康十年甲子四月日造京北山法海寺棟梁齊成嵩納鉢子入重二十五斤
3	大安元 年銘 金鼓	1085년	직경 36 폭 8	강원도 원성군/ 동아대박물관	大安元年乙丑七月 日黃利縣戶長仁勇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4	內院寺 金鼓	1091년	직경 40.5 폭 10.7	미상/ 내원사	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梁僧貞妙次知造納金仁寺飯子一口重二十斤印
5	重興寺 金鼓	1103년	직경 35.7 폭 8	미상/ 리움미술관	三角山重興寺飯子重十五斤棟梁承鈞乾統三年癸未二月日造大匠盧珍謹記
6	楊等寺 金鼓	1160년	직경 36.4 폭 9.1	미상/ 일본 소재	正豐五年庚辰二月 日 溟州北山楊等寺 火香比丘智資劣同州 全廷同心發愿大 匠良且李申等請得爲半子壹入重八斤四兩乙 鑄成懸排印
7	大定19 年銘 金鼓	1179년	직경 42.5 폭 9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奉佛○○高麗國存岳坊○○五里居住神○○同正行隊正○○領理國邦衆○○聖 亡妻○○氏先亡父六親善往性淨界之願新○○京西○○納飯子○○入重貳拾五斤大定十九年己亥二月日鑄成
8	彌勒院 金鼓	1191년	직경 52 폭 10.5	미상/ 한국불교미술 박물관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仝仁濟院改號彌勒 院懸排鉢子壹入重肆拾參斤捌兩印棟梁道人孝安
9	庚申銘 金鼓	1200년 경 추정	직경 33 폭 8.4	미상/ 호림박물관	庚申年七月日淸州牧棟梁斤孟郎將順太○納飯子一入重十斤四兩印
10	蒲溪寺 金鼓	1202년	직경 34 폭 8	미상/ 이화여대박물관	泰和二年壬戌四月 日蒲溪寺新造盤子重十斤棟梁同寺 住持比丘著觀懸排此寺京良工韓宗守
11	泰和2 年銘 金鼓	1202년	직경 39 폭 5	강원도 원성군/ 한국불교미술 박물관	聖壽久長萬民安泰之願以棟梁丹丘前長不長 泰和貳年壬戌三月日記 寺主重大師文楨大 匠初問鑄成半子壹坐入重捌斤貳兩印
12	資福寺 金鼓	1207년	직경 31.2 폭 6.8	미상/ 경희대박물관	聖壽天長隣兵永息師尊無疾長存先亡父母及法界衆生往淨界之愿陽根奉日鄉資福寺 鉢子六重十斤造成功德者時泰和七年丁卯二月日玄化寺大師大公
13	高嶺寺 金鼓	1214년	직경 38.5 폭 9.5	미상/ 동경국립박물관	崇慶二年甲戌三月五日壽寧宮主房侍衛軍公節亦 聖壽天長國泰民安兩主各保千秋兼及亡妻聰明女離苦得樂聞聲悟 道之願 鑄成飯子一隻重三十斤懸於高嶺寺永充功德者同願(同時住持惠成 同房侍衛軍 仲叙)

14	貞祐4年銘金鼓	1216년	직경 32 폭 7.5	충청도/ 동국대박물관	貞祐四年丙子三月〇〇寺造納半子 重六斤棟梁大勿〇〇不仁派〇五侍〇大匠辰亡
15	貞祐6年銘金鼓	1218년	직경 35 폭 7	충남 예산/ 호암미술관	貞祐陸年戊寅七月日聖壽天長隣兵永息法界生亡共證菩提兼及身等此生不逢厄難後生西方極樂國土之愿 敬鑄成飯子一座懸排大興郡北禪阮寺同心鑄成者住持重大師文輿直長同 正韓大育及亡者黃公偉夫妻隨喜子仁大師孝全大匠元清助役孝文孝貞僧印
16	翠嶺寺金鼓	1222년	직경 51.2 폭 11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박물관	翠嶺寺飯子貞祐十年丙午十月二十八日造成入重 廿六斤棟梁〇〇仁 時住持元介宗重大師宗麟
17	利義寺金鼓	1224년	직경 33.5 폭 5	충북 영동군/ 국립청주박물관	貞祐十二年甲申正月日利義寺火香大師玄津亦全闕飯子小鍾等亦全闕爲土比戈用良奉任同都監仁守 正巾時用戶長巾俊書檢校長軍巾儒同〇焉聖壽天長隣兵永息國土大平愿以造成懸排入重十一斤印大匠仁癸丑尖
18	華嚴寺金鼓	1225년	직경 45.5 폭 7	완주 화엄사지/ 국립부여박물관	乙酉五月祝聖願以全州華嚴寺半子棟梁道人孝章同年 九月廿日造大匠大德重三十斤
19	句陽寺金鼓	1229년 (1289)	직경 39 폭 10	청주 운천동 미륵사지	己丑六月 日 句陽寺飯子一重十三斤八兩棟梁道人惠長改造大匠仍及三
20	福泉寺金鼓	1238년	직경 41 폭 9	강원도/ 부산시립박물관	今上寶位天長晋陽公福壽延長天水相國趙廉卿速 離苦海受生淨土留沙寺住持禪師學淵今生无病後 世離三界之愿以茂代四月日鑄成橫川縣地福泉寺 飯子重二十斤鑄成者別將同正韓 仲叙
21	修定寺金鼓	1240년	직경 44 폭 10	경북/ 리움미술관	庚子閏十二月日鑄成修定寺飯子 惠均 惠玲 〇〇 成妙 果之 願以成
22	乙巳銘金鼓	1245년	직경 77.7 폭 19.5	미상/일본 多久 頭魂神社	律源乙巳五月 日晋陽府鑄成〇福寺飯子一口
23	思惱寺金鼓	1249년	직경 48.5 폭 10.5	청주 사뇌사지/ 국립청주박물관	己酉年五月廿四日思惱寺半子一口重參拾伍斤棟梁副丞同正郭務大匠金先造
24	玉泉寺金鼓	1252년	직경 55 폭 14	고성 옥천사	高麗二十三王環甲之年壬子四月十二日在於京師工人家中鑄成智異山安養社之飯子入重六十餘斤同願施主者 樞密院右副承宣孫挺烈尙書皇甫琦檢校尙書俞承錫華嚴業三重勝壽大選景興知識正之故上將軍奇弼宣之嘉偶珍原郡夫人吳氏 郎將金伯龍之嘉偶樂浪郡夫人崔氏同丈院錄事鄭常之嘉偶海陽郡君金氏學錄朱之嘉偶金氏比丘尼清惠等此根幹外鎔銖之單甚多故不具錄工人別將同正韓仲叙 棟梁道人宗一負擔人上座普心使用長存

25	靑雲寺 金鼓	1301년	직경 38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大德五年辛丑四月日靑雲寺飯子入重三十斤結願香徒文氏夫人等上棟梁道人正元鑄匠鄭
26	大德9 年銘 金鼓	1305년	직경 36 폭7.5	미상/ 국립경주박물관	大德九年七月十六日造 皇帝萬萬歲太子諸王各保千秋干戈永息天下大平五穀豐登先亡父母法界 亡魂自他隨喜共證菩提之願造效判子二座 同願三人崔○次同 金氏 三重法師同願向徒大師元照座子○木上尊緣三石李二尊比丘三尊○○○台 長苒○人○之○○○三人 吳○半 吳孝良 吳○○
27	寂照寺 金鼓	1327년	직경35.2 폭5.4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泰定四年丁卯五月十三日安養山寂照寺飯子入重十五近造成延三勸化 道人禪且同願康甫來同願大通天一赴宣
28	兜率山 金鼓	1346년	직경 30	미상/ 근대에 공출로 과괴됨	至正六年丙戌二月 日兜率山鑄成飯子入重十斤皇帝萬歲主上千秋國泰民安北丘宗坦幹善達精同願朴成李天住造成法界王魂成不道
29	感恩寺 金鼓	1351년	직경32.2 폭 7.2	경주 감은사지/ 국립경주박물관	至正十一年辛卯十二月初三日雞林府地感恩寺飯子入重三十三斤住 持大師主印實代飯子小鐘禁口乙造成爲乎事叱段倭賊人亦同年四月初七日右物之偷取持去爲良在乙造成
30	菩提寺 金鼓	1369년	직경 37 폭 6.5	연천 주암산 남쪽/국립중앙 박물관	己酉七月 日大德資崇特爲聖壽天長師僧父 母及法界衆生供證樂界願以造成納菩提寺盤子入重十三斤印
31	寶林寺 金鼓		미상	미상/ 충주 백운암	癸亥二月十日寶林寺造納飯子一口入重
32	石寺 羅漢殿 金鼓	1385년	직경32.7 폭 6	미상/ 호림박물관	乙丑石寺羅漢殿飯子作銅匠小斤吾未兩主崔三○兩主崔正安兩主前司正李得祥兩主張方王兩主○○兩主○連兩主全○○兩全三彗兩主(以上橫書) 卜天兩主 鄭禮兩主 衆伊兩主(以上三行縱書) 隨喜化主木化主覺明化主志能(以上橫書)
33	壬午銘 資福寺 金鼓		직경 30.5 폭 6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壬午四月初六日奉來資福寺飯子○公州戶長 義晴○長上戶長二長命原州人馬長命次知大 師虎伏是亦中聖衆金諸人長命
34	龍泉寺 金鼓		직경 41	경기도 여주/ 차명호	癸亥四月 日任使德達鑄成鉸子一重十四斤 半施納龍泉寺謹記
35	白雲寺 金鼓	고려 후기	직경 27 폭 6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兩邊父母及亡妻韓氏王伶哀直至西方往生淨界堂無病 長生福樂自在以庚戌七月十三日造上清州白雲寺飯子 齊主安逸戶長正位韓尙愈

(*위 표는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문화재위원

1) 현상 및 특징

金鼓는 출토된 이후 별다른 보존 처리를 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흙이 붙어있고 부식된 곳이 여러 곳에 남아있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측면에서 확장된 구연이 뒤로 접혀 짧은 구연부를 이루고 뒷면이 넓게 뚫려 공명구가 형성된 고려 시대의 일반적인 반자형(盤子形) 금고이다. 고면은 삼중으로 구성된 2줄의 용기동 심원을 둘러 전체를 3구로 나누었는데 중앙의 당좌구에는 내부에 1+5+9개의 연과를 배치하였다. 이 당좌구 주위로 내부에 방형에 가까운 15엽의 중판 연판문을 꽃술장식이 없이 장식하였고 간엽은 표현되지 않았다. 그 바깥으로 다시 삼중의 동 심원을 두른 뒤 외구에는 산형에 가까운 폭이 넓은 운문을 간격을 두어 3개소에 배치하였다. 측면으로는 중앙에 굽은 두줄의 용기선을 둘러 구획하였으며 이 용기선 위로 2개의 고리가 부착되었다. 귀는 외형이 방형이면서 상부가 안쪽으로 접혀 규형에 가까우며 가에 걸기 위해 중앙에 원형 구멍이 뚫렸다.

측면의 용기선의 후면 쪽 단을 돌아가며 얇은 음각으로 ‘大安元年乙丑七月日黃(?)利懸戶長仁勇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라는 30자의 음각명문이 새겨져 있다. 비교적 명문은 판독이 용이한 편으로서 1085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제작자와 중량은 기록되지 않았다. 약간 위쪽으로 솟아 안쪽으로 접혀진 후면은 4.1cm 정도의 구연을 형성하였고 그 끝부분이 굽은 띠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둘러졌다. 특히 후면의 당좌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는 점이 확인되며 고면과 측면에 맞닿는 한쪽 면에 주입구와 주출구로 보이는 돌기가 남아있다. 이는 당시 구조에 관련된 흔적을 추측된다. 측면에 고리가 있던 부분과 그 주위에 철제 고리에 의한 부식이 심한 편이며 고면 전체와 측면에도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2) 조사내용 및 의견

(1) 명문 및 내용

銘文：大安元年乙丑七月日黃利懸戶長仁勇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대안 원년인 1085년 을축 칠월에 황리현 호장 인각과 부위 민씨가 동량이 되어 한마음으로 반자 1점을 만들다.’

(2) 조사내용

쇠북, 즉 金鼓란 글자의 뜻 그대로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서 禁口, 또는 飯子(半子) 등으로 불리는 절에서 쓰인 儀式法具의 하나이다. 범종이 주로 아침·저녁의 예불이나 중요한 의식법회 때 사용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금고는 供養시간을 알린다거나 사람을 모으는 등 그보다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앞면은 납작한 圓盤形이지만 뒷면은 구연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져 짧은 전을 형성하고 넓게 뚫려 공간을 이룬 독특한 모습이다. 앞면인 鼓面에는 두세 줄의 同心圓을 도드라지게 배치하고 그 중앙부를 범종의 당좌와 동일한 형식의 연판문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이 撞座區 주위는 구름문이나 당초문, 화문 등으로 시문하기도 하였다. 측면에는 架에 걸 수 있도록 2~3개의 고리를 부착하였으며 이 측면이나 후면 구연부에는 금고를 만든 날짜와 절 이름, 發願文과 제작자, 무게 등 금고의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통일신라의 유일한 금고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咸通六年銘(865년) 禁口⁸⁾는 고면에 두 줄의 隆起同心圓이 둘러져 있으나 撞座區를 비롯한 고면 전체에는 문양이 전혀 시문되어 있지 않아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보다 조금 뒤늦은 시기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통일신라의 금고가 軍威 麟角寺에서 발견되었는데, 외형은 유사하지만 뒷면이 좁혀지고 고면에 蓮瓣文이 등장되고 있어 고려시대 금고로의 이행과정을 잘 보여준다.⁹⁾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금고의 형태는 뒷면이 넓게 뚫린 기본형식과 함께 뒷면의 구연이 확장되어 共鳴口가 좁아지는 형식, 그리고 앞·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공명구가 뚫리는 소위 일본의 와니구찌식(鰐口式) 금고 등의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금고는 통일신라에 비해 우선 고면의 중앙에는 연판문과 연판을 장식한 撞座區가 완전히 독립된다. 이 당좌구 주위로는 두세 줄의 용기동심원을 두르고 그 구획마다 연화문, 구름문, 또는 화문, 如意頭文, 당초문 등으로 장식하였다. 고려 초기 금고의 경우 이러한 장식문양은 당좌를 중심으로 하여 外區에 한해서만 간략한 구름문, 당초문이 표현되지만 후기로 가면서 점차 고면 전체에 빠짐없이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이 첨가된다. 고려후기에 와서는 금고의 크기가 축소되는 한편 당좌구나 외구의 구획이 분명치 않게 되며 연판문, 당초문의 장식은 도식화되어 별모양(星形)이나 물결무늬로 바뀐 구조기술의 급격한 퇴락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금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紀年銘 작품은 咸雍九年銘(1073년) 瓊巖寺 금고이며, 紀年銘을 지닌 작품은 약 40여점 넘게 확인된다. 그 가운데 13세기 초부터 중엽에 제작된 금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작품이

8) '咸通陸歲乙酉二月十二日成內時(?)供寺禁口'

9) 최응천, 「君威 麟角寺 출토 佛教 金屬工藝品の 性格과 意義」, 『先史와 古代』 32호 (한국고대학회, 2010.6), pp.90-93.

양식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점을 볼 수 있다.

東亞大博物館 소장의 大安元年銘(1082년) 半子は 1066년도에 江原道 法泉里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¹⁰⁾ 뒷면이 넓게 뚫려 좁은 구연부가 형성된 반자형의 金鼓로서 고면은 삼중으로 구성된 두 줄의 용기동심원을 구획하여 전체를 3구로 구획하였다. 당좌구인 내구는 원형의 자방으로 이루어져 뚜렷이 돌기된 1+5+9개의 연과가 표현되었다. 이 당좌구 주위를 15엽의 중판 연판문으로 시문하였는데, 내부는 방형이며 외연의 상부만이 산형으로 굴곡을 이룬 모습으로서 전체적으로 방형에 가깝다. 연판 내부로 꽃술장식이나 간엽은 표현되지 않아 간결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四角에 가까운 重瓣의 연판문은 淸州 雲泉洞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9세기 중엽의 梵鐘의 撞座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어 통일신라 후기의 당좌문 양식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제작된 일련의 金鼓에서도 이러한 연판문이 계승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外區의 세 곳에는 넓게 퍼진 山형태의 구름문이 시문되었는데, 일견 도안화된 듯하지만 유려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측면의 중앙부에는 3중의 용기선을 둘러 위, 아랫단으로 나누었고 그 동심원 상에 두 개의 귀를 부착하였다. 이 귀는 方形이면서도 상부가 안쪽으로 접혀져 구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 측면 중앙 용기선의 후면 쪽에 해당되는 하단부에 ‘大安元年乙丑七月日黃利懸戶長仁勇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라는 30자를 얹은 선각 명문을 새겼다. 그 내용은 만들어진 일시와 발원자¹¹⁾ 등의 동량만이 기록되었는데, 고려 금고에서 흔히 보이는 중량이나 제작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고의 명칭을 처음으로 ‘半子’라고 사용하고 있는 첫 예로서 주목된다. 이 大安元年銘 半子は 11세기에 제작된 가장 연대가 앞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의 瓊巖寺 盤子(1073)보다 크기가 축소되었고 문양 역시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편이다. 이는 명문에서 확인되듯 ‘黃利懸戶長’의 명칭 등으로 보아 지역 호족의 발원으로 만든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바로 뒤에 만들어진 金仁寺 飯子(1091)에 비해서도 문양이 도안화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고면의 구획이 아직까지 2구로 간략히 세분되었고 경암사 반자의 운문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정리된 듯한 문양이 잘 표현된 고려 금고 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된다.

후면의 안쪽으로 접혀 좁은 전을 형성한 구연은 안쪽으로 가면서 약간 솟아오른 모습으로서 이는 앞서의 금고들과 다른 양상이다. 그 끝단은 한단 높게 돌기를 이루었다. 특히 후면에는 앞면의 당좌구에 해당되는 크기만큼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으며 고면의 용기동심원이 둘러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곳도 꺾게 안으로 파여 들어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통일신라 함통6년명 금고(865)의 후

10) 沈奉謹, 「高麗青銅半子研究」, 『考古歷史學志』2(東亞大學校博物館, 1986.5), pp.86~87.

11) 黃利懸은 『新增東國輿地勝覽』卷7 驪州牧條에 보인다. 특히 銘文 중에 ‘仁勇副尉閔氏’가 보이는데, 앞 책의 人物條에 이곳에 閔氏가 많이 살았다는 기록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면에서도 볼 수 있어 당시 주조 기술의 단면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금고가 고면부에 주입구와 주출구의 자국이 남아있으며 이 부분을 정리한 반면에 이 대안원년명 반자는 측면에 붙어 주입과 주출구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어 흥미롭다.

전체의 크기는 약 40cm가 조금 넘어 경암사 반자에 비해 작지만 후에 만들어진 금인사 반자와 거의 유사한 크기이다. 명문에 보이듯 반자라는 표기가 瓊巖寺銘 반자(1073)의 소반 반(盤)자에서 반 반(半)자로 바뀐 점을 볼 수 있고 이는 다시 쇠금 변에 반(飯)자를 사용한 대안7년명 金仁寺 飯子(1091)로 바뀌어 가는 고려시대 금고의 명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¹²⁾

□ 문화재전문위원

이 반자는 1966년 강원도 원성군(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며, 동아대학교가 소장자 현기만(玄基萬)씨로부터 1970년 4월에 구입한 것이다. 출토지로 전해지는 원주시 법천리에는 고려시대 법상종 사찰로 크게 번성한 법천사지가 자리하고 있으나, 이 반자의 출토지가 법천사의 경내지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이 반자의 표면에는 검푸르게 산화된 흔적과 발견 당시의 부식토가 고착되어 있어 출토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고면과 뒷면 입술의 가장자리를 따라 크고 작은 박락이 관찰 되는 바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반자의 형태는 고면을 당좌구(撞座區), 중구(中區), 외구(外區)로 3등분하였고 뒷면은 짧은 입술과 넓은 공명구(共鳴口)가 뚫려 있는 이른바 반자형 금고이다. 정·측면에 사용된 구획선은 3줄의 동심원대(同心圓帶)를 사용하였는데, 가운데 선은 굵은 선으로 좌우에는 가는 보조선을 붙여 둘러싼 형태이다. 당좌구에는 중앙의 동그랗게 돌출한 연씨를 5개의 연씨가 둘러쌌고, 다시 이를 9개의 연씨가 둥글게 에워싼 모양이다. 내구에는 끝을 안으로 오므린 복판 15엽의 연꽃을 얇게 새겨 장엄하였다. 외구의 넓은 공간에는 허공을 흘러가는 울동적인 구름을 3곳에 두어 장엄하였다. 이러한 문양 배치는 현세의 중생들이 법음(法音)을 듣고 천상세계(天上世界)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을 상징적으로 담아 낸 것으로 보인다.

측면의 중앙에는 3줄의 용기선대로 양분하고 앞쪽 부분에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얇게 음각하였고, 오각형의 고리가 귀 모양처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2개 부착되어 있다. 두 고리 사이에는 주물구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면(鼓面)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측면의 각도는 입면 사다리꼴 형태로 약간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짧은 입술도 역사다리 꼴로 안으로 오므라들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입술의 끝

12) 崔應天, 「韓國 禁口形 金鼓의 造形과 展開」, 『東岳美術史學』13호(동악미술사학회, 2012), pp.7~32.

은 굵은 선을 돌려 마감하였다.

금고의 측면에는 제작과 관련된 짧고 간결한 음각의 명문이 남아 있다.

大安元年乙丑七月日 黃利縣戶長仁勇副尉閔 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이를 통해 이 금고는 大安 元年 乙丑(宣宗 2, 1085) 7월에 황리현(黃利縣) 호장(戶長)이자 인용부위(仁勇副尉)를 겸한 민(閔) 등이 한 마음으로 제작한 반자임을 알 수 있다. 황리현(黃利縣)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기(京畿) 광주목(廣州牧) 여흥도호부조(驪興都護府條)에 “驪興, …高麗改黃驪. 顯宗戊午, 屬原州任內, 後置監務. 一云黃利縣”이라 보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즉 이곳에 보이는 황리현은 현재의 경기도 여주군에 속하며, 제작의 주체인 황리현 호장 민은 고려 초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이 지역에 정착하여 여흥 민씨의 시조가 된 민칭도(閔稱道)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인용부위는 고려시대 무산계급 중 정9품으로, 고려시대 무산계는 향리와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령의 병사, 공장과 악인들에게 주어진 영예적 호칭이다.¹³⁾ 고려시대 문·무산계 직급은 성종 14년(995)에 제정되었는데, 이 반자의 명문은 향리에게 무산계의 관직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13)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44~48쪽.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반출

안건번호 등산 2013-05-005

5. 국보 제166호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 16점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2014년도 미국 3개 박물관에서 순회전시될 예정인 ‘조선미술대전’ 전시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9건 15점 및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1건 1점 등 총 10건 16점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 대상문화재
 - 국립중앙박물관 : 국가지정문화재 9건 15점
(국보 제166호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등 2건 2점)
(보물 제928호 ‘남양주 봉인사 부도암지 사리탑 및 사리장엄구’등 6건 12점)
(세계기록유산 ‘어진도사도감의궤’ 1건 1점)
 - 삼성미술관 리움 : 국가지정문화재 1건 1점
(보물 제1056호 ‘백자 청화철화삼산뇌문 산뢰’)
- 반출국가 : 미국
- 반출기간 : 2014. 2. 11 ~ 2015. 1. 22
- 전시기간 : 2014. 3. 2 ~ 2015. 1. 11
- 전 시 명 : 특별전 - ‘조선미술대전’

- 전시장소 :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로스앤젤레스주립미술관, 휴스턴미술관

라. 국외반출 대상 보존상태 등 현지조사 결과

- 조사개요

- 목 적 : 국외반출 대상 유물의 보존상태 등 현황 조사
- 조사자 : 문화재위원 김영원, 김정희, 조선미, 문화재전문위원 강대일 등 4명
- 조사일 : 2013. 9.30, 14:00(국립중앙박물관) / 16:00(삼성미술관 리움)

- 조사결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 전시 출품에는 문제없으나 보물 제1327호 '석조지장보살좌상'의 경우 부분적으로 탈락 우려가 있는 도금막의 접합 고정에 유의하여야 함

※ 동 문화재는 현재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며, 반출 이전에 완료될 예정임

- 삼성미술관 리움

: 전시 출품에 문제없음

마. 심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결정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외반출 허가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국립중앙박물관)

허가신청목록		
① 지정 번호	국보 제166호	
② 명 칭	백자 철화매죽문 향아리 (덕수6294)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40cm 몸통지름 37.9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정 번호	국보 제301호	
② 명 칭	화엄사영산회괘불탱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11.95m 너비 7.76m	
⑤ 보 관 장 소	화엄사	
① 지정 번호	보물 제928호	
② 명 칭	남양주 봉인사 부도암지 사리탑 및 사리장엄구 (신수9428, 9429, 9430)	
③ 수 량	7점	
④ 규 격	외함 높이 5.6cm 지름 11cm 사리병 높이 1.9cm 지름 1.4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정 번호	보물 제1060호	
② 명 칭	백자 철화끈무늬 병 (신수12074)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31.4cm 입지름 7cm 바닥지름 10.6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1327호	
② 명 칭	석조지장보살좌상 (신수14491)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33.4cm 너비 23.5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1437호	
② 명 칭	백자 달항아리 (접수702)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41cm 몸통지름 4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1488호	
② 명 칭	심득경 초상 (본관12850)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160.3cm 너비 87.7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 1632-2호	
② 명 칭	정조어필-제문상정사 (덕수2736)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190.9cm 너비 91.5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세계기록유산	
② 명 칭	어진도사도감의궤 (K2-2758)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31.5 x 25.5cm	
⑤ 보 관 장 소	장서각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삼성미술관리움)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1056호	
② 명 칭	백자 청화철화삼산뇌문 산뢰	
③ 수 량	1건 1점	
④ 규 격	고 27.8, 구경 9.5, 저경 11.8	
⑤ 보 관 장 소	삼성미술관 리움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번호·명칭변경

안건번호 등산 2013-05-006

6. 국보 제249호 ‘동궐도(東闕圖)’ 등 7건 지정번호·명칭 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7건의 지정번호 및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총 7건의 문화재는 각각 추가지정이 발생한 대상으로 추가지정시 최초 지정문화재와 소재지가 다를 경우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추가지정시 가지번호의 부여가 일관성이 없이 지정되었기에 본건은 ‘-1호’, 두 번째 지정건은 ‘-2호’로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변경하고자 함.
- 가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지정명칭의 혼란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정명칭 변경 여부도 함께 부의하는 것임. 이에 지정번호와 명칭 변경이 검토되어 30일간 예고(’13.8.26~9.24)하고,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대상문화재 :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총 7건(붙임 참조)

라. 변경내용

- 국보 제249호 동궐도
 - 국보 제249-1호 동궐도(고려대학교)
 - 국보 제249-2호 동궐도(동아대학교)

○ 보물 제547호 김정희 종가 유물(김성호, 이건희, 조병순)

→ 보물 제547-1호 김정희 종가 유물(김성호, 이건희, 조병순)

○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국유)

→ 보물 제568-1호 윤봉길의사 유품(국유)

보물 제568-2호 윤봉길의사 유품-윤봉길의사 이력서 및 유서(윤주웅)

→ 보물 제568-2호 윤봉길의사 유품(윤주웅)

○ 보물 제1004호 조정 종가 문적(공유)

→ 보물 제1004-1호 조정 종가 문적(공유)

→ 보물 제1004-2호 조정 종가 문적(조성만)

○ 보물 제1010호 묘범연화경(언해) 권1,3,4,5,6((재)아단문고)

→ 보물 제1010-1호 묘범연화경(언해) 권1,3,4,5,6((재)아단문고)

○ 보물 제1088호 언해태산집요(국유)

→ 보물 제1088-1호 언해태산집요(국유)

→ 보물 제1088-2호 언해태산집요((주)한독의약박물관)

○ 보물 제1090호 권근 응제시주(김종규)

→ 보물 제1090-1호 권근 응제시주(김종규)

→ 보물 제1090-2호 권근 응제시주(하택선)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명칭 · 번호 변경

<붙임. 대상문화재 및 변경 사유>

연번	종별	현 행		변 경		소유자	지정일	변경 사유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국보	249	동결도	249-1	동	고려대학교	'89.08.05	○ 1989.8.1. 추가지정시 제249로 일괄지정 ○ 제249-1, 249-2호로 변경필요
				249-2	동	동아대학교	'95.06.29	
2	보물	547	김정희 종가 유물	547-1	동	김성호 이건희 조병순	'71.08.30	○ 2006.7.18. 보물 제547-2호 '예산김정희종가유물' 추가지정시 제547호 미변경 ○ 2010.8.25. 명칭변경시 제547호로 일괄변경 ○ 제547-1호로 변경필요
3	보물	568	윤봉길의사유품	568-1	윤봉길의사 유품	국유	'72.08.16	○ 1976.5.21.추가지정시 제568호로 일괄지정 ○ 2010.8.25.명칭변경시 제568-2호 '윤봉길의사유품-윤봉길의사이력서및유서'로 변경 ○ 제568-1호'윤봉길의사 유품'으로 변경필요 ○ 제568-2호'윤봉길의사 유품'으로 변경필요
		568-2	윤봉길의사 유품-윤봉길의사 이력서 및 유서	동	윤봉길의사 유품	윤주웅	'76.05.21	
4	보물	1004	조정 종가 문적	1004-1	동	공유	'89.05.30	○ 1991.12.16. 추가지정시 제1004호로 일괄지정 ○ 2010.8.25.제1004호 '조종 종가 문적'으로 일괄변경 ○ 제1004-1, 1004-2호로 변경필요
				1004-2	동	조성만	'91.12.16	
5	보물	1010	묘범연화경(언해) 권1,3,4,5,6	1010-1	동	(재) 아단문고	'89.08.05 '95.04.07	○ 2010.8.25.제1010-2호 '묘범연화경(언해) 권1,4' 추가지정시 제1010호 미변경 ○ 2010.8.25. 명칭변경시 제1010호 '묘범연화경(언해) 권1,3,4,5,6'로 변경 ○ 제1010-1호로 변경필요
6	보물	1088	언해태산집요	1088-1	동	국유	'91.10.04	○ 1991.12.16.추가지정시 제1088호로 일괄지정 ○ 제1088-1, 1088-2호로 변경필요
				1088-2	동	(주)한독의약 박물관	'91.12.16	
7	보물	1090	권근 응제시주	1090-1	동	김종규	'91.10.04	○ 2005.7.7. 추가지정시 제1090-1호로 지정 ○ 2010.8.25.명칭변경시 제1090호로 일괄지정함. ○ 제1090-1, 1090-2호로 변경필요
				1090-2	동	하택선	'05.07.07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3-05-007

1. 서울 학림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서울 鶴林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

가. 검토사항

‘서울 학림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3.8.5)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1호
- 명 칭 : 서울 학림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서울 鶴林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
- 소유자 : 학림사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29가길 241 (상계동)1
- 수 량 : 1폭
- 규 격 : 447.6×253.7cm
- 재 질 : 견본채색
- 제작연대 : 1749년 조성, 1774년 중수
- 제작자 : 조성화승 楚欽, 七惠, 泰云, 順敬, 德淳, 是明, 印位, 性云
중수화승 處澄, 圓有, 普行

라. 내용 및 특징

○ 畫記

: ① 乾隆三十九年甲午三月二十一日」靈山幘重修安圓通菴」婆幘施主舍堂白眞」姜氏九月」宋碩夏」李才昌」淸信女妙鵬」智雲」趙時贊兩主」崔壽萬」緣化」證師月菴處軒」持殿比丘惠寬」比丘廣允」良工比丘處澄」圓有」普行」供司比丘就仁」都監比丘漢玉」別座比丘暢泄」善謙」化主比丘月澗」德行」三綱比丘義宗」楚祐」

② 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壽千秋」緣化秩」證師比丘敏機」誦呪比丘法熙」持殿比丘快彦」畫師比丘楚欽」比丘七惠」比丘泰云」比丘順敬」比丘德淳」比丘是明」比丘印位」比丘性云」㊦㊦比丘崔聖}」比丘淸洽」高海元」比丘寶鑑」㊦憲」㊦蜜」

* ① 기존 墨書 : 乾隆十四年己巳八月」初○日…」

※掛佛函 墨書

: 楊州水落山內院菴掛佛橫己未年造三補定欽留鎮于寺衆」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현행유지)

18세기 전반에 수락산 내원암 괘불도로 조성된 비로자나삼신불 형식의 괘불도로서, 법신 비로자나불과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만을 간단하게 그린 三身佛掛佛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형식은 18세기~19세기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크게 유행한 것으로, 학림사 괘불도는 삼신불 형식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존하는 삼신불괘불도의 선두적인 작품으로 생각된다.

이 괘불도는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있는 괘불도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조선후기 서울경기지역 괘불도의 특징적인 양식을 반영하는 작품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확한 조성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괘불도의 상태가 중수시기인 1774년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은 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행유지)

학림사 삼신괘불도 도상은 18~19세기 서울·경기지역에서 성행한 도상이다. 화

기를 통해 건륭14년(1749)에 조성하였다가 다시 건륭39년(1774)에 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 당시 화사는 楚欽를 비롯하여 七惠, 泰云, 順敬, 德淳 등 총 8명이 관여하였고, 이후 건륭39년(1774)에 중수할 당시에는 處澄외에 圓有, 普行이 동참한 불화이다.

삼신불의 상호는 자그마한 이목구비가 단정하면서 근엄하며, 두부에서 신부로 흐르는 7두신에 가까운 신체 비율도 안정감 있다. 채색은 주색과 백록색이 주조를 이루며 백군과 백색, 황색을 활용하였는데, 색감이 강하지 않고 18세기의 부드러운 중간색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화면에 1774년 중수 당시의 채색 이외에 후대에 가채한 흔적이 보인다. 화면 상단의 구름은 본래의 색을 유지하고 있고, 백록색 역시 마찬가지이나, 두광을 비롯한 착의에 설채된 진한 녹색계는 가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습기와 얼룩으로 인해 색채가 바래지고 군데군데 곰팡이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게다가 화면 가장자리에 본지의 박락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상단부는 절흔이 심한 편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 보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원상태보다 후대에 가채한 흔적이 많으며, 현존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여 이번 국가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현행유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해지는 괘불이 대부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임에 비해 학림사괘불은 1774년에 중수된 것으로 이 지역의 괘불 중 제작연대가 이른 작품이다. 현재 지방문화재 제211호로 지정되었다.

작품의 연대도 올라가고 도상적으로 봉선사괘불과 함께 19세기 서울·경기지역에서 유행한 비로자나삼신불 도상을 선도하는 괘불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그러나 손상이 심하고 補彩가 많이 되어 있어 제작 당시의 현상을 명확히 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조건과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현행유지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이 괘불도는 조선후기의 삼신불 괘불도로서, 최초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1774년에 중수하여 圓通庵에 봉안했다는 화기가 남아있으며, 현재는 수락산 鶴林寺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443cm, 가로 256cm로 괘불로는 그리 크지 않은 작품인데, 폭 61.5cm의 비단을 4폭 이은 후 왼쪽 가장자리에는 29.5cm의 비단을 이어 마감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11호로 지정되어 있다.

○ 표현기법

그림의 형식은 화려한 彩雲 아래에 法身 비로자나불, 왼쪽(향우측)에 報身 노사나불, 오른쪽에 化身 석가불 등 권속 없이 나란히 서있는 3구의 三身佛 만을 배치한 간단한 형식을 취하였다. 본존인 비로자나불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智拳印을 결하고 두 발을 약간 벌린 채 연꽃대와 위에 서있는데, 肉髻가 높게 표현된 螺髮의 머리에는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둥근 얼굴에는 가는 눈썹과 가늘고 약간 위로 치켜 뜬 눈, 큼직한 코와 작은 입 등이 균형있게 잘 묘사되었으며, 인중과 턱에는 형식적으로 턱수염과 콧수염이 묘사되었다. 목에는 가늘게 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어깨가 반듯하고 딱 떨어져 장대한 느낌을 주는데, 두 어깨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옷깃으로 장식된 붉은 대의를 걸치고 있으며 안에는 녹색의 上內衣와 백색의 下衣를 걸쳤다.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오른손이 왼손을 감싼 형태의 지권인을 결하고 있다. 비로자나불은 석가불과 노사나불보다 약간 크게 그려져 본존으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비로자나불의 왼쪽에 서있는 노사나불은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을 쓰고 두 손을 밖으로 벌려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보관과 허리까지 구불구불하게 흘러내린 보발 등은 보살형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의 석가모니불은 우견편단의 불의에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리고 왼손을 가슴 앞으로 들고 있는데 둥근 얼굴과 작은 이목구비, 높은 육계의 나발 등이 비로자나와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로자나삼신불을 주제로 한 괘불도는 18~9세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1735년 봉선사 괘불도를 비롯하여 1832년 흥천사 괘불도, 1868년 백련사 괘불도, 1862년 청계사 괘불도, 1858년 천축사 괘불도 등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봉선사 괘불도에는 삼신불 외에도 보살과 제자, 청중 등이 더 묘사되었으며 흥천사와 백련사괘불도는 노사나불이 보살형이 아닌 佛形이

며 아난과 가섭,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이 첨가되었고, 청계사 괘불도 역시 三佛形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학림사괘불도는 이 중에서 형식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노사나불이 보살형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삼신불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색은 적색과 양록색, 청색이 주주색을 이루며 백색과 검은색, 황색 등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필선은 옅은 먹선의 유려한 鐵線描를 사용하였다.

한편, 그림의 하단부 양측에는 赤地欄에 墨書로 화기가 적혀있다. 향우측의 화기는 조성 당시의 것이며 향좌측의 화기는 1774년(영조 50)에 괘불도를 중수하면서 새로 적었다. 중수 화기에 ‘靈山幀畫重修安圓通菴’이라고 적혀있어 중수 시 이 괘불도는 靈山幀으로 알려졌으며 원통암에 봉안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괘불함에는 墨書로 ‘楊州水落山內院菴掛佛幀乙未年造成三補定欽留鎮于寺衆’이라고 적혀있어서 원래는 수락산 내원암 괘불도로 조성되었으나 1774년에 중수하면서 원통암에 봉안되었다가 그후 언젠가 학림사로 이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괘불함이 ‘乙未年’에 조성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괘불도 역시 을미년을 즈음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후기의 을미년은 1715년 또는 1775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괘불함의 명문에 의해서 학림사괘불도의 조성연대를 1715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향좌측 화기(중수화기)의 밑 부분에 희미하게 ‘...巳八月’이라는 명문이 남아있어 불화를 처음 조성했던 시기는 ‘...巳八月’이며, ‘을미년’은 墨書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괘불함을 만든 해라고 생각된다. ‘...巳’에 해당하는 해 중 1774년 이전의 ‘...巳’는 1761년과 1749년, 1737년, 1725년, 1713년 등에 해당하는데, 중수화원 중 七惠는 1735년 봉선사 삼신괘불도 제작에도 참여하였으며, 그때에도 都畫員인 覺總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볼 때 학림사 괘불도는 봉선사괘불도(1735년)과 가까운 시기인 1725년 또는 173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이 괘불은 5매의 비단을 횡으로 잇대어 화폭을 형성한 바탕 위에 채색을 베푼 불화이다. 본지의 가장자리가 훼손되어 박락이 심하고, 화면 상단부분은 가로 절흔이 심해 안료의 박락이 확인된다. 그리고 화면의 우측(향좌측) 부분은 좌측에 비해 습기로 인한 얼룩흔과 바래진 채색이 눈에 띄며, 군데군데 곰팡이 흔적으로 오염된 부분도 확인된다.

화면 하단의 좌우 가장자리에 주색 바탕에 먹선으로 테두리를 두른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 내용을 적고 있다. 단, 향우측 화기란에는 본 삼신 불도의 조성 당시의 묵서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 위에 중수시의 묵서가 적혀있다.

○ 표현기법

화면에 비로자나삼신불 입상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에 흉전에서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왼쪽에 화려한 보관을 착용한 설법인의 노사나불, 맞은편 오른쪽에는 오른손을 아래로 뺀 석가불이, 각각 녹색 두광을 구비하고 연화족좌를 밟고 서있다. 상단에는 비로자나불 두부 위쪽에 연화천개를 배치하고 그 양쪽으로 채운이 여백없이 거의 메우고 있다. 하단에는 좌우 가장자리에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는 붉은 색 궤선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그 외곽에 백색 띠를 둘러 화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비로자나불은 백색의 육신에 먹선으로 윤곽을 잡았고, 안면은 둥근 방형의 얼굴에 수평적인 눈과 반달형 눈썹, 이중 콧망울, 작은 입술 등 단정하고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다. 법의는 상의와 승각기, 그리고 편삼을 걸치고 양쪽 어깨에는 홍색 가사를 걸쳐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다. 법의는 장식 문양은 가능한 생략한 채 보색 색면이 지니는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되, 가장자리 띠 부분에만 연화당초문과 연주문 등을 장식하여 대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노사나불과 석가불 역시 본존 비로자나불과 거의 유사하나, 안면은 본존에 비해 눈썹 끝이 쳐진 편이고, 양쪽 눈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간 모양을 하고 있어, 본존과 좌우협시불의 조화를 이룬 듯 하다. 법의는 노사나불은 본존과 같은 착의 형식이나 석가불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식 착의를 하고 있다.

천공의 구름은 적운과 비운으로 구별하여 그렸는데, 주로 자색과 백록으로 각각 바르고, 가장자리에는 주로 백색을 바림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채색은 주색과 백록계열이 주조를 이루며 백군, 백색외에 황색을 활용하여 18세기 색감을 잘 드러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광배를 비롯한 착의 등 진녹색은 후대에 가채한 것으로 보인다.

화기에 본 삼신불도는 건륭14년 기사(1749)에 조성하였는데 당시 화사는 楚欽를 비롯하여 七惠, 泰云, 順敬, 德淳, 是明.印位, 性云 등이 관여하였고, 건륭39년 갑오(1774)에 본 영산 괘불탱을 중수할 당시는 處澄외에 圓有, 普行이 동참하여 제작하고, 원통암에 봉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비로자나삼신불로 이뤄진 간략한 구성

의 괘불 도상은 18~19세기 서울·경기지역에서 성행한 도상으로 본 괘불도 그 중의 하나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현 상

전 화면에 가득 차게 비로자나삼신불(毘盧遮那三身佛) 만을 그린 간략한 도상이다. 화면의 중앙에는 智拳印을 결한 비로자나불이 자리하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준 형태이다. 이러한 변형된 지권인은 조선시대 후기 비로자나불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다. 그 왼쪽에는 보관을 쓰고 양손을 어깨 좌우로 벌려 설법인(說法印)을 지은 보살형의 노사나불, 오른쪽에는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향마족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든 석가모니불이 나란히 서있으며, 다른 존상은 표현되지 않았다.

괘불로서는 크지 않은 규모이며, 폭이 60.0~61.0cm인 비단을 이어 제작하였다. 화폭이 찢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채색이 지워지는 등 전체적으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으나 최근 보수처리 하였다. 화면의 왼쪽이 물에 젖었던 결과 석가불의 오른팔에는 전면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다리 부분에는 채색이 번져 보채되어 있다.

○ 표현기법

이 불화는 건륭(乾隆)39년(1774) 중수되었는데 상부의 구름 정도만 원래의 모습을 남기고 있고 대부분은 중수 이후의 모습이다. 늘씬한 체구에 얼굴은 작고 단아한 편이며 작은 이목구비의 표현은 전형적인 18세기 불화 양식이다. 입술의 적색과 녹색의 수염 외 눈과 코의 필선은 원래의 모습으로 보인다. 중수 화기의 적색과 복식의 적색이 같은 채색이므로 복식의 적색은 중수시의 채색으로 보이며, 두광의 녹색은 그 이후 가채된 것으로 보인다. 청색 안료로 굵게 바림되어 있는 불의(佛衣) 내면 역시 중수시의 개채일 것으로 보인다.

화면 아래에는 화기가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적색의 바탕색이나 글자의 획이 서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오른쪽의 화기에는 건륭39년 중수하여 원통암(圓通菴)에 봉안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작시에도 원통함에 봉안하였던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인근 도봉산 원통사 괘불(1806)의 도상 역시 비로자나삼신불인데 석가불이 보살형으로 표현되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괘불함 역시 ‘수락산내원암괘불함’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화면에 여백이 전혀 없고 사방회장(回裝)의 폭이 특히 좁은 것으로 보아 이 괘불함에 넣기 위해서 그 크기에 맞

도록 화폭을 잘라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의 중수 화기의 적색 바탕 밑으로 제작 당시의 화기로 보이는 글자의 획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乾隆十四年己巳八月初○日…’ 이라 관독된다. 이 글자는 굵은 획의 글씨로 왼쪽 화기의 시주질의 글자와 같다.

이상의 정황으로 보아 이 괘불은 1749년 조성되었으나 1774년 중수하여 원통암에 봉안하였다. 이후 1808년 원통암 괘불을 새로 제작하면서 학림사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원암의 괘불함 역시 그 즈음 학림사로 이관하여 여기에 맞게 화폭을 잘라낸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2.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上元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08.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7.1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2호(복장유물 비지정)
- 명 칭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上元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월정사(상원사)
- 소재지 : 경남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92
- 수 량 : 1구, 복장유물(후령통 1점, 발원문 9건 12점)/복장전적(서지기술 참조)
(총 33종 115점)
- 규 격 : 불상 높이 117.0cm, 무릎 폭 91cm/복장전적(서지기술 참조)
- 재 질 : 목조, 저지(楮紙)
- 판 종 : 서지기술 참조
- 형 식 : 서지기술 참조
- 조성연대 : 1661년(현종 2)/복장전적(서지기술 참조)
- 작 자 : 불상/회감(懷鑿), 세정(洗淨), 신언(信彦), 의현(僅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상원사 목조보살좌상은 보계와 연꽃 가지 등 일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조선시대 1661년에 조성된 문수보살좌상이라는 발원문과 함께 많은 복장유물을 동반하고 있는 중요한 보살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발원문을 통하여 같은 해 전라남도 강진의 무위사 지장보살상을 조성한 화원 회감(懷鑿)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도에서 활동하던 조각승이 강원도까지와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 조각승 활동 범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가 된다. 이러한 교류는 조선시대 1651년에 강원도 신흥사의 아미타불삼존상의 조성에 전라도에서 활동하던 무염無染이 참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사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상원사 목조보살좌상의 상호에 보이는 정적인 면과 하반신을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의 생동감 있는 표현에서 이 상이 조형적으로 수준작일 뿐만아니라 보살상에 보이는 양식과 형식적인 특징들은 이 보살상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상원사 목조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많은 발원문에서 오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조선 왕실 발원이 아닌 승려와 신도들이 단월로서 활동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성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회감 등 5명의 조각승이 1661년에 조성한 문수보살상으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부터 문수신앙의 중심지였던 상원사에서 조성되어 지금까지 한자리에 봉안되고 있는 문수보살상은 신앙적으로도 조각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사례라고 판단되며,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상원사 문수보살상은 여의두를 들고 있는 문수보살상으로써 희귀한 예이다. 또한 持物 뿐만 아니라 섬세한 보관도 조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 있어 중요하다. 특히 안정감 있는 신체, 조용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의 상호, 입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선묘를 보이고 있어 조각적으로도 완성도가 높다.

환적당 의천이 작성한 발원문을 통해 상원사의 삼중창 내력과 성격, 그리고 문수보살상의 조성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 불상을 조성한 회감은 17세기 중엽경 인균과 함께 많은 불상 작업을 함께 했던 조각승이어서,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조각승간의 상호 교류관계 및 불상의 양식의 흐름과 변천을 연구하는데 더 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1661년이라는 이 상의 조성시기가 말해주듯, 이 상은 17세기 전반과 후반기를 이어주는 지점에 있는 불상이자 17세기 후반의 기준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기 불교조각 및 조각승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調査本 (02)의 「金剛般若波羅密經」은 전면에 「金剛般若波羅密經」, 후면에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수록된 白紙 墨書의 寫經으로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는 알 수 없으나 품격이 정교하고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高麗時代 麗末鮮初의 寫經으로 추정되며, (06)의 「妙法蓮華經」은 본서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692-1호, 제692-2호, 제977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판본으로 지정본의 권말에는 高麗 高宗 24(1240)년에 崔怡가 쓴 後識가 수록되어 있어 그 간행과정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板刻 및 印出 狀態로 보아 高宗 24(1240)년에 판각된 木板에서 麗末鮮初에 後刷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2종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版本이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究와 書誌學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麗末鮮初의 典籍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상원사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典籍은 전적 12종, 다라니류 11종이다. 이 중에서 완전본으로서 지정가치 있는 전적은 『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密經』과 『妙法蓮華經』 권6으로 2종이다. 나머지 전적들은 대부분이 완본이 아닌 잔본이거나 후쇄본에 속하며, 다라니류는 대부분 낱장으로서 복장시에 인출도는 필사된 것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지방 유형문화재로 권고하여 보존, 관리하도록 한다.

『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密經』(연번 2)은 백지 묵서의 사경으로 전면에 『金剛般若波羅密經』 후면에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수록되었다.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는 알 수 없으나 도침이 잘된 두터운 장지를 사용

하였고 정성드려 쓴 서체의 품격에서 사경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사성시기는 麗末鮮初로 추정된다. 희소성이 있는 사경으로 사경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妙法蓮華經』 권6 (연번 6)은 戒環이 註解한 宋本을 저본으로 하여 최이가 주관하여 판각된 판본의 후쇄본으로 간행시기는 麗末鮮初로 추정된다. 상하단변에 2엽마다 판수제 및 권차, 장차가 있는 주로 고려시대의 권자본이나 절첩본에 나타나고 있는 판식이다. 28행의 절첩본 판식에서 14행씩 찍어내어 선장식으로 제작된 포배장본이다. 희소성이 있는 판본으로서 불교사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962호(구인사, 1988.12)로 지정되어 있다.

이 2종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를 알 수 없으나 품격이 정교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麗末鮮初의 寫經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佛敎史 및 寫經研究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妙法蓮華經 卷6은 麗末鮮初에 後刷된 판본으로 추정되어 稀少性의 가치가 있으며, 佛敎典籍 및 우리나라 印刷文化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명칭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조사보고서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상원사 목조보살좌상은 현재 상원사 문수전에 봉안되어 있다. 목조보살좌상은 개금이 원래 조성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목조보살좌상은 동판銅板으로 만든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별재別才로 만든 정수리 윗부분의 보계寶髻[상투], 따로 제작하여 끼운 양 손을 제외하곤 한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졌다. 보통 목조상일 경우 양손은 따로 만들기 때문에 양 손의 제작 시기가 보살상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수리 위의 보계와 손에 들고 있는 연꽃가지는 후보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목조보살좌상의 바닥 면은 3매의 나무판으로 막았는데, 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쇠못이 사용되었다. 불상 내부는 결쇠로 목재의 각 부분을 이어 놓았으며, 표면은 다라니가 찍혀 있는 종이를 발라 마감하였다.

한편 비단 보자기, 다라니 뭉치, 경전류, 조성발원문, 후령통으로 구성된 복장유물 등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특히 조성발원문[아래의 문헌 자료 참조]들은 조선시대 1660년과 1661년에 기록된 것으로서, 목조보살좌상이 문수보살일 가능성과 조성자가 회감(懷鑿)일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상원사 목조보살좌상(도1)은 법의가 양쪽 어깨를 덮고 있는 통견식의 착의 형식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앞으로 약간 숙인 두상(도2)과 상체가 긴 편이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하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준다. 눈두덩이와 양볼, 목, 가슴, 법의 위로 드러나는 복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살찐 모습이다.

동판으로 만든 보관은 얼굴에 비해 비교적 큰 편으로, 봉황, 꽃, 구름, 화염 보주 등으로 장엄되었는데, 이들은 따로 만들어 붙인 것이다. 정수리 위에는 별재로 만들어진 긴 보계[상투]가 있으며, 보관을 씌우기 위하여 머리 윗부분을 상당히 깎은 것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머리 뒷부분과 옆부분의 머리카락은 빗으로 빗은 듯이 세로로 가지런히 표현하였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진 머리 가닥은 양쪽 귀를 가로 질러 어깨 위로 흘러 내리고 있다.

이마 쪽이 약간 넓은 장방형의 얼굴과 길고 큰 귀, 가늘고 긴 눈, 반원형의 눈썹, 큼직한 백호, 우뚝한 코, 뚜렷한 인중, 큰 입 등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표현되어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로 보이는 세 줄의 선이 나 있으며, 그 아래로 승각기의 접힌 모습이 보인다. 일부 옷자락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의는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부좌를 하고 있는 하반신을 덮고 있는 옷주름들은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가늘게 눈을

뜨고 생각에 잠긴 듯한 상호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왼팔은 어깨까지 들어 올렸으며, 오른팔은 무릎 위에 두었는데, 그 자세로 보아 조성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연꽃 가지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만들어진 손들은 손톱과 손가락 마디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수준 높은 작품이다.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데, 맞대고 있는 손가락 사이에 보주를 두는 17세기 불상과 같이 작은 보주[구슬]가 이들 손가락 사이에도 표현되어 있다(도3). 손바닥에도 17세기 불상에 많이 보이는 키 모양의 손금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몇가지 특징은 이들 손이 조성 당시의 것임을 알려준다.

한편, 아래쪽의 [문헌자료] (3)문수보살조상발원문(文殊菩薩造像發願文, 도4)과 (5) 발원문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상원사 목조보살좌상은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와 같이 문수보살상이며, 그것을 만든 조상 화원(造相 畫員)으로는 회감(懷鑒), 세정(洗淨), 신언(神彦), 근현(僅玄), 사길(士吉) 등 임을 알 수 있다. 수화원首畫員 회감과 화원 신언은 1661년에 강진 무위사無爲寺 목조지장보살상을 조성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 살 찐 듯한 조형, 긴 상체, 큼직큼직한 이목구비 등에서 두 보살상이 같은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자료>

(1) 眞如院三重創發願文:조선시대 현종 1년(1660) 5월에 상원사의 淸空子 義天이 기록한 것으로, 상원사의 세 번째 중창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목조보살좌상 조성에 관여하였다고 추정되는 大畫員 信兼과 懷鑒比丘의 이름이 보인다.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內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此寺始創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歲一千一百三十五年也

嗟呼大哉如今宿世遇此勝因其易乎哉

實是盲龜遇木得見曇花況同參立盟以/爲來世相導之勝利乎非唯所薦先靈各得/解脫與茫茫沙界蠢蠢含靈同入如來正妙之/域矣莫以今時不相識面爲虛切須佩持銘心/刻骨涅槃路上同遊之日方知今日同結不朽/之因其中若有業重先滯者先登解脫者不/忘參契之意攝受引出以後已焉此同參/結契之勝利也昔者淨藏淨眼救妙莊卍王/之類是爲良證各須勉之

山中各現大德無影大師頤凜大禪參道人德堅/不無昔願不勝悲感如古重創大功德主義天伏爲仙父一吐清明道德成均狀[壯]元淑淨先生文斗仙母崇善夫人李氏禮西兩位仙靈之位承此願力俱生淨界次願各各所所緣化木手助役諸大勸化士隨喜施主亦伏爲上世先亡師僧父母列位列名靈駕階生淨界之願敏洪敏英

重創大施主 金毛得兩主 李春花兩主

重創大施主

盖板大施主 化主灵埋比丘
 佛像大施主 吳論乞兩主夫人 변시묘련 妙卍行正隧玄信悅 印雲比丘 德雲比丘
 丹青大施主 金兩主 克玄 尙惠
 大木 法明比丘信宝一訓 姜一万 大木 麗輝能淨連信
 大畫員 信兼 大畫員 懷鑒比丘 信悅母懿德兩主 辛世文兩主
 幻寂堂 大化主 惠楚 眞如院 學禪 仏相 學文 盖板灵埋 丹青惠明 淨排尙彦
 大德 無說比丘 高熹善
 引勸 僅圭 惠清 清信居士 明俊 明寂 大都監 印雲 信悅
 大別坐 性敏 /大施主兼別坐 信悅比丘 性彦比丘
 大德琢瓊 大德引勸兼神鏡 明察比丘 至誠比丘
 各各結願隨喜施主与緣化比丘亦生前永世病患死後直上蓮花之願
 順治十七年庚子五月初三日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將後人智鏡幻寂清空子
 義天謹書
 香閣幻寂堂 大化主 惠楚 眞如院 重創化主學禪比丘
 佛相化主 學文 盖板化主灵埋 丹青化主惠明比丘 塗排尙彦比丘 印圭双應清儷激鏡
 佛相大施主 正木一千疋 清信居士吳論乞兩主
 佛相面金大施主 金歸源兩主
 丹青大施主徐相男 命介兩主 一玉比丘
 敬元 印圭 應侶”

(2)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眞如院三重創發願文을 축약한 내용으로서, 대화원 신검과 회감 비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內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此寺始作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歲一千一百三十五年也

嗟呼如今宿世遇此勝因其易乎哉實

是盲龜遇木得見曇花况同參立盟/以爲來世相導之勝利乎非唯所薦/先灵各得解脫與茫茫
 沙界蠢蠢含灵同/入如來正妙之域矣莫以今時不相識面爲/虛切須佩持銘心刻骨涅槃路上
 同遊之/日方知今日同結不朽之因其中若有業/重先滯者先登解脫者不忘參契之意/攝受
 引出以後已焉此同參結契之/勝利也昔者淨藏淨眼救妙莊卍王之類/是爲良證各須勉之
 發願扶助義圭比丘

大木 能淨 連信 僅和 愛善 性言

大化主 惠楚比丘 學禪比丘 學文比丘 惠明比丘 尙彦比丘 清信士明俊明寂

佛相丹青盖板幻寂堂種種雜物扶助/都大勸化師印雲比丘信悅比丘引勸/能淨比丘

惠湜比丘与各各結願隨喜施/ 主亦生前永世病患死後直上蓮臺之願

順治十七年庚子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直孫鞭羊之子將後人智鏡幻寂清空子義天謹書
又引勸惠清比丘 大德琢瓊比丘 神鏡比丘 性敏比丘”

(3) 文殊菩薩造像發願文: 목조보살좌상의 존명을 알려 주는 결정적인 발원문으로서 순치(順治) 18년(1661)에 화주(化主)인 학문비구(學文比丘)가 주관하고, 청공자의천(清空子 義天)이 발원문을 쓴 내용이다.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地盧山者曰風爐山一萬眞文殊常住之處/眞如院者本來天作諸佛都會之所□□人□做/作又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三重創如日又明/年辛丑文殊造像安坐都計一千一百三十八年庚子也/發願化主學文比丘助緣印雲信悅志誠大願/功德主幻寂亦同升發願文.....順治十八年辛丑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清空子平生發願萬一謹書”

(4) 順治十八年發願文: 순치 18년(1661) 7월에 오대산 진여원의 문수대보살(文殊大菩薩), 오대오여래(五臺五如來), 남순동자(南巡童子), 선재동자(善財童子) 등을 환적 청공자(幻寂 清空子)가 발원한 내용이다.

“五百佛各經第一佛号

南無東方解脫主世界虛空功德清淨微塵等目端正功德相光明華波頭摩琉璃光寶體香最上香供養訖種種莊卽/頂髮變化莊卽無量.....順治十八年辛丑七月日五臺山眞如院主人乾坤一柱智鏡幻寂清空子平生發願造成文殊大菩薩五臺五如來及南巡童子善財童子及畫并三十六變化形我願佛大悲力所願如意一無防害現增福壽當生淨刹所願一一成就之願”

(5) 發願文: 조선시대 현종 2년(1661) 7월 10일에 서방 극락교주 아미타불, 大智文殊사리보살, 대비관자재보살, 대성대세지보살, 대원지장보살, 당래미륵보살, 일대교주 석가모니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남순동자, 선재동자 등을 의천이 발원한 내용이다. 조상 화원(造相 畫員)으로는 회감(懷鑒), 세정(洗淨), 신언(神彦), 근현(僅玄), 사길(士吉) 등의 이름이 보인다.

“時維/順治十八年辛丑七月十日清信弟子義天比丘惟願

西方極樂教主阿彌陀佛大智文殊師利菩薩大悲觀自在菩薩大聖大勢至菩薩大願地藏菩薩當來彌勒尊佛一代教主本師釋迦牟尼佛清淨法身毘盧遮那佛南巡童子善財童子七十三位畫像諸伏慈光慧日大悲願力消我身心業惑霜露慈風善振摧重業山法水長流洗我心垢惟願我等及與父母速達心本永滅罪根法界衆生同得清淨 又復歸依如是十方畫虛空界一切三寶無量賢聖發願 造相化主學文比丘 造相大畫員 懷鑒洗淨神彦僅玄 士吉/大德琢瓊 持殿參證 別坐信悅 飯頭信性善文 爲法忘身丘來往德運比丘種種助緣文姓忝春發願 佛相大施主 尙宮夫人邊氏妙蓮/大施主 清信居士 金歸原兩主 吳論乞兩主/諸伏都

會眞如院重創 文殊造成并畫三十六化形發願 功德主兼證參 智鏡幻寂清空子所願 如義一無防害”

□ 문화재전문위원

1. 현상

보살상은 나무 재질이며 도금된 상태이다. 두 팔과 보관 그리고 지물인 연꽃가지는 별도로 제작하여 본체에 삽입된 형태이다. 보살상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문수보살임을 나타내는 도상학적 근거는 없지만, 조성발원문의 문수보살 기록을 통해 존명이 확인되었다.

체격은 긴장한 편이며 얼굴은 세로가 약간 긴 직사각형에 가깝다. 두 손으로는 연봉이 달린 긴 연꽃가지를 쥐고 있다. 얼굴과 몸에는 조선 후기 일반적인 불상과 같이 거의 양감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평평하다. 반면에 매우 두껍게 표현된 옷이 온 몸을 감싸고 있다. 옷은 불상의 복식으로서 (裙衣)-僧祇支-覆肩衣-大衣를 입고 있으나 균의는 승기지 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보살상이 불상의 복제를 착용하는 것은 조선 후기 보살상의 일반적인 착의법이라 하겠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조금 감싸고 있어 변형편단우견 착의법인데, 오른쪽 가슴에 끝에 표현된 뾰족한 의단, 왼쪽 무릎을 덮은 옷자락, 가슴의 띠가 굵은 승기지 상단 등의 표현은 동일 조각승의 작품인 1666년의 김제 귀신사 극락전 아미타불상(현 군산 불주사 봉안), 1673년의 김제 흥복사 삼방불좌상(현 燒失) 등에서도 발견되는 회감의 특징이다.

2. 조성발원문

현재 수 종의 발원문이 복장으로부터 발견되었다. 이를 통하여 이 존상이 문수보살상이며 1661년 7월 수조각승 懷鑿을 비롯하여 洗淨, 神彦, 儀玄, 士吉 등 5인에 의하여 완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수조각승 회감은 조선 후기 17세기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應元印均派에 소속된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조성하기 이전인 1633년에는 金堤 歸信寺 塑造三世佛坐像을 수조각승 印均 아래의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조성하였고, 상원사 불사 이후인 1666년에는 같은 귀신사 극락전에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였는데, 이때 상원사 불사에서 보조 조각승이었던 의현를 대동하였다. 또한 1673년에는 김제 흥복사에 봉안되었다가 최근 소실된 삼방불좌상을 역시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17세기말을 거쳐 18세기 초까지 불상 조성 시 주질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1705년 河東 雙磎寺의 寒山, 拾得, 金剛像 조성 불사

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3. 문헌자료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造成發願文」 1661년 7월 10일, 白紙墨書.

時維

順治十八年辛丑七月十日清信弟子義天比丘惟願

西方極樂教主阿彌陀佛大智文殊師利菩薩

大悲觀自在菩薩大聖大勢至菩薩大願

地藏菩薩當來彌勒尊佛一代教主本師

釋迦牟尼佛清淨法身毘盧遮那佛

南巡童子善財童子七十三位畫像諸佛¹⁴⁾

慈光慧日大悲願力消我身心業惑霜露慈風

善振摧重業山法水長流洗我心垢惟願我等

及與父母速達心本永滅罪根法界衆生同

得清淨 又復歸依如是十方畫虛空界

一切三寶無量賢聖 發願造相化主學文比丘

造相大畫員懷鑒洗淨神彥儀¹⁵⁾玄士吉

大德琢瓊 持殿參證別坐信悅飯頭信性善文

爲法忘軀¹⁶⁾來往德運比丘種種助緣文姓忞春

發願佛相大施主尙宮夫人邊¹⁷⁾氏妙蓮

大施主清信居士金歸原兩主吳論乞兩主

諸佛¹⁸⁾都會眞如院重創文殊造成并畫三十六化形發

願功德主亦兼證參智鏡幻寂清空子所願如義一無防害

□ 문화재전문위원

오대산은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의해 문수진성(文殊眞聖)이 상주하는 곳으로 믿어졌고, 상원사는 지금껏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수성지가 되어 왔다. 상원사는 성덕왕 4년 신라 왕자 寶川과 孝明에 의해 개창되었고, 처음 이름은 진여원(眞如院)이었다. 705년(성덕왕 4) 신라 왕자 보천(寶川)과 효명(孝明)에 의해 처음 개창되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상원

14) 원문은 ㅅ+天.

15) 원문은 ㅅ+又.

16) 원문은 身+丘.

17) 원문은 邊+寸.

18) 원문은 ㅅ+天.

사는 세조의 원찰로서 여러 번 行幸한 기록이 『世祖實錄』에 보이고, 특히 상원사 행행 중 문수동자와의 기연(奇緣)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상원사에 자신이 친견한 문수동자의 진상(眞像)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목조문수동자상은 국보 제2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원사 문수전의 불감(佛龕) 내에는 세조가 직접 친견한 진상을 조각한 문수동자상과 함께 1구의 보살좌상이 나란히 봉안되어 있다. 보살좌상은 1661년 진여원의 세 번째 중창 때 만들어진 문수보살상인데, 불상의 복장에서 불상의 조성 및 중수과정을 알 수 있는 발원문과 불상의 심장에 해당하는 후령통, 법사리로 납입된 경전류 등 다양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불상의 조성 및 중수과정, 그리고 불복장의 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서지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들이다.

이 문수보살좌상은 쌍계(雙髻)의 문수동자상과 달리 머리에는 꽃잎 모양으로 능을 준 모판(母板)에 화염무늬, 봉황무늬, 꽃무늬, 관대 등을 따로 제작하여 꽃아 화려하게 장엄한 보관을 착용하였다. 보관의 모판(母板)에는 국화당초문을 얇게 도들새김하였다. 머리의 정상에는 2개의 능으로 달팽이 모양처럼 둥글게 말려 있는 보계가 꽃혀 있다. 보관으로 가려진 머리부분과 달리 노출된 앞·뒤의 머리는 빗질하듯 세밀하게 머리카락을 표현하였다. 양 어깨에는 귀의 귓불을 가로질러 내린 2가닥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3개의 고리 모양으로 엮은 뒤 다시 세 갈래로 흘러내렸다. 보발은 흙 같은 가소성의 재질을 사용해서 부착한 것이다.

상호는 고개를 약간 숙여 고요하게 선정에 잠긴 듯 엄숙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길쭉한 장방형의 얼굴에는 두툼하게 부푼 눈두덩과 가늘게 반개한 눈, 크고 우뚝한 콧망울이 발달한 코, 뚜렷한 인중과 미묘한 법열의 미소를 머금은 초생달 같은 입술을 표현하였다. 둥글게 돌아간 큰 귓바퀴에는 짧은 상·하각(上下脚)의 골을 만들었고, 귀불은 빈약하며 귓구멍은 불링핀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머리에 비해서 어깨는 좁은 편으로 고개를 숙여 짧게 보이는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이 남아 있다. 착의형식은 여래상의 복식상 같이 이중으로 걸쳐 입었는데, 상의(上衣) 위에 걸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걸쳐져 있고, 복부 중앙에서도 두 장의 대의가 W자형으로 교차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다. 가슴에는 사선으로 접은 군의의 자락이 표현되었으며, 왼쪽 팔목을 덮고 흘러내린 소맷자락이 노출된 오른발가락을 덮고 날카로운 나뭇잎모양으로 넓게 드리워졌다. 무릎은 측면의 경사가 급하고, 앞쪽으로는 나팔모양으로 벌어진 옷 주름이 물결치듯 부드럽게 펼쳐져 있다. 특히 무릎 아래로 나팔꽃이 벌어지듯 부드럽게 펼쳐진 주름은 17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 전라·경상지역에서 크게 활약한 인균의 불상에서 그 유사점이 인정된다. 이는 이 불상 조성에 참여했던 회감이 印均派 조각승으로 활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불신에 표현된 선은 17세기 불상에서 전반적으로 간취되는 간결하고 힘 있는 철선묘에 가까운 선묘를 사용하였고, 불필요한 선

은 최대한 배제하여 요점적이다.

섬려하게 조각된 손은 따로 제작하여 불신에 꽂은 것인데, 왼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오른손은 내려 엄지를 중지를 등글게 맞대었다. 손가락이 맞닿은 지점에는 작은 구슬이 표현되었고 그 공간사이로 긴 如意頭 줄기를 잡아 문수보살임을 나타내었다.

문수보살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허리는 길고, 무릎은 낮고 넓어 17세기 전·중엽경의 힘과 중량감이 강조된 중후한 불상에 비해 다소 늘씬해진 느낌을 읽을 수 있다. 이 보살상의 복장에서는 환적당 의천이 쓴 9매의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진여원 삼중창과 문수보살 조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발원문 중에서 순치(順治) 18년 신축(辛丑, 1661년)에 의천(義天)비구가 쓴 발원문에 따르면, 문수보살상은 학문(學文)스님의 화주(化主)로, 대화원(大畫員) 회감(懷鑒), 세정(洗淨), 신언(信彦), 의현(僅玄) 등이 참여하여 조각하였고, 대시주로는 상궁(尙宮) 변묘련(邊妙蓮), 청신거사(淸信居士) 김귀원(金歸原) 등이 참여하였다. 이렇듯 진여원 삼중창 불사는 궁중의 상궁을 비롯하여 남녀 僧俗이 기쁘게 발심하여 이룩한 불사였다. 한편 이 보다 1년 앞서 의천이 쓴 발원문(1660년)에는 대화원으로 신겸(信謙)과 회감이 등장하고 있는데, 신겸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불화승으로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1649년)과 청원 안심사 영산회괘불도(1652년), 연기 비암사 영산회괘불도(1657년)를 그린 불화승이었다. 따라서 신겸은 불화제작을, 회감은 불상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상을 조성한 회감은 인균 함께 1633년에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을, 1648년에는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시왕상을, 그리고 1655년에 여수 흥국사 응진당 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을 조성할 때는 산중석덕(山中碩德)으로 있으면서 인균(印均)의 조상활동을 도왔다. 그는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함께 조성했던 신언(信彦)과 함께 1661년에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상을 조성하였으므로, 아마도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제작하고 바로 무위사의 불사(佛事)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1666년에는 전북 군산 불주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을 수조각승으로 제작하였고, 이때 義玄도 보조 조각승으로 회감을 도왔다.

회감은 불륨감 있는 중후한 상호, 강약을 적절히 구사한 선묘, 무릎 앞으로 나팔모양으로 부드럽게 펼쳐진 옷 주름 등에서 인균의 영향이 엿보이나, 인균에 비해 양감은 절제되었고 체구는 늘씬해져 일단의 양식변화가 간취된다.

○ 복장유물

① 후령통

○ 수 량 : 1 점

○ 규 격 : 높이 13cm, 폭 5.2cm

○ 재 질 : 銀

○ 제작시기 : 1661년경

복장에서 발견된 후령통은 높이 13cm, 폭 5.2cm이며 은제로 만들었으며, 형태는 원통형이다. 뚜껑의 윗면에는 나선형으로 홈을 판 긴 후혈을 부착하였고, 안쪽에는 붉은색으로 진심종자(眞心種子)를 썼다. 몸통의 바깥에는 별도로 만든 사방경을 오색실로 고정하였다. 후령통 내에는 팔엽개를 비롯하여 방위별로 각종 상징물을 담은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후령통은 홍색비단(14.2×27.8)→백색비단(18.2×39.0)→황초폭자(47.5×46.5)→청색비단(51.5×50.5) 순으로 포장하여 마감하였다.

㉔ -1 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 수 량 : 1枚

○ 규 격 : 26.5×108.2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0年

이 자료는 상원사의 3번째 중창발원문을 1660년(현종 1) 5월에 淸空子 義天이 기록한 것이다. 해서체로 49행에 걸쳐 墨書 하였다. 내용은 眞如院[상원사]의 세 번째 중창을 주선한 學禪스님을 비롯하여 시주질, 화원, 단청 등 중창에 관여한 인물들을 소임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중간에 한글이 섞여 있다.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

山內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此寺始創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歲」

一千一百三十五年也」

嗟呼大哉如今宿世遇此勝因其易乎哉」

實是盲龜遇木得見曇花況同參立盟以」

爲來世相導之勝利乎非唯所薦先靈各得」

解脫與茫茫沙界蠢蠢含靈同入如來正妙之」

域矣莫以今時不相識面爲虛切須佩持銘心」

刻骨涅槃路上同遊之日方知今日同結不朽」

之因其中若有業重先滯者先登解脫者不」

忘參契之意攝受引出以後已焉此同參」

結契之勝利也昔者淨藏淨眼救妙莊卍王」

之類是爲良證各須勉之」

山中各現大德無影大師頤凜大禪參道人德堅」

不無昔願不勝悲感如古重創大功德主義天伏爲」
仙父一吐清明道德成均狀[壯]元淑淨先生文斗」
仙母崇善夫人李氏禮西兩位仙靈之位承此願」
力俱生淨界次願各各所所緣化木手助役諸大」
勸化土隨喜施主亦伏爲上世先亡師僧父母」
列位列名靈駕階生淨界之願敏洪敏英」
重創大施主 金毛得兩主 李春花兩主」
重創大施主 魚山仲和」
盖板大施主 化主靈埋比丘」
佛像大施主 吳論乞兩主夫人 변시묘련 妙田行正隧玄信悅 印雲比丘 德雲比丘」
丹青大施主 金歸元兩主」

克玄 尙惠

大木 法明比丘信寶一訓 姜一万 大木 麗輝能淨連信」
大畫員 信兼 大畫員 懷鑒比丘 信悅母菴德兩主 辛世文兩主」
幻寂堂 大化主 惠楚 眞如院 學禪 仏相 學文 盖板 靈埋 丹青惠明 淨排尙彦」
大德 無說比丘 高熹善」
引勸 仅圭 惠清 清信居士 明俊 明寂 大都監 印雲 信悅」
大別坐 性敏 大施主兼別坐 信悅比丘 性彦比丘」
大德琢瓊 大德引勸兼神鏡 明察比丘 至誠比丘」
各各結願隨喜施主与緣化比丘亦生前永無」
病患死後直上蓮花之願」
順治十七年庚子五月初三日西天一百十九代」
清虛之孫鞭羊之子將後人智鏡幻寂」
清空子義天謹書」
香閣幻寂堂 大化主 惠楚 眞如院 重創化主學禪比丘」
佛相化主 學文 盖板化主靈埋 丹青化主惠明比丘」
塗排尙彦比丘 印圭双應清儼澈鏡」
佛相大施主 正木一千疋 清信居士吳論乞兩主」
佛相面金大施主 金歸源兩主」
丹青大施主徐相男 命介兩主 一玉比丘」
敬元 印圭 應儼」

㉔-2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 수 량 : 1枚

○ 규 격 : 26.5×108.2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0年

②-1의 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을 축약하여 傳寫한 것으로 보여 진다.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

五臺山內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此寺始作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

歲一千一百三十五年也」

嗟呼如今宿世遇此勝因其易乎哉實」

是盲龜遇木得見曇花況同參立盟」

以爲來世相導之勝利乎非唯所薦」

先灵各得解脫與茫茫沙界蠢」含灵同」

入如來正妙之域矣莫以今時不相識面爲」

虛切須佩持銘心刻骨涅槃路上同遊之」

日方知今日同結不朽之因其中若有業」

重先滯者先登解脫者不忘參契之意」

攝受引出以後已焉此同參結契之」

勝利也昔者淨藏淨眼救妙莊卍王之類」

是爲良證各須勉之 發願扶助義圭比丘

大木 能淨 連信 儀和 愛善 性言」

大化主 惠楚比丘 學禪比丘 學文比丘」

惠明比丘 尙彦比丘 清信士明俊明寂」

佛相丹青盖板幻寂堂種」雜物扶助」

都大勸化師印雲比丘信悅比丘引勸」

能淨比丘惠湜比丘与各」結願隨喜施」

主亦生前永無病患死後直上蓮臺之願」

順治十七年庚子 西天一百十九代」

清虛之直孫鞭羊之子將□後人智鏡」

幻寂清空子義天謹書」

又引勸惠清比丘 大德琢瓊比丘 神鏡比丘 性敏比丘」

②-3 文殊菩薩造像發願文(功德主幻寂亦同升發願文)

○ 수 량 : 1枚

○ 규 격 : 28.0×105.7cm 자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1年

化主人 學文比丘가 주관하고, 淸空子 義天이 발원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그밖에 이 불사에 참여한 시주자와 所任을 맡은 명단도 나열되어 있다.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

地廬山者曰風爐山一萬眞文殊常住之處」

眞如院者本來天作諸佛都會之所者(?)□人□做」

作又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三重創如日又明」

年辛丑文殊造像安坐都計一千一百三十八庚子也」

發願化主學文比丘助緣印雲信悅志誠大願」

功德主幻寂亦同升發願文」

嗟呼大哉如今宿世遇此勝因其易乎哉實」

是盲龜遇木得見曇華况同參立盟以」

爲來世相導之勝里乎我亦弟子大智文殊」

大願地藏大聖觀音與五万諸至前立大發」

願啓白云淫以永斷睡魔經微所願十二摩訶」

始誦之□永無障礙如昔壯開遠明開善果勝」

午倍行願所解同與文殊普賢觀音地藏」

無二無別語音法 ” 通徹十方智慧明 ” 過」

於千日塵沙劫前所作諸罪一禮一念如湯滿」

百怪口舌返爲良藥諸佛妙理無不通明六」

根□淨奇絕妙好助□良弟三 ” 九 ” 不離左」

右邦魔外道衆 ” 垂角一切不善者永不入」

吾一前自然去千万里所願如意一 ” 成就」

次願仙父成均進士文斗崇善夫人李氏」

禮西兩位灵駕速離苦海生於淨界與各 ” 大」

小施主化主良工緣化比丘亦伏爲上世先亡師」

僧父母列位列各灵駕兼及法界含灵」

皆生淨界之願我亦願佛不捨慈悲如□」

願發一〃明證」

順治十八年辛丑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

子智鏡幻寂清空子平生發願萬一謹書」

山中大德頤凜崇印德堅正日僅圭惟安」

正眼行修自悅剋敏應卞尙元應元熙遠」

尙佛 大德琢瓊 神鏡性敏靈雨天旭僅贊」

玄仁智豈學悅覺日學禪勝學信性德運」

明察 正雲 惠楚 無說」

佛相大施主 吳論乞兩主 正木十同」

大施主金歸原兩主 正心 法淨 法令 三玄」

大施主夫人邊氏妙蓮 宝明 奉德 韓四春兩主」

朴林兩主 宋生兩主 妙卬行正 遂玄 高希善兩」

沈成男兩人 李明尹兩人 金重九 明准 明寂」

時橫城土主 具日兩位 子弟守禎 志禎 尙禎 徐氏信湖」

鞭羊堂首弟子一旺名現大德楓潭大師義謹」

名現大德釋敏慧堂」

㉔-4 順治十八年發願文(智鏡幻寂清空子 平生發願)

○ 수 량 : 1枚

○ 규 격 : 27.8×95.5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1年

— 順治十八年(1661) 7월에 오대산 진여원의 文殊大菩薩과 五臺五如來 및 南巡童子 善財童子 造成과 畫并三十六變化를 幻寂 淸空子가 발원한 내용이다.

五百佛各經第一佛号

南無東方解脫主世界虛空功德」

淸淨微塵等目端正功德相光」

明華波頭摩琉璃光寶体香」

最上香供養訖種種莊卍頂髮」

變化莊卍無量法界生生無障礙 王」
如來阿羅訶三若三菩佛陀」
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三十六」
萬億一十一萬九千五百同名同号」
大慈大悲阿彌陀佛」
南無文殊師利菩薩」
南無普賢菩薩」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至菩薩」
南無除障礙菩薩」
南無彌勒菩薩」
南無地藏菩薩」
南無清淨大海衆菩薩摩訶薩」
願共法界諸衆生同入彌陀大願海」
十方三世仗阿彌陀第一九品度衆生威德無」
窮極 我今大歸依懺悔三業罪」
凡有諸福善至心用廻向」
願同念佛人盡生極樂旺見佛了生死」
如仗度一切 願我臨欲命終時盡」
除一切諸障礙面見彼仗阿彌陀卍」
得生生西方安樂刹」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亦與衆生當」
生極樂旺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順治十八年辛丑七月日五臺山眞如院主人乾坤」
一柱智鏡幻寂清空子 平生發願造成」
文殊大菩薩五臺五如來及南巡童子」
善財童子及畫并三十六變化形我願佛大悲力」
所願如意一無防害」
現增福壽當生淨刹」
所願一一成就之願」

②-5 發願文(時維)

- 寸 량 : 1枚
- 寸 척 : 38.2×58.0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1年

1661년(현종 2) 7월 10일에 의천 비구의 발원으로서 서방 극락교주 아미타불, 大智文殊사리보살, 대비관자재보살, 대성대세지보살, 대원지장보살, 당래미륵보살, 일대교주 석가모니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남순동자선재동자 73위의 상을 그리니 모든 부처의 자비광명과 원력으로 몸과 마음의 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불사에 참여한 造像畫員으로는 懷鑒, 洗淨, 神彥, 僅玄, 士吉 등이며 그밖에 시주자와 소임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時維」

順治十八年辛丑七月十日清信弟子義天比丘惟願」

西方極樂教主阿彌陀佛大智文殊師利菩薩」

大悲觀自在菩薩大聖大勢至菩薩大願」

地藏菩薩當來彌勒尊佛一代教主本師」

釋迦牟尼佛清淨法身毘盧遮那佛」

南巡童子善財童子七十三位畫像諸伏」

慈光慧日大悲願力消我身心業惑霜露慈風」

善振摧重業山法水長流洗我心垢惟願我等」

及與父母速達心本永滅罪根法界衆生同」

得清淨 又復歸依如是十方畫盧空界」

一切三寶無量賢聖發願 造相化主學文比丘」

造相大畫員 懷鑒 洗淨 神彥 僅玄 士吉」

大德琢瓊 持殿參證 別坐信悅 飯頭信性善文」

爲法忘軀來往德運比丘種種助緣文姓忝春」

發願 佛相大施主 尙宮夫人邊氏妙蓮」

大施主 清信居士 金歸原兩主 吳論乞兩主」

諸伏都會眞如院重創 **文殊造成**并畫三十六化形發」

願 功德主兼證參 智鏡幻寂清空子所願 如義一無防害

㉔-6 清信弟子智鏡幻寂平生發願文

○ 수 량 : 1枚

○ 규 격 : 28.2×25.5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1年

- 환적의 평생발원문 내용을 기록하였다. 13行 이하는 결락되었다.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佛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諸法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諸僧
南無第一毘派戶佛 南無第二戶棄佛毘舍浮佛
第四拘留孫佛 第五拘那舍牟尼佛佛 第六迦葉
佛第七釋迦文佛南無東方蒲月世界藥師如來
南無大智文殊師利菩薩南無無身如來佛
南無栴檀香如來佛 南無摩尼至天佛
南無大勢至菩薩 南無西方極樂教主阿彌陀佛
南無白衣觀自在菩薩 南無當來彌勒尊佛
南無二代教主本師釋迦文佛 南無最精至菩薩
南無普賢菩薩 南無中方清淨法身毗盧遮那佛
南無西天四七唐土二三歷代傳燈無量諸祖師
이하 찢려 나감.

㉔-7 幻寂淸空子平生發願文

○ 수 량 : 1枚

○ 규 격 : 28.5×116.0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1年

- 환적의 평생발원문 내용을 기록하였다. 전반부는 朱色으로 하반부는 墨書하였다.

觀世音菩薩摩訶薩大勢至菩薩摩訶薩
千手菩薩摩訶薩如意輪菩薩摩訶薩
大輪菩薩摩訶薩觀自在菩薩摩訶薩
正趣菩薩摩訶薩漏月菩薩摩訶薩
水月菩薩摩訶薩軍陀利菩薩摩訶薩
十一面菩薩摩訶薩諸大菩薩摩訶薩
千手千眼觀自在菩薩摩訶薩廣大圓滿無碍
大悲心神妙章句大陀羅尼曰

다라니부분 생략

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五臺山一萬文殊常住之所眞如院

堂主文殊造成化主學文信悅乾坤一柱智鏡

幻寂淸空子平生發願從今勢至佛口

永不退菩薩心所願如意一世防害与

法界含靈承此願力速離若海生於

極樂之願

㉔-8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 수 량 : 1枚

○ 규 격 : 29.0×24.7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1년경

— 大字로 3행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을 쓰고 小字 3행은 발원문을 기록하였다.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一生發願弟子今生無病患命於生極樂」

所求所願一〃成就從今身主佛身」

永不退菩提心立志而歸命禮三寶」

㉔-9 發願文

○ 수 량 : 4枚

○ 규 격 : 22.2×13.7cm

○ 재 질 : 楮紙

○ 제작시기 : 1661年

— 順治18年(1661) 7월에 오대산 진여원에 五臺眞聖을 조성한 화주 學文比丘와 功德主 환적의 소원을 기록한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 2매씩 있어 수량은 총 4매이다.

㉔ -1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

十方三世一切諸三寶」

順治十八年辛丑七月日五臺山眞如院」

五臺眞聖造成化主學文比丘大功德主幻寂」

所願如意一無防害」

㉑ -2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

三世一切諸三寶」

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五臺山一萬文殊常住」

之所眞如院五臺眞聖造成化主學文比丘」

大功德主乾坤一柱智鏡幻寂清空子謹書

所願如意一無防害現增福壽當生淨刹」

㉑ -3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

諸三寶」

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五臺山一萬文殊常住之所」

眞如院五臺眞聖造成化主學文比丘大功德」

主乾坤一柱智鏡幻寂清空子發願」

所願如意一無防害現增福壽」

當生淨刹」

㉑ -4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

三世一切諸三寶」

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五臺山一萬文殊常」

住之所眞如院五臺眞聖造成化主」

學文比丘大功德主乾坤一柱幻寂」

發願所願如意一無防害」

□ 문화재위원 박문열

○ 腹藏遺物目錄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遺物> 33種의 目錄을 중심으로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典籍>의 규모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遺物 目錄>
(腹藏遺物 33種 中 典籍 32種)

番號	典籍	名稱	數量	規格 (cm)	造成年代 (推定)	版本	備考
01	01	廣百論釋論, 卷5.	1卷1軸	28.8×820.8	[筆寫年不明]	筆寫本	典籍
02	02	·金剛般若波羅密經(前面)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後面)]	2卷1帖	39.3×12.6	[筆寫年不明] [麗末鮮初 推定]	筆寫本	典籍
03	03	禮念彌陀道場懺法, 卷7-10	4卷1冊	25.3×18.5	成宗 5(1474)	木板本	典籍
04	04	六經合部	4卷1冊	36.0×16.0	成宗 19(1488)刻, 後刷	木板本	典籍
05	05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單卷1冊	30.4×18.7	宣祖 40(1607)	木板本	典籍
06	06	妙法蓮華經, 卷6	1卷1冊	32.0×16.0	[刊行年不明] [麗末鮮初 推定]	木板本	典籍
07	07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30.5×17.5	成宗 24(1493)刻, 後刷	木板本	典籍
08	08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30.5×17.5	中宗 34(1539)	木板本	典籍
09	09	妙法蓮華經, 卷3-4, 6-7	4卷2冊	29.5×17.8	明宗 16(1561)後刷	木板本	典籍
10	10	妙法蓮華經	7卷7冊 (複1帙)	41.5×54.0	顯宗 2(1661)後刷	木板本	典籍
11	11	妙法蓮華經, 卷1	1卷1冊 (複2冊)	20.5×17.5	仁祖 24(1646)	木板本	典籍
12	12	妙法蓮華經, 卷5-6	2卷1冊	29.3×17.9	顯宗 2(1661)	木板本	典籍
13	13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枚	26.5×108.2	顯宗 1(1660)	筆寫本	典籍
14	14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枚	26.5×108.2	顯宗 1(1660)	筆寫本	典籍
15	15	文殊菩薩造像發願文	1枚	28.0×105.7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16	16	順治十八年發願文	1枚	27.8×95.5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17	17	發願文	1枚	38.2×58.0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18	18	清信弟子智鏡幻寂平生發願文	1枚	28.2×25.5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19	19	發願文	1枚	28.5×116.0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0	20	發願文	1枚	29.0×24.7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1	21	發願文	2枚 (複2帙)	22.2×13.7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2	22	陀羅尼啓請	1枚	28.0×89.8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3	23	發願文	1枚	28.0×59.0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4	24	佛說阿彌本心微妙眞言	1枚	28.0×54.5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5	25	眞言	1枚	28.6×58.8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6	26	觀世音菩薩姥陀羅尼	1枚	37.0×71.0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7	27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多經	1枚 (複1枚)	25.1×35.0 41.6×59.0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28	28	佛說十二摩訶經	1枚	25.1×35.0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複1枚)				
29	29	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	1枚	26.0×49.4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30	30	阿彌陀本心微妙眞言	1枚 (複8枚)	8.8×27.3 6.6×22.5	顯宗 2(1661)	筆寫本	典籍
31	31	須彌山宇宙論文字曼陀羅	1枚 (複47枚)	23.1×54.8 15.2×36.7 13.6×21.0	顯宗 2(1661)	木板本	典籍
32	32	梵文陀羅尼	1枚 (複6枚)	14.0×22.0	顯宗 2(1661)	木板本	典籍
33	33	候鈴筒	1件	10.0×2.4	顯宗 2(1661)	青銅	-

○ 現狀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遺物>은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東山里 山 1番 地의 上院寺(住持 印廣)의 소유이며, 현재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東山里 山 63番 地의 月精寺(住持 正念)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임시로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遺物>은 上院寺 木造菩薩坐像의 腹藏에서 출 현된 書籍과 古文書 및 候鈴筒 등 33種의 遺物로 保存狀態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 반적으로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月精寺 聖寶博物館에 임 시로 守藏·管理되고 있다.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遺物>의 典籍은 表紙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毀損된 상태이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 處理와 裝訂이 요구된다.

○ 복장유물(서지기술과 내용 및 특징)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遺物>의 書誌記述을 중심으로 그 內容과 特徵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01)

廣百論釋論, 卷5 / 聖天(印度, ?-?) 撰 ; 護法(印度, 530-561) 釋 ; 玄奘(唐, 602-664) 解. -- 筆寫本(白紙墨書). --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12-13世紀 ?)]. 1卷1軸 : 四周單邊(烏絲欄), 匡郭 21.9×820.8cm, 有界, 每行17字, 無魚尾 ; 28.8×820.8cm. 楮紙. 卷軸裝.

卷末題: 廣百論釋論

狀態: 無表紙, 卷頭缺落

內容: 「廣百論釋論」은 印度의 聖天(?-?)이 지은 「廣百論」을 護法(530-561)이 해석하고 7세기 중엽에 唐朝의 玄奘(602-664)이 번역한 「廣百論」을 해석한 것이다. 원래는 卷頭に 「廣百論」의 詩를 잘막하게 싣고 그에 대한 護法의 解釋을 가하는 형식으로 <第一破相品>·<第二破我品>·<第三破時品>·<第四破見品>·<第五破根境品>·<第六破邊執品>·<第七破有爲品>·<第八教誡弟子品> 등 도합 8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白紙에 墨書한 「廣百論

釋論」 권5로 내용은 8품 가운데 제3품인 <破時品>의 후반부에 해당된다. ‘破時’는 시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깨뜨린다는 의미이며, 본 품에서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은 불변한다는 數論을 비롯한 外道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佛敎의 大乘敎理를 설명하고 있다. 본서에는 卷首題가 없고 ‘等於轉變時合成色等其相無異 爾時復爲’으로 시작되고 있어, 再雕大藏經과 비교할 때 卷頭의 5張이 결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는 27장으로 經文은 같으나 異體字가 있다. 四周單邊에 界線은 墨으로 그렸다. 전반부는 결락되어 楮紙를 이어 붙였고, 卷末題는 ‘廣百論釋論’라 되어 있으며 9행의 공간을 남기고 끝에는 木軸을 붙였다. 목축의 양쪽 축봉에는 朱漆을 하였는데 상단에만 남아 있다. 축의 총길이는 30cm, 축봉 지름은 1.2cm이다. 面紙는 앞 3장까지는 얇고 제1-2장은 상·하단이 훼손되어 배접하였으며, 제4장부터는 약간 두꺼운 양질의 楮紙이다. 書體는 寫經體이며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를 알 수 없다. 卷子本(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卷頭의 5장의 缺落을 제외하면 保存狀態는 양호한 편이다. 본서는 학술적으로 佛敎史 및 寫經研究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卷頭의 缺落과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를 알 수 없는 점 등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그 가치가 미흡한 듯하다.

(02)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筆寫本(白紙墨書). --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麗末鮮初 推定)]

2卷1帖 : 四周雙邊(金絲欄), 半匡 24.2×12.6cm, 有界, 6行17字, 註雙行, 無魚尾 ; 39.3×12.6cm. 壯紙. 折帖裝.

前面卷頭題: 金剛般若波羅密經

前面卷末題: 金剛般若波羅密經

後面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後面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後面卷末發願文: 淸信諸子幻寂平生發願我願佛/ 大智文殊師利菩薩大悲觀世音菩薩/ 大願紙匠菩薩大願阿彌陀佛釋迦文/ 佛淸淨法身毘盧遮那佛大悲大思/ 議願力所願十二摩訶始誦之間/ 永無障礙如昔將開遠明開善果/ 勝千倍行願所解同與文殊普賢/ 觀音地藏無異無別語音淸淸通澈/ 十方智慧明明過於千日所願如意一/ 無防害今生無病患命終生極樂// 順治十八年辛丑(1661, 顯宗 2)西天一百十九代淸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淸空子義天(1603-1690)謹書發願/ 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上院寺)

狀態: 無表紙, 一部 菌類蟲食

內容: 본서는 白紙 墨書의 寫經으로 전면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 후면에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수록되어 있다. 前面의 「金剛般若波羅密經」의 卷頭에는 表題가 있어야 할 곳에 表題 대신에 淸虛(1520-1604)의 손자이며 鞭羊(1581-1644)의 아들인 智鏡(字) 幻寂(號) 淸空子 義天(1603-1690)이 “順治十八年辛丑西天一百十九代淸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淸空子義天謹書跋願/ 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上院寺)”의 墨書識記가 있고 <金剛啓請>·<淨口業眞言>·<請八金剛>·<請四菩薩>·<發願文>·<云何梵> 등에 이어 卷頭題인 ‘金剛般若波羅密經’과 다음 행에 ‘鳩摩羅什’의 譯者表示가 있다. 본문은 ‘法會因由分第一’부터 ‘應化非眞分第三十二’까지와 말미에 <般若無盡藏眞言>·<金剛心眞言>·<補闕眞言> 등이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다. 후면의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는 卷頭書名과 ‘般若’의 譯者表示에 이어 「法華經」의 <普賢行願品>이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速疾滿普賢陀羅尼>·<普賢菩薩滅罪呪>·<普賢菩薩擁護受持眞言>을 비롯하여 한글이 혼용된 <七俱胝佛母大准提陀羅尼眞言>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淸信諸子幻寂平生發願我願佛/ 大智文殊師利菩薩大悲觀世音菩薩/ 大願紙匠菩

薩大願阿彌陀佛釋迦文/佛清淨法身毘盧遮那佛大悲大思/議願力所願十二摩訶始誦之間/ 永無障礙如昔將開遠明開善果/ 勝千倍行願所解同與文殊普賢/ 觀音地藏無異無別語音清流通澈/十方智慧明明過於千日所願如意一/無防害今生無病患命終生極樂// 順治十八年辛丑(1661, 顯宗 2)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清空子義天(1603-1690)謹書發願/ 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上院寺)”의 發願文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本文에는 근데근데 얼룩이 있으나 保存狀態는 일부 菌類의 번식을 제외하면 대체로 良好하며, 寫成記가 없어 精確한 寫成年代는 알 수 없으나 品格이 精高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麗末鮮初의 寫經으로 추정된다. 본 寫經은 紙質과 書體에서 品格이 精高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점으로 미루어 表紙에 表題를 書寫하지 않은 채로 流傳되다가, 顯宗 2(1661, 順治 18)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清虛(1520-1604)의 손자이며 鞭羊(1581-1644)의 아들인 智鏡(字) 幻寂(號) 清空子 義天(1603-1690)이 發願文을 墨書로 追記하여 納入·腹藏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03)

禮念彌陀道場懺法, 卷7-10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成宗 5(1474) 推定].

4卷1冊(零本): 四周雙邊, 半匡 25.3×18.5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7.0×24.2cm. 楮紙. 線裝.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版心題: 彌陀懺

卷末題: 禮念彌陀道場懺法

狀態: 無表紙

既指定: 10권2책(보물 제949호), 5권1책(보물 제1144호), 4권1책(보물 제1165호) 등

內容: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을 숭상하면서 잘못된 일을 懺悔하고, 부처 正覺의 지혜를 깨달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법회의 절차를 다룬 佛教儀式集이다. 본서는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1418-1483)가 성종 5(1474)년 8월에 薨去한 세종과 그의 妃인 昭憲王后(1395-1446), 세조와 그의 아들인 懿敬王(德宗, 1438-1457), 睿宗(1450-1469), 成宗(1457-1494)의 初妃인 恭惠王后(1456-1474) 등의 극락천도를 위해 서예가 成任(1421-1484)에게 大字와 小字의 楷書體로 板下本을 쓰게 하고 金守溫(1410-1481)에게 跋文을 짓게 하여 새겨낸 판본이다. 그때 판각을 함께 발원하고 동참한 명단에는 왕을 비롯한 仁粹大妃(1437-1504), 仁惠大妃(1455-1498) 이하 月山大君 李娉(1454-1488), 齊安大君 李瑁(1466-1525), 德源君 李曙(1449-1498), 昌原君 李晟(1455-1505), 河城府院君 鄭顯祖(1440-1504) 그리고 公主·貴人·淑儀·尙宮·고관들과 그들의 부인, 高僧인 信眉(1405-1489)·學悅(?-?)·學祖(1432-1514) 등 무려 90여명이 열거되어 있다. 刊役秩에는 內需司의 別坐·典貨를 비롯한 별감의 감독자와 당대 일류의 畫員·刻字匠·木手·鍊板匠·冶匠·注匠·刀子匠·印出匠·柒匠 등이 총동원되고 있어 王室에서 國家的인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권7-10의 零本으로 권1-6은 缺本이며, 권7도 卷首의 제1-7장이 결락되어 제8장부터 시작되고 있다. 刊記가 없어 精確한 刊行年代는 알 수 없으나 다만 卷末에 成化 10(1474, 成宗 5)년에 쓴 金守溫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점에서 당시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본서의 刊行에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고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佛教文化史와 典籍文化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金守溫(1410-1481)의 跋文만으로도 학술적으로 佛教史 및 書誌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卷頭의 缺落과 刊記가 없어 精確한 刊行年代를 알 수 없는 점 등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에 그 가치가 미흡한 듯하다.

(04)

六經合部 / [編著者不明]. -- 木板本(後刷). -- [全羅道 高山地] : [花岩寺], [成宗 19(1488)刻, 後刷 推定].

4卷1冊(零本) : 圖, 四周單邊, 半匡 19.0×12.6cm, 無界, 8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6.0×16.0cm. 楮紙. 線裝.

刊記: 弘治元年戊申(1488, 成宗 19)四月日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金剛般若波羅密經 末尾) 狀態: 無表紙, 下段左側部分 毀損

內容: 본래 「六經合部」는 「金剛般若波羅密經」, 「佛說阿彌陀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등 6경의 합편이다. 본서는 6경 중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佛說阿彌陀經」 등 4경이 차례로 합綴되어 있으나, 그 후의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과 「觀世音菩薩禮文」 등의 2경은 截散되었다. 翻刻한 刊記의 표시가 없으나 「金剛般若波羅密經」의 <金剛心眞言>과 <補闕眞言>의 末尾에 ‘弘治元年戊申(1488, 成宗 19)四月日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의 開板地和 開板의 寺刹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臺施主 敏問 등 70여명의 施主秩이 있다. 좌측 하단부에 적지 않은 훼손이 있다. 成宗 19(1488)년에 花岩寺에서 판각된 留板에서 後刷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05)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 玄奘(唐, 602-664) 奉詔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宣祖 40(1607) 推定].

不分卷1冊(20張) : 四周單邊, 半匡 21.2cm×15.7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4×18.7cm. 楮紙. 線裝.

卷頭題: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版心題: 藥師經

卷末題: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刊記: 萬曆三十五年丁未(1607, 宣祖 40)六月初吉日

狀態: 無表紙

內容: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은 大唐三藏法師 玄奘이 번역한 것으로 모든 사람의 건강과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모든 재난을 없애주는 것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藥師經’이 약칭하기도 한다. 본서는 唐朝의 玄奘(602-664)이 번역한 「藥師經」을 선조 40(1607)년 6월에 간행한 판본이다. 체제를 보면 卷頭題인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 이어 小字로 ‘大唐三藏法師玄奘奉詔譯’이 있고, 譯者 다음 행부터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 말에는 본서의 판각에 도움을 준 비구니 淑世 등 13인의 施主者 명단에 이어 ‘萬曆三十五年丁未(1607, 宣祖 40)六月初吉日’의 刊行年代가 기록되어 있다. 판각의 숨씨가 떨어지는 편이어서 새긴 글자 획이 가지런하지 않고, 글자체가 고르지 않은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지만 새기자 바로 찍어내어 인쇄는 진하고 선명하다. 前後의 표지는 없으며, 顯宗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納入·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06)

妙法蓮華經, 卷6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發行年不明(麗末鮮初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5.0×24.6cm, 無界, 半葉 7行20字, 無魚尾 ; 32.0×16.0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狀態: 無表紙

[跋文: 妙法蓮華經卷七; 法華經者迺一乘之極談也吾釋雄氏之出世唯爲/ 此之大因緣正示彼之佛知見其敷演猶億世之現/ 曇花其聽聞若盲龜之值木孔寔惟希代之寶固不/ 可易而得焉然古今義釋者不一其說夫如是則孰/ 爲定指南歟遂使于學者罔得而專業素可患諸粵/ 有寶勝老人深證法華三昧每以是介懷於禪觀/ 餘探索衆解自肆其要解解之成集曰法華要解凡/ 七卷其詞略其旨深妙得乎此經之致也可以提今/ 挈古獨步一時出火宅之諸子賜以牛車携化城之/ 衆商安于寶所得不謂大裨於正法者比諸學者乞/ 金鏤木以永其流通使乎靈山一會儼然不散於處/ 處云耳建炎三年己酉(1129, 仁宗 7)春仲南社除籬祖派跋]

[誌文: 蓮經大義會三歸一合於東土統三之應其在歸崇/ 之意孰能如此今者苾芻四一幸得宋本戒環解義/ 其文旨簡宏宜當演揚於普賢道場以廣其傳子聞/ 而悅之遂令雕板以報環師清淨慧服之遠矚焉時/ 上章困敦(庚子, 1240, 高宗 27)朧月下旬謹誌/ 金紫光祿大夫守大師中書令上柱國上將軍監修國史判御史臺事晉陽公崔怡(?-1249)]

既指定: 권7(보물 제692-1호, 제692-2호, 제977호)

內容: 「妙法蓮華經」은 法華思想을 담고 있는 天台宗의 근본경전으로 흔히 ‘法華經’이라고도 한다. 본서는 姚秦의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하고 宋朝의 戒環(?-1127)이 주해한 宋本을 입수하여 판각한 판본으로 권6 1책만이 잔존하는 零本이다. 내용은 원래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서에는 <第十八隨喜功德品>·<第十九法師功德品>·<第二十常不輕菩薩品>·<第二十一如來神力品>·<第二十二囑累品>·<第二十三藥王菩薩本事品> 등 5품이 수록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이며, 全葉은 14행 20자로 여타의 16字本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지는 없으나 書背에 紺色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包背裝으로 裝訂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와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 제692-1호, 제692-2호, 제977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모두 권7인데, 권말에는 高麗 高宗 27(1240)년에 崔怡가 쓴 後識가 수록되어 있어 그 간행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본서는 판각 및 인쇄상태로 보아 高宗 27(1240)년에 판각된 木板에서 麗末鮮初에 後刷된 판본으로 추정되어 희소성은 물론 板本學에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7)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成宗 24(1493)刻, 後刷 推定].

4卷1冊(零本): 四周單邊, 半匡 21.0cm×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30.5×17.5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丙午(1486, 成宗 17)春奮志...弘治癸丑(1493, 成宗 24)春末終

狀態: 無表紙

內容: 본서는 成宗 24(1493)년에 판각된 판본의 後刷本으로 권4-7에 해당하는 零本이다. 卷頭題에 이어 다음 행에 ‘溫陵開元蓮寺比丘戒環解’라는 기록으로 보아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을 底本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7의 말미에 成宗 24(1493, 癸丑)년에 쓴 발문에서 본서의 간행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간행에 도움을 준 謹嬾朴氏(?-?), 月

山大君 李婷(1454-1488), 昇平府夫人朴氏(?-?), 德源君 李曙(1449-1498)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으며, 文石碩兩主, 金石丁兩主 등의 시주자 30여명과 刻手인 戒淡, 印廷, 性敏, 性衍과 木手인 仅超, 自光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어 조성에 참여한 인원을 알 수 있다. 본서는 권4-7의 殘卷本으로 본문의 글자 획에 마멸이 생겼으며, 특히 권7의 말미에 새긴 施主秩에는 마멸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08)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黃海道 海州牧] : [慈悲山 深原寺], [中宗 34(1539) 推定].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3cm×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30.5×17.5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正統八年癸亥(1443, 世宗 25)五月日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嘉靖十八年己亥(1539, 中宗 34)孟秋黃海道海州牧慈悲山深原寺留板

狀態: 無表紙

內容: 본서는 中宗 34(1539)년 3월에 黃海道 海州牧 慈悲山 深原寺의 留板에서 印出된 판본으로, 권4-7만의 零本 1책이다. 표지가 없으나 書背에 검색의 표지 痕迹이 남아 있다.

(09)

妙法蓮華經, 卷3-4, 6-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慶尙道 豊基地] : [小伯山 地叱方寺], [明宗 16(1561) 後刷 推定].

4卷2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9.5×17.8cm. 楮紙. 線裝(改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成化十三年丁酉(1477, 成宗 8)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嘉靖四十年辛酉(1561, 明宗 16)正月日慶尙道豊基地小伯山地叱方寺開板

卷末墨書: 上院寺留鎖 五臺山

狀態: 無表紙

內容: 본서는 成宗 8(1477)년에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가 先親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法華經」을 정서한 板下本을 바탕으로 明宗 16(1561)년에 慶尙道 豊基의 地叱方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권3-4와 권6-7의 4권2책으로 권3의 권두에 '妙法蓮華經'의 卷頭題와 '溫陵開元蓮寺比丘戒環解'라는 기록으로 보아, 姚秦의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하고 宋조의 戒環(?-1127)이 註解한 판본을 底本으로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7의 말미에 成達生(1376-1444)이 成宗 8(1477)년에 쓴 발문을 비롯하여 施主秩에는 孝寧大君(1396-1486), 月山大君(1454-1488), 貞敬夫人尹氏, 崇政大夫西平君 韓繼喜(1423-1482) 등을 비롯한 施主者와 刻手·書寫·鍊板者의 이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장을 달리하여 '上院寺留鎖 五臺山'이 墨書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10)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慶尙道 豊基地] : [小伯山 地叱方寺], [明宗 16(1561) 刻, 顯宗 2(1661) 後刷 推定].
7卷7冊 :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41.5×54.0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成化十三年丁酉(1477, 成宗 8)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嘉靖四十年辛酉(1561, 明宗 16)正月日慶尙道豊基地小伯山地叱方寺開板

狀態: 無表紙

複本: 1帙

內容: 본서는 明宗 16(1561)년에 慶尙道 豊基地의 小伯山 地叱方寺에서 開板한 목판에서 顯宗 2(1661)년 무렵에 後刷한 판본이다. 권1의 末尾에는 간행과 관련된 大施主秩, 大德秩, 刻手秩, 鍊板秩, 別座, 大化士 등이 열거되어 있다. 腹藏用으로 印出되어 정식으로 裝訂이 되지 않고 卷次別로 紙訂하였는데, 권1-7의 동일본 2帙이 있다. 複本 1帙도 明宗 16(1561)년 板刻의 「妙法蓮華經」과 同一한 板本의 後刷本으로 跋文은 同一하나 施主秩의 기록이 없다. 顯宗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임시로 印出되어 納入·腹藏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妙法蓮華經, 卷1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仁祖 24(1646)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5×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0.5×17.5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刊記: 順治三年丙戌(1646, 仁祖 24)四月日成

背面墨書: 月精

狀態: 無表紙

複本: 2冊

內容: 본서는 卷1만 3冊이 있다. 表紙는 없으며 仁祖 24(1646)년 4월에 板刻된 木板에서 顯宗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佛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印出되어 바로 腹藏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책의 말미에는 施主秩에는 55명의 施主者 명단이 있고, 이어서 墨書識記 로 印經大施主, 化士 등의 명단과 ‘順治三年丙戌(1646)四月日成’의 印經을 마친 時期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各冊마다 施主秩은 동일하나, 印經秩은 다르다. 背面에는 ‘月精’이라는 墨書가 있다. 印出된 후 바로 腹藏되어 보존상태는 깨끗하다.

(12)

妙法蓮華經, 卷5-6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9.3×17.9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狀態: 無表紙, 卷6 第22張 以下 缺落

內容: 본서의 권5는 張次가 완전한데 반해 권6은 제1-21장까지 있고 제22장부터는 缺落되었다. 표지는 없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으로 보아 印出되어 바로 腹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文殊菩薩의 造像이 顯宗 2(1661)년이었으므로 이때에 印出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眞如院三重創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義天], [顯宗 1(1660) 推定].

1枚 ; 26.5×108.2cm. 楮紙.

原文: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內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此寺始創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歲一千一百三十五年也// 嗟呼大哉如今宿世遇此勝因其易乎哉// 實是盲龜遇木得見曇花況同參立盟以爲來世相導之勝利乎非唯所薦先灵各得/解脫與茫茫沙界蠢蠢含灵同入如來正妙之/域矣莫以今時不相識面爲虛切須佩持銘心/刻骨涅槃路上同遊之日方知今日同結不朽/之因其中若有業重先滯者先登解脫者不/忘參契之意攝受引出以後已焉此同參/結契之勝利也昔者淨藏淨眼救妙莊即王/之類是爲良證各須勉之// 山中各現大德無影大師頤凜大禪參道人德堅/不無昔願不勝悲感如古重創大功德主義天伏爲仙父一吐清明道德成均狀[壯]元淑淨先生文斗仙母崇善夫人李氏礼西兩位仙灵之位承此願力俱生淨界次願各各所緣化木手助役諸大勸化士隨喜施主亦伏爲上世先亡師僧父母列位列名靈階生淨界之願敏洪敏英// 重創大施主 金毛得兩主 李春花兩主// 重創大施主// 盖板大施主 化主灵埋比丘// 佛像大施主 吳論乞兩主夫人 邊氏妙蓮 妙即行正隱玄信悅 印雲比丘 德雲比丘// 丹青大施主 金兩主 克玄 尙惠// 大木 法明比丘信宝一訓 姜一万 大木 麗輝能淨連信// 大畫員 信兼 大畫員 懷鑿比丘 信悅母懿德兩主 辛世文兩主// 幻寂堂 大化主 惠楚 眞如院 學禪 仏相 學文 盖板灵埋 丹青惠明 淨排尙彦// 大德 無說比丘 高熹善// 引勸 仅圭 惠清 清信居士 明俊 明寂 大都監 印雲 信悅// 大別坐 性敏 /大施主兼別坐 信悅比丘 性彦比丘// 大德琢瓊 大德引勸兼神鏡 明察比丘 至誠比丘// 各各結願隨喜施主与緣化比丘亦生前永世病患死後直上蓮花之願// 順治十七年庚子五月初三日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將後人智鏡幻寂清空子義天謹書// 香閣幻寂堂 大化主 惠楚 眞如院 重創化主學禪比丘// 佛相化主 學文 盖板化主灵埋 丹青化主惠明比丘 塗排尙彦比丘 印圭双應清備激鏡// 佛相大施主 正木一千疋 清信居士吳論乞兩主// 佛相面金大施主 金歸源兩主// 丹青大施主徐相男 命介兩主 一玉比丘// 敬元 印圭 應侶

內容: 본 문서는 眞如院(上院寺)의 3번째 重創發願文을 顯宗 1(1660)년 5월에 清虛(1520-1604)의 손자이며 鞭羊(1581-1644)의 아들인 義天(1603-1690)이 기록한 것이다. 楷書體로 49行에 걸쳐 墨書하였다. 내용은 眞如院의 3번째 중창을 주선한 學禪스님을 비롯하여 施主秩, 畫員, 丹青 등 重創에 관여된 인물들을 소임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중간에 한글도 섞여 있다.

(14)

眞如院三重創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義天], [顯宗 1(1660) 推定].

1枚 ; 26.5×108.2cm. 楮紙.

原文: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內眞如院三重創大同參發願文// 此寺始作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歲一千一百三十五年也// 嗟呼如今宿世遇此勝因其易乎哉實//是盲龜遇木得見曇花況同參立盟/以爲來世相導之勝利乎非唯所薦/先灵各得解脫與茫茫沙界蠢蠢含灵同/入如

來正妙之域矣莫以今時不相識面爲/虛切須佩持銘心刻骨涅槃路上同遊之/日方知今日同結不朽之
因其中若有業/重先滯者先登解脫者不忘參契之意/攝受引出以後已焉此同參結契之/勝利也昔者淨
藏淨眼救妙莊卽王之類/是爲良證各須勉之 發願扶助義圭比丘// 大木 能淨 連信 儀和 愛善 性
言// 大化主 惠楚比丘 學禪比丘 學文比丘 惠明比丘 尙彥比丘 清信士明俊明寂// 佛相丹青盖板
幻寂堂種種雜物扶助/都大勸化師印雲比丘信悅比丘引勸/能淨比丘// 惠湜比丘与 各各結願隨喜施/
主亦生前永世病患死後直上蓮臺之願// 順治十七年庚子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直孫鞭羊之子將後
人智鏡幻寂清空子義天謹書// 又引勸惠清比丘 大德琢瓊比丘 神鏡比丘 性敏比丘
內容: 본 문서는 (13) <眞如院三重創發願文>을 축약하여 書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文殊菩薩造像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義天],
[顯宗 2(1661) 推定].

1枚 ; 28.0×105.7cm. 楮紙.

原文: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地盧山者曰風爐山一萬眞文殊常住之處/眞如院者
本來天作諸佛都會之所亦龍人回做/作又自神龍元年至順治十七年庚子三重創如日又明/年辛丑文
殊造像安坐都計一千一百三十八年庚子也/發願化主學文比丘助緣印雲信悅志誠大願/功德主幻寂
亦同升發願文...[梵文]...順治十八年辛丑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清空子平生
發願萬一謹書

內容: 본 문서는 化主인 學文比丘가 주관하고, 義天(1603-1690)이 發願하여 기록한 내용
이다. 그밖에 이 佛事에 참여한 施主者와 所任을 맡은 명단도 나열되어 있다.

(16)

順治十八年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義天],
[顯宗 2(1661) 推定].

1枚 ; 27.8×95.5cm. 楮紙.

原文: 五百佛各經第一佛号// 南無東方解脫主世界虛空功德清淨微塵等目端正功德相光明華波頭
摩琉璃光寶體香最上香供養訖種種莊卽/頂髮變化莊卽無量...順治十八年辛丑七月日五臺山眞如院
主人乾坤一柱智鏡幻寂清空子平生發願造成文殊大菩薩五臺五如來及南巡童子善財童子及畫并三
十六變化形我願佛大悲力所願如意一無防害現增福壽當生淨刹所願一一成就之願

內容: 본 문서는 順治 18(1661, 顯宗 2)년 7월에 五臺山 眞如院(上院寺)의 文殊大菩薩과
五臺五如來 및 南巡童子 善財童子 造成과 畫并三十六變化를 義天(1603-1690)이 發願한
내용이다.

(17)

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義天], [顯宗
2(1661) 推定].

1枚 ; 38.2×58.0cm. 楮紙.

原文: 時維/順治十八年辛丑七月十日清信弟子義天比丘惟願// 西方極樂教主阿彌陀佛大智文殊師
利菩薩大悲觀自在菩薩大聖大勢至菩薩大願地藏菩薩當來彌勒尊佛一代教主本師釋迦牟尼佛清淨
法身毘盧遮那佛南巡童子善財童子七十三位畫像諸佛慈光慧日大悲願力消我身心業惑霜露慈風善
振摧重業山法水長流洗我心垢惟願我等及與父母速達心本永滅罪根法界衆生同得清淨又復歸依如
是十方畫虛空界一切三寶無量賢聖發願 造相化主學文比丘 造相大畫員 懷鑒洗淨神彥儀玄 士吉/
大德琢瓊 持殿參證 別坐信悅 飯頭信性善文 爲法忘軀來往德運比丘種種助緣文姓恣春發願 佛
相大施主 尙宮夫人邊氏妙蓮/大施主 清信居士 金歸原兩主 吳論乞兩主/諸佛都會眞如院重創 文

殊造成并畫三十六化形發願 功德主兼證參 智鏡幻寂清空子所願 如義一無防害

內容: 본 문서는 현종 2(1661)년 7월 10일에 義天(1603-1690) 비구의 發願으로서 서방 극락교주 阿彌陀佛, 大智文殊師利菩薩, 大悲觀自在菩薩, 大聖大勢至菩薩, 大願地藏菩薩, 當來彌勒尊佛, 一代教主本師釋迦牟尼佛, 清淨法身毘盧遮那佛, 南巡童子善財童子七十三位의 像을 그리며 모든 부처의 자비광명과 願力으로 몸과 마음의 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佛事に 참여한 造像畫員으로는 懷鑒, 洗淨, 神彥, 仅玄, 士吉 등이며 그밖에 施主者와 소임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18)

清信弟子智鏡幻寂平生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幻寂], [顯宗 2(1661) 推定].

1枚 ; 28.2×25.5cm. 楮紙.

狀態: 第13行 以下 缺落

原文: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佛/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諸法/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諸僧/ 南無第一毘派戶佛 南無第二戶棄佛毘舍浮佛 / 第四拘留孫佛 第五拘那含牟尼佛佛 第六迦葉/ 佛第七釋迦文佛南無東方蒲月世界藥師如來/ 南無大智文殊師利菩薩南無無身如來佛...[梵文].../ 南無西天四七唐土二三歷代傳燈無量諸祖師

內容: 본 문서는 義天(1603-1690)의平生發願文 내용을 기록하였다. 第13行 이하는 결락되었다.

(19)

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義天], [顯宗 2(1661) 推定].

1枚 ; 28.5×116.0cm. 楮紙.

言語: 漢文·梵文

原文: 觀世音菩薩摩訶薩大勢至菩薩摩訶薩千手菩薩摩訶薩如意輪菩薩摩訶薩大輪菩薩摩訶薩觀自在菩薩摩訶薩正趣菩薩摩訶薩漏月菩薩摩訶薩水月菩薩摩訶薩軍陀利菩薩摩訶薩十一面菩薩摩訶薩諸大菩薩摩訶薩千手千眼觀自在菩薩摩訶薩廣大圓蒲無碍大悲心神妙章句大陀羅尼曰...[梵文]...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五臺山一万文殊常住之所眞如院堂主文殊造成化主學文信悅乾坤一柱智鏡幻寂清空子平生發願從今佛勢至佛永不退菩薩心所願如意一世防害与法界含灵承此願力速離若海生於極樂之願

內容: 본 문서는 義天(1603-1690)의平生發願文 내용을 기록하였다. 전반부는 朱色으로 하반부는 墨書하였으며, 중간에 한글도 섞여 있다.

(20)

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29.0×24.7cm. 楮紙.

原文: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一生發願弟子今生無病患命於生極樂/所求所願一一成就從今身主佛身/求不退菩提心立志而歸命禮三寶

內容: 본 문서는 大字로 3행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을 쓰고 小字 3행은 發願文을 기록하였다.

(21)

發願文 / [義天(1603-1690)] 撰.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義天], [顯宗 2(1661) 推定].

2枚 ; 22.2×13.7cm. 楮紙.

複本: 1帙

原文: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諸三寶/ 順治十八年辛丑七月日五臺山眞如院五臺眞聖造成化主學文比丘功德主幻寂所願如意一無防害/ 南無盡虛空徧法界過現未來十方三世一切諸三寶/ 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五臺山一萬文殊常住之所眞如院五臺眞聖造成化主學文比丘大功德主乾坤一柱智鏡幻寂清空子謹書所願如意一無防害現增福壽當生淨刹

內容: 본 문서는 順治 18(1661, 顯宗 2) 7월에 오대산 眞如院(上院寺)에 五臺眞聖을 조성한 화주 學文比丘와 義天(1603-1690)의 소원을 기록한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 2매씩 있어 수량은 총 4매이다.

(22)

陀羅尼啓請 / [編著者不明]. -- 筆寫本(墨書).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28.0×89.8cm. 楮紙.

內容: 본 문서는 제1행에 千手千眼觀自在菩薩摩訶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神妙章句大陀羅尼啓請이 있고, 稽首觀音大悲主~我若向畜生自得大智慧로 漢字가 끝나면서 梵字로 기록되어 있다.

(23)

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28.0×59.0cm. 楮紙.

內容: 본 문서는 전면 27행으로 墨書하였는데 글자체가 고르지 않다. 제1행에 제목 없이 '南無常住一體三種三寶 南無法身報身化身一切諸佛 南無四種法寶甚深法藏'을 시작으로 '六字大明王眞言唵摩尼鉢銘吽'로 끝맺고 있다.

(24)

佛說阿彌本心微妙眞言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圖 ; 28.0×54.5cm. 楮紙.

內容: 본 문서는 漢字·한글·梵字 순으로 書寫하였다. <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觀自在菩薩六字大明王眞言>·<治纏毒神呪唵部臨>·<頂輪毒言唵齒臨> 등이 기록되어 있다.

(25)

眞言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28.6×58.8cm. 楮紙.

內容: 본 문서는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焰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曰'을 시작으로 漢文, 梵字, 한글 순으로 墨書하였다.

(26)

觀世音菩薩姥陀羅尼 / [編著者不明]. -- 筆寫本(朱書).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37.0×71.0cm. 楮紙.

內容: 본 문서는 '觀世音菩薩姥陀羅尼曰'로 시작하여 '南無除災障并 南無妙吉祥并 南無金剛樹并'으로 끝맺고 있다.

(27)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多經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25.1×35.0cm. 楮紙.

複本: 1枚(41.6×59.0cm)

原文: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多經// 南無諸佛本母摩訶般若波羅密經代悲三昧/ 南無無色無形本母摩訶般若波羅密經決定三昧/ 南無無名無想摩訶般若波羅密經無爲三昧/ 南無無我無他摩訶般若波羅密得唯心三昧/ 南無無尊無賤摩訶般若波羅密得平等三昧/ 南無無結無解摩訶般若波羅密得不動三昧/ 南無無迷無覺摩訶般若波羅密得自然三昧/ 南無無生無滅摩訶般若波羅密得自在三昧/ 南無無取無捨摩訶般若波羅密得不退三昧/ 南無不增不減摩訶般若波羅密得解脫三昧/ 南無不去不住摩訶般若波羅密得不輪心三昧/ 南無不眞不俗摩訶般若波羅密得通利三昧/ 若善男子善女人等讀誦此經能得長命便成勝果/昔五臺山中將開法師年八十歲始讀此經生存/三百九十歲便生兜率陀天黃龍寺開善法師/始誦此經生存三百歲便生波羅奈哇天子位

內容: 본 문서는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經을 세로 41.6cm, 가로 59.0cm 1장과 세로 25.1cm, 가로 35.0cm 1장의 楮紙에 墨書하였다. 같은 본이 2枚이다

(28)

佛說十二摩訶經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25.1×35.0cm. 楮紙.

複本: 1枚(不完全)

原文: 佛說十二摩訶經// 南無諸佛本母摩訶般若波羅密代悲三昧/ 南無無色無形本母摩訶般若波羅密決定三昧/ 南無無名無想摩訶般若波羅密無爲三昧/ 南無無我無他摩訶般若波羅密得唯心三昧 / 南無無尊無賤摩訶般若波羅密得平等三昧/ 南無無結無解摩訶般若波羅密不動三昧/ 南無無迷無覺摩訶般若波羅密自然三昧/ 南無無生無滅摩訶般若波羅密自在三昧/ 南無無取無捨摩訶般若波羅密不退三昧/ 南無不增不減摩訶般若波羅密解脫三昧/ 南無不去不住摩訶般若波羅密不輪心三昧/ 南無不眞不俗摩訶般若波羅密通利三昧/ 若善男子善女人能讀此經即得長命便成勝果

內容: 본 문서는 1매는 13행으로 완전하고 1매는 5행만이 있다. 필체는 서로 비슷하다.

(29)

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 / [編著者不明]. -- 筆寫本(朱書).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圖 ; 26.0×49.4cm. 楮紙.

內容: 본 문서는 朱墨으로 漢字·한글·梵字 순으로 필사하였다. '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 觀自在菩薩六字大明王眞言, 自在王治纏毒神呪唵部臨, 一字頂輪毒言唵齒臨'이 기록되어 있다.

(30)

阿彌陀本心微妙眞言 / [編著者不明]. -- 筆寫本(朱書). -- [眞如院(上院寺)] : [幻寂], [仁祖 15(1637) 推定].

1枚 : 圖 ; 8.8×27.3cm. 楮紙.

複本: 8枚(6.6×22.5cm)

寫記: 丁亥(1637, 仁祖 15)二月廿日 幻寂謹書

內容: 본 문서는 阿彌陀本心微妙眞言과 六字大神呪 등을 漢字, 한글, 梵字 순으로 판각하였다. 끝에는 ‘丁亥(1637, 인조 15)二月廿日 幻寂謹書’의 寫記가 있다. 幻寂이 上院寺 3重創 문서에 나오므로 ‘丁亥’는 1637년에 해당된다. 仁祖 15(1637)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納入·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31)

須彌山宇宙論文字曼陀羅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圖 ; 23.1×54.8cm. 楮紙.

複本: 47枚(4枚 15.2×36.7cm, 43枚 13.6×21.0cm)

內容: 본 문서는 須彌山宇宙論을 나타낸 文字陀羅尼이다. 圓內와 圓의 주위에는 방위를 나타내고 있는 형태가 있다. 중앙은 원형이며, 동쪽은 방형, 서쪽은 원형, 남쪽은 삼각형, 북쪽은 반원형으로 표시하였다. 원이 4개 인쇄된 것이 1매, 2개 인쇄된 것 4매인데 이중 3매는 朱墨으로 인쇄되었다. 그리고 1개가 인쇄된 것이 43매이다. 顯宗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인쇄되어 納入·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梵文陀羅尼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眞如院(上院寺)] : [筆寫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1枚 ; 14.0×22.0cm. 楮紙.

複本: 6枚

內容: 梵文으로 판각하여 인쇄한 陀羅尼이다. 顯宗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納入·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지정평가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典籍> 32種 중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토대상의 文化財는 書誌記述의 (2) 「金剛般若波羅密經」과 (06) 「妙法蓮華經」의 2종이다.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典籍〉 중 國家指定 檢討對象 文化財							
番號	典籍	名稱	數量	規格 (cm)	造成年代 (推定)	版本	調查結果 (案)
01	02	·金剛般若波羅密經(前面)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後面)]	2卷1帖	39.3×12.6	[筆寫年不明] [麗末鮮初]	筆寫本	國家指定 對象
02	06	妙法蓮華經, 卷6	1卷1冊	32.0×16.0	[刊行年不明] [麗末鮮初]	木板本	國家指定 對象

(02)「金剛般若波羅密經」: 조사본 「金剛般若波羅密經」은 白紙 墨書의 2卷1帖의

寫經으로 前面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 後面에는 「大方廣佛華嚴經」의 <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書寫되어 있는 寫經이다.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印度의 승려 鳩摩羅什(姚秦, 343-413)이 번역한 佛經으로 ‘金剛’은 金剛石처럼 단단하고 날카롭다는 뜻이고 ‘般若’는 지혜를 뜻하며, ‘波羅密’은 到彼岸을 의미하고 ‘經’은 곧 지름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剛般若波羅密經’은 金剛石과 같이 단단하고 예리한 지혜로써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經典인 것이다.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으로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華嚴宗의 根本經典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佛敎思想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經 가운데 하나이다. 조사본의 판식은 四周雙邊의 金絲欄을 그리고 折匡 세로 24.2cm 가로 12.6cm의 每折에 大字 6行17字와 註雙行으로 묵서하였으며, 帖의 크기는 세로 39.3cm 가로 12.6cm이고 紙質은 壯紙이며 裝訂은 折帖裝이다. 전면의 「金剛般若波羅密經」에는 ‘金剛經’의 表題에 이어 <金剛啓請>·<淨口業眞言>·<請八金剛>·<請四菩薩>·<發願文>·<云何梵> 등을 비롯하여 卷頭題인 ‘金剛般若波羅密經’과 다음 행에 ‘鳩摩羅什’의 譯者表示가 있으며, 본문은 ‘法會因由分第一’부터 ‘應化非眞分第三十二’까지와 <般若無盡藏眞言>·<金剛心眞言>·<補闕眞言> 등이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고 권말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의 卷末題가 있다. 후면의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卷頭題와 ‘般若’의 譯者表示 및 「法華經」의 <普賢行願品>이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의 卷末題가 수록되어 있다. 卷末題에 이어서 <速疾滿普賢陀羅尼>·<普賢菩薩減罪呪>·<普賢菩薩擁護受持眞言>을 비롯하여 한글이 혼용된 <七俱胝佛母大准提陀羅尼眞言>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어서 “清信諸子幻寂平生發願我願佛/大智文殊師利菩薩大悲觀世音菩薩/大願紙匠菩薩大願阿彌陀佛釋迦文/佛清淨法身毘盧遮那佛大悲大思/議願力所願十二摩訶始誦之間/永無障碍如昔將開遠明開善果/勝千倍行願所解同與文殊普賢/觀音地藏無異無別語音清流通澈/十方智慧明明過於千日所願如意一/無防害今生無病患命終生極樂//順治十八年辛丑(1661, 顯宗 2)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清空子義天(1603-1690)謹書發願/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上院寺)”의 發願文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의 본문에는 군데군데 얼룩이 있으나 保存狀態는 일부 菌類의 번식을 제외하면 대체로 良好하다.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는 알 수 없으나 품격이 정교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麗末鮮初의 寫經으로 추정된다. 본 寫經은 紙質과 書體에서 品格이 정교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미 麗末鮮初에 寫成되어 表紙에 表題를 書寫하지 않은 채로 傳來되다가, 顯宗 2(1661, 順治 18)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

던 당시에 淸虛(1520-1604)의 손자이며 鞭羊(1581-1644)의 아들인 智鏡(字) 幻寂(號) 淸空子 義天(1603-1690)이 發願文을 墨書로 追記하여 納入·腹藏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은 紙質은 물론 품격이 정교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麗末 鮮初의 寫經으로 추정되며 稀少性은 물론 佛敎學 및 書誌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06)「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한 7卷 28品の 佛敎經典으로 ‘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예로부터 모든 經典 중의 經典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초기 大乘經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佛敎經典이다. 「妙法蓮華經」은 天台宗의 根本經典으로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佛敎專門講院의 隨意科 科目으로 채택되었으며, 「華嚴經」과 함께 韓國 佛敎思想을 확립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經典이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妙法蓮華經」의 대부분은 宋朝의 戒環(?-1127)이 宋 欽宗(靖康 1, 高麗 仁宗 4, 1126)년에 註解한 7卷本이며, 戒環의 註解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그 내용이 韓國佛敎의 흐름과 일치하고 文章이 簡潔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木板으로 刊行된 가장 오래된 「妙法蓮華經」은 全羅南道 靈光의 佛岬寺 冥府殿의 十王像에서 卷3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략 150여종의 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板本の 系統은 參與 主體나 刊行 手段에 따라 크게 成達生版本系와 甲寅字版本系, 乙亥字版本系, 貞喜王后版本系, 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진다. 調査本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翻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註解하여 중국의 建炎 3(己酉, 1129, 仁宗 7)년 무렵에 간행된 판본을 우리나라의 고려 고종(27, 1240, 庚子)년 무렵에 開刊한 木版本으로 추정된다. 卷6의 1卷 1冊의 零本으로 원래의 28품 중 <第十八隨喜功德品>·<第十九法師功德品>·<第二十常不輕菩薩品>·<第二十一如來神力品>·<第二十二囑累品>·<第二十三藥王菩薩本事品> 등 5품이 수록되어 있다. 卷頭題와 卷末題는 ‘妙法蓮華經’이며 版心題는 ‘法’이다. 板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全匡은 세로 25.0cm 가로 24.6cm 內外이며, 本文은 界線이 없이 7行20字이다. 板心에는 板口와 魚尾가 없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32.0cm 가로 16.0cm이다. 紙質은 厚朴한 楮紙이며 表紙는 없으나 書背에 紺色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包背裝으로 裝訂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調査本과 동일한 판본의 「妙法蓮華經」 권7의 單卷이 이미 보물 제692-1호, 제692-2호, 제977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指定本 권7의 말미에는 “蓮經大義會三歸一合於東土統三之應其在歸崇/ 之意孰能如此今者苾芻四一幸得宋本戒環解義/ 其文旨簡宏宜當演揚於普賢道場以廣其傳子聞/ 而悅之遂令雕板以報環師淸淨慧服之遠矚焉時/ 上章困敦(庚子, 1240, 高宗 27)牂月下旬謹誌/ 金紫光祿大夫守大師中書令上柱國上將軍監修國史判御

史臺事晉陽公崔怡(?-1249)]”의 高麗 高宗 24(1240)년에 崔怡(?-1249)가 쓴 後識가 수록되어 있어, 指定本 및 調査本의 간행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調査本은 板刻 및 印出狀態로 보아 高宗 24(1240)년에 板刻된 木板에서 麗末鮮初에 後刷한 판본으로 추정되어 稀少性은 물론 佛敎學 및 書誌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02)「金剛般若波羅密經」과 (06)「妙法蓮華經」의 2종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版本이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究와 書誌學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麗末鮮初의 典籍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 타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典籍>은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東山里 山 1番地의 上院寺의 소유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東山里 山 63番地의 月精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遺物>의 典籍은 表紙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毀損된 상태이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와 裝訂이 요구된다.

<문헌자료>

강원도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2011.

강원도편, 「강원도지사 의견서」, 춘천, 강원도, 2011.

강원도 문화재위원회편, 「국가지정문화재(보물)신청서」, 2011.

강원도 문화재위원회편, 「심의결의서(방동인·최상익·김용선·김풍기·임영애 위원)」, 2011.

강원도 문화재위원회편, 「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최성은·김풍기 위원 의견)」, 2009.

<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전문위원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불경류, 문서류(발원문), 다라니류, 후령통 등 33종이었다. 복장유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목록

순번	명칭	수량	연대	크기 (세로×가로cm)	판종	비고
1	白紙墨書廣百論釋論 권5	1권1축 (권5)	[麗末鮮初]	28.8×820.8	筆寫本	寫經. 전반부는 결락됨. 두루마리
2	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 후면: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2권 1첩	[麗末鮮初]	39.3×12.6	筆寫本	寫經. 절첩장. 完全本으로 지정가치 있음
3	禮念彌陀道場懺法 권7~10	4권1책 (7~10)	1474 (성종 5)	37.0×24.2	木板本	권말: 金守溫跋 권7: 1~7장 결락됨
4	六經合部	1책	1488(성종 19)刻	26.0×16.0	木板本	花岩寺開板.후쇄본.
5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책	1607(선조 40)	30.4×18.7	木板本	比丘尼淑世 등 13인의 시주자 있음.
6	妙法蓮華經 권6	1권1책 (권6)	[麗末鮮初]	32.0×16.0	木板本	보물 691-1호, 692-2호. 977호와 동일본
7	妙法蓮華經 권4~7	4권1책 (권4~7)	1493(성종 24)刻,	29.7×16.9	木板本	弘治癸丑(1493) 跋文.후쇄본
8	妙法蓮華經 권4~7	4권1책 (권4~7)	1539 (중종 40)	30.5×17.5	木板本	황해도 해주목 심원사 留板
9	妙法蓮華經 권3~4, 6~7	4권2책 (권3~7)	1561(명종 16)刻,	29.5×17.6	木板本	희방사판. 권6은 제 1~14장까지 결락됨.
10	妙法蓮華經 권1~7	14책 (7권7책)	1572刻, [후쇄]	42.0 ×51.4	木板本	大乘寺板, 同書二部
11	妙法蓮華經 권1	3책(권1, 同書3部)	1646년 (인조 24)	30.0×17.5	木板本	권말목서:印經施主順治三年丙戌四月日成
12	妙法蓮華經 권5~6	2권1책 (권5~6)	1661년 (현종 2)	29.3×17.9	木板本.	권6은 제1~21장까지 결락됨.
13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매	1660년 (현종 1)	26.5×108.2	筆寫本	順治十七年五月初三日...清空子義天謹書
14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매	1660년 (현종 1)	25.5×65.4	筆寫本	불상에 포함
15	문수보살조성발원문	1매	1661년 (현종 2)	28×105.7	筆寫本	불상에 포함
16	順治18年發願文	1매	1661년 (현종 2)	27.8×95.5	筆寫本	불상에 포함
17	發願文	1매	1660년 (현종 1)	38.2×58	筆寫本	불상에 포함
18	清信弟子智鏡幻寂平生發願文	1매	[1661년]	28.5×35.3	筆寫本	불상에 포함
19	願文	1매	[1661년]	28.2×116	筆寫本	불상에 포함

20	發願文	1매	[1661년]	29×24.7	筆寫本	불상에 포함
21	發願文	4매	[1661년]	22.2×13.7	筆寫本	불상에 포함
22	陀羅尼啓請	1매	[1661년]	28.9×58.9	筆寫本	다라니류
23	南無常住一切三種三寶	1매	[1661년]	28.2×54.8	筆寫本	다라니류
24	佛說阿彌本心微妙眞言	1매	[1661년]	41.5×58.8	筆寫本	다라니류
25	眞言	1매	[1661년]	25×34.9	筆寫本	다라니류
26	觀世音菩薩姥陀羅尼	1매	[1661년]	28.6×58.8	筆寫本	다라니류
27	佛說十二摩訶般若婆羅密多經	2매	[1661년]	37×71cm	筆寫本	다라니류
28	佛說十二摩經	2매	[1661년]	25.1×35	筆寫本	다라니류
29	佛說阿彌本心微妙眞言	1매	[1661년]	25×34.9	筆寫本	다라니류
30	阿彌陀本心微妙眞言	9매	1637刻, [후쇄]	8.8×27.3	木板本	다라니류.丁亥(1637) 二月廿日 幻寂謹書
31	須彌山宇宙論文字曼陀羅	48매	[1661년]	6.6×22.5	木板本	印本다라니
32	梵文陀羅尼	7매	[1661년]	13.6×21.9	木板本	印本다라니류
33	候鈴筒	1	[1661년]	14×22	靑銅	황초폭자에 싸여 있음

<표 1>에서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연대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불상에 포함하고 후령통은 복장유물에 속하므로 내용설명은 제외한다. 복장전적과 관련해서는 불경류와 다라니류가 해당된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서지적인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白紙墨書廣百論釋論 卷5

- 수 량 : 1권1축(권5)
- 규 격 : 세로 28.8cm, 가로 820.8cm(장 크기); 세로 29.5cm, 가로 49.8cm
11장연결)
- 재 질 : 楮紙
- 관 종 : 筆寫本
- 형 식 : 卷子本
- 연 대 : [麗末鮮初]

- 현 상 : 권수제가 없고 권두부분 전반부가 결락되었다.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서지사항

白紙墨書廣百論釋論, 卷5/ 聖天(印度)撰 護法(印度, 530-561) 釋 ; 玄奘(唐, 602-664)譯. 筆寫本(寫經). [麗末鮮初].

1卷1軸 : 上下單邊, 상하간 21.9cm, 有界, 烏絲欄, 全葉 35行 15~17字. 有界, 28.8×820.8cm. 楮紙. 卷軸裝.

卷末題: 廣百論釋論

- 내용 및 특징

廣百論釋論은 인도의 聖天이 지은 <廣百論>을 護法이 해석하고, 7세기 중엽에 당나라의 학승 玄奘이 번역한 광백론 주석서이다.

내용은 소승유부파와 외도들의 온갖 실재관념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空을 주장하고 있다. 론에서는 불변한 것, 실체를 비롯하여 시간, 견해, 감각, 그 대상영역, 현상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론은 먼저 <광백론>의 시를 짚막하게 싣고 그에 대한 호법의 해석을 가하는 형식으로. 모두 8개 품으로 되어 있다. 제1 破相品, 제2 破我品, 제3 破時品, 제4 破見品, 제5 破根境品, 제6 破邊執品, 제7 破有爲品, 제8 教誡弟子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白紙墨書廣百論釋論』은 白紙에 墨書한 廣百論釋論 권5이다. 내용은 8품 가운데 제3품인 破時品の 후반부에 해당한다. 破時란 시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깨뜨린다는 뜻이다. 이 3품에서는 시간 즉 과거, 미래, 현재란 불변하다고 한 수론을 비롯한 외도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空>, 두 가지 진리, 중도의 교리 등 불교의 대승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사경은 卷首題가 없고 전반부가 결락되었다. 판식을 보면 상하단변과 계선이 있고, 전반부는 缺落되어 저지를 이어 붙여놓았고 卷尾題는 ‘廣百論釋論 卷第五’라 되어 있으며 9행의 공간이 남기고 끝에는 木軸을 붙였다. 목축의 양쪽 축봉에는 朱漆을 하였는데 상단에만 남아 있고 축의 총길이는 30cm, 축봉 지름은 1.12cm이다. 종이는 앞 3장까지는 얇은데 1~2장은 본문은 이상은 없지만 상·하단이 훼손되어 背面을 배접하였다. 4장부터는 지질이 약간 두껍고 좋으며 색상도 누런색을 띠고 있어 良質로 보인다. 서체는 사경체이며, 권말에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사성연대를 알 수 없으나 서지형태로 보아 여말선초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불교사 및 사경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나 권두 전반부가 결락되어 완전본이 아니므로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2) 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

- 수 량 : 1帖
- 규 격 : 세로 39.3cm, 가로 12.6cm
- 재 질 : 壯紙
- 관 종 : 筆寫本
- 형 식 : 折帖裝
- 연 대 : [14세기]
- 현 상 : 전·후면에 사경되어 있다. 앞·뒤포지가 없으며, 전반에 걸쳐 얼룩이 있고 하단부는 一部 鈔本에 의한 蟲食이 있다.

서지사항

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筆寫本(寫經). [麗末鮮初]

2卷1帖 : 上下雙邊, 上下間 24.2cm, 有界, 金絲欄, 6行 17字, 註雙行. 39.3×12.6cm. 壯紙. 折帖裝.

前面卷頭題: 金剛般若波羅蜜經

前面卷末題: 金剛般若波羅蜜經

後面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後面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後面卷末發願文: 淸信諸子幻寂平生發願我願佛/ 大智文殊師利菩薩大悲觀世音菩薩/大願紙匠菩薩大願阿彌陀佛釋迦文/佛淸淨法身毘盧遮那佛大悲大思/議願力所願十二摩訶始誦之間/ 永無障礙如昔將開遠明開善果/ 勝千倍行願所解同與文殊普賢/ 觀音地藏無異無別語音淸淸通澈/十方智慧明明過於千日所願如意一/無防害今生無病患命終生極樂/順治十八年辛丑(1661, 顯宗2)西天一百十九代淸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淸空子義天(1603-1690)謹書發願/ 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

○ 내용 및 특징

이 사경은 백지에 묵서로 쓰여 졌는데 전면에는 『金剛般若波羅蜜經』 그리고 후면에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수록되어 있다. 『金剛般若波羅蜜經』은 空 사상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대승불교의 대표경전으로 줄여서 『金剛經』 또는 『金剛般若經』이라고도 한다. 金剛經을 보면 권두에 변상도는 없고 金剛啓請, 淨口業眞言, 請入金剛, 請四菩薩, 發願文, 云何梵에 이어 卷首題인 金剛般若波羅蜜經과 다음 행에 鳩摩羅什이란 譯者 표시가 기입되어 있다. 이어

서 본문인 금강경의 經文이 法會因由分第一부터 應化非眞分第三十二까지 쓰여 있고 말미에는 般若無盡藏眞言, 金剛心眞言, 補闕眞言으로 끝맺고 있다. 이 금강경은 鳩摩羅什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쓰여 졌으며 판식을 보면 上下邊欄과 界線은 金絲欄이고 1折의 行字數는 6行 17字이다. 후면의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 普賢行願品』에는 卷頭書名과 ‘般若’의 譯者表示에 이어 『法華經』의 <普賢行願品>이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速疾滿普賢陀羅尼·普賢菩薩滅罪呪·普賢菩薩擁護受持眞言을 비롯하여 한글이 혼용된 七俱胝佛母大准提陀羅尼眞言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는 없으며, 본문에는 군데군데 얼룩이 있으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裏面에 있는 幻寂 淸空子 義天이 順治十八年(현종 2년, 1661)에 기록한 墨書識記를 보면 문수보살상 복장시에 납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말에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사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도침이 잘된 두터운 장지를 사용하였고 서체의 품격이 정교한 사경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려말선초로 추정된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禮念彌陀道場懺法 卷第七~十

- 수 량 : 4권1책(권제7~10)
- 규 격 : 세로 37cm, 가로 24.2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연 대 : 1474년(성종 5)
- 현 상 : 앞·뒤표지가 없으며, 권7 전반부 제1장~7장이 결락되었다.

서지사항

禮念彌陀道場懺法, 卷7-10 / 王子成(元)集

木板本. [成宗 5(1474) 推定].

4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匡 25.3×18.5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0×24.2cm. 楮紙. 線裝.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版心題: 彌陀懺

卷末題: 禮念彌陀道場懺法

- 跋文 : 成化十年秋八月有日我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金守溫奉教謹跋

主上殿下/仁粹王妃韓氏/仁惠王大妃韓氏/貞懿公主/懿淑公主/明淑公

主/ 崇壽公主/貴人朴氏/淑儀崔氏/淑儀愼氏/淑儀李氏/

監役 內需司別坐扈從實/掖庭署司案白守和/內需司典貨朴揚春

唱準 別監 金終萬

畫員 白終麟/李長孫/

刻字 權頓一/張莫同/李永山/全祿同/高末終/崔得山/金貴孫/李長孫/

禹仁守/洪寶千/

木手 劉山后/金貴山/

鍊板 金尹生/ 崔末中/

冶匠 山守/

注匠 石山/豆伊金/

刀子匠 周金萬/

印出匠 俞實仞知

柒匠 高末羅/金無其只

○ 내용 및 특징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아미타불을 예배 숭상하면서 잘못된 일을 참회하고 부처 正覺의 지혜를 깨달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법회 절차를 다룬 불교 의식집이다.

이 책은 世祖 妃인 貞熹大王大妃가 성종 5년(1474) 8월에 돌아간 세종과 그의 妃인 昭憲王后, 세조와 그의 아들인 懿敬王, 睿宗, 成宗의 初妃인 恭惠王后 등의 극락천도를 위해 서예가 成任에게 大字와 小字의 해서체로 판서본을 쓰게 하고 金守溫에게 발문을 짓게 하여 새겨낸 판본이다. 그 때 판각을 함께 발원하고 동참한 명단에는 주상전하를 비롯한 仁粹大妃, 仁惠大妃이하 大君인 月山大君·齊安大君 및 德源君 曙·昌原君 晟·河城府院君 鄭顯祖 그리고 公主·貴人·淑儀·尙宮·고관들과 그들의 부인, 高僧인 信眉·學悅·學祖등 무려 90여명이 열거되어 있다. 그 刊役秩에는 내수사의 別坐·典貨를 비롯한 별감의 감독자와 당대 일류의 畫員·刻字匠·木手·鍊板匠·冶匠·注匠·刀子匠·印出匠·柒匠 등이 총동원되고 있어 왕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을 펴내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 최고 기술자들이고, 이들의 직책과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무렵 책들의 간행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며, 서지학과 불교 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권7~10으로 零本이며, 권7은 권수제가 결락되어 8장부터 시작되고 있으므로 권1~6은 결본인 상태이다.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시기는 알 수 없으나 권말에 成化 10년인 1474년(성종 5)에 쓴 김수온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 시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생각된다. 완전본이 아니라 지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六經合部

- 수 량 : 1책
- 규 격 : 세로 26cm, 가로 16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연 대 : 成宗 19(1488)刻, [後刷]
- 현 상 : 앞·뒤표지가 없으며, 下段部 일부 훼손되었음.

서지사항

六經合部 /

木板本(後刷). [全羅道 高山地] : [花岩寺], 成宗 19(1488)刻, [後刷].

4卷1冊(零本) : 圖, 四周單邊, 半匡 19.0×12.6cm, 無界, 8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6.0×16.0cm. 楮紙. 線裝.

刊記: 弘治元年戊申(1488, 成宗 19)四月日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金剛般若波羅密經 末尾)

大施主 敏問/半牛/信慈/一牛/惠連/惠熙/惠證/伏牛/戒安/竟明/ 등

○ 내용 및 특징

六經合部는 『金剛般若波羅蜜經』, 『佛說阿彌陀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등 六經의 합편이다. 육경합부에서 經의 수록 차례는 合部마다 일정하지 않고, 수록된 經의 종류에도 出入이 있다.

이 책은 육경 중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佛說阿彌陀經』의 차례로 四經이 합철되어 있다. 이 합부의 경에는 번각한 간기 표시가 없고 다만 금강경의 金剛心眞言과 補闕眞言 끝에 ‘弘治元年戊申四月日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의 개판지와 개판사찰이 표시되어 있고 이어 大施主 敏問 등 70여명의 시주질이 새겨져 있다.

판심상은 無魚尾이며 ‘金’(이하 각부의 서명 첫 자), ‘張次’의 숫자 표시가 있고 표지는 없으며, 하단부 책장 넘기는 좌측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판각의 솜씨와 판식, 지질 등으로 미루어 보아 1488년(성종 19)에 花岩寺에서 판각된 留板에서 後印된 것으로 추정된다.

5)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 수 량 : 1책
- 규 격 : 세로 30.4cm, 가로 18.7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연 대 : 1607년(선조 40)
- 현 상 : 앞·뒤는 표지 없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함.

서지사항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 玄奘(唐, 602-664) 奉詔譯.

木板本. [宣祖 40(1607) 推定].

不分卷1冊(20張) : 四周單邊, 半匡 21.2cm×15.7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4×18.7cm. 楮紙. 線裝.

卷頭題: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版心題: 藥師經

卷末題: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刊記: 萬曆三十五年丁未(1607, 宣祖 40)六月初吉日

- 卷末시주질 : 比丘尼淑世/比丘尼壹全/比丘尼敬會/施主金禹雄/金氏愛春/尹氏/天悅靈駕/柳世男靈駕/金氏業介/吳氏連陽福/鄭氏禮姜/具分介

○ 내용 및 특징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은 당나라 三藏法師 玄奘이 번역한 것으로 모든 사람의 건강과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모든 재난을 없애주는 것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줄여서 『藥師經』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당나라 玄奘(602~664)이 번역한 藥師經을 1607년(선조 40) 6월에 간행한 판본이다. 체제를 보면 권수제인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 이어 小字로 ‘大唐三藏法師玄奘奉詔譯’이 있고 譯者 다음 행부터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이 책의 판각에 도움을 준 比丘尼 淑世 등 13인의 시주자 명단에 이어 ‘萬曆三十五年丁未(1607, 선조 40)六月初吉日’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판각의 숨씨가 떨어지는 편이어서 새긴 글자 획이 가지런하지 않고 글자체가 고르지 않은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지만, 새기자 바로 찍어내서 인쇄만은 진하고 선명하다. 앞 뒤표지가 없으며, 문수보살상 복장 시에 납입된 것으로 보여 진다.

6) 妙法蓮華經 권6

- 수 량 : 1권1책(권6)
- 규 격 : 세로 32.0cm, 가로 16.0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紙訂
- 연 대 : [麗末鮮初].
- 판 식 : 앞·뒤표지 없으며 절첩용 판식에서 14행 씩 인쇄하여 선장식으로 제책한 것이나書背에 紺色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포배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장 하단부에 약간 훼손되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임.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6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戒環(宋, ?-1127) 解.

木板本. [麗末鮮初].

1卷1冊(零本) : 上下單邊, 상하간 25.0cm, 無界, 全葉 28行20字, 無魚尾, 32.0×16.0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흔히 『법화경』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법화경』은 戒環이 註解한 宋本을 입수하여 판각한 판본으로 권6만이 있는 零本이다. 내용은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권6은 제18 隨喜功德品, 제19 法師功德品, 제20 常不輕菩薩品, 제21 如來神力品, 제22 囑累品 제23 藥王菩薩本事品까지 모두 5품이 수록되어 있다. 판식은 板首題 형식으로 ‘法六’과 張次의 숫자 표시가 있고 상하단변이며, 반엽을 기준으로 7행 20자이며, 全葉은 28行 20字인데 16자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지가 없고 書背에 紺色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포배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일한 판본 권7이 보물 692-1호(김선경 1981,3.) 보물 제692-2호(이건희, 1981.3.), 보물 제977호(유상옥, 1988,12)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권7 말에는 1240년(고려 고종 24)에 崔怡가 쓴 後識가 수록되어 있어 간행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모두 절첩장인데 반하여 보물 제962호(구인사 1988.12)는 권6~7로서 28행의 절첩본 판식에서 14행씩 찍어내어 선장식으로 제책되어 상원사본과 동일본이다.

이 판본은 판각 및 인쇄상태로 보아 1240년(고려 고종 24)에 판각된 판에서 麗末 鮮初에 후인된 판본으로 추정되어 희소성이 있는 판본으로서 불교사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7) 妙法蓮華經 권4~7

- 수 량 : 4권1책(권4~7)
- 규 격 : 세로 29.7cm, 가로 16.9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紙訂.
- 연 대 : 1493년(성종 24)刻, [後刷]
- 현 상 : 앞·뒤표지가 없고 권7말은 훼손이 심한 편임.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戒環(宋, ?-1127) 解.

木板本(後刷). [成宗 24(1493)刻, 後刷].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1.0cm×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30.5×17.5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丙午(1486, 成宗 17)春奮志…弘治癸丑(1493, 成宗 24)春末終

大施主 謹嬪朴氏 / 月山大君/昇平府夫人朴氏/德源君/

文石碩兩主/金石丁兩主/

刻手 戒淡/印廷/性敏/性衍/

木手 僅超/自光

○ 내용 및 특징

이 『묘법연화경』은 1493년(성종 24)에 판각된 판본의 후쇄본으로서 권4~7에 해당하는 零本이다. 각권의 권수제에 이어 다음 행에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이 송나라 계환의 주해본을 저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본문에는 구결이 있으며 권4의 6행의 7~8자 사이에 구멍이 나 있어 缺字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권7의 말미에 1493년(성종 24)에 쓴 발문이 있어 이 책을 간행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어 간행에 도움을 준 謹嬪朴氏, 月山大君, 昇平府夫人朴氏, 德源君이 차례로 새겨져 있으며 文石碩兩主, 金石丁兩主 등의 시주자 30여명과 刻手인 戒淡, 印廷, 性敏, 性衍과 木手인 僅超, 自光 등의 명

단이 있어 참여한 인원을 알려주고 있다. 이 판본은 권4~7의 殘存本인데 본문의 글자 획에 마멸이 생겼으며, 특히 7권말의 말미에 새긴 시주질에는 마멸의 정도가 더한 편이다.

8) 妙法蓮華經 권제4~7

- 수 량 : 4권1책(권제4~7)
- 규 격 : 세로 30.5cm, 가로 17.5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紙訂
- 연 대 : 1539년(중종 34)
- 현 상 : 앞·뒤표지가 없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임.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戒環(宋, ?-1127) 解. 木板本. [黃海道 海州牧], [慈悲山 深原寺], [中宗 34(1539) 推定].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3cm×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30.5×17.5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발문:.....又請寫蓮經 不敢固拒 勉從而書一卷 適新設四鎮之事 舉躬親
布置 數年乃成. 乙卯(세종 17, 1435) 四月 得代來京師 又請懇 眼
暗未果 請諸二三子 皆不肯從 時正郎任公孝仁丁憂在閑 再請而勉
從之 書後秩四卷 又贅郎殿直曹燾書二卷 余亦畢書 云師·惠信等繡
之梓 壬戌(세종 24, 1442)春告功訖 請跋其尾 文辭荒拙 未敢如請
今幸來連山莊 師更請益切 忘其鄙拙 姑書始末.....正統八年癸亥(세종 25, 1443)
五月日 昌寧成達生謹跋

大施主 性玄/ 學清 등 50 餘人

刻手 法通/惠全/碧岩/高雲/玉禪 등 9人

木手 行清

鍊板 惠雲/靈允

化主 智寬

刊記:嘉靖十八年己亥(1539, 중종34)孟秋黃海道海州牧慈悲山深原寺留板

○ 내용 및 특징

이 『묘법연화경』은 1539년(중종 34) 3월에 海州 深原寺 유관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권4~7만이 있는 零本 1책이다. 권7말의 成達生이 쓴 발문에 의하면 도인 海云이 앞서 청탁한 능엄경을 1432년(세종 14) 함길도 도절체사로 吉州에 부임하여 필서를 마치자 친히 와서 찾아 가면서 또 법화경의 필서를 요청했다. 거절할 수 없어 1권을 힘써 쓰기 시작하였는데, 때마침 四鎭을 몸소 설치하느라고 수년간 분망하여 다 쓰지 못하였다. 1435년(세종 17) 4월 교대되어 서울로 돌아오자 또 그 필사를 간청해왔으나, 눈이 어두워 쓸 수 없어 뒤의 권2~4의 4권은 상중에 있는 정랑 任孝仁에게, 나머지 권6·7의 2권은 그의 사위 전직 曹燾에게 분담 필서하게 하고 자신의 필서도 또한 마치었다. 그것을 大化主 惠信이 1442년(세종 24) 봄에 발문을 청탁받았는데, 文辭가 황졸하여 감히 수락하지 못했다. 재차 와서 요청함이 더욱 간절하여 비졸함을 무릅쓰고 써서 正統 8년(1443, 세종 25) 5월에 새겨 권말에 붙이었다.

표지는 없으나 책가위에 쪽빛색의 표지 흔적이 남아 있다.

9) 妙法蓮華經 권제3~4, 6~7

- 수 량 : 4권2책(권3~4, 6~7)
- 규 격 : 세로 29.5cm, 가로 17.6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연 대 : 1561년(명종 16), [後刷]
- 현 상 : 앞·뒤표지가 없고 권6은 1~14장이 결락되었다.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임.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3-4, 6-7.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戒環(宋, ?-1127) 解.

木板本. 慶尙道 豊基地, 小伯山 叱方寺, 明宗 16(1561), [後刷].

4卷2冊(零本),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9.5×17.8cm. 楮紙. 線裝(改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成化十三年丁酉(1477, 成宗 8)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孝寧大君/ 月山大君/貞敬夫人尹氏/ 崇政大夫西平君韓繼喜 등
刊記: 嘉靖四十年辛酉(1561, 明宗 16)正月日慶尙道豐基地小伯山地叱方寺
開板

大施主 張嗣南兩主/大施主 金仲丁兩主 등 24인.

書寫 尹昌善/天寬/智玄/祖明/ 등

刻手 性琳/德允/法連 등

鍊板 子云/性學, 供養主 處印靈駕

卷末墨書: 上院寺留鎮 五臺山

○ 내용 및 특징

이 책은 1477년(성종 8)에 成達生과 成概 형제가 선친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범화경을 정서한 板下本을 바탕으로 1561년(명종 16)에 경상도 풍기 喜方寺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이다. 권3~4, 권6~7까지 4권2책으로 결본 상태이다. 권3의 권두서명이 1행에 ‘妙法蓮華經’으로 되어 있고 다음 행에 ‘濶陵開元蓮寺比丘 戒環解’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이 송나라 계환의 주해본을 저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권7의 말미에 成達生이 1477년(성종 8)에 쓴 발문과 孝寧大君, 月山大君, 貞敬夫人尹氏, 崇政大夫西平君韓繼喜 등이 새겨져 있으며, 시주자, 각수, 서사, 연판자의 이름이 차례로 새겨져 있으며, 또한 장을 달리하여 ‘上院寺留鎮 五臺山’ 이 墨書되어 있다.

이 판본은 1561년에 새긴 留板에서 뒤에 찍어내어 새긴 글자에 다소의 마멸이 나타나고 있는 권3~4, 권6~7의 零本 2책이다. 그리고 권6은 1~14장이 결락되었다.

10) 妙法蓮華經 권1~7

- 수 량 : 14책(권1~7 同書二部)
- 규 격 : 세로 41.5cm, 가로 54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紙訂
- 연 대 : 1572년(선조 5)刻, [顯宗 2(1661) 後刷]
- 현 상 : 장정하지 않은 인출 상태의 낱장이며, 권차마다 紙訂하였다.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戒環(宋, ?-1127) 解.
木板本.

7卷7冊：四周單邊，半匡 21cm×13.3cm., 無界，10行20字，無魚尾，41.5×54.0cm.
楮紙. 紙訂.

卷頭題：妙法蓮華經

版心題：法

卷末題：妙法蓮華經

권1末：歲在戊申丁母喪居廬己酉秋道人海云來訪請寫.....隆慶六年(1572)
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

板木施主 姜實連/大施主 鄭昌孫 50餘人 /供養主 祖遠/大化士 熙峻

刻手 處敬/道軒/惠淳/智嘗/雪雄/正云/儀璉/戒澗/法泉

跋文：正統八年癸亥(1443)五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
(1376-1444)謹跋

○ 내용 및 특징

이 『法華經』은 1572년(선조 5)에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판각된 목판본이다. 요진시대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戒環이 주해하고及南이 서문을 쓴 것을 새긴 것이다. 권1말에는 이 책의 간행과 관련된 大施主秩, 大德秩, 刻手秩, 鍊板秩, 別座, 大化士 등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 참여한 人員을 알려주고 있다. 권7말에는 1443년(세종 25)에 성달생이 쓴 발문이 있는데 이 판본을 번각하여 1572년(선조 5)에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복장용으로 인출되어 장정이 되어 있지 않고 권차 별로 묶음으로 하였는데 권 1~7이 同書二部이다. 문수보살 복장시 인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1) 妙法蓮華經 卷第一

○ 수 량 : 1권3책(권1;同書3部)

○ 규 격 : 세로 30cm, 가로 17.5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연 대 : 1646년(인조 24)

○ 현 상 : 권1만 3책(복본 2책)이다. 앞·뒤표지가 없고, 상태는 양호한 편임.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1 / 鳩摩羅什(姚秦, 344-413)譯, 戒環(宋, ?-1127)解.

木板本. [仁祖 24(1646)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5×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0.5×17.5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권말목서: 順治三年丙戌(1646, 仁祖 24)四月日成

印經大施主金氏夢承保体/韓氏香伊兩主/申天民兩主/化主居士
趙立春兩主/信環保体/申氏應萊兩主/

背面墨書: 月精

○ 내용 및 특징

이 『法華經』은 요진시대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 戒環이 주해하고 及南이 서문을 쓴 것이다.

이 판본은 권1만 3책이 있어 同書3部이다. 표지는 없으며 인출되어 바로 복장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권1 말에는 각책마다 3책 다 시주질 55명의 명단이 있고 이어 墨書識記로 印經大施主, 化士 등의 명단과 ‘順治三年丙戌(1646)四月日成’의 印經을 마친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인경 시주자명은 각 책이 각기 다른 人名이다. 背面에는 ‘月精’이라는 목서가 있다. 인출한 후 바로 복장되었던 관계로 깨끗하다.

12) 妙法蓮華經 권제5~6

○ 수 량 : 2권1책(권제5~6)

○ 규 격 : 세로 29.3cm, 가로 17.9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紙訂

○ 연 대 : [1661년(현종 2)]

○ 현 상 : 앞·뒤표지가 없고, 卷6 第22張 以下은 缺落되었음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5-6 / 鳩摩羅什(姚秦, 344-413)譯, 戒環(宋, ?-1127)解.

木板本. [顯宗 2(1661)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9.3×17.9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 내용 및 특징

이 『法華經』은 권제5~6에 해당하며 권5는 장차가 완전한데 권6은 1~21장까지 있고 22장부터는 결락되었다. 표지도 없고 상태도 깨끗하여 인출되어 바로 복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수보살 조성이 현종 2(1661)년이므로 이 시기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21)은 발원문임.

22) 陀羅尼啓請

이 다라니는 세로 28cm, 가로 89.8cm 크기의 楮紙에 묵서한 필사본이다.

첫 1행에 千手千眼觀自在菩薩摩訶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神妙章句大陀羅尼啓請이 있고 稽首觀音大悲主로 시작하여 我若向畜生自得大智慧 끝으로 후반부는 범자로 기록하였다. 불상 복장시 현종 2(1661)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3) 南無常住一切三種三寶

이 다라니는 세로 26.4cm, 가로 49.4cm 크기의 楮紙에 전면 27行으로 묵서한 필사본이다. 글자체가 고르지 않다. 첫 행에 제목 없이 南無常住一切三種三寶 南無法身報身化身一切諸佛 南無四種法寶甚深法藏을 시작으로 六字大明王眞言唵摩尼鉢銘卍로 끝맺고 있다. 첫줄을 제목으로 하였다. 불상 복장시 현종 2(1661)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4) 佛說阿彌本心微妙眞言

이 다라니는 세로 26.4cm, 가로 49.4cm 크기의 楮紙에 墨書로 한자·한글·범자 순으로 필사하였다. 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 觀自在菩薩六字大明王眞言, 治縊毒神呪唵部臨, 頂輪毒言唵齒臨이 기록되어 있다. 불상 복장시 현종 2(1661)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5) 眞言

이 다라니는 세로 28.6cm, 가로 58.8cm 크기의 저지에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曰을 시작으로 한문, 범자, 한글 순으로 하여 묵서하였다. 불상 복장시 현종 2(1661)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6) 觀世音菩薩姥陀羅尼

이 다라니류는 세로 37cm, 가로 71cm 크기의 楮紙에 墨書하였으며 觀世音菩薩姥陀羅尼曰로 시작하여 南無除災障卉 南無妙吉祥卉 南無金剛樹卉로 끝맺고 있다. 불상 복장시 현종 2(1661)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7)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經

이 다라니류는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經을 세로 25.1cm, 가로 35cm 크기의 저지에 묵서하였다. 수량은 2매이다

南無諸佛本母摩訶般若波羅密經代悲三昧

南無無色無形本母摩訶般若波羅密經決定三昧

南無無名無想摩訶般若波羅密經無爲三昧

南無無我無他摩訶般若波羅密得唯心三昧

南無無尊無賤摩訶般若波羅密得平等三昧

南無無結無解摩訶般若波羅密得不動三昧

南無無迷無覺摩訶般若波羅密得自然三昧

南無無生無滅摩訶般若波羅密得自在三昧

南無無取無捨摩訶般若波羅密得不退三昧

南無不增不減摩訶般若波羅密得解脫三昧

南無不去不住摩訶般若波羅密得不輪心三昧

南無不眞不俗摩訶般若波羅密得通利三昧

若善男子善女人等讀誦此經能得長命便成勝果/ 昔五臺山中將開法師年八十歲始讀此經生存/三百九十歲便生兜率陀天黃龍寺開善法師/始誦此經生存三百歲便生波羅奈吒天子位

28) 佛說十二摩訶經

이 다라니류는 세로 8.8cm, 가로 27.3cm 크기의 楮紙에 묵서하였다. 1매는 13행으로 완전하고 1매는 4행만이 있어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내용이 같아 포함시켜 총 수량은 2매로 필체는 서로 비슷하다. 불상 복장시 현종 2(1661)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佛說十二摩訶經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南無諸佛本母摩訶般若波羅密代悲三昧

南無無色無形本母摩訶般若波羅密決定三昧

南無無名無想摩訶般若波羅密無爲三昧

南無無我無他摩訶般若波羅密得唯心三昧

南無無尊無賤摩訶般若波羅密得平等三昧

南無無結無解摩訶般若波羅密不動三昧
 南無無迷無覺摩訶般若波羅密自然三昧
 南無無生無滅摩訶般若波羅密自在三昧
 南無無取無捨摩訶般若波羅密不退三昧
 南無不增不減摩訶般若波羅密解脫三昧
 南無不去不住摩訶般若波羅密不輪心三昧
 南無不眞不俗摩訶般若波羅密通利三昧
 若善男子善女人能讀此經即得長命便成勝果

29) 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

이 다라니류는 세로 26.4cm, 가로 49.4cm 크기의 楮紙에 朱色으로 한자·한글·범자 순으로 필사하였다. 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 觀自在菩薩六字大明王眞言, 自在王治縑毒神呪唵部臨, 一字頂輪毒言唵齒臨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량은 1매이다. 불상 복장시 현종 2(1661)년경에 필사하여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30) 阿彌陀本心微妙眞言

이 다라니는 목판본으로서 세로 6.6cm, 가로 22.5cm 크기의 楮紙에 인쇄하였다. 사주단변에 全葉은 세로 5cm, 가로 23cm이며, 阿彌陀本心微妙眞言, 六字大神呪와 한자, 한글 범자 순으로 판각하였다. 끝에는 ‘丁亥二月廿日 幻寂謹書’의 간지가 있다. 환적이 상원사 3중창 문서에 나오므로 丁亥는 1647년에(인조 25) 해당되므로 이 다라니는 인조 25(1647)년에 판각되어 문수보살상 복장시인 현종 2(1661)년경에 인출하여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량은 9매이다

31) 須彌山宇宙論文字曼陀羅

이 다라니는 목판본으로서 수미산우주론을 나타낸 문자다라니이다. 圓內와 圓주위에는 방위를 나타내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 중앙은 원형이며, 동쪽은 방형, 서쪽은 원형, 남쪽은 삼각형, 북쪽은 반원형으로 표시하였다. 크기는 차이가 있는데 4개 인쇄된 것은 1매로 세로 23.1cm 가로 54.8cm이며, 2개 인쇄된 것은 세로 15.2cm 가로 36.7cm로서 3매는 주색으로 인쇄된 것이고 1매는 먹색이며 그리고 1개가 인쇄된 것은 세로 13.6cm 가로 21.9cm로 43매로서 총 수량은 48매이다. 문수보살상 복장시인 현종 2(1661)년경에 인출하여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梵文陀羅尼

이 다라니는 목판본으로서 티베트문으로 판각하여 인출한 다라니이다. 크기는 세로 14, 가로 22cm의 저지이며, 티베트문이 1개 인쇄된 것은 6매, 2개 인쇄된 것

은 1매로서 수량은 총 7매이다. 이 다라니는 문수보살상 복장시인 현종 2(1661)년 경에 인출하여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기타

平昌 上院寺 木造菩薩坐像 腹藏典籍은 上院寺 목조보살좌상이 조성된 현종 2(1661)년에 복장시 납입된 복장품으로서 현재는 月精寺 聖寶博物館에 保管되어 管理되고 있다.

<문헌자료>

강원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춘천, 강원도, 2011.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편, 「심의결의서(방동인·최상익·김용선·김풍기·임영애위원)」, 춘천, 강원도문화재위원회, 2011.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 전적- 삼국·고려시대』, 서울, 2009.

천혜봉, 「寫本 -寫經-」,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9.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88,지정편)』, 서울, 계문사, 1889.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http://www.cha.go.kr>)

□ 관계전문가 김동환

1. 廣百論釋論, 卷5

○ 명칭 및 개요

(1) 「廣百論釋論」은 印度의 聖天(?-?)이 지은 「廣百論」을 護法(530-561)이 해석하고 唐朝의 玄奘(602-664)이 번역한 책이다. 원래는 卷頭に 「廣百論」의 詩를 짤막하게 싣고 그에 대한 護法의 解釋을 가하는 형식으로 <第一破相品>·<第二破我品>·<第三破時品>·<第四破見品>·<第五破根境品>·<第六破邊執品>·<第七破有爲品>·<第八教誡弟子品> 등 도합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2) 本書는 白紙에 墨書한 「廣百論釋論」 권5로 내용은 8품 가운데 제3품인 <破時品>의 후반부에 해당된다. ‘破時’는 시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깨뜨린다는 의미이며, 본 품에서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은 불변한다는 數論을 비롯한 外道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佛教의 大乘教理를 설명하고 있다.

○ 書誌事項

廣百論釋論, 卷5 / 聖天(印度, ?-?) 撰 ; 護法(印度, 530-561) 釋 ; 玄奘(唐, 602-664) 解. -- 筆寫本(白紙墨書). --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12-13世紀 ?)].

1卷1軸 : 四周單邊(烏絲欄), 匡郭 21.9×820.8cm, 有界, 每行17字, 無魚尾 ; 28.8×820.8cm. 楮紙. 卷軸裝.

卷末題: 廣百論釋論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本書에는 卷首題가 없고 ‘等於轉變時合成色等其相無異 爾時復爲’으로 시작되고 있어, 再雕大藏經과 비교할 때 卷頭의 5張이 缺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는 27장으로 經文은 같으나 異體字가 있다. 四周單邊에 界線은 墨으로 그렸다. 전반부는 결락되어 楮紙를 이어 붙였고, 卷末題는 ‘廣百論釋論’라 되어 있으며 9행의 공간을 남기고 끝에는 木軸을 붙였다.

(2) 軸의 총길이는 30cm, 축봉 지름은 1.2cm이다. 面紙는 앞 3장까지는 얇고 제1-2장은 상·하단이 훼손되어 배접하였으며, 제4장부터는 약간 두꺼운 양질의 楮紙이다.

(3) 書體는 寫經體이며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를 알 수 없다. 卷子本(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卷頭의 5장의 缺落을 제외하면 保存狀態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종합 의견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를 알 수 없고, 卷頭에 5장의 缺落이 생긴 落帙本이므로 國家문화재로 지정하기에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술적으로 佛敎史 및 寫經研究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2. 金剛般若波羅密經

○ 명칭 및 개요

(1) 본서는 白紙 墨書의 寫經으로 전면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 후면에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수록되어 있다.

(2) 前面의 「金剛般若波羅密經」의 卷頭에는 表題가 있어야 할 곳에 表題 대신에 淸虛(1520-1604)의 손자이며 鞭羊(1581-1644)의 아들인 智鏡(字) 幻寂(號) 淸空子 義天(1603-1690)이 “順治十八年辛丑西天一百十九代淸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淸

空子義天謹書跋願/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上院寺)”의 墨書識記가 있고 <金剛啓請>·<淨口業眞言>·<請八金剛>·<請四菩薩>·<發願文>·<云何梵> 등에 이어 卷頭題인 ‘金剛般若波羅密經’과 다음 행에 ‘鳩摩羅什’의 譯者表示가 있다.

(3) 본문은 ‘法會因由分第一’부터 ‘應化非眞分第三十二’까지와 말미에 <般若無盡藏眞言>·<金剛心眞言>·<補闕眞言> 등이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다. 후면의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는 卷頭書名과 ‘般若’의 譯者表示에 이어 「法華經」의 <普賢行願品>이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다.

(4) 卷末에는 <速疾滿普賢陀羅尼>·<普賢菩薩滅罪呪>·<普賢菩薩擁護受持眞言>을 비롯하여 한글이 혼용된 <七俱胝佛母大准提陀羅尼眞言>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清信諸子幻寂平生發願我願佛/ 大智文殊師利菩薩大悲觀世音菩薩/大願紙匠菩薩大願阿彌陀佛釋迦文/佛清淨法身毘盧遮那佛大悲大思/議願力所願十二摩訶始誦之間/ 永無障礙如昔將開遠明開善果/ 勝千倍行願所解同與文殊普賢/ 觀音地藏無異無別語音清清通澈/十方智慧明明過於千日所願如意一/無妨害今生無病患命終生極樂// 順治十八年辛丑(1661, 顯宗 2)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清空子義天(1603-1690)謹書發願/ 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上院寺)”의 發願文이 수록되어 있다.

○ 書誌事項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筆寫本(白紙墨書). --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麗末鮮初 推定)]

2卷1帖: 四周雙邊(金絲欄) 半匡 24.2×12.6cm, 有界, 6行17字, 註雙行, 無魚尾 ; 39.3×12.6cm. 壯紙. 折帖裝.

前面卷頭題: 金剛般若波羅密經

前面卷末題: 金剛般若波羅密經

後面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後面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後面卷末發願文: 清信諸子幻寂平生發願我願佛/ 大智文殊師利菩薩大悲觀世音菩薩/大願紙匠菩薩大願阿彌陀佛釋迦文/佛清淨法身毘盧遮那佛大悲大思/議願力所願十二摩訶始誦之間/ 永無障礙如昔將開遠明開善果/ 勝千倍行願所解同與文殊普賢/ 觀音地藏無異無別語音清清通澈/十方智慧明明過於千日所願如意一/無妨害今生無病患命終生極樂// 順治十八年辛丑(1661, 顯宗 2)西天一百十九代清虛之孫鞭羊之子智鏡幻寂清空子義天(1603-1690)謹書發願/ 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五臺山諸佛都會之所眞如院寺(上院寺)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는 알 수 없으나 품격이 정교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麗末鮮初의 寫經으로 추정된다.

(2) 아래의 邊欄이 金絲欄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3) 본서의 本文에는 군데군데 얼룩이 있으나 保存狀態는 일부 菌類의 번식을 제외하면 대체로 良好한 편이다.

○ 종합 의견

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寫成年代를 알 수 없으나 품격이 정교한 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麗末鮮初의 寫經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佛敎史 및 寫經研究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禮念彌陀道場懺法, 卷7-10

○ 명칭 및 개요

(1)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을 숭상하면서 잘못된 일을 懺悔하고, 부처 正覺의 지혜를 깨달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법회의 절차를 다룬 佛敎儀式集이다.

(2) 본서는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1418-1483)가 성종 5(1474)년 8월에 薨去한 세종과 그의 妃인 昭憲王后(1395-1446), 세조와 그의 아들인 懿敬王(德宗, 1438-1457), 睿宗(1450-1469), 成宗(1457-1494)의 初妃인 恭惠王后(1456-1474) 등의 극락천도를 위해 서예가 成任(1421-1484)에게 大字와 小字의 楷書體로 板下本을 쓰게 하고 金守溫(1410-1481)에게 跋文을 짓게 하여 새겨낸 판본이다.

(3) 板刻을 함께 발원하고 동참한 명단에는 왕을 비롯한 仁粹大妃(1437-1504), 仁惠大妃(1455-1498) 이하 月山大君 李婷(1454-1488), 齊安大君 李瑁(1466-1525), 德源君 李曙(1449-1498), 昌原君 李晟(1455-1505), 河城府院君 鄭顯祖(1440-1504) 그리고 公主·貴人·淑儀·尙宮·고관들과 그들의 부인, 高僧인 信眉(1405-1489)·學悅(?-?)·學祖(1432-1514) 등 90여명이 열거되어 있다.

○ 書誌事項

禮念彌陀道場懺法, 卷7-10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

者不明], [成宗5(1474) 推定].

4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匡 25.3×18.5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0×24.2cm. 楮紙. 線裝.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版心題: 彌陀懺

卷末題: 禮念彌陀道場懺法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刊役秩에는 內需司의 別坐·典貨를 비롯한 別감의 감독자와 당대 일류의 畫員·刻字匠·木手·鍊板匠·治匠·注匠·刀子匠·印出匠·柒匠 등이 총동원되고 있어 王室에서 國家的인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본서는 권7-10의 零本으로 권1-6은 缺本이며, 권7도 卷首의 제1-7장이 결락되어 제8장부터 시작되고 있다. 또한 책의 중간부분까지 내철끈이 결락되어 낱장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3)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年代는 알 수 없으나, 卷末에 成化 10(1474, 성종 5)년에 쓴 金守溫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점에서 당시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 종합 의견

本書는 卷頭가 缺落되고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年代를 알 수 없으며 중간부분까지 낱장의 상태로 있는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刊行에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고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佛敎文化史와 典籍文化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를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4. 六經合部

○ 명칭 및 개요

(1) 「六經合部」는 본래 「金剛般若波羅密經」, 「佛說阿彌陀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등 6경의 합편이다.

(2) 본서는 위의 6경 중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

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佛說阿彌陀經」 등 4경이 차례로 합綴되어 있고, 그 후의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과 「觀世音菩薩禮文」 등의 2경은 들어있지 않다.

○ 書誌事項

六經合部 / [編著者不明]. -- 木板本(後刷). -- [全羅道 高山] : [花岩寺], [成宗 19(1488)刻, 後刷 推定].

4卷1冊(零本) : 圖, 四周單邊, 半匡 19.0×12.6cm, 無界, 8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6.0×16.0cm. 楮紙. 線裝.

刊記: 弘治元年戊申(1488, 成宗 19)四月日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金剛般若波羅密經 末尾)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翻刻한 刊記의 표시가 없으나 「金剛般若波羅密經」의 <金剛心眞言>과 <補闕眞言>의 末尾에 ‘弘治元年戊申(1488, 成宗 19)四月日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의 開板地와 開板의 寺刹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臺施主 敏問 등 70여명의 施主 秩이 있다.

(2) 본서의 卷頭 1-3장의 좌측 하단부에는 적지 않은 훼손이 있다.

(3) 본서는 成宗 19(1488)년에 花岩寺에서 판각된 留板에서 後刷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종합 의견

本書는 成宗 19(1488)년에 花岩寺에서 판각된 留板에서 後刷된 후쇄본으로 추정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敎文化史와 典籍文化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5.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 명칭 및 개요

(1)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은 大唐 三藏法師 玄奘이 翻譯한 책으로 모든 사람의 건강과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모든 재난을 없애주는 것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藥師經’으로 略稱하기도 한다.

(2) 본서는 唐朝의 玄奘(602-664)이 번역한 「藥師經」을 선조 40(1607)년 6월에 간행한 판본이다. 현종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納入·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 書誌事項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 玄奘(唐, 602-664) 奉詔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宣祖 40(1607) 推定].

不分卷1冊(20張): 四周單邊, 半匡 21.2cm×15.7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0.4×18.7cm. 楮紙. 線裝.

卷頭題: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版心題: 藥師經

卷末題: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刊記: 萬曆三十五年丁未(宣祖 40, 1607)六月初吉日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卷頭題인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 이어 小字로 ‘大唐三藏法師玄奘奉詔譯’이 있고, 譯者 다음 행부터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본서의 판각에 도움을 준 비구니 淑世 등 13인의 施主者 명단에 이어 ‘萬曆三十五年丁未(1607, 宣祖 40)六月初吉日’의 刊行年代가 기록되어 있다.

(2) 새긴 글자 획이 가지런하지 않고, 글자체가 고르지 않은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등 판각의 솜씨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인쇄상태는 먹이 진하고 선명한 편이다. 前後의 표지는 없으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종합 의견

本書는 새긴 글자 획이 가지런하지 않고, 글자체가 고르지 않은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등 판각의 솜씨가 떨어지며, 간행연대도 1607년으로 17세기의 판본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教文化史와 典籍 印刷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6. 妙法蓮華經, 卷6

○ 명칭 및 개요

(1) 「妙法蓮華經」은 法華思想을 담고 있는 天台宗의 근본경전으로 흔히 ‘法華

經'이라고도 한다.

(2) 본서는 姚秦의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하고 宋朝의 戒環(?-1127)이 주해한 宋本을 입수하여 판각한 판본으로 권6 1책만이 잔존하는 零本이다.

(3) 내용은 원래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서에는 <第十八隨喜功德品>·<第十九法師功德品>·<第二十常不輕菩薩品>·<第二十一如來神力品>·<第二十二囑累品>·<第二十三藥王菩薩本事品> 등 5품이 수록되어 있다.

○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6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發行年不明(麗末鮮初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5.0×24.6cm, 無界, 半葉 7行20字, 無魚尾 ; 32.0×16.0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文: 妙法蓮華經卷七; 法華經者迺一乘之極談也吾釋雄氏之出世唯爲/ 此之大因緣正示彼之佛知見其敷演猶億世之現/ 曇花其聽聞若盲龜之值木孔寔惟希代之寶固不/ 可易而得焉然古今義釋者不一其說夫如是則孰/ 爲定指南歟遂使于學者罔得而專業素可患諸粵/ 有寶勝老人深證法華三昧每以是介懷於禪觀/ 餘探索衆解自肆其要解解之成集曰法華要解凡/ 七卷其詞略其旨深妙得乎此經之致也可以提今/ 挈古獨步一時出火宅之諸子賜以牛車携化城之/ 衆商安于寶所得不謂大裨於正法者比諸學者乞/ 金鏤木以永其流通使乎靈山一會儼然不散於處/ 處云耳建炎三年己酉(1129, 仁宗 7)春仲南社除饑祖派跋

誌文: 蓮經大義會三歸一合於東土統三之應其在歸崇/ 之意孰能如此今者苾芻四一幸得宋本戒環解義/ 其文旨簡宏宜當演揚於普賢道場以廣其傳子聞/ 而悅之遂令雕板以報環師清淨慧服之遠矚焉時/ 上章困敦(庚子, 1240, 高宗 27)牂月下旬謹誌/ 金紫光祿大夫守大師中書令上柱國上將軍監修國史判御史臺事晉陽公崔怡(?-1249)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판식은 四周單邊이며, 全葉은 14행 20자로 여타의 16字本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지는 없으나 書背에 紺色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包背裝으로 裝訂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卷末에 高麗 高宗 27(1240)년에 崔怡가 쓴 後識가 수록되어 있어 그 간행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본서는 판각 및 인쇄상태로 보아 高宗 27(1240)년에 판각된 木板으로 麗末鮮初에 後刷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3) 본서와 동일한 판본으로 본서의 권7로, 보물 제692-1호, 제692-2호, 제977호로 지정되어 있다.

(4)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종합 의견

本書는 麗末鮮初에 後刷된 판본으로 추정되어 稀少性의 가치가 있으며, 佛敎典籍 및 우리나라 印刷文化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7. 妙法蓮華經, 卷4-7

○ 명칭 및 개요

(1) 본서는 成宗 24(1493)년에 판각된 판본의 後刷本으로 권4-7에 해당하는 零本이다. (2) 卷頭題에 이어 다음 행에 ‘溫陵開元蓮寺比丘戒環解’라는 기록으로 보아 宋朝 戒還(?-1127)의 註解本을 底本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 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成宗 24(1493)刻, 後刷 推定].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1.0cm×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30.5×17.5 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丙午(1486, 成宗 17)春奮志…弘治癸丑(1493, 成宗 24)春末終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권7의 末尾에 成宗 24(1493, 癸丑)년에 쓴 발문에서 본서의 간행동기를 밝히고 있다.

(2) 이어서 간행에 도움을 준 謹嬪朴氏(?-?), 月山大君 李婷(1454-1488), 昇平府夫人朴氏(?-?), 德源君 李曙(1449-1498)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으며, 文石碩兩主, 金石丁兩主 등의 시주자 30여명과 刻手인 戒淡, 印廷, 性敏, 性衍과 木手인 僅

超, 自光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어 조성에 참여한 인원을 알 수 있다.

(3) 본문에는 몇 장에 걸쳐 마치 뜸에 의해 불탄 듯하여 본문을 잃고 있으며, 권말에도 마멸이 있어 보존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 종합 의견

本書는 成宗 24(1493)년에 판각된 판본의 後刷本이며, 본문과 권말에 마멸이 있는 등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敎文化史와 典籍 印刷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8. 妙法蓮華經, 卷4-7

○ 명칭 및 개요

(1) 본서는 中宗 34(1539)년에 판각된 판본의 권4-7에 해당하는 零本 1책이다.

○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黃海道 海州牧] : [慈悲山 深原寺], [中宗 34(1539) 推定].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3cm×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30.5×17.5 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正統八年癸亥(1443, 世宗 25)五月日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嘉靖十八年己亥(1539, 中宗 34)孟秋黃海道海州牧慈悲山深原寺留板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본서에는 世宗 25(1443)五月에 쓴 成達生(1376-1444)의 跋文이 있고, 中宗 34(1539)년 3월에 黃海道 海州牧 慈悲山 深原寺의 留板에서 印出하였다는 刊記가 있다.

(2) 표지가 없으나 書背에 검색의 표지 痕迹이 남아 있다.

(3)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종합 의견

本書는 위의 조사 의견서 (6) 妙法蓮華經, 卷6에 비해서는 간행연대가 後代의 것이고, 인쇄의 품도 떨어지는 편이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敎文化史와 典籍 印刷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9. 妙法蓮華經, 卷3-4, 卷6-7

○ 명칭 및 개요

(1) 본서는 成宗 8(1477)년에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가 先親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法華經」을 정서한 板下本을 바탕으로 明宗 16(1561)년에 慶尙道 豊基의 喜方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2) 권3-4와 권6-7의 4권2책으로 권3의 권두에 ‘妙法蓮華經’의 卷頭題와 ‘溫陵 開元蓮寺比丘戒環解’라는 기록으로 보아, 姚秦의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하고 송조의 戒環(?-1127)이 註解한 판본을 底本으로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3-4, 6-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 本. -- [慶尙道 豊基] : [小伯山 喜方寺], [明宗 16(1561) 後刷 推定]. 4卷2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9.5×17.8 cm. 楮紙. 線裝(改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成化十三年丁酉(1477, 成宗 8)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嘉靖四十年辛酉(1561, 明宗 16)正月日慶尙道豊基地小伯山地叱[喜]方寺開板

卷末墨書: 上院寺留鎖 五臺山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권7의 말미에 成達生(1376-1444)이 성종 8(1477)년에 쓴 발문을 비롯하여 施主秩에는 孝寧大君(1396-1486), 月山大君(1454-1488), 貞敬夫人尹氏, 崇政大夫西

平君 韓繼禧(1423-1482) 등을 비롯한 施主者와 刻手·書寫·鍊板者의 이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2) 張을 달리하여 ‘上院寺留鎮 五臺山’이 墨書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3)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종합 의견

本書는 위의 조사 의견서 (6) 妙法蓮華經, 卷6에 비해서는 간행연대가 後代의 것이고, 인쇄의 품도 떨어지는 편이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敎文化史와 典籍 印刷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10. 妙法蓮華經

○ 명칭 및 개요

(1) 본서는 明宗 16(1561)년에 慶尙道 豊基의 小伯山 喜方寺에서 開板한 목판에서 顯宗 2(1661)년 무렵에 印刷한 後刷本이다. 권1-7의 동일본 1帙이 더 있다.

(2) 권1의 末尾에는 간행과 관련된 大施主秩, 大德秩, 刻手秩, 鍊板秩, 別座, 大化士 등이 열거되어 있다.

○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慶尙道 豊基] : [小伯山 喜方寺], [明宗 16(1561) 刻, 顯宗 2(1661) 後刷 推定].

7卷7冊 :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41.5×54.0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跋: 成化十三年丁酉(1477, 成宗 8)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嘉靖四十年辛酉(1561, 明宗 16)正月日慶尙道豊基地小伯山地[喜]方寺開板

狀態: 無表紙

複本: 1帙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腹藏用으로 印出되어 정식으로 裝訂이 되지 않고 卷次別로 紙訂하였다.

(2) 複本 1帙도 明宗 16(1561)년 板刻의 「妙法蓮華經」과 同一한 板本の 後刷本으로 跋文은 同一하나 施主秩의 기록이 없다. 顯宗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文殊菩薩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임시로 印出되어 納入·腹藏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종합 의견

本書는 17세기에 인쇄한 後刷本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敎文化史와 典籍 印刷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11. 妙法蓮華經, 卷1

○ 명칭 및 개요

(1) 본서는 卷1의 동일 판본 3冊이다.

(2) 表紙는 없으며 仁祖 24(1646)년 4월에 板刻된 木板에서 顯宗 2(1661)년에 眞如院(上院寺)에서 佛像을 造成하던 당시에 印出되어 바로 腹藏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1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仁祖 24(1646)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5×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0.5×17.5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刊記: 順治三年丙戌(1646, 仁祖 24)四月日成

背面墨書: 月精

狀態: 無表紙

復本: 2冊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책의 말미에는 施主秩에는 55명의 施主者 명단이 있고, 이어서 墨書識記로 印經大施主, 化士 등의 명단과 ‘順治三年丙戌(1646)四月日成’의 印經을 마친 時期가 기록되어 있다. (2) 각 冊마다 施主秩은 동일하나, 印經秩은 다르다. 背面에는 ‘月精’이라는 墨書가 있다.
(3)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종합 의견

本書는 17세기에 인쇄한 판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敎文化史와 典籍 印刷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12. 妙法蓮華經, 卷5-6

○ 명칭 및 개요

(1) 본서는 妙法蓮華經 권5-6의 1책인데, 刊記가 없다.
(2) 권5는 張次가 완전한데 반해, 권6은 제1-21장까지만 있고 제22장부터는 缺落되었다.

○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5-6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顯宗 2(1661)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19.5cm×13.4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9.3×17.9cm. 楮紙. 紙訂.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末題: 妙法蓮華經

○ 서지적 특징 및 보존상태

(1) 표지는 없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으로 보아 印出되어 바로 腹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文殊菩薩의 造成이 顯宗 2(1661)년이었으므로 이때에 印出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종합 의견

本書는 17세기에 인쇄한 판본이며 권6의 일부가 缺落되어 있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서가 조선시대의 佛敎文化史와 典籍 印刷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江原道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3.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12.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7.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41호(복장유물 비지정)
- 명 칭 :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 소 유 자 : 용연사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길 260
- 수 량 : 불상 3구/복장전적 서지기술 참조
- 규 격 : 본존상(아미타불) 높이 156cm, 우협시상(대세지음보살) 높이 138cm,
좌협시상(관음보살) 높이 143cm/복장전적 서지기술 참조
- 재 질 : 나무, 저지(楮紙)
- 형 식 : 아미타여래삼존 형식
- 조성연대 : 1655년(효종 6)/복장전적 서지기술 참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후기의 조각승 도우가 수조각승을 맡아 다른 여섯 명의 조각승들을 이끌고 1655년에 제작한 작품으로서 조선시대 17세기 중엽의 조각승들의 활동과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조각적으로도 뛰어난 문화재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성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도우 등 7명의 조각승이 1655년에 조성한 아미타삼존상으로 확인되었다. 도우는 보조 조각승 시기인 17세기 전반에 무염파의 주요 조각승이었으나, 17세기 중반 수조각승 시기에는 주로 회장과 조각승들과 함께 불사를 행하였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그의 이러한 인적 교류관계는 용연사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삼존상이 갖고 있는 회장과적 요소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즉, 회장과 조각승들의 손에 의해 회장과 양식으로 만들어진 본 불상에서는 수조각승 도우의 개성이 상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자기록을 잘 구비하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높으며, 17세기 중반 불상의 제작 방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또한 불상이 원 봉안처를 벗어나지 않은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복장 후령통을 비롯하여 조성발원문, 복장전적 등 조성 당시의 원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봉안사찰, 조성주체, 제작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이 되며, 1762년의 중수개금기를 포함하고 있어 불상의 중수개금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유의 귀여운 얼굴에 당당하고 장대한 신체비례, 변화가 거의 없는 강직한 선묘, 무릎 앞에 넓은 주걱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밀도 높게 새긴 세밀한 주름 등은 조각승 도우의 조각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도우는 17세기의 중엽경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무염의 조각전통을 이어 받은 조각승이지만, 얼굴모습이나 옷 주름의 표현 등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무염의 계보를 잇는 도우가 수조각승

으로 제작한 작품이며, 이 작품을 통해 조각승 도우의 작품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승·발전되어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도우 역시 나뭇 17세기의 시대적인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미와 종교성 속에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갔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불상도 그러한 경향이 잘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調査本 (21)의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翻譯하고 宋朝의 戒環(?-1127)이 註解한 版本을 太宗 5(1405)년에 당시의 名筆家였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가 先親의 冥福을 祈願할 목적으로 書寫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道人 信文(?-?) 등의 주관 아래 全羅道 雲梯縣 兜率山 安心 杜에서 간행된 木板本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板下本은 당시의 名筆家로 趙孟頫(1254-1322)의 趙松雪體에 능숙했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에 의하여 淨書된 것이며, 板刻의 完成度도 매우 높은 편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板本이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究와 書誌學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시대 初期의 木板印刷術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典籍 30種은 完全本이 아닌零本이 많고 대부분 복장시 인출되어진 후쇄본이어서 별도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은 (13)번의 『묘법연화경』 권4~7의 1종뿐이다.

조선 태종 5년(1405)에 성달생과 성개가 필사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에서 간행된 권4~7의 1책이다. 권수 앞에 실린 변상도의 좌단에는 鄭氏가 죽은 남편 王氏의 超生淨土를 기원하기 위하여 畫工을 사서 變相圖를 그리고, 이를 판각 유통시킨다는 識記가 있어서, 이 변상도의 조성경위를 알 수 있으며, 권말의 권근 발문에는 간행사실을 밝히고 있어서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희귀본에 속한다. 이와 동일본이 寶物 第961號(金海 圓明寺 소장: 1988. 12. 28)로 指定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典籍 38種 중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화재는 다음의 妙法蓮華經, 卷4-7, 1종이다.

초기 大乘經典 중에서 중요한 佛敎經典「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한 7卷 28品の 佛敎經典으로 ‘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한다.「妙法蓮華經」은 天台宗의 根本經典으로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佛敎專門講院의 隨意科 科目으로 채택되었으며, 「華嚴經」과 함께 韓國 佛敎思想을 확립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經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妙法蓮華經」의 대부분은 宋朝의 戒環(?-1127)이 宋 欽宗(靖康 1, 高麗 仁宗 4, 1126)년에 註解한 7卷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木板으로 刊行된 가장 오래된 「妙法蓮華經」은 全羅南道 靈光의 佛岬寺 冥府殿의 十王像에서 卷3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략 150여종의 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板本の 系統은 參與 主體나 刊行手段에 따라 크게 成達生版本系와 甲寅字版本系, 乙亥字版本系, 貞喜王后版本系, 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調査本 「妙法蓮華經」은 成達生版本系이다.

鳩摩羅什(344-413)이 翻譯하고 宋朝의 戒環(?-1127)이 註解한 版本을 太宗 5(1405)년에 당시의 名筆家였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가 先親의 冥福을 祈願할 목적으로 書寫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道人 信文(?-?) 등의 주관 아래 全羅道 雲梯縣 兜率山 安心杜에서 간행된 木板本이다.

調査本 「妙法蓮華經」의 형태사항은 全7卷 중 卷4-7의 4권 1책으로 卷頭題와 卷末題는 ‘妙法蓮華經’이며 版心題는 ‘法’이다. 卷頭に 變相圖가 있으며,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半匡은 세로 21.5cm 가로 13.0.8cm 內外이며, 本文은 界線이 없이 10行 20字이다. 板心에는 板口와 魚尾가 없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26.7cm 가로 16.0cm이다. 조사본의 冊末에는 陽村 權近(1352-1409)이 永樂 3(을유, 태종 5, 1405)년에 지은 跋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跋文에는 本書의 開板에 관한 來歷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施主秩에는 本書의 開板에 시주한 ‘兎山郡夫人金氏’와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등 數十人の 施主者가 列名되어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板下本은 당시의 名筆家로 趙孟頫(1254-1322)의 趙松雪體에 능숙했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에 의하여 淨書된 것이며, 板刻의 完成度도 매우 높은 편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하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究와 書誌學 뿐 아니라 조선시대 初期의 木板印刷術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과 동일한 板本이 慶尙南道 金海市 大東面의 圓明寺에 소장되어 있으며, 圓明寺 所藏本은 이미 寶物 第961號로 指定되어 있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명칭 :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비슬산에 위치한 용연사는 나말려초기에 창건되어 조선초에 중창되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3년(선조 36)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다. 용연사에 전해오는 금강계단(보물 제 539호)은 임진왜란 때 묘향산으로 옮겨졌던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다시 통도사로 이안하면서 그 일부가 봉안된 것으로서 1613년(광해군 5)에 완공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경북일대에서의 용연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용연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2010년에 실시한 복장조사에서 조성발원문(1655년), 개금발원문(1762년), 후령통과 함께, 『법화경』, 『화엄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부모은중경』, 『선종유심결』, 『발심수행장』, 『목우자수심결』 등의 전적류 및, 「육자진언」, 「보협진언」을 비롯한 주서(朱書) 다라니 등, 복장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특히, 조성발원문과 개금발원문을 통해서 삼존불상이 조선후기



사진 1.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본존불상, 조선시대 1655년, 대구 달성

1655년(순치 12)에 조각승 도우(道祐)가 이끄는 승려조각가들에 의해 조성되었고 1672년(강희 11)에 개금되었음이 밝혀졌다.

본존 아미타여래좌상(사진 1)은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 우뚝한 콧날, 넓은 인중과 일자로 다문 입술에서 보이는 상호(相好)가 원만하고, 전체적으로 반구형을 이룬 머리와 육계의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 중간에는 반달형의 중계주가 조각되어 있다. 삼도는 목의 아래쪽에 음각되어 있고 둥근 어깨 위에 걸친 대의(大衣)는 가사 위에 또 한 벌을 덧입는 이중착의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의 앞섶이 넓게 열린 편평한 가슴에는 사선으로 접혀진 내의가 수평으로 나타나고, 별재



사진 2. 용연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 1655년, 대구 달성

(別材)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운 양 손은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맞댄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고,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발목 부분 중앙의 넓은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는 부채꼴로 넓게 퍼져 흘러내린다.

좌우협시인 관음보살상(사진 2)과 대세지보살상은 화염보주와 봉황, 운문이 새겨진 화려한 보관을 쓰고, 앞머리는 촘촘하게 작은 반원형으로 새겨졌으며, 보게

(寶髻)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얼굴은 본존 아미타불상처럼 방형에 가까운 살이 많은 원만형이고 콧날이 우뚝하며 인중이 넓고 입술은 미소를 띤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 보살상의 착의형식은 천의가 아닌 여래상의 대의형태로 표현되었으며 두 손으로는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2006년에 개금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아미타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보이는 “順治十二年乙未三月日慶尙爲成州地龍淵寺佛相成造成記文....(중략)...首大禪 道祐 雙照, 敬玉, 敬愼, 惠淸, 道哲, 玉淳...”이라는 기록을 통해 수화승인 도우(道祐)를 비롯하여 쌍조(雙照), 경옥(敬玉), 경신(敬愼), 혜청(惠淸), 도철(道哲), 옥순(玉淳)의 여섯 명이 참여하여 모두 일곱 명의 조각승들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사진 3). 또한 증명을 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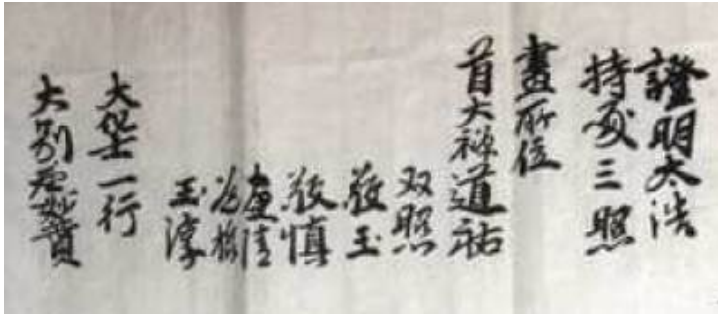


사진 3. 조발원문 중 조각승 부분

조삼신불좌상(1633-34년)의 제작에 무염(無染)이 이끄는 조각승 그룹의 제 3위 조각승으로 이름이 보이고,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1635년)의 제작에서 역시 제 3위 조각승으로,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1651년)에서는 차(次) 조각승으로 이름이 보인다. 따라서 무염의 제자였거나 연배가 아래인 동료였다고 생각되는데, 1653년에 대구 운흥사 대웅전 아미타삼존불상 제작에 수조각승을 담당할 것을 보면 이 시기에 무염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우의 지휘 아래 용연사 아미타삼존상의 제작에 참여했던 여섯 명의 조각승들 가운데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쌍조는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선운사 목조삼신불좌상(1633-4년)과 불갑사 목조삼세불좌상(1635년)의 제작에서 도우와 함께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했던 인물로 무염과 조각승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용연사 불상을 제작하기 2년전에 도우가 수조각승을 맡았던 달성 운흥사 아미타삼존불상(원 봉안처 수암사)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쌍조가 용연사 불상제작에 차조각승으로 참여하고 이어서 1657년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사진 4) 제작에도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을 보면 무염과 조각승 가운데 도우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듯하다. 쌍조를 제외하면 경옥, 경신, 옥순은 도우와 함께 운흥사와 송림사의 불상제작에도 참여했고 희장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여러 불사에도 참여하는 것을 보아서 도우와 희장의 작업장을 넘나들며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했던 인물들로 이해된다.

용연사 아미타삼존불상이 제작되던 해에 도우는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1606호)과 석조삼장보살좌상을 제작하고 그보다 2년 전인 1653년에는 달성 운흥사에 봉안

태호(太浩)는 2년전에 조성된 운흥사(수암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제작에서도 증명을 맡고 있어 비슬산, 최정산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 사찰들의 연관성이 짐작된다.

수조각승을 맡은 도우는 일찍이 고창 선운사 대웅전 목



사진 4.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의 본존상, 조선 1657년, 수조각승 도우, 경북 칠곡

되어 있는 수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했으며, 1657년에는 칠곡 송림사의 3미터에 가까운 대형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1605호, 사진 4)을 제작하는 등, 경북 일대에서 크게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용연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시대 17세기 중엽의 조각유파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문헌자료>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파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1, 2006.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문화재전문위원

1. 현상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아미타삼존 불좌상이다. 주존 아미타불은 시무외인을 지은 오른손을 정강이 바로 위로 낮게 대었고, 좌우 보살상은 바깥쪽의 팔을 높이 들어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기하였다. 이런 기법은 청헌에게서 시작하여 승일, 응혜, 회장 등 청헌과 조각승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수인 형식이다. 머리의 앞뒤 깊이가 매우 두껍고 신체가 건장한 점도 청헌과 특히 회장과 불상 양식과 같다. 오른쪽 가슴의 대의 자락이 약간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중앙에 폭이 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연하고 대칭으로 옷주름들이 배치되어 있는 점도 회장풍과 유사하다. 다만, 얼굴은 회장에 비하여 턱이 각저 정사각형에 가깝고, 하반신의 슬폭이 넓어 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도우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조각승 도우는 1633년 高敞 禪雲寺 대웅전의 木造三方佛坐像을 조성하는 불사에서 法海, 無染에 이은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635년 靈光 佛甲寺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시에는 수조각승 무염, 차조각승 勝日을 이어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51년에 東草 新興寺 극락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시에는 무염을 이은 차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즉, 도우는 17세기 전반 가장 영향력있는 조각승 유파인 無染派에서 차조각승으로까지 올랐던 무염파의 대표적 조각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5건의 불상들은 무염파의 작품과 상이하며, 운흥사 삼존상처럼 오히려 회장과 작품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수조각승 시기의 불사에 회장과 조각승들이 많이 참여한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성발원문

“時維順治十二年旃蒙協洽姑洗之月成州地龍淵寺記文……畫所位 首大禪師道祐 雙照 敬玉 敬愼 惠淸 道哲 玉淳……”로 기록되어 있는 발원문이 아미타불, 관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 복장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의하면 1655년에 수조각승 道祐를 비롯하여 雙照 敬玉 敬愼 惠淸 道哲 玉淳 등 7인의 조각승에 의하여 아미타삼존상이 조성되어 성주(현 達成)의 용연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삼존불은 용연사에 조성된 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각승 중에는 경옥, 경신, 옥순 등은 회장과와 관련이 있는 조각승들이며, 쌍조는 무염과의 주요 조각승이어서, 운흥사 삼존상과 동일하게 회장과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상의 회장과적 양식 요소와 함께 조각승들의 인적 구성에서도 회장과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문헌자료

*「達成 龍淵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¹⁹⁾ 1655년 3월, 白紙墨書, 52.5×136.0cm.

時維

順治十二年旃蒙協洽²⁰⁾姑洗之月²¹⁾成州地龍淵寺²²⁾記文

咄哉通天下流轉之法自天竺始傳於震朝…²³⁾之境有國曰高麗

…²⁴⁾之內有道曰慶尙道內之境有山曰琵琶…²⁵⁾之麓有邑曰成州

先風其餘列邑可不察哉成州之六十里許有寺曰龍淵寺之

棚建之基言之則我國祖師淨心登階²⁶⁾自忠青道移歸於此道

琵琶山長壽庵舊居舍身之處也師曰山之下有大伽藍此是

中原祖師通靈洞山之曆銓始棚之刹也嗟哉去去倭變之時我國

諸山寺刹蕩然妄遺惟我此寺巋然獨存矣不幸一日之內皆爲灰燼

寺衆咸曰噫萬古禪刹何爲泯也一時建立不日成之宛轉如舊所欠者

三界大導師佛相也大禪師一行比丘因衆勸而自己發心 伏聞

19) 송은석 석문.

20) 古甲子. 旃蒙은 乙, 協洽은 未. 『爾雅』에 의함. 순치12년 을미년은 1655년.

21) 3월. 음악의 12율중의 5번째. 12율은 黃鍾, 大呂, 太簇, 夾鍾, 姑洗, 仲呂, 蕤賓, 林鍾, 夷則, 南呂, 無射, 應鍾의 순으로 되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12律을 각각 일 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黃鍾을 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姑洗은 3월에 해당한다.

22) 淵은 氵+口+水

23) …는 앞의 글자를 그대로 반복하라는 부호로, 震朝.

24) …는 앞의 글자를 그대로 반복하라는 부호로, 高麗.

25) …는 앞의 글자를 그대로 반복하라는 부호로, 琵琶.

26) 太古普愚→幻庵混修→龜谷覺雲→登階正心→碧松智嚴→芙蓉靈觀→西山休靜

法身無相迺卽相以求眞實相亡言伏金言以詮顯 是以袖入勸疏廣聚諸

■做成佛相三尊既畢而同參萬■檀越題名錄

王妣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轉

寺內秩

題名錄

三綱大禪義明

證明老衲太浩

首僧大禪戒環²⁷⁾

持殿禪德三照

住持大禪雙奎

畫所位

大禪一彥

首大禪師道祐

大禪弘哩

双照

敬玉

敬愼

惠清

道哲

玉淳

緣化秩妙正

法熙

性覺

靑律

學梅

大功德主一行

別座 妙■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 문화재전문위원 손영문

○ 내용 및 특징

27) 環은 王+不

용연사는 비슬산 기슭에 자리잡은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914년(신덕왕 3)에 보양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1419년(세종 1)에는 천일(天日)에 의해 중건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1603년에 사명대사가 인잠(印岑), 탄옥(坦玉), 경천(敬天) 등에게 명하여 중창하도록 하였다. 이후 1653년에는 대웅전과 명부전을, 1655년에는 함허당(含虛堂)과 관정료(灌頂寮)가, 1656년에는 관음전이, 1660년에는 약사전이, 1673년에는 금강계단이 건립되는 등 소실된 주요 불전과 전각들이 중건, 중창되어 가람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현재 가람구성은 극락전과 석조계단의 두 영역으로 크게 나뉜다. 극락전 구역에는 삼성각, 영산전, 심검당, 선열당, 삼층석탑, 안양루, 천왕문 등이 자리하고 있고, 석조계단 구역에는 적멸보궁과 향로전이 건립되어 있다. 이외 극락전 왼쪽으로 불이문과 청운교를 지나 개울 건너편에는 명부전, 사명당, 독성각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내암자로는 은적암, 명적암, 광선암이 있다.

용연사의 중심불전인 극락전에는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이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는 아미타여래삼존형식을 보여준다. 삼존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상들은 1655년(효종 6)에 조성된 것이다. 불상을 조성하면서 왕실(王室) 삼전하(三殿下)의 수명장수와 국태민안(國泰民安), 모든 중생의 성불도(成佛道)를 발원하였고, 불상의 제작에는 태호(太浩)스님의 증명 아래 수조각승 도우(道祐)와 보조 조각승 쌍조(雙照)²⁸, 경옥(敬玉)²⁹, 경신(敬愼)³⁰, 혜청(惠淸)³¹, 도철(道哲)³², 옥순(玉淳)³³ 등 7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였고, 이외 승려를 포함한 많은 재가신도들이 시주로 동참하였다. 이후 1762년에는 18세기에 크게 활약한 상정(尙淨) 등에 의해 중수개금이 있었고, 최근 2006년도 개금불사가 있었다.

본존 아미타여래는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하였고, 착의는 두 장의 대의를 입은 이중착의식이다. 둥글게 처리한 머리에는 따로 만든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였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는 불명확하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모양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이목구비도 뚜렷하다. 고요히 뜬 시선은 사바세계를 굽어 살피듯 자비롭고, 얇은 입술에는 양 입가를 살짝 늘

28) 조각승 쌍조는 1633년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수조각승 무염)과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무염), 1675년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 등을 조성하였다.

29) 조각승 경옥은 1648년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승일)과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회장),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회장), 1664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도우) 등을 조성하였다.

30) 조각승 경신은 1655년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과 1657년 칠곡 송림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회장), 1664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도우)을 조성하였다.

31) 조각승 혜청은 1655년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조각승 도우)을 조성하였다.

32) 조각승 도철은 1655년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조각승 도우)을 조성하였다.

33) 조각승 옥순은 1649년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시왕상(수조각승 영철)과 1655년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을 조성하였다.

러 열은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방형의 넓은 면적에 돌출한 작은 코, 짧은 턱, 바람을 넣은 듯 살집이 통통한 얼굴에서 작자 특유의 조각적 취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도우가 2년 앞서 조성한 대구 운홍사 목조아미타여래상에서는 아직 스승 무염의 여운이 남아있는 데 비해, 이 불상은 가로 폭이 넓은 방형의 얼굴에 둔중하게 변모한 양악과 짧은 턱에서 보다 중후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이 불상에서 도우는 자신의 색깔을 한층 더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간결하고 힘 있는 철선묘를 위주로 표현하였으며, 선의 깊이는 얇은 편이다. 넓은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군의의 끝단을 비스듬히 접어 멋을 내었고, 볼록하게 솟아 오른 복부에는 상의와 대의가 W자형으로 교차하여 겹쳐진 모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결가부좌한 무릎은 부드럽게 둥글렀으며, 오른발 아래로 나팔모양으로 드리운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부채살이 펼쳐지듯 주름들이 밀도 높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주름 표현은 도우 조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불상의 비례는 신체에 비해 머리가 다소 크지만, 어깨는 넓고 무릎은 넓고 깊어 당당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좌우 협시보살상의 개성 있는 얼굴도 본존과 마찬가지로 통통하게 살집이 올라 귀여운 인상을 주며, 착의법도 본존불과 같이 이중착의식(二重着衣式)이다. 보관은 화염과 봉황, 구름문, 관대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꽃잎 모양으로 능을 준 모판(母板)에 부착하여 장엄하였다. 특히 서로 마주한 2마리의 봉황이 보관에 표현된 점이 특색이 있다. 머리는 2갈래의 상투로 단정하게 땃아 올렸으며, 보관의 턱을 이루는 앞뒤 머리와 보계는 세밀하게 빗질하듯 머리카락을 표현하였다. 양 어깨에는 귀의 뒤쪽과 귓볼을 가로질러 내린 2가닥의 머리카락을 날실과 씨실을 엮듯 엮어 3겹의 둥근 원형을 이룬 뒤 다시 세 갈래로 흘러내렸는데, 이는 스승 무염(無染)과 함께 제작한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좌우 협시보살상의 보발표현과 유사하다. 귀에는 꽃모양의 귀고리를 부착하였고, 둥글게 돌아간 귓바퀴의 내에는 상·하각의 여운이 흐릿하게 형성되어 있고, 열쇠구멍처럼 늘어진 귓구멍을 표현하였다.

손의 위치는 서로 대칭이 되게 표현하고 양손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처럼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연봉과 연잎으로 구성된 긴 줄기를 잡고 있다. 특히 관음보살의 연잎 위에는 주구가 달린 정병을 올려놓아 관음보살임을 나타내었다. 손목에는 문양을 소략한 문양을 넣은 넓은 띠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고, 손가락은 길고 율동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손바닥에는 ‘卍’모양의 손금을 또렷이 새겨 넣었다. 노출된 오른발은 크고 평면적이며, 나뭇잎 모양의 소맷자락이 발가락을 덮고 짧게 흘러내렸다.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형태나 비례, 주름의 표현, 양감 등은 본존불과 거의 같다.

수조각승 도우는 무염(無染)을 보조하여 1633년에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

비로자나삼불좌상을, 1635년에는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1651년에는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을 조성하였다. 이후 수조각승이 되어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1657년에는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을, 1664년에는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그는 무염의 조각전통을 계승한 무염파 조각승으로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17세기 중엽 경에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존상의 복장에서는 다량의 경전과 함께 후령통(喉鈴筒)도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형태는 17세기 불상에서 흔히 보이는 원통형에 두경에 후혈이 부착된 모습이다. 후령통 내에는 청·적·백·흑·황의 오색비단으로 오보병을 만들어 안립(安立)하였다. 후령통의 바깥 면에는 후혈에서 뽑아낸 오색실로 오방경을 고정하고 황초폭자로 감싸 마무리하였다. 황초폭자에는 오륜종자를 적었다.

○ 복장유물 목록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아미타여래	1	발원문 (용연사기문)	백지 묵서	1	1655년	52.5×136	*時維」順治十二年旃蒙協洽姑洗之日成州地龍淵寺記文…
	2	사중질	백지 묵서	1	1655년	25.5×261.5	*順治十二年歲次乙未七月十五日龍」淵寺衆目關於于后……
	3	개금시주질	종이	1	1762년	19.5×70	*칭지홍서 *施主秩…
	4	후령통	동	1	1655년경	5.0×11.2	*조성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됨.
	5	직물편	비단	3	-	① 56x15 ② 60x15 ③ 12x8.5	
대세지보살	6	발원문	종이	1	1655년	55×78.5	*백지묵서 *時維順治拾貳年旃蒙協洽姑洗之日琵琶山龍淵寺佛像造成記文」伏…
	7	개금발원문	종이	1	1762년	19.3×68.5	*칭지홍서 時維 願文」 乾隆二十七年壬午歲三月日大丘地」龍淵寺極樂殿」大勢至菩薩尊像重修改金…
	8	시주질	종이	1	1762년	20.5×62.5	*백지묵서 *施主秩…
	9	후령통	동	1	1655년경	4.8×11.5	
	10	직물편	비단	3	-	① 53x30 ② 18.5x15.5 ③ 31.5x18	
관세	11	조성발원문	종이	1	1655년	53.5×77	*백지묵서 *時維

음보살상							順治十二年乙未三月日慶尙道成州地龍淵寺佛像造成記文」伏聞」法身無相迺即相以求眞實相亡言伏金言以詮顯是以化主」一行廣求諸緣做成佛相三尊既畢而同共諸人題名錄……
	12	개금발원문	종이	1	1762년	19×69.5	*창지홍서 *時維 願文」乾隆二十七壬午歲三月日大丘地」龍淵寺極樂殿」觀世音菩薩尊像重修改金…
	13	후령통	둥	1	1655년경	4.8×11.5	
	14	직물편	비단	3		① 54.5x16 ② 55x17.5 ③ 16.5x15	
계				14건 20점			

○ 아미타여래 조성발원문

時維」

順治十二年旃蒙協洽姑洗之日成州地龍淵寺記文」

咄哉通天下流轉之法自天竺始傳於震朝以之境有國曰高麗」

以之內有道曰慶尙道內之境有山曰毘瑟以之麓有邑曰成州」

先?其餘列邑可不察哉成州之六十里許有寺曰龍然寺之」

刵建之基言之則我國祖師淨心登階自忠清道移歸於此道」

毘瑟山長壽庵舊居舍身之處也師曰山之下有大伽藍此是」

中原祖師通靈洞山之曆銓始刵之刹也嗟哉玄」倭變之時我國」

諸山寺刹蕩於?惟我此寺山歸於獨存矣示幸一日之內皆爲灰煨」

寺衆咸曰噫萬古禪刹何爲泯也一時建立示日成之宛轉如舊所欠者」

三界大導師佛相也大禪師一行比丘因衆勸?自己發心 伏聞」

法身無相迺即相以求眞 實相亡言伏金言以詮顯是以神八勸疏廣聚諸」

緣做成佛相三尊既畢而同參萬緣檀越諸名錄」

王妣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世」

世子邸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轉」

題名錄」

證明老納太浩」

持殿禪德三照」

畫所住」

首大禪師道祐」

 双照」

 敬玉」

 敬慎」

 惠清」

 道哲」

 玉淳」

緣化秩 妙正」

 法熙」

 性覺」

 靑律」

 學梅」

大功德主 一行」

別座 妙贊

[하단]

寺內秩」

三綱大禪義明」

首僧大禪戒?

住持大禪雙奎」

 大禪一彦」

 大禪弘哩」

 大禪道應」

 大禪弘海」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대세지보살상 중수기]

중수기

時維 願文」

乾隆二十七年壬午歲三月日大丘地」

龍淵寺極樂殿」
大勢至菩薩尊像重修改金」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證明法師」
宣定」
慧澄」
至誠」
誦呪法師」
雙能」
廣輝」
智明」
敏元」
法淨」
泰信」
普坦」
處行」
典淳」
漢淨」
湜俊」

畫師」
尙淨」
界汝」
雪演」
寬心」
宇允」
字官」
最信」
快信」
幸安」
大善」
有行」
斗淳」

永日」
攝閑」
直惠」
2단
供養主」
樂坦」
怡淨」
普學」
允和
宇初」
管益」
普敏」
性日」
道官」
漢摠」
奉一」
化主 德雨」
別座 喚玄」
都監 允楚」
時僧 統歸潤」
鍾頭 謹英」
 克英」
三綱 夢淑」
 謹悅」
 覺還」
施主 秩」
定悅」
漢清」
達心」
道彥」
宝訓」
道行」
勝旻」
印談」

法云」
 旻悅」
 頓世」
 呂性」
 等海」
 性學」
 ?性」
 宗演」
 丹識」
 就行」
 廣心」
 旺行」
 旺午」
 觀惠」
 隱閑」
 寂玉」
 勝宗」
 性天」
 抱淳」
 元日」

□ 문화재위원

○ 신청목록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44種의 目錄을 중심으로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典籍>의 규모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腹藏遺物 44種 中 典籍 34種)							
番號	典籍	名稱	數量	規格 (cm)	造成年代 (推定)	版本	備考
01	01	造成發願文	1枚	52.5×136.0	孝宗 6(1655)	筆寫本	-
02	02	造成發願文	1枚	55.0×78.5	孝宗 6(1655)	筆寫本	-
03	03	發願文	1枚	53.5×77.0	孝宗 6(1655)	筆寫本	-
04	04	寺中秩	1枚	25.5×261.	孝宗 6(1655)	筆寫本	-

				5			
05	05	改金發願文	1枚	19.3×68.5	英祖 38(1762)	筆寫本	-
06	06	施主秩	1枚	19.5×70.0	英祖 38(1762)	筆寫本	-
07	07	施主秩	1枚	20.5×62.5	英祖 38(1762)	筆寫本	-
08	08	施主秩	1枚	19.0×69.5	英祖 38(1762)	筆寫本	-
09	09	妙法蓮華經	7卷7冊	45.0×28.5	英祖 38(1762)	木板本	典籍
10	10	妙法蓮華經, 卷2, 3, 6-7	4卷3冊	33.3×25.0	中宗 26(1531) 後刷	木板本	典籍
11	11	妙法蓮華經, 卷3-7	5卷2冊	32.7×19.4	宣祖 41(1608)後 刷	木板本	典籍
12	12	妙法蓮華經, 卷1-2, 5	3卷2冊	32.0×20.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
13	13	妙法蓮華經, 卷1-3	3卷1冊	29.0×18.0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
14	14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7.5×16.5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15	15	妙法蓮華經, 卷5	1卷1冊	33.3×19.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破本)
16	16	妙法蓮華經, 卷1-3	3卷2冊	27.0×16.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破本)
17	17	妙法蓮華經, 卷1-3	1卷1冊	21.0×16.5	壬亂以前 後刷	木板本	典籍
18	18	妙法蓮華經, 卷2-3, 5-6	4卷2冊	34.0×21.3	英祖 38(1762)	木板本	典籍
19	19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0.5×18.5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典籍
20	20	妙法蓮華經, 卷1	1卷1冊	36.5×21.0	光海君 8(1615)	木板本	典籍
21	21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6.7×16.0	太宗 5(1405)	木板本	典籍
22	22	妙法蓮華經, 卷3-4	2卷1冊	28.3×17.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23	23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4.7×21.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24	24	大方廣佛華嚴經, 卷14	1卷1冊	31.5×12.0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典籍
25	25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13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典籍
26	26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5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典籍
27	27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30.0×25.0	宣祖 3(1570)	木板本	典籍
28	28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28.0×18.0	刊行年不明	木板本	典籍(中國本)
29	29	父母恩重經	1冊	27.5×11.0	朝鮮前期	木板本	典籍(破本)
30	30	父母恩重經, 中·下	2卷1冊	28.0×10.5	朝鮮前期	木板本	典籍(破本)
31	31	大藏目錄, 上·中·下	3卷3冊	30.7×46.5	英祖 38(1762)	木板本	典籍
32	32	禪宗唯心訣	1冊	24.5×15.6	燕山君 6(1500)	木板本	典籍
33	33	發心修行章	1冊	23.0×15.8	中宗 35(1540)	木板本	典籍
34	34	牧牛子修心訣	1冊	23.2×14.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35	35	大字大明王眞言	1枚	41.7×25.0	英祖 38(1762)	木板本	-
36	36	朱書陀羅尼	1枚	67.5×40.2	英祖 38(1762)	筆寫本	-
37	37	朱書陀羅尼	1枚	40.0×68.0	英祖 38(1762)	筆寫本	-
38	38	寶篋眞言	1枚	51.2×39.4	英祖 38(1762)	木板本	-
39	-	候鈴筒	2種	5.0×11.2 3.8×8.5	17世紀 中葉	阿彌陀 佛本尊	-

						像	
40	-	候鈴筒	2種	4.4×15.0 4.0×8.8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菩薩尊像	-
41	-	候鈴筒	2種	4.8×11.5 3.5×9.1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尊像	-
42	-	緋緞	3種	56.0×15.0 60.0×15.0 12.0×8.5	17世紀 中葉	阿彌陀佛本尊像	-
43	-	緋緞	3種	53.0×30.0 28.5×15.5 31.4×18.0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菩薩尊像	-
44	-	緋緞	3種	54.5×16.0 55.0×17.5 16.5×15.0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尊像	-

○ 現狀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은 大邱廣域市 達城郡 玉浦面 龍淵寺路 260番地의 龍淵寺의 소유이며, 현재 桐華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은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의 腹藏에서 출현된 書籍과 古文書 및 候鈴筒 등 44種의 遺物로 保存狀態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桐華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의 典籍은 表紙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毀損된 상태이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와 裝訂이 요구된다.

○ 복장유물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의 書誌記述을 중심으로 그 內容과 特徵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01)

造成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52.5×136.0cm. 楮紙.

年紀: 順治十二年旃蒙協洽(乙未, 1655, 孝宗 6)…成[星]州地龍淵寺記文

出處: 阿彌陀佛本尊像

內容: 본 문서는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阿彌陀佛本尊像을 造成하던 당시의 記文이다.

(02)

造成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55.0×78.5cm. 楮紙.

年紀: 順治拾貳年旃蒙協洽(乙未, 1655, 孝宗 6)---琵琶山龍淵寺佛相[像]造成記文

其他: 發願文 封套 1枚(30.0×21.5cm)

出處: 木造大勢至菩薩尊像

內容: 본 문서는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木造大勢至菩薩尊像을 造成하던 당시의 記文이다.

(03)

發願文 / [道祐] 撰.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53.5×77.0cm. 楮紙.

年紀: 順治十二乙未(1655)---成[星]州地龍淵寺佛相[像]造成記文

發願文: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出處: 觀世音菩薩尊像

內容: 본 문서는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觀世音菩薩尊像을 造成하던 당시의 記文이다.

(04)

寺中秩 / [覺和] 等撰.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25.5×261.5cm. 楮紙.

年紀: 順治十二年歲次乙未(1655, 孝宗 6)七月十五日龍淵寺衆目關列于后大禪師覺和比丘等

出處: 阿彌陀佛本尊像

內容: 본 문서는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阿彌陀佛本尊像을 造成하던 당시의 寺中秩이다.

(05)

改金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19.3×68.5cm. 楮紙.

年紀: 乾隆二十七壬午(1762, 英祖 38)歲三月日大丘龍淵寺極樂殿大勢至菩薩尊像重修改金

出處: 木造大勢至菩薩尊像

內容: 본 문서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木造大勢至菩薩尊像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의 發願文이다.

(06)

施主秩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19.5×70.0cm. 楮紙.

年紀: 乾隆二十七壬午(1762, 英祖 38)歲三月日大丘龍淵寺極樂殿尊像重修改金

出處: 阿彌陀佛本尊像

內容: 본 문서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阿彌陀佛本尊像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의 施主秩이다.

(07)

施主秩 / [編著者不明]. -- 筆寫本(墨書).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20.5×62.5cm. 楮紙.

出處: 木造大勢至菩薩尊像

內容: 본 문서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木造大勢至菩薩尊像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의 施主秩이다.

(08)

施主秩 / [編著者不明]. -- 筆寫本(朱書).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19.0×69.5cm. 楮紙.

年紀: 乾隆二十七壬午(1762, 英祖 38)歲三月日大丘龍淵寺極樂殿觀世音菩薩重修改金

出處: 觀世音菩薩尊像

內容: 본 문서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觀世音菩薩尊像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의 施主秩이다.

(09)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乙亥字本 翻刻).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後刷 推定].

7卷7冊 : 四周單邊, 半匡 26.4×21.5cm, 有界, 9行21字, 黑口, 內向黑魚尾 ; 45.0×28.5cm. 楮紙.

版心題: 法華經

弘傳序: 祥邁 註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複本: 卷1(4帙), 卷2(4帙), 卷3(4帙), 卷4(3帙), 卷5(3帙), 卷6(3帙), 卷7(3帙)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教經典이다. 본서는 乙亥字本의 翻刻本으로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妙法蓮華經, 卷2, 3, 6-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慶尙道 永川郡] : [公山本寺], [中宗 26(1531) 後刷 推定].

4卷3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6.0×21.5cm, 有界, 9行21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3×25.0cm. 楮紙.

版心題: 法華經

刊記: 嘉靖十年辛卯(1531, 中宗 26)...慶尙道永川郡公山本寺重刊

藏書記: 禮粉兩主(卷2·6·7), 日春兩主(卷3)

其他: 卷7은 施主秩(1張)만 있으며, 卷6-7은 後刷本임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中宗 26(1531)년에 慶尙道 永川郡의 公山本寺에서 重刊된 목판에서 後刷된 版本이다.

(11)

妙法蓮華經, 卷3-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慶尙道 密陽府]: [湧泉寺], [宣祖 41(1608) 後刷 推定].

5卷2冊(零本):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6.0×13.3cm, 有界, 10行20字, 無魚尾; 32.7×19.4cm. 楮紙.

版心題: 法

刊記: 萬曆三十二年甲辰(1604, 宣祖 37)夏能仁菴開刊移于雙溪寺

印經: 萬曆三十六年戊申(1608, 宣祖 41)…密陽府…湧泉寺

藏書記: ‘大見寺 傳授經’(書背)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선조 37(1604, 甲辰)년에 能仁菴에서 開刊된 뒤 雙溪寺에 留板되던 木板으로 선조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에서 印出된 後刷本이다.

(12)

妙法蓮華經, 卷1-2, 5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2卷1冊(零本): 變相圖, 四周雙邊, 半匡 22.7×17.0cm, 有界, 8行13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32.0×20.5cm. 楮紙.

版心題: 蓮華經

弘傳序: 道宣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조선시대 전기에 板刻된 木板에서 後刷된 版本으로 추정된다.

(13)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3卷1冊(零本):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1.0×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9.0×18.0cm. 楮紙.

版心題: 法

弘傳序: 道宣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教經典이다. 본서는 조선시대 전기에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後刷本이다.

(14)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高山]: [花岩寺], [朝鮮中期 後刷 推定].

4卷1冊(零本):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2.0×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7.5×16.5cm. 楮紙.

版心題: 法

跋: …正統八年癸亥(1443)五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全羅道高山地佛明山花岩寺開板

施主秩: 密陽朴氏一門 任氏一門 朴乙守兩主, 劉敬卜兩主 徐正兩主 長伐介兩(主)/ 大選弘乙 入選信玄 禪師祖敏 禪師覺志 禪師法惠 禪師省寶 大禪師信敏 海延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教經典이다. 본서는 世宗 25(1443)년에 全羅道 高山의 花岩寺에서 판각된 목판에서 조선시대 중기에 인출된 後刷本이다.

(15)

妙法蓮華經, 卷5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1卷1冊(零本): 四周雙邊, 半匡 22.0×17.0cm, 有界, 8行13字, 黑口, 內向黑魚尾; 33.3×19.5cm. 楮紙.

版心題: 法

狀態: 無表紙, 第2-32張 및 第50張 有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教經典이다. 본서는 조선시대 전기에 간행된 목판에서 인출된 後刷本の 破本이다.

(16)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3卷2冊(零本):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1.5×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7.0×16.5

cm. 楮紙.

版心題: 法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狀態: 無表紙, 卷1(第63張 缺落), 卷2(第44張 筆寫), 卷3(第57-58張 缺落)

其他: 卷3에 卷末題에 연이어 松廣寺大禪師希顔, 施主秩 등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版本으로 추정되는 後刷本의 破本이다.

(17)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壬亂以前 後刷 推定].

3卷1冊(零本): 四周單邊, 半匡 21.5×14.0cm, 無界, 10行20字, 黑口, 無魚尾 ; 27.0×16.5cm. 楮紙.

版心題: 法

弘傳序: 道宣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板下本: 黃振孫書

施主秩: 卷1 末尾 및 卷3 末尾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世祖年間に 黃振孫(?-?, 世祖朝人物)의 글씨를 板下本으로 板刻하여 印出된 판本으로 壬辰倭亂 以前の 後刷本이다.

(18)

妙法蓮華經, 卷3, 5, 6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後刷 推定].

3卷3冊(零本): 四周單邊, 半匡 25.5×16.5cm, 有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4.0×21.3cm. 楮紙.

版心題: 妙法

施主秩: 卷5의 第1板 下右段 여백에 ‘禦侮將軍李安國兩主’ 板刻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인출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19)

妙法蓮華經, 卷1-2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後期 後刷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8×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30.5×18.5cm. 楮紙.

版心題: 法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施主秩: 卷1末尾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宣祖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에서 印出된 版本의 後刷本으로 추정된다.

(20)

妙法蓮華經, 卷1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順天] : [松廣寺], [光海君 8(1615) 推定].

1卷1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5.0×17.7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6.5×21.0cm. 楮紙.

版心題: 妙法

刊記: 改刊流通于松廣寺時/歲萬曆四十三年乙卯(1615, 光海君 8)秋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光海君 8(1615)년 가을에 松廣寺에서 改刊하여 流通시킨 판본이다.

(21)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成達生(1376-1444), 成概(?-1440) 書. -- 木板本(後刷). -- [全羅道 雲梯縣] : [兜率山 安心杜], [太宗 5(1405) 推定].

4卷1冊(零本) : 變相圖, 上下單邊, 半匡 21.5×13.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6.7×16.0cm. 楮紙.

卷頭題: 妙法蓮華經

卷末題: 妙法蓮華經

板心題: 法

板下本: 成達生(1376-1444)·成概(?-1440)

跋 文: 無上妙法取譬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 之本宗也戒環疏解精深簡切觀者瞭然易曉其/ 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今曹溪宗大選信希/ (6字隔間)等信奉此經誦持既久其於/ 無量義處固已深造而妙悟矣將推利澤廣霑無/ 垠欲以中字繕寫利[刊]行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 者皆得便於披閱其設心亦可謂弘矣前大護軍/ 成君達生時喪嚴君方在衰經間師

此志欲爲先/ 君追福乃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 道雲梯縣兜率山安心杜倩工
鉸梓以壽其傳自// 今觀者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以延洪/國祚下以普滌含靈功德
之大豈易量哉永樂三(乙酉, 太宗 5, 1405)/ 年春三月下漣陽村權近(1352-1409)跋
(卷7 末尾)

施主秩: 兎山郡夫人金氏/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礪山郡夫人宋氏/ 兪三 成万 福大 上佐
元吉 金成 亨尔之/ 隨喜施主// 大功德主 徐元吉 內隱伊/ 元錫智 韓新京 金元鎮 裴元
真 李珣/ 知印宋庠生/ 前別將金元吉/ 前中郎將李仲雨/ 隨喜施主/ 前中顯大夫軍器尹
楊鎮/ 前天涯寺住持中德 志頰/ 大施主/ 禪德 達嚴 志安 弘辯 能惠 義明 希珠// 前靈
泉寺住持 大選 慶喜/ 同願施主 摠持宗大選 慈玉/ 禪和 德恬 芝粹 尙義/ 禪德 覺禪
鏡明 一沉 信然/ 禪師 覺雲 信了 行禪 信玄/ 大化主 禪師 明會/ 前正山寺住持 大選
信沉/ 前五色寺住持 禪師 仁坦/ 前覺林寺住持 禪師 行湖/ 勸緣(卷7 末尾)

木板刻: 第4卷 第34張 左面, 第5卷 第29張 右面, 第6卷 第28張 左面, 第6卷 第57張 右面,
第7卷 第28張 左面 木板刻 空白

張數: 卷4(60張), 卷5(57張), 卷6(57張), 卷7(54張)

狀態: 無表紙

既指定: 寶物 第961號(卷4-7, 金海 圓明寺, 1988. 12. 28)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
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
教經典이다. 본서는 太宗 5(1405)년에 板刻된 목판에서 印出된 版本으로 추정된다.

(22)

妙法蓮華經, 卷3-4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中期 後刷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8×14.3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8.3×17.0cm. 楮
紙.

版心題: 法

施主秩: 卷3 末尾 및 卷4 末尾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
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
教經典이다. 본서는 宣祖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에 印出된 版本 系統의 後刷
本으로 추정된다.

(23)

妙法蓮華經, 卷1-2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甲寅字翻刻).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中期 後刷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6.5×16.3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4.7×21.0cm. 楮紙.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版心題: 妙法

施主秩: 得岑比丘

複本: 卷2(後刷)

狀態: 無表紙

內容: 「妙法蓮華經」은 佛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說法을 集約한 精髓가 담겨 있는 經典이다. 異譯本 가운데 姚秦의 鳩摩羅什(344-413) 翻譯에 宋朝 戒環(?-1127)의 註解本이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된 佛敎經典이다. 本書는 甲寅字本의 翻刻本으로 朝鮮時代 中期에 後刷된 版本으로 추정된다.

(24)

大方廣佛華嚴經, 卷14 / 佛馱跋陀羅(東晉, 359-429) 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後期 推定].

1卷1帖(零本) : 上下單邊, 匡高 22.8cm, 無界, 6行17字, 無魚尾 ; 32.0×12.0cm. 楮紙. 帖裝.

版心題: 晉

狀態: 後半部 缺落

內容: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으로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증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華嚴宗의 根本經典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佛教思想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經 가운데 하나이다. 본서는 東晉의 佛馱跋陀羅(359-429)가 번역한 60卷本으로 朝鮮時代 後期の 刊本으로 추정된다.

(25)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 [編著者不明] ; [譯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3卷1冊(零本) ; 28.0×20.0cm. 楮紙.

狀態: 無表紙

內容: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으로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증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華嚴宗의 根本經典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佛教思想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經 가운데 하나이다. 본서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佛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26)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 [編著者不明] ; [譯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5卷1冊(零本) ; 28.0×20.0cm. 楮紙.

狀態: 無表紙

內容: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으로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증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華嚴宗의 根本經典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佛教思想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經 가운데 하나이다. 본서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佛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27)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木板本. -- [慶尙道 安東] : [鶴駕山 廣興寺], [宣祖 3(1570) 推定].

1冊(24張) : 變相圖, 圖, 四周單邊, 半匡 21.0×22.0cm, 無界, 14行12字, 無魚尾 ;

30.0×25.0cm. 楮紙.

刊記: 隆慶四年庚午(1570)六月初二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刊板

版型: 上圖下文

其他: 板大施主 趙根兩主

藏書記: 貴今

內容: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印度의 승려 鳩摩羅什(343-413)이 번역한 經典이다. ‘金剛’은 金剛石처럼 단단하고 날카롭다는 뜻이고 ‘般若’는 지혜를 뜻하며, ‘波羅密’은 到彼岸을 의미하고 ‘經’은 곧 지름길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剛石과 같이 단단하고 예리한 지혜로써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經典이다. 본서는 宣祖 3(1570)년에 慶尙道 安東의 鶴駕山 廣興寺에서 간행된 木板本이다.

(28)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刊行年不明].

1冊(零本): 上下單·左右雙邊, 半匡 19.0×13.5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白魚尾; 28.0×18.0cm.

版心題: 金剛經

跋: 金剛般若波羅密經功驗...佛弟子錢唐胡文煥校於覺因山房

狀態: 無表紙, 破本(存22張)

版本: 中國本

內容: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印度의 승려 鳩摩羅什(343-413)이 번역한 經典이다. ‘金剛’은 金剛石처럼 단단하고 날카롭다는 뜻이고 ‘般若’는 지혜를 뜻하며, ‘波羅密’은 到彼岸을 의미하고 ‘經’은 곧 지름길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剛石과 같이 단단하고 예리한 지혜로써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經典이다. 본서는 中國本인 듯하며, 전체 22張만 남아 있는 破本이다.

(29)

父母恩重經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推定].

1冊(零本): 圖, 上下單邊, 半匡 22.0×11.0cm, 無界, 6行20字, 無魚尾; 27.5×11.0cm. 楮紙. 帖裝.

版型: 上圖下文

狀態: 無表紙, 破本(存6折)

內容: 「父母恩重經」의 正式名稱은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며, 父母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친 佛教經典이다. 본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刊本인 듯하나, 6折만 남아 있는 破本이다.

(30)

父母恩重經, 中·下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推定].

2卷1冊(零本): 圖, 上下單邊, 半匡 20.5×10.5cm, 無界, 5行14字, 無魚尾; 28.0×10.5cm. 楮紙. 帖裝.

狀態: 無表紙, 破本(卷頭缺落)

內容: 「父母恩重經」의 정식명칭은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며, 父母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

답하도록 가르친 佛敎經典이다. 본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刊本으로 추정되나 卷頭가 缺落된 破本이다.

(31)

大藏目錄, 上·中·下 / [編著者不明].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後刷 推定].

3卷3冊(枚物): 左右單邊, 半匡 25.0×38.5cm, 無界, 9行14字, 下向黑魚尾; 30.7×46.5cm. 楮紙.

刊記: 戊申(1248, 高宗 35)年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施主秩: 腹藏經施主釋俊三卷上中下件/ 中卷複卷: 複藏經施主雲學中卷一件

複卷: 卷上(4帙), 卷中(3帙), 卷下(4帙)

狀態: 無表紙

內容: 본서는 고려 高宗年間에 간행된 再雕大藏經의 目錄集으로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禪宗唯心訣 / 延壽(宋, 904-975) 述. -- 木板本. -- [陝川]: [鳳栖寺], [燕山君 6(1500) 推定].

1冊(零本 15張): 圖, 四周單邊, 半匡 17.2×12.3cm, 無界, 9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4.5×15.6cm. 楮紙.

版心題: 訣

跋: 弘治十三年庚申(1500, 燕山君 6)…善男信女

刊記: 留板于伽倻山鳳栖寺

狀態: 無表紙, 第1張 缺落

內容: 본서는 北宋의 승려 延壽(904-975)가 禪宗 唯心の 心訣을 서술한 것으로 燕山君 6(1500)년에 慶尙道 陝川의 伽倻山 鳳栖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33)

發心修行章 / 元曉(新羅, 617-686) 述. -- 木板本. -- [安邊]: [釋王寺], [中宗 35(1540) 推定].

1冊(12張): 圖, 四周單邊, 半匡 17.6×12.3cm, 無界, 9行19字, 內向黑魚尾; 23.0×15.8cm. 楮紙.

版心題: 發

刊記: 嘉靖十九年庚子(1540, 中宗 35)…咸鏡道安邊地雪峰山釋王寺

狀態: 無表紙

合綴: 若愚夫自警/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 蒙山和尚法語略錄

內容: 본서는 新羅의 元曉(617-686)가 出家하여 修行하는 者들을 위하여 지은 發心에 관한 佛書이다. 승려가 되기 위하여 出家한 者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入門書로 총 706字의 四言絶句로 된 짧은 글이다. 내용은 愛慾을 끊고 苦行할 것, 참된 수행자가 될 것, 늙은 몸은 닦을 수 없으니 부지런히 닦을 것 등이다. 본서는 中宗 35(1540)년에 咸鏡道 安邊의 雪峰山 釋王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34)

牧牛子修心訣 / 知訥(高麗, 1158-1210) 述.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

明], [朝鮮中期 後刷 推定].

1冊(26張) : 上下單·左右雙邊, 半匡 16.8×11.2cm, 無界, 9行17字, 上黑魚尾 ; 23.2×14.0cm. 楮紙.

版心題: 心

刊記: 大德九年乙巳(1305)七月日誌/同願道人眞問書

合綴: 戒初心學人文·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

狀態: 無表紙

內容: 본서는 高麗 普照國師인 牧牛子 知訥(1158-1210)이 마음을 닦는 秘訣을 제시한 禪에 관한 理論書와 <戒初心學人文>·<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 등이 合本으로 刊行된 佛書로 朝鮮時代 中期에 後刷된 木板本으로 추정된다.

(35)

大字大明王眞言 / [編著者不明]. -- 木板本(朱印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推定].

1枚 : 四周單邊, 匡郭 37.3×15.2cm, 有界, 18行 ; 41.7×25.0cm. 楮紙.

言語: 漢文, 梵文

複本: 900枚

內容: '眞言'은 眞實하여 거짓됨이 없는 佛敎의 비밀스러운 呪文이라는 뜻이다. 본 眞言은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朱墨으로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36)

朱書陀羅尼 / [編著者不明]. -- 筆寫本(朱書).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67.5×40.2cm. 楮紙.

言語: 梵文

內容: 본 陀羅尼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朱墨으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37)

朱書陀羅尼 / [編著者不明]. -- 木板本(朱印).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40.0×68.0cm. 楮紙.

朱色: 石間硃顔料色

言語: 梵文

複本: 15枚

內容: 본 陀羅尼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朱墨으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38)

寶篋眞言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 [編著者不明]. -- 木板本(朱印).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四周單邊, 匡郭 41.0×19.0cm, 有界, 7行12字 ; 51.2×39.4cm. 楮紙.

複本: 900枚

內容: 「寶篋眞言」의 正式名稱은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며 密敎系統의 經典이다. ‘寶篋’은 보배를 담은 좁은 箱子를 뜻하며, 이 상자에 부처님의 全身舍利를 의미하는 陀羅尼를 탑이나 佛像에 安置하면 大功德을 얻는다고 한다. 본 陀羅尼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朱墨으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지정평가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典籍> 38種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토대상의 문화재는 다음의 1종이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典〉 중 國家指定 檢討對象 文化財							
番號	典籍	名稱	數量	規格 (cm)	造成年代 (推定)	版本	調査結果 (案)
1	21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6.7×16.0	太宗 5(1405)	木板本	國家指定 對象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번역한 7卷 28品の 佛敎經典으로 ‘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예로부터 모든 經典 중의 經典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초기 大乘經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佛敎經典이다. 「妙法蓮華經」은 天台宗의 根本經典으로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佛敎專門講院의 隨意科 科目으로 채택되었으며, 「華嚴經」과 함께 韓國 佛敎思想을 확립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經典이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妙法蓮華經」의 대부분은 宋朝의 戒環(?-1127)이 宋欽宗(靖康 1, 高麗 仁宗 4, 1126)년에 註解한 7卷本이며, 戒環의 註解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그 내용이 韓國佛敎의 흐름과 일치하고 文章이 簡潔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木板으로 刊行된 가장 오래된 「妙法蓮華經」은 全羅南道 靈光의 佛岬寺 冥府殿의 十王像에서 卷3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략 150여종의 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板本の 系統은 參與 主體나 刊行 手段에 따라 크게 成達生版本系와 甲寅字版本系, 乙亥字版本系, 貞喜王后版本系, 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진다.

調査本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344-413)이 翻譯하고 宋朝의 戒環(?-1127)이 註解한 版本을 太宗 5(1405)년에 당시의 名筆家였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가 先親의 冥福을 祈願할 목적으로 書寫한 淨書本을 板下本으로 하여 道人 信文(?-?) 등의 주관 아래 全羅道 雲梯縣 兜率山 安心杜에서 간행된 木板

本이다. 調査本「妙法蓮華經」은 全7卷 중 卷4-7의 4권 1책본으로 卷頭題와 卷末題는 ‘妙法蓮華經’이며 版心題는 ‘法’이다. 卷頭에 變相圖가 있으며,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半匡은 세로 21.5cm 가로 13.0.8cm 內外이며, 本文은 界線이 없이 10行 20字이다. 板心에는 板口와 魚尾가 없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26.7cm 가로 16.0cm이다. 조사본의 冊末에는 陽村 權近(1352-1409)이 永樂 3(을유, 태종 5, 1405)년에 지은 跋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陽村 權近의 발문은 “無上妙法取譬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之本宗也戒環疏解精深簡切觀者瞭然易曉其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今曹溪宗大選信希(6字隔間)等信奉此經誦持既久其於無量義處固已深造而妙悟矣將推利澤廣霑無垠欲以中字繕寫利[刊]行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者皆得便於披閱其設心亦可謂弘矣前大護軍成君達生時喪嚴君方在衰經間師此志欲爲先君追福乃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道雲梯縣兜率山安心杜倩工鉸梓以壽其傳自今觀者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以延洪國祚下以普滌含靈功德之大豈易量哉永樂三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跋(높음이 없는 오묘한 법이 「妙法蓮華經」만한 것이 있겠는가. 기록을 주고 因果를 證驗함이 실로 漸次가 없으니 이는 모든 佛法의 근본이요 으뜸인 것이다. 戒環 스님의 註解는 精深하고 簡切하여 讀者들이 쉽게 그 뜻을 깨우칠 수 있었으므로 역대로 이 법을 받드는 자들은 모두 중히 여겼다. 오늘날 曹溪宗의 大選인 信希 스님 등이 이 經을 정성스레 信奉하며 讀誦하고 守持한지 이미 오래 되어 그 한량없는 뜻까지도 참으로 조예가 깊고 妙한 진리도 깨우쳤다. 장차 利로운 혜택이 넓게 번지고 끝이 없기를 기대하며 중간 글자로 繕寫하고 [刊]行하여 耆老들도 볼 수 있고 눈이 어두운 자들도 모두 펼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그 마음의 베풀이 크도다. 大護軍을 역임한 成君 達生이 마침 先親의 喪을 당하여 마야호로 衰經(喪服)을 입고 있을 사이에 成君이 이런 뜻으로 先親을 위하여 冥福을 빌고자 이에 동생 概와 함께 이 經을 썼으며, 道人 信文이 全羅道 雲梯懸 兜率山 安心社에 住持하면서 工人들을 초청하여 木板으로 새겨 그 傳함을 오래토록 하였다. 지금부터 讀者들이 註解로써 經을 증명하고 經으로써 課業을 증명함이 계속되어, 위로는 國祚를 크게 드날리며 아래로는 含靈까지도 넓게 스미게 한다면 그 功德의 큼을 어찌 쉽게 헤아릴 것이겠는가. 永樂 3(태종 5, 1405)年 春3月 下澣에 陽村 權近(1352-1409)은 발문하다)”로 跋文에는 本書의 開板에 관한 來歷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施主秩에는 本書의 開板에 시주한 ‘兎山郡夫人金氏’와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등 數十人的 施主者가 列名되어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板下本은 당시의 名筆家로 趙孟頫(1254-1322)의 趙松雪體에 능숙했던 成達生(1376-1444)과 成概(?-1440) 형제에 의하여 淨書된 것이며, 板刻의 完成度도 매우 높은 편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板本이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

究와 書誌學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初期의 木板印刷術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과 동일한 板本이 慶尙南道 金海市 大東面 草亭里 208의 圓明寺에 소장되어 있으며, 圓明寺 所藏本은 이미 寶物 第961號(1988. 12. 28)로 指定되어 있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평가결과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44種의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國家指定對象典籍 1種, 地方有形文化財指定勸告 24種, 複製物製作後原本再腹藏勸告 18種, 除外 1種)							
番號	典籍	名稱	數量	規格 (cm)	造成年代 (推定)	版本	調査結果 (案)
01	01	造成發願文	1枚	52.5×136.0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2	02	造成發願文	1枚	55.0×78.5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3	03	發願文	1枚	53.5×77.0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4	04	寺中秩	1枚	25.5×261.5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5	05	改金發願文	1枚	19.3×68.5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6	06	施主秩	1枚	19.5×70.0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7	07	施主秩	1枚	20.5×62.5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8	08	施主秩	1枚	19.0×69.5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9	09	妙法蓮華經	7卷7冊	45.0×28.5	英祖 38(1762)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0	10	妙法蓮華經, 卷2, 3, 6-7	4卷3冊	33.3×25.0	中宗 26(1531)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1	11	妙法蓮華經, 卷3-7	5卷2冊	32.7×19.4	宣祖 41(1608)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2	12	妙法蓮華經, 卷1-2, 5	3卷2冊	32.0×20.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3	13	妙法蓮華經, 卷1-3	3卷1冊	29.0×18.0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4	14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7.5×16.5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5	15	妙法蓮華經, 卷5	1卷1冊	33.3×19.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6	16	妙法蓮華經, 卷1-3	3卷2冊	27.0×16.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7	17	妙法蓮華經, 卷1-3	1卷1冊	21.0×16.5	壬亂以前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8	18	妙法蓮華經, 卷2-3, 5-6	4卷2冊	34.0×21.3	英祖 38(1762)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9	19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0.5×18.5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0	20	妙法蓮華經, 卷1	1卷1冊	36.5×21.0	光海君 8(1615)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1	21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6.7×16.0	太宗 5(1405)	木板本	國家指定 對象
22	22	妙法蓮華經, 卷3-4	2卷1冊	28.3×17.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3	23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4.7×21.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4	24	大方廣佛華嚴經, 卷14	1卷1冊	31.5×12.0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5	25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13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地方有形勸告
26	26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5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地方有形勸告
27	27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30.0×25.0	宣祖 3(1570)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8	28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28.0×18.0	刊行年不明	木板本	除外(中國本)
29	29	父母恩重經	1冊	27.5×11.0	朝鮮前期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0	30	父母恩重經, 中·下	2卷1冊	28.0×10.5	朝鮮前期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1	31	大藏目錄, 上·中·下	3卷3冊	30.7×46.5	英祖 38(1762)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2	32	禪宗唯心訣	1冊	24.5×15.6	燕山君 6(1500)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3	33	發心修行章	1冊	23.0×15.8	中宗 35(1540)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4	34	牧牛子修心訣	1冊	23.2×14.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5	35	大字大明王眞言	1枚	41.7×25.0	英祖 38(1762)	木板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6	36	朱書陀羅尼	1枚	67.5×40.2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7	37	朱書陀羅尼	1枚	40.0×68.0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8	38	寶篋眞言	1枚	51.2×39.4	英祖 38(1762)	木板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9	-	候鈴筒	2種	5.0×11.2 3.8×8.5	17世紀 中葉	阿彌陀佛本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0	-	候鈴筒	2種	4.4×15.0 4.0×8.8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 菩薩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1	-	候鈴筒	2種	4.8×11.5 3.5×9.1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2	-	緋緞	3種	56.0×15.0 60.0×15.0 12.0×8.5	17世紀 中葉	阿彌陀佛本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3	-	緋緞	3種	53.0×30.0 28.5×15.5 31.4×18.0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 菩薩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4	-	緋緞	3種	54.5×16.0 55.0×17.5 16.5×15.0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한편,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44種 중에서 國家文化財로 指

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1)「妙法蓮華經」과 中國本으로 추정되는 (28)「金剛般若波羅密經」 등 2종을 제외한 나머지 42종 중 (09)「妙法蓮華經」, (10)「妙法蓮華經」, (11)「妙法蓮華經」, (12)「妙法蓮華經」, (13)「妙法蓮華經」, (14)「妙法蓮華經」, (15)「妙法蓮華經」, (16)「妙法蓮華經」, (17)「妙法蓮華經」, (18)「妙法蓮華經」, (19)「妙法蓮華經」, (20)「妙法蓮華經」, (22)「妙法蓮華經」, (23)「妙法蓮華經」, (24)「大方廣佛華嚴經」, (25)「大方廣佛華嚴經」, (26)「大方廣佛華嚴經」, (27)「金剛般若波羅密經」, (29)「父母恩重經」, (30)「父母恩重經」, (31)「大藏目錄」, (32)「禪宗唯心訣」, (33)「發心修行章」, (34)「牧牛子修心訣」 등 24종의 典籍文化財는 大邱廣域市有形文化財로 一括指定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 또한 (01)〈造成發願文〉·(02)〈造成發願文〉·(03)〈發願文〉·(04)〈寺中秩〉·(05)〈改金發願文〉·(06)〈施主秩〉·(07)〈施主秩〉·(08)〈施主秩〉·(35)〈大字大明王眞言〉·(36)〈朱書陀羅尼〉·(37)〈朱書陀羅尼〉·(38)〈寶篋眞言〉·(39)〈候鈴筒〉·(40)〈候鈴筒〉·(41)〈候鈴筒〉·(42)〈緋緞〉·(43)〈緋緞〉·(44)〈緋緞〉 등 18종의 發願文·陀羅尼·候鈴筒·緋緞 등의 유물은 가능한 한 精密複製物을 제작하여 研究에 제공할 있도록 조치를 취한 뒤, 複製物은 再腹藏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 기 타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은 大邱廣域市 達城郡 玉浦面 龍淵寺路 260番地의 龍淵寺의 소유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桐華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의 典籍은 表紙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毀損된 상태이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와 裝訂이 요구된다.

○ 근거 기준

조사본 「妙法蓮華經」과 동일한 板本이 慶尙南道 金海市 大東面 草亭里 208의 圓明寺에 소장되어 있다. 圓明寺 所藏本은 이미 寶物 第961號(1988. 12. 28)로 指定되어 있다.

〈문헌자료〉

대구광역시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2011.

대구광역시편, 「달성군수 의견서」,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편, 「국가지정문화재(보물)신청서」,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편, 「심의결의서(황위주·안병찬·박주·김상호·장인진·서철

현·최은령 위원)」,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편, 「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장인진, 임남수, 최은령, 배현숙 위원 의견)」, 2011.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61호 묘법연화경 권4-7. (圓明寺, 1988. 12. 28)

□ 문화재전문위원

용연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불경류, 다라니류, 등 30종이었다. 복장전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용연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목록

순번	명 칭	수 량	규격 (cm)	연 대	판본	비고
1	妙法蓮華經	7卷7冊	45.0×28.5	英祖 38(1762)	木板本	乙亥字 飜刻本
2	妙法蓮華經 卷2, 3, 6-7	4卷3冊	33.3×25.0	中宗 26(1531) [後刷]	木板本	永川 公山本寺 重刊
3	妙法蓮華經 卷3-7	5卷2冊	32.7×19.4	宣祖 41(1608) [後刷]	木板本	密陽 湧泉寺 印出
4	妙法蓮華經 卷1-2, 5	3卷2冊	32.0×20.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後刷本
5	妙法蓮華經 卷1-3	3卷1冊	29.0×18.0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後刷本
6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7.5×16.5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高山地 佛明山 花岩寺
7	妙法蓮華經 卷5	1卷1冊	33.3×19.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破本
8	妙法蓮華經 卷1-3	3卷2冊	27.0×16.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破本
9	妙法蓮華經 卷1-3	1卷1冊	21.0×16.5	壬亂以前 [後刷]	木板本	黃振孫 板下本
10	妙法蓮華經 卷3, 5-6	4卷2冊	34.0×21.3	英祖 38(1762)	木板本	零本
11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0.5×18.5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後刷本
12	妙法蓮華經 卷1	1卷1冊	36.5×21.0	光海君 8(1615)	木板本	松廣寺 改刊
13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6.7×16.0	太宗 5(1405)	木板本	兜率山 安心社
14	妙法蓮華經 卷3-4	2卷1冊	28.3×17.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後刷本
15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4.7×21.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甲寅字 飜刻本
16	大方廣佛華嚴經 卷14	1卷1冊	31.5×12.0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晉本 60華嚴

17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13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零本
18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5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零本
19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30.0×25.0	宣祖 3(1570)	木板本	安東 廣興寺
20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28.0×18.0	刊行年不明	木板本	중국본, 破本
21	父母恩重經	1冊	27.5×11.0	朝鮮前期	木板本	절첩본, 破本
22	父母恩重經 中·下	2卷1冊	28.0×10.5	朝鮮前期	木板本	절첩본, 破本
23	大藏目錄 上·中·下	3卷3冊	30.7×46.5	英祖 38(1762)	木板本	後刷本
24	禪宗唯心訣	1冊	24.5×15.6	燕山君 6(1500)	木板本	伽倻山 鳳栖寺
25	發心修行章	1冊	23.0×15.8	中宗 35(1540)	木板本	安邊地 雪峰山 釋 王寺
26	牧牛子修心訣	1冊	23.2×14.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본문에 구결있음
27	大字大明王眞言	1枚	41.7×25.0	英祖 38(1762)	木板本	朱印本
28	朱書陀羅尼	1枚	67.5×40.2	英祖 38(1762)	筆寫本	朱筆本
29	朱書陀羅尼	1枚	40.0×68.0	英祖 38(1762)	筆寫本	朱筆本
30	寶篋眞言	1枚	51.2×39.4	英祖 38(1762)	木板本	다라니

1. 妙法蓮華經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英祖 38(1762) 後刷].

7卷7冊 : 四周單邊, 半匡 26.4×21.5cm, 有界, 9行21字, 黑口, 內向黑魚尾, 45.0×28.5cm. 楮紙.

版心題: 法華經

이 판본은 乙亥字本の 翻刻本으로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세불에 각기 나누어 帙裝되었던 낱장 형식으로 卷1(4帙), 卷2(4帙), 卷3(4帙), 卷4(3帙), 卷5(3帙), 卷6(3帙), 卷7(3帙)이다.

2. 妙法蓮華經, 卷2, 3, 6-7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解.

木板本. 慶尙道 永川郡, 公山本寺, 中宗 26(1531)刻, [後刷].

4卷3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6.0×21.5cm, 有界, 9行21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3×25.0cm. 楮紙.

版心題: 法華經

刊記: 嘉靖十年辛卯(1531, 中宗 26)六月日慶尙道永川郡公山本寺重刊

이 판본은 中宗 26(1531)년에 慶尙道 永川郡의 公山本寺에서 重刊된 목판

에서 後刷된 版本이다. 卷6-7은 後刷本이고, 卷7은 施主秩(1張)만 있다. 卷2·6·7에는 ‘禮粉兩主’, 권3에는 ‘日春兩主’ 라는 藏書記가 있다.

3. 妙法蓮華經, 卷3-7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慶尙道 密陽府]: [湧泉寺], [宣祖 41(1608) 後刷].

5卷2冊(零本):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6.0×13.3cm, 有界, 10行20字, 無魚尾, 32.7×19.4cm. 楮紙.

版心題: 法

刊記: 萬曆三十二年甲辰(1604, 宣祖 37)夏能仁菴開刊移于雙溪寺

印經: 萬曆三十六年戊申(1608, 宣祖 41)…密陽府…湧泉寺

선조 37(1604, 甲辰)년에 能仁菴에서 開刊된 뒤 雙溪寺에 留板되던 木板으로 선조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에서 印出된 後刷本이다. 書背에는 ‘大見寺 傳授經’ 이라는 藏書記가 있다.

4. 妙法蓮華經, 卷1-2, 5 / 鳩摩羅什(姚秦) 譯.

木板本. [朝鮮前期 後刷].

2卷1冊(零本): 變相圖, 四周雙邊, 半匡 22.7×17.0cm, 有界, 8行13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32.0×20.5cm. 楮紙.

版心題: 蓮華經

弘傳序: 道宣

조선시대 전기에 板刻된 木板에서 後刷된 版本으로 추정된다.

5.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朝鮮前期 後刷].

3卷1冊(零本):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1.0×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9.0×18.0cm. 楮紙.

版心題: 法

조선시대 전기에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後刷本이다.

6.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高山, 花岩寺, [朝鮮中期 後刷].

4卷1冊(零本):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2.0×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7.5×16.5cm. 楮紙.

版心題: 法

跋:…正統八年癸亥(1443)五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全羅道高山地佛明山花岩寺開板

施主秩: 密陽朴氏一門 任氏一門 朴乙守兩主, 劉敬卜兩主 徐正兩主 長伐介兩
(主)/ 大選弘乙 入選信玄 禪師祖敏 禪師覺志 禪師法惠 禪師省寶 大禪師信敏
海延

世宗 25(1443)년에 全羅道 高山의 花岩寺에서 판각된 목판에서 조선시대 중
기에 인출된 후쇄본이다. 한 권7 말미에도 ‘密陽朴氏一門, ‘任氏一門’에 이어
후인할 때의 시주질을 위와 같은 필적의 글자로 추각하였음을 볼 수 있다.

7. 妙法蓮華經, 卷5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朝鮮前期 後刷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匡 22.0×17.0cm, 有界, 8行13字, 黑口, 內向黑魚尾,
33.3×19.5cm. 楮紙.

版心題: 法

조선시대 전기에 간행된 목판에서 인출된 후쇄본의 破本이다.

第2에서 32張까지 그리고 第50張만 있음.

8.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朝鮮前期 後刷].

3卷2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1.5×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7.0×16.5cm. 楮紙.

版心題: 法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본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版本으로 추정되는 後刷本의 破本이다.

卷3에 卷末題에 연이어 松廣寺大禪師希顏, 施主秩이 있다. 표지는 없 고
卷1 第63張은 缺落되었고, 卷2 第44張은 筆寫되었고, 卷3 第57-58張 은 缺落
되었다.

9.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壬亂以前 後刷 推定].

3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1.5×14.0cm, 無界, 10行20字, 黑口, 無魚尾 ,
27.0×16.5cm. 楮紙.

版心題: 法

이 판본은 世祖年間に 黃振孫(世祖朝人物)의 글씨를 板下本으로 板刻하여
印出된 판본으로 壬辰倭亂 以前の 後刷本이다. 卷1 末尾 및 卷3 末尾에 施主

秩이 있다.

10. 妙法蓮華經, 卷3, 5, 6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英祖 38(1762) 後刷 推定].
3卷3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5.5×16.5cm, 有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4.0×21.3cm. 楮紙.
版心題: 妙法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인출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卷5의 第1板 하단부 오른쪽 여백에 ‘禦侮將軍李安國兩主’의 施主秩이 板刻되어 있다.
11. 妙法蓮華經, 卷1-2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朝鮮後期 後刷].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8×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30.5×18.5cm. 楮紙.
版心題: 法
宣祖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에서 印出된 版本의 後刷本으로 추정된다. 표지는 없으며, 卷1末尾에는 施主秩이 있다.
12. 妙法蓮華經, 卷1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戒環(宋) 解.
木板本. [順天] [松廣寺], [光海君 8(1615) 推定].
1卷1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5.0×17.7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6.5×21.0cm. 楮紙.
版心題: 妙法
刊記: 改刊流通于松廣寺時/歲萬曆四十三年乙卯(1615, 光海君 8)秋
이 판본은 光海君 8(1615)년 가을에 順天, 松廣寺에서 改刊하여 流通시킨 판본이다.
13.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成達生(1376-1444), 成概(?-1440) 書.
木板本. 全羅道 雲梯縣, 兜率山 安心杜, 太宗 5(1405) .
4卷1冊(卷4-7) :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單邊, 上下間 21.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6.7×16.0cm. 楮紙.
卷頭題: 妙法蓮華經

卷末題: 妙法蓮華經

板心題: 法

板下本: 成達生(1376-1444)·成概(?-1440)

跋 文: 無上妙法取譬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 之本宗也戒環疏解精深簡切觀者瞭然易曉其/ 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今曹溪宗大選信希/ (6字隔間)等信奉此經誦持既久其於/ 無量義處固已深造而妙悟矣將推利澤廣霑無/ 垠欲以中字繕寫利[刊]行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 者皆得便於披閱其設心亦可謂弘矣前大護軍/ 成君達生時喪嚴君方在衰經間師此志欲爲先/ 君追福乃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 道雲梯縣兜率山安心杜倩工鉸梓以壽其傳自/ 今觀者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以延洪/ 國祚下以普滌含靈功德之大豈易量哉永樂三(太宗 5, 1405)/ 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1352-1409)跋

卷7 末: 施主秩 兎山郡夫人金氏/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礪山郡夫人宋氏 / 兪三 成万 福大 上佐 元吉 金成 彥尔之/ 隨喜施主// 大功德主 徐元吉 內隱伊/ 元錫智 韓新京 金元鎮 裴元眞 李珎/ 知印宋扁生/ 前別將金元吉/ 前中郎將李伸雨/ 隨喜施主/ 前中顯大夫軍器尹楊鎮/ 前天涯寺住持中德 志頰/ 大施主/ 禪德 達嚴 志安 弘辯 能惠 義明 希珠// 前靈泉寺住持 大選 慶喜/ 同願施主 揔持宗大選 慈玉/ 禪和 德恬 芝粹 尙義/ 禪德 覺禪 鏡明 一沉 信然/ 禪師 覺雲 信了 行禪 信玄/ 大化主禪師 明會/ 前正山寺住持 大選 信沉/ 前五色寺住持 禪師 仁坦/ 前覺林寺住持 禪師 行湖/ 勸緣

이 『묘법연화경』은 요진시대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戒環이 주해하고及南이序한 계통의 것이다.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에서 성달생과 성개가 필사한淨書本을板下本으로 하여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권7말 권근이 태종 5년(1405) 3월에 쓴 발문에 의하면 조계종의大選信希 등이 법화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모두 중요시하고 있는데, 종래의 것은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워 이를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간행하여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때마침 부친 상중에 있던前大護軍成達生이 이를 듣고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우成概와 함께 필사하였으며, 이를 도인信文이 가지고 전라도 운제현 도솔산에 있는 안심사로 가서 판각하여 보시한 것이 바로 이 판본이다.

그 판각은 대화주 선사明會등의 권연과 주선아래 총지종 대선慈玉 등 여러 스님이 함께 발원시주하고, 또한兎山郡夫人 김씨·前司憲侍史宋潔의 처 영인

元氏·礪山郡夫人 宋氏와 대공덕주 徐元吉·수희시주 前 中顯大夫 軍器 尹楊鎭 등 많은 단월이 시재하여 이루어졌다.

卷首에 經變相이 寶相花紋으로 장식된 四周 속에 있고 左端에 ‘特爲亡禍王 界仙 駕超生淨土之願倩畫變相鉸梓流通者施主鄭氏’라 새겨져 있다. 鄭氏가 죽은 남편 王氏의 超生淨土를 기원하기 위하여 畫工을 사서 變相圖를 그리고, 이를 판각 유통시킨다는 識記가 있어서, 이 변상도의 조성경위를 알려 주고 있다.

이 판본은 성달생, 성개의 독특한 서체이며, 판각도 정교한 편이어서 후쇄 또는 번각되어 조선후기까지 유통되었다.

14. 妙法蓮華經, 卷3-4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

木板本. [朝鮮中期 後刷].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8×14.3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8.3×17.0cm. 楮紙.

版心題: 法

이 판본은 宣祖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에 印出된 版本 系統의 後刷本으로 추정된다. 卷3 末尾 및 卷4 末尾에는 施主秩이 있다.

15. 妙法蓮華經, 卷1-2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

木板本(甲寅字翻刻). [朝鮮中期 後刷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6.5×16.3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4.7×21.0cm. 楮紙.

版心題: 妙法

本書는 甲寅字本의 翻刻本으로 朝鮮時代 中期에 後刷된 版本으로 추정된다. 卷2은 後刷인데 複本이다. 得岑比丘 등의 施主秩이 있다.

16. 大方廣佛華嚴經, 卷14 佛馱跋陀羅(東晉)譯.

木板本. [朝鮮後期 推定].

1卷1帖(零本), 上下單邊, 匡高 22.8cm, 無界, 6行17字, 無魚尾, 32.0×12.0cm. 楮紙. 帖裝.

版心題: 晉

東晉의 佛馱跋陀羅(359-429)가 번역한 60卷本으로 朝鮮時代 後期の 刊本으로 추정된다. 後半部는 缺落됨.

17.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筆寫本. [英祖 38(1762) 推定].

13卷1冊(零本) ; 28.0×20.0cm. 楮紙.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佛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18.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筆寫本. [英祖 38(1762) 推定].

5卷1冊(零本), 28.0×20.0cm. 楮紙.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佛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19.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譯.

木板本. [慶尙道 安東], [鶴駕山 廣興寺], [宣祖 3(1570) 推定].

1冊(24張)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1.0×22.0cm, 無界, 14行12字, 無魚尾, 30.0×25.0cm. 楮紙.

刊記: 隆慶四年庚午(1570)六月初二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刊板

宣祖 3(1570)년에 慶尙道 安東의 鶴駕山 廣興寺에서 간행된 木板本이다. 상단은 변상이 있고 하단은 본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板 大施主는 趙根兩主, ‘貴今’이란 藏書記가 있다.

20.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譯.

木板本(中國).

1冊(零本) : 上下單·左右雙邊, 半匡 19.0×13.5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白魚尾, 28.0×18.0cm.

版心題: 金剛經

跋: 金剛般若波羅密經功驗…佛弟子錢唐胡文煥校於覺因山房

본서는 中國本인 듯하며, 전체 22張만 남아 있는 破本이다.

21. 父母恩重經 /

木板本. [朝鮮前期 推定].

1冊(零本) : 圖, 上下單邊, 半匡 22.0×11.0cm, 無界, 6行20字, 無魚尾, ;27.5×11.0cm. 楮紙. 帖裝.

版型: 上圖下文

朝鮮時代 前期의 刊本인 듯하나, 6折만 남아 있는 破本이다. 절첩본이며,

22. 父母恩重經, 中·下

木板本. [朝鮮前期 推定].

2卷1冊(零本) : 圖, 上下單邊, 半匡 20.5×10.5cm, 無界, 5行14字, 無魚尾, 28.0×10.5cm. 楮紙. 帖裝.

朝鮮時代 前期의 刊本으로 추정되나 卷頭가 缺落된 破本이다.

23. 大藏目錄, 上·中·下

木板本. [英祖 38(1762) 後刷 推定].

3卷3冊(枚物) : 左右單邊, 半匡 25.0×38.5cm, 無界, 9行14字, 下向黑魚尾, 30.7×46.5cm. 楮紙.

刊記: 戊申(1248, 高宗 35)年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施主秩: 腹藏經施主釋俊三卷上中下件/ 中卷複卷: 複藏經施主雲學中卷一件

再雕大藏經의 目錄集으로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卷上(4帙), 卷中(3帙), 卷下(4帙)의 帙本이 있다.

24. 禪宗唯心訣 / 延壽(宋, 904-975) 述.

木板本. [陝川] : [鳳栖寺], [燕山君 6(1500) 推定].

1冊(零本 15張) : 圖, 四周單邊, 半匡 17.2×12.3cm, 無界, 9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4.5×15.6cm. 楮紙.

版心題: 訣

跋: 弘治十三年庚申(1500, 燕山君 6)…善男信女

刊記: 留板于伽倻山鳳栖寺

北宋의 승려 延壽(904-975)가 禪宗 唯心の 心訣을 서술한 것으로 燕山君 6(1500)년에 慶尙道 陝川의 伽倻山 鳳栖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第1張 이 缺落되었다.

25. 發心修行章 / 元曉(新羅, 617-686) 述.

木板本. [安邊] : [釋王寺], [中宗 35(1540) 推定].

1冊(12張) : 圖, 四周單邊, 半匡 17.6×12.3cm, 無界, 9行19字, 內向黑魚尾 23.0×15.8cm. 楮紙.

版心題: 發

刊記: 嘉靖十九年庚子(1540, 中宗 35)…咸鏡道安邊地雪峰山釋王寺

合綴: 若愚夫自警/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 蒙山和尚法語略錄

이 책은 승려가 되기 위하여 出家한 者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入門書이다. 中宗 35(1540)년에 咸鏡道 安邊의 雪峰山 釋王寺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26. 牧牛子修心訣 / 知訥(高麗, 1158-1210) 述.

木板本. [朝鮮中期 後刷].

1冊(26張) : 上下單·左右雙邊, 半匡 16.8×11.2cm, 無界, 9行17字, 上黑魚尾 23.2×14.0cm. 楮紙.

版心題: 心

刊記: 大德九年乙巳(1305)七月日誌/同願道人眞問書

合綴: 戒初心學人文·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

高麗 普照國師인 牧牛子 知訥(1158-1210)이 마음을 닦는 비결을 제시한 禪에 관한 理論書와 <戒初心學人文>·<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 등이 合本으로 刊行된 佛書로 朝鮮 中期에 後刷된 木板本으로 추정된다.

27. 大字大明王眞言 /

木板本. [英祖 38(1762) 推定].

900枚, 四周單邊, 匡郭 37.3×15.2cm, 有界, 18行, 41.7×25.0cm. 楮紙.

이 眞言은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漢文에 이어 梵文을 朱墨으로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28. 朱書陀羅尼

筆寫本. [大邱],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67.5×40.2cm. 楮紙.

이 陀羅尼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梵文을 朱墨으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29. 朱書陀羅尼

筆寫本. [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장, 40.0×68.0cm. 楮紙.

이 陀羅尼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梵文을 朱墨으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30. 寶篋眞言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木板本(朱印).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四周單邊, 匡郭 41.0×19.0cm, 有界, 7行12字, 51.2×39.4cm. 楮紙.

複本: 900枚

이 陀羅尼는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하던 당시에 帙裝 의식용으로 朱墨으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자료>

대구광역시 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 대구광역시,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편, 「심의결의서(황위주·안병찬·박주·김상호·장인진·서철현·최은령 위원)」, 대구: 대구광역시,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편, 「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장인진, 임남수, 최은령, 배현숙 위원 의견)」, 대구: 대구광역시, 2011.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관계전문가

○ 현 상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은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로 260의 龍淵寺의 소유로, 현재 桐華寺 聖寶博物館에서 保存·管理하고 있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은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의 腹藏에서 출현된 書籍과 古文書 및 候鈴筒 등 44種의 遺物이다.

保存狀態는 대부분 良好하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을 갖춘 桐華寺 聖寶博物館에서 保存·管理하고 있다.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の 典籍의 裝訂상태는 表紙가 없는 가제본이 대부분이다. 일부 훼손된 전적은 紙類文化財 나 襍貼 등 專門家에 의한 보수 및 복원처리가 필요하다.

○ 내용 및 특징 : 腹藏遺物 目錄의 書誌記述 參照

1. 腹藏遺物 目錄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腹藏遺物 44種 中 典籍 34種)							
番號	典籍	名稱	數量	規格 (cm)	造成年代 (推定)	版本	備考
01	01	造成發願文	1枚	52.5×136.0	孝宗 6(1655)	筆寫本	-

02	02	造成發願文	1枚	55.0×78.5	孝宗 6(1655)	筆寫本	-
03	03	發願文	1枚	53.5×77.0	孝宗 6(1655)	筆寫本	-
04	04	寺中秩	1枚	25.5×261.5	孝宗 6(1655)	筆寫本	-
05	05	改金發願文	1枚	19.3×68.5	英祖 38(1762)	筆寫本	-
06	06	施主秩	1枚	19.5×70.0	英祖 38(1762)	筆寫本	-
07	07	施主秩	1枚	20.5×62.5	英祖 38(1762)	筆寫本	-
08	08	施主秩	1枚	19.0×69.5	英祖 38(1762)	筆寫本	-
09	09	妙法蓮華經	7卷7冊	45.0×28.5	英祖 38(1762)	木板本	典籍
10	10	妙法蓮華經, 卷2, 3, 6-7	4卷3冊	33.3×25.0	中宗 26(1531) 後刷	木板本	典籍
11	11	妙法蓮華經, 卷3-7	5卷2冊	32.7×19.4	宣祖 41(1608) 後刷	木板本	典籍
12	12	妙法蓮華經, 卷1-2, 5	3卷2冊	32.0×20.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
13	13	妙法蓮華經, 卷1-3	3卷1冊	29.0×18.0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
14	14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7.5×16.5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15	15	妙法蓮華經, 卷5	1卷1冊	33.3×19.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破本)
16	16	妙法蓮華經, 卷1-3	3卷2冊	27.0×16.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典籍(破本)
17	17	妙法蓮華經, 卷1-3	1卷1冊	21.0×16.5	壬亂以前 後刷	木板本	典籍
18	18	妙法蓮華經, 卷2-3, 5-6	4卷2冊	34.0×21.3	英祖 38(1762)	木板本	典籍
19	19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0.5×18.5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典籍
20	20	妙法蓮華經, 卷1	1卷1冊	36.5×21.0	光海君 8(1615)	木板本	典籍
21	21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6.7×16.0	太宗 5(1405)	木板本	典籍
22	22	妙法蓮華經, 卷3-4	2卷1冊	28.3×17.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23	23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4.7×21.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24	24	大方廣佛華嚴經, 卷14	1卷1冊	31.5×12.0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典籍
25	25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13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典籍
26	26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5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典籍
27	27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30.0×25.0	宣祖 3(1570)	木板本	典籍
28	28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28.0×18.0	刊行年不明	木板本	典籍(中國本)
29	29	父母恩重經	1冊	27.5×11.0	朝鮮前期	木板本	典籍(破本)
30	30	父母恩重經, 中·下	2卷1冊	28.0×10.5	朝鮮前期	木板本	典籍(破本)
31	31	大藏目錄, 上·中·下	3卷3冊	30.7×46.5	英祖 38(1762)	木板本	典籍
32	32	禪宗唯心訣	1冊	24.5×15.6	燕山君 6(1500)	木板本	典籍
33	33	發心修行章	1冊	23.0×15.8	中宗 35(1540)	木板本	典籍
34	34	牧牛子修心訣	1冊	23.2×14.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典籍
35	35	大字大明王眞言	1枚	41.7×25.0	英祖 38(1762)	木板本	-
36	36	朱書陀羅尼	1枚	67.5×40.2	英祖 38(1762)	筆寫本	-
37	37	朱書陀羅尼	1枚	40.0×68.0	英祖 38(1762)	筆寫本	-

38	38	寶篋眞言	1枚	51.2×39.4	英祖 38(1762)	木板本	-
39	-	候鈴筒	2種	5.0×11.2 3.8×8.5	17世紀 中葉	阿彌陀佛本尊像	-
40	-	候鈴筒	2種	4.4×15.0 4.0×8.8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菩薩尊像	-
41	-	候鈴筒	2種	4.8×11.5 3.5×9.1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尊像	-
42	-	緋緞	3種	56.0×15.0 60.0×15.0 12.0×8.5	17世紀 中葉	阿彌陀佛本尊像	-
43	-	緋緞	3種	53.0×30.0 28.5×15.5 31.4×18.0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菩薩尊像	-
44	-	緋緞	3種	54.5×16.0 55.0×17.5 16.5×15.0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尊像	-

2. 書誌記述

(01)

造成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52.5×136.0cm. 楮紙.

年紀: 順治十二年旃蒙協洽(乙未, 1655, 孝宗 6)…成[星]州地龍淵寺記文

出處: 阿彌陀佛本尊像

內容: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阿彌陀佛本尊像을 造成 당시 記文.

(02)

造成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55.0×78.5cm. 楮紙.

年紀: 順治拾貳年旃蒙協洽(乙未, 1655, 孝宗 6)…琵琶山龍淵寺佛相[像]造成記文

其他: 發願文 封套 1枚(30.0×21.5cm)

出處: 木造大勢至菩薩尊像

內容: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木造大勢至菩薩尊像을 造成 당시 記文.

(03)

發願文 / [道祐] 撰.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53.5×77.0cm. 楮紙.

年紀: 順治十二乙未(1655)·成[星]州地龍淵寺佛相[像]造成記文

發願文: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出處: 觀世音菩薩尊像

內容: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觀世音菩薩尊像을 造成 당시 記文.

(04)

寺中秩 / [覺和] 等撰.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孝宗 6(1655) 推定].

1枚 ; 25.5×261.5cm. 楮紙.

年紀: 順治十二年歲次乙未(1655, 孝宗 6)七月十五日龍淵寺衆目關列于后大禪師覺和比丘等

出處: 阿彌陀佛本尊像

內容: 孝宗 6(1655)년에 龍淵寺에서 阿彌陀佛本尊像을 造成 당시 寺中秩.

(05)

改金發願文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19.3×68.5cm. 楮紙.

年紀: 乾隆二十七壬午(1762, 英祖 38)歲三月日大丘龍淵寺極樂殿大勢至菩薩尊像重修改金

出處: 木造大勢至菩薩尊像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木造大勢至菩薩尊像을 重修·改金 당시 發願文.

(06)

施主秩 / [編著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19.5×70.0cm. 楮紙.

年紀: 乾隆二十七壬午(1762, 英祖 38)歲三月日大丘龍淵寺極樂殿尊像重修改金

出處: 阿彌陀佛本尊像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阿彌陀佛本尊像을 重修·改金 당시 施主秩.

(07)

施主秩 / [編著者不明]. -- 筆寫本(墨書).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20.5×62.5cm. 楮紙.

出處: 木造大勢至菩薩尊像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木造大勢至菩薩尊像을 重修·改金 당시 施主秩.

(08)

施主秩 / [編著者不明]. -- 筆寫本(朱書).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19.0×69.5cm. 楮紙.

年紀: 乾隆二十七壬午(1762, 英祖 38)歲三月日大丘龍淵寺極樂殿觀世音菩薩重修改金

出處: 觀世音菩薩尊像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觀世音菩薩尊像을 重修·改金 당시 施主秩.

(09)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乙亥字本翻刻).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後刷 推定].

7卷7冊 : 四周單邊, 半匡 26.4×21.5cm, 有界, 9行21字, 黑口, 內向黑魚尾 ; 45.0×28.5cm. 楮紙.

版心題: 法華經

弘傳序: 祥邁 註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複本: 卷1(4帙), 卷2(4帙), 卷3(4帙), 卷4(3帙), 卷5(3帙), 卷6(3帙), 卷7(3帙)

狀態: 無表紙

內容: 乙亥字本の 翻刻本으로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 당시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10)

妙法蓮華經, 卷2, 3, 6-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慶尙道 永川郡] : [公山本寺], [中宗 26(1531) 後刷推定].

4卷3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6.0×21.5cm, 有界, 9行21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3×25.0cm. 楮紙.

版心題: 法華經

刊記: 嘉靖十年辛卯(1531, 中宗 26)…慶尙道永川郡公山本寺重刊

藏書記: 禮粉兩主(卷2·6·7), 日春兩主(卷3)

其他: 卷7 施主秩(1張), 卷6-7 後刷本.

狀態: 無表紙

內容: 中宗 26(1531)년에 慶尙道 永川郡의 公山本寺에서 重刊 後刷本.

(11)

妙法蓮華經, 卷3-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慶尙道 密陽府] : [湧泉寺], [宣祖 41(1608) 後刷 推定].

5卷2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6.0×13.3cm, 有界, 10行20字, 無魚尾 ; 32.7×19.4cm. 楮紙.

版心題: 法

刊記: 萬曆三十二年甲辰(1604, 宣祖 37)夏能仁菴開刊移于雙溪寺

印經: 萬曆三十六年戊申(1608, 宣祖 41)…密陽府…湧泉寺

藏書記: ‘大見寺 傳授經’(書背)

狀態: 無表紙

內容: 선조 37(1604, 甲辰)년 能仁菴 板本の 선조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 後刷本.

(12)

妙法蓮華經, 卷1-2, 5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2卷1冊(零本) : 變相圖, 四周雙邊, 半匡 22.7×17.0cm, 有界, 8行13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 32.0×20.5cm. 楮紙.

版心題: 蓮華經

弘傳序: 道宣

狀態: 無表紙

內容: 조선시대 전기 板刻板의 後刷本.

(13)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3卷1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1.0×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9.0×18.0cm. 楮紙.

版心題: 法

弘傳序: 道宣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狀態: 無表紙

內容: 조선시대 전기 板刻板의 後刷本.

(14)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高山] : [花岩寺], [朝鮮中期 後刷 推定].

4卷1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2.0×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7.5×16.5cm. 楮紙.

版心題: 法

跋: …正統八年癸亥(1443)五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1376-1444)謹跋

刊記: 全羅道高山地佛明山花岩寺開板

施主秩: 密陽朴氏一門 任氏一門 朴乙守兩主, 劉敬卜兩主 徐正兩主 長伐介兩(主)/ 大選弘乙 入選信玄 禪師祖敏 禪師覺志 禪師法惠 禪師省寶 大禪師信敏 海延

狀態: 無表紙

內容: 世宗 25(1443)년에 全羅道 高山의 花岩寺에서 판각판의 조선시대 중기 후쇄본.

(15)

妙法蓮華經, 卷5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匡 22.0×17.0cm, 有界, 8行13字, 黑口, 內向黑魚尾 ; 33.3×19.5cm. 楮紙.

版心題: 法

狀態: 無表紙, 第2-32張 및 第50張 有

內容: 조선시대 전기 板刻板의 後刷本.

(16)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後刷 推定].

3卷2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1.5×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7.0×16.5cm. 楮紙.

版心題: 法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狀態: 無表紙, 卷1(第63張 缺落), 卷2(第44張 筆寫), 卷3(第57-58張 缺落)

其他: 卷3에 卷末題에 연이어 松廣寺大禪師希顔, 施主秩 등

內容: 조선시대 전기 板刻板의 後刷本 중 破本.

(17)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壬亂以前 後刷 推定].

3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1.5×14.0cm, 無界, 10行20字, 黑口, 無魚尾 ; 27.0×16.5cm. 楮紙.

版心題: 法

弘傳序: 道宣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板下本: 黃振孫書

施主秩: 卷1 末尾 및 卷3 末尾

狀態: 無表紙

內容:世祖年間に 黃振孫(?-?, 世祖朝人物)의 글씨 板下本으로 板刻된 판본의 壬辰倭亂 以前の 後刷本.

(18)

妙法蓮華經, 卷3, 5, 6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後刷 推定].

3卷3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5.5×16.5cm, 有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4.0×21.3cm. 楮紙.

版心題: 妙法

施主秩: 卷5의 第1板 下右段 여백에 ‘禦侮將軍李安國兩主’ 板刻

狀態: 無表紙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 당시 인출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19)

妙法蓮華經, 卷1-2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後期 後刷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8×14.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30.5×18.5cm. 楮紙.

版心題: 法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施主秩: 卷1末尾

狀態: 無表紙

內容: 宣祖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 版의 後刷本으로 추정.

(20)

妙法蓮華經, 卷1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 -- [順天] : [松廣寺], [光海君 8(1615) 推定].

1卷1冊(零本) : 變相圖, 四周單邊, 半匡 25.0×17.7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6.5×21.0cm. 楮紙.

版心題: 妙法

刊記: 改刊流通于松廣寺時/歲萬曆四十三年乙卯(1615, 光海君 8)秋

狀態: 無表紙

內容: 光海君 8(1615)년 가을에 松廣寺 改刊本.

(21)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成達生(1376-1444), 成概(?-1440) 書. -- 木板本(後刷). -- [全羅道 雲梯縣] : [兜率山 安心杜], [太宗 5(1405) 推定].

4卷1冊(零本) : 變相圖, 上下單邊, 半匡 21.5×13.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6.7×16.0cm. 楮紙.

卷頭題: 妙法蓮華經

卷末題: 妙法蓮華經

板心題: 法

板下本: 成達生(1376-1444)·成概(?-1440)

跋 文: 卷7 末 : 永樂三(乙酉, 太宗 5, 1405)/ 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跋

施主秩: 卷7 末

未板刻: 第4卷 第34張 左面, 第5卷 第29張 右面, 第6卷 第28張 左面, 第6卷
第57張 右面, 第7卷 第28張 左面 未板刻 空白

張數: 卷4(60張), 卷5(57張), 卷6(57張), 卷7(54張)

狀態: 無表紙

既指定: 寶物 第961號(卷4-7, 金海 圓明寺, 1988. 12. 28)

內容: 太宗 5(1405)년에 板刻된 목판에서 印出된 版本으로 추정.

(22)

妙法蓮華經, 卷3-4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中期 後刷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0.8×14.3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8.3×17.0cm. 楮紙.

版心題: 法

施主秩: 卷3 末尾 및 卷4 末尾

狀態: 無表紙

內容: 宣祖 41(1608)년에 慶尙道 密陽의 湧泉寺 版本系統의 後刷本으로 추정.

(23)

妙法蓮華經, 卷1-2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戒環(宋, ?-1127) 解. --
木板本(甲寅字翻刻).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中期 後刷 推定].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匡 26.5×16.3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4.7×21.0cm. 楮紙.

要解序: 及南…靖康丁未(1127, 仁宗 5)

版心題: 妙法

施主秩: 得岑比丘

複本: 卷2(後刷)

狀態: 無表紙

內容: 甲寅字本の 翻刻本으로 朝鮮時代 中期 後刷本으로 추정.

(24)

大方廣佛華嚴經, 卷14 / 佛馱跋陀羅(東晉, 359-429) 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後期 推定].

1卷1帖(零本): 上下單邊, 匡高 22.8cm, 無界, 6行17字, 無魚尾; 32.0×12.0cm. 楮紙. 帖裝.

版心題: 晉

狀態: 後半部 缺落

內容: 朝鮮時代 後期の 刊本으로 추정.

(25)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 [編著者不明]; [譯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3卷1冊(零本); 28.0×20.0cm. 楮紙.

狀態: 無表紙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佛像들을 重修·改金 당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26)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 [編著者不明]; [譯者不明]. -- 筆寫本. -- [大丘(大邱)]: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5卷1冊(零本); 28.0×20.0cm. 楮紙.

狀態: 無表紙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佛像들을 重修·改金 당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27)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木板本. -- [慶尙道 安東]: [鶴駕山 廣興寺], [宣祖 3(1570) 推定].

1冊(24張): 變相圖, 圖, 四周單邊, 半匡 21.0×22.0cm, 無界, 14行12字, 無魚尾; 30.0×25.0cm. 楮紙.

刊記: 隆慶四年庚午(1570)六月初二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刊板

版型: 上圖下文

其他: 板大施主 趙根兩主

藏書記: 貴今

內容: 宣祖 3(1570)년에 慶尙道 安東의 鶴駕山 廣興寺에서 간행.

(28)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刊行年不明].

1冊(零本) : 上下單·左右雙邊, 半匡 19.0×13.5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白魚尾 ; 28.0×18.0cm.

版心題: 金剛經

跋: 金剛般若波羅密經功驗…佛弟子錢唐胡文煥校於覺因山房

狀態: 無表紙, 破本(存22張)

版本: 中國本

內容: 中國本인 듯하며, 전체 22張만 남아 있는 破本.

(29)

父母恩重經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推定].

1冊(零本) : 圖, 上下單邊, 半匡 22.0×11.0cm, 無界, 6行20字, 無魚尾 ; 27.5×11.0cm. 楮紙. 帖裝.

版型: 上圖下文

狀態: 無表紙, 破本(存6折)

內容: 朝鮮時代 前期의 刊本인 듯하나, 6折만 남아 있는 破本.

(30)

父母恩重經, 中·下 / [編著者不明].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朝鮮前期 推定].

2卷1冊(零本) : 圖, 上下單邊, 半匡 20.5×10.5cm, 無界, 5行14字, 無魚尾 ; 28.0×10.5cm. 楮紙. 帖裝.

狀態: 無表紙, 破本(卷頭缺落)

內容: 朝鮮時代 前期의 刊本으로 추정되나 卷頭가 缺落된 破本.

(31)

大藏目錄, 上·中·下 / [編著者不明]. -- 木板本(後刷). -- [刊行地不明] :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後刷 推定].

3卷3冊(枚物) : 左右單邊, 半匡 25.0×38.5cm, 無界, 9行14字, 下向黑魚尾 ; 30.7×46.5cm. 楮紙.

刊記: 戊申(1248, 高宗 35)年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施主秩: 腹藏經施主釋俊三卷上中下件/ 中卷複卷: 複藏經施主雲學中卷一件

複卷: 卷上(4帙), 卷中(3帙), 卷下(4帙)

狀態: 無表紙

內容: 고려 高宗年間に 간행된 再雕大藏經의 目錄集으로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 당시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32)

禪宗唯心訣 / 延壽(宋, 904-975) 述. -- 木板本. -- [陝川]: [鳳栖寺], [燕山君 6(1500) 推定].

1冊(零本 15張): 圖, 四周單邊, 半匡 17.2×12.3cm, 無界, 9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4.5×15.6cm. 楮紙.

版心題: 訣

跋: 弘治十三年庚申(1500, 燕山君 6)…善男信女

刊記: 留板于伽倻山鳳栖寺

狀態: 無表紙, 第1張 缺落

內容: 燕山君 6(1500)년에 慶尙道 陝川의 伽倻山 鳳栖寺에서 간행.

(33)

發心修行章 / 元曉(新羅, 617-686) 述. -- 木板本. -- [安邊]: [釋王寺], [中宗 35(1540) 推定].

1冊(12張): 圖, 四周單邊, 半匡 17.6×12.3cm, 無界, 9行19字, 內向黑魚尾; 23.0×15.8cm. 楮紙.

版心題: 發

刊記: 嘉靖十九年庚子(1540, 中宗 35)…咸鏡道安邊地雪峰山釋王寺

狀態: 無表紙

合綴: 若愚夫自警/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 蒙山和尚法語略錄

內容: 中宗 35(1540)년에 咸鏡道 安邊의 雪峰山 釋王寺에서 간행.

(34)

牧牛子修心訣 / 知訥(高麗, 1158-1210) 述.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朝鮮中期 後刷 推定].

1冊(26張): 上下單·左右雙邊, 半匡 16.8×11.2cm, 無界, 9行17字, 上黑魚尾; 23.2×14.0cm. 楮紙.

版心題: 心

刊記: 大德九年乙巳(1305)七月日誌/同願道人眞問書

合綴: 戒初心學人文·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

狀態: 無表紙

內容: 朝鮮時代 中期에 後刷된 木板本 추정.

(35)

大字大明王眞言 / [編著者不明]. -- 木板本(朱印本). --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英祖 38(1762) 推定].

1枚: 四周單邊, 匡郭 37.3×15.2cm, 有界, 18行; 41.7×25.0cm. 楮紙.

言語: 漢文, 梵文

複本: 900枚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의 重修·改金 당시 印出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36)

朱書陀羅尼 / [編著者不明]. -- 筆寫本(朱書). -- [大丘(大邱)]: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67.5×40.2cm. 楮紙.

言語: 梵文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의 重修·改金 당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37)

朱書陀羅尼 / [編著者不明]. -- 木板本(朱印). -- [大丘(大邱)]: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40.0×68.0cm. 楮紙.

朱色: 石間硃顏料色

言語: 梵文

複本: 15枚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의 重修·改金 당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38)

寶篋眞言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 [編著者不明]. -- 木板本 (朱印). -- [大丘(大邱)] : [龍淵寺], [英祖 38(1762) 推定].

1枚 : 四周單邊, 匡郭 41.0×19.0cm, 有界, 7行12字 ; 51.2×39.4cm. 楮紙.

複本: 900枚

內容: 英祖 38(1762)년에 龍淵寺에서 尊像들을 重修·改金 당시 書寫되어 腹藏된 것으로 추정.

< 전체 조사 목록 >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國家指定對象典籍 1種, 地方有形文化財指定勸告 24種, 複製物製作後原本再腹藏勸告 18種, 除外 1種)							
番號	典籍	名稱	數量	規格 (cm)	造成年代 (推定)	版本	調查結果 (案)
01	01	造成發願文	1枚	52.5×136.0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2	02	造成發願文	1枚	55.0×78.5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3	03	發願文	1枚	53.5×77.0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4	04	寺中秩	1枚	25.5×261.5	孝宗 6(1655)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5	05	改金發願文	1枚	19.3×68.5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6	06	施主秩	1枚	19.5×70.0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7	07	施主秩	1枚	20.5×62.5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8	08	施主秩	1枚	19.0×69.5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09	09	妙法蓮華經	7卷7冊	45.0×28.5	英祖 38(1762)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0	10	妙法蓮華經, 卷2, 3, 6-7	4卷3冊	33.3×25.0	中宗 26(1531)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1	11	妙法蓮華經, 卷3-7	5卷2冊	32.7×19.4	宣祖 41(1608)後 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2	12	妙法蓮華經, 卷1-2, 5	3卷2冊	32.0×20.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3	13	妙法蓮華經, 卷1-3	3卷1冊	29.0×18.0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4	14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7.5×16.5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5	15	妙法蓮華經, 卷5	1卷1冊	33.3×19.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6	16	妙法蓮華經, 卷1-3	3卷2冊	27.0×16.5	朝鮮前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7	17	妙法蓮華經, 卷1-3	1卷1冊	21.0×16.5	壬亂以前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8	18	妙法蓮華經, 卷2-3, 5-6	4卷2冊	34.0×21.3	英祖 38(1762)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19	19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0.5×18.5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0	20	妙法蓮華經, 卷1	1卷1冊	36.5×21.0	光海君 8(1615)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1	21	妙法蓮華經, 卷4-7	4卷1冊	26.7×16.0	太宗 5(1405)	木板本	國家指定 對象
22	22	妙法蓮華經, 卷3-4	2卷1冊	28.3×17.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3	23	妙法蓮華經, 卷1-2	2卷1冊	34.7×21.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4	24	大方廣佛華嚴經, 卷14	1卷1冊	31.5×12.0	朝鮮後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5	25	大方廣佛華嚴經, 卷5-17	13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地方有形勸告
26	26	大方廣佛華嚴經, 卷18-22	5卷1冊	28.0×20.0	英祖 38(1762)	筆寫本	地方有形勸告
27	27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30.0×25.0	宣祖 3(1570)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28	28	金剛般若波羅密經	1冊	28.0×18.0	刊行年不明	木板本	除外(中國本)
29	29	父母恩重經	1冊	27.5×11.0	朝鮮前期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0	30	父母恩重經, 中·下	2卷1冊	28.0×10.5	朝鮮前期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1	31	大藏目錄, 上·中·下	3卷3冊	30.7×46.5	英祖 38(1762)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2	32	禪宗唯心訣	1冊	24.5×15.6	燕山君 6(1500)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3	33	發心修行章	1冊	23.0×15.8	中宗 35(1540)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4	34	牧牛子修心訣	1冊	23.2×14.0	朝鮮中期 後刷	木板本	地方有形勸告
35	35	大字大明王眞言	1枚	41.7×25.0	英祖 38(1762)	木板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6	36	朱書陀羅尼	1枚	67.5×40.2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7	37	朱書陀羅尼	1枚	40.0×68.0	英祖 38(1762)	筆寫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8	38	寶篋眞言	1枚	51.2×39.4	英祖 38(1762)	木板本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39	-	候鈴筒	2種	5.0×11.2 3.8×8.5	17世紀 中葉	阿彌陀佛本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0	-	候鈴筒	2種	4.4×15.0 4.0×8.8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 菩薩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1	-	候鈴筒	2種	4.8×11.5 3.5×9.1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2	-	緋緞	3種	56.0×15.0 60.0×15.0 12.0×8.5	17世紀 中葉	阿彌陀佛本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3	-	緋緞	3種	53.0×30.0 28.5×15.5 31.4×18.0	17世紀 中葉	木造大勢至 菩薩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44	-	緋緞	3種	54.5×16.0 55.0×17.5 16.5×15.0	17世紀 中葉	觀世音菩薩 尊像	複製本製作後 複製物再腹藏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腹藏遺物> 44種 중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1)「妙法蓮華經」과 中國本으로 추정되는 (28)「金剛般若波羅密經」 등 2종을 제외한 나머지 42종 중

(09)「妙法蓮華經」, (10)「妙法蓮華經」, (11)「妙法蓮華經」, (12)「妙法蓮華經」, (13)「妙法蓮華經」, (14)「妙法蓮華經」, (15)「妙法蓮華經」, (16)「妙法蓮華經」, (17)「妙法蓮華經」, (18)「妙法蓮華經」, (19)「妙法蓮華經」, (20)「妙法蓮華經」, (22)「妙法蓮華經」, (23)「妙法蓮華經」, (24)「大方廣佛華嚴經」, (25)「大方廣佛華嚴經」, (26)「大方廣佛華嚴經」, (27)「金剛般若波羅密經」, (29)「父母恩重經」, (30)「父母恩重經」, (31)「大藏目錄」, (32)「禪宗唯心訣」, (33)「發心修行章」, (34)「牧牛子修心訣」 등 24종의 典籍文化財는 大邱廣域市有形文化財로 一括指定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 또한 (01)〈造成發願文〉·(02)〈造成發願文〉·(03)〈發願文〉·(04)〈寺中秩〉·(05)〈改金發願文〉·(06)〈施主秩〉·(07)〈施主秩〉·(08)〈施主秩〉·(35)〈大字大明王眞言〉·(36)〈朱書陀羅尼〉·(37)〈朱書陀羅尼〉·(38)〈寶篋眞言〉·(39)〈候鈴筒〉·(40)〈候鈴筒〉·(41)〈候鈴筒〉·(42)〈緋緞〉·(43)〈緋緞〉·(44)〈緋緞〉 등 18종의 發願文·陀羅尼·候鈴筒·緋緞 등의 유물은 가능한 한 精密複製物을 제작하여 研究에 제공할 있도록 조처를 취한 뒤, 複製物은 再腹藏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4.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雲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12.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8.2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雲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운흥사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헐티로 1068
- 수 량 : 불상 3구
- 규 격 : 본존상(아미타불) 높이 113.5cm, 우협시상(대세지보살) 높이 109.5cm, 좌협시상(관음보살) 높이 107cm
- 재 질 : 나무
- 형 식 : 아미타여래삼존 형식
- 조성연대 : 1653년(효종 4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운홍사 아미타불좌상은 조선후기의 조각승 도우가 수조각승을 맡아 제작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작품이며 조선시대 17세기 중엽의 조각승들의 활동과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성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도우 등 6명의 조각승이 1653년에 조성한 아미타삼존상으로 확인되었다. 도우는 보조 조각승 시기인 17세기 전반에 무염파의 주요 조각승이었으나, 17세기 중반 수조각승 시기에는 주로 회장과 조각승들과 함께 불사를 행하였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그의 이러한 인적 교류관계는 그의 작품인 운홍사 삼존상이 갖고 있는 회장과적 요소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회장과 조각승들의 손에 의해 회장과 양식으로 만들어진 본 불상에서는 수조각승 도우의 개성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자기록을 잘 구비하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높으며, 17세기 중반 불상의 제작 방식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는 불상으로 판단된다. 불상이 원 봉안처를 벗어나지 않은 점도 매우 중요하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복장 후령통을 비롯하여 조성발원문, 복장전적 등 조성 당시의 원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3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봉안사찰, 조성주체, 제작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이 되며, 대좌 목서에서 벌목(伐木)에서 제작되기까지의 일련의 공정과정을 기록해 두고 있어 불상의 제작 과정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불상은 작자 특유의 귀여운 얼굴에 당당하고 장대한 신체비례와 변화가 거의 없는 강직한 선묘, 그리고 무릎 앞으로 펼쳐진 넓은 주걱 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밀도 높게 세밀한 주름을 새기고 그 끝단을 물결치듯 처리한 점에서 조각승 도우의 조각적 경향을 엿볼 수 있고, 그의 스승인 무염의 조각적 경향도 많이 남아 있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무염의 계보를 잇는 도우가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첫 작품이며, 17세기 조각승 계보 및 작품 활동 및 전승관계 연구에도 중요한 작품이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없음)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삼존불좌상의 조성은 효종 4(1653)년이므로 복장전적도 이 시기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묘법연화경 낱장본은 17세기 중엽에 간행하여 책으로 묶지 않고 인출 상태 그대로 복장하였다.

그 외 다라니도 목판에 판각하여 주색으로 인출하여 복장의식용으로 장식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지적인 형태로 보아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보물 지정 예고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최정산 아래에 위치한 운흥사(雲興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로서 처음에는 동림사(棟林寺)라는 이름으로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때 산 정상에 창건되었다가 곡산으로 옮기면서 ‘수암사(燧岩寺, 燧巖寺)’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현 위치로 옮기면서 지금의 이름인 운흥사라고 개칭되었다고 전한다. 운흥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2010년 복장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조선 효종 3년인 1653년(順治 10)에 조각승 도우(道祐)를 수조각승으로 하는 승려조각가들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복장물에는 발원문 외에 『법화경』 등의 전적류와 「보협진언」, 「육자진언」 등의 다라니, 비단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직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후령통 등 일부 복장물은 잃어버린 상태였다.

본존 아미타여래좌상(사진 1)은 양 뺨에 살이 많은 둥근 얼굴에, 수평으로 반개한 두 눈과 길고 우뚝한 콧날, 앞으로 약간 돌출한 넓은 인중과 미소 띤 입술에서 부드럽고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인다. 나발(螺髮)이 촘촘한 두부는 머리와 육계가 이어져 전체적으로 반구형을 이루며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솟아 있고 중간에는 반달형의 중계주가 조각되어 있다. 삼도는 목의 아래쪽에 뚜렷하게



사진 1.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본존 아미타여래상, 조선 1653년, 대구 운흥사



사진 2.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 1653년, 대구 운흥사

새겨져 있고, 대의(大衣)는 가사 위에 또 한 벌을 덧입는 이중착의법으로 표현되었는데 왼쪽 어깨 뒤로 한 자락이 넘어가고 오른쪽 어깨 위에 걸쳐진 가사의 주름은 네 개의 주름을 이루었다. 그 중 첫 번째 주름의 끝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넓게 U자형으로 열린 가슴에는 중앙에 넓은 주름과 좌우 각각 세 개의 주름이 대칭되게 새겨진 두꺼운 내의가 보이고, 별재(別材)로 제작하여 끼운 양 손은 큰 편인데,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하체의 옷주름 표현을 보면, 다리는 오른발 끝부분이 치마[裙]에 가려져 있으며 발 아래로 길쭉한 옷자락이 결가부좌한 왼쪽 다리 위로 늘어져 있다. 또한 오른쪽 다리와 발목을 덮은 치마는 중앙에 넓은 띠주름을 중심으로 부채꼴을 이루며 대칭으로 퍼져 있다. 좌우에 협시하는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도 거의 같은 형태의 옷주름을 보이는데, 다만 오른 발 밑에 늘어진 옷주름이 단순하게 표현된 점에서 본존 아미타불상과 차이를 보인다.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의 보계(寶髻)는 아래쪽에 묶은 띠가 있고 두 갈래로 나뉘어 끝부분이 둥글게 뒤로 말려 있는데 높이는 낮은 편이다(사진 2). 앞머리는 촘촘한 세로선으로 새겨졌고 한 가닥이 귀를 가로질러 양 어깨 위로 흘러내려 여러 가닥으로 엮여진 수발(垂髮)을 이루고 있으며 머리 위에는 화염보주와 봉황, 운문, 화문(花紋)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은 본존 아미타불상처럼 원만형이고 콧날이 우뚝하며 인중이 넓고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다. 보살의 착

의형식은 본존 아미타불상처럼 2중 착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오른쪽 어깨를 덮은 가사자락의 주름 끝단이 둥글게 처리된 것도 본존상과 같다. 다만 가슴에 수평으로 표현된 내의가 본존상처럼 꽃잎형태의 주름을 이루지 않고 단순하게 한번 접힌 점이 다르다. 팔목에는 팔찌를 차고 두 손으로는 연꽃가지를 쥐고 있는데, 관음보살상의 연꽃에는 정병이 올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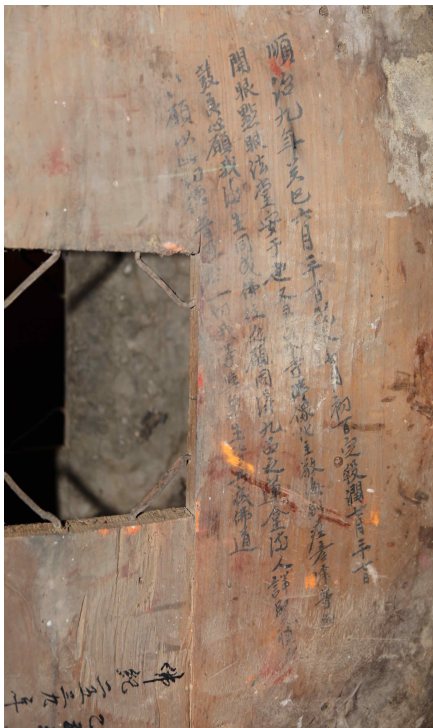


사진 3. 대좌 목서명, 조선 1653년, 대구 운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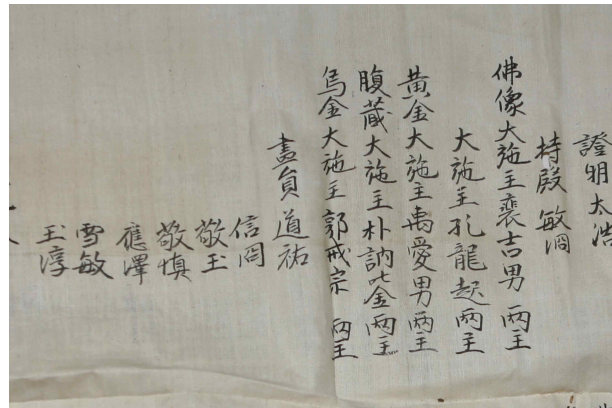


사진 4.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성발원문의 조각승 부분

대좌는 삼단으로 사각형의 네 모서리 끝을 잘라낸 팔각대좌이다. 상대는 불보살상이 앉아있는 연화대좌 밖으로 투각된 안상(眼象)과 연잎으로 장식된 난간이 장식되어 있고 중대는 본존상에는 운룡문(雲龍紋)이, 좌우협시상에는 안상문이 새겨져 있으며 하대는 투각된 창이 있는 형태이다. 근래 개채되었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조선후기 17세기 대좌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또한 대좌의 목서명(사진 3)을 통해 봉안된 존상들의 명칭과 점안식이 윤 7월 27일에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아미타삼존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는 운흥사의 불전은 ‘대웅전’의 현판이 있어 원래는 석가불을 주존으로 모셨던 전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아미타삼존불상이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어 불상이 다른 곳이나 다른 전각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을 보인다. 삼존불상의 복장에서는 1653년(順治 10)의 조성발원문(사진 4)이 나왔

고 여기에는 증명(證明)으로 태호(太浩)라는 승려이름이 보이는데, 2년 뒤에 도우가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인근 용연사 아미타삼존불상의 발원문에서도 같은 승려가 증명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보여 흥미롭다.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조각승들은 수조각승을 도우를 포함해서 신경(信罔), 경옥(敬玉) 경신(敬愼), 응택(應澤), 설민(雪敏), 옥순(玉淳)의 일곱 명이다. 수조각승인 도우는 알려진 것처럼 무염(無染)이 차조각승이나 수조각승을 맡아 제작했던 고창 선운사 목조삼신불좌상(1633년), 영광 불갑사 목조삼세불좌상(1635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1651년)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무염파의 인물이다. 그 이후는 무염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길을 갔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후기 불상들 가운데 도우가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첫 불상이 운흥사(수암사) 아미타삼존불좌상이다. 이후 도우는 인근 용연사와 칠곡 송림사 등 경상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듯하다.

참여한 조각승들 가운데 차(次)조각승인 신경은 1650년에 회장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원 봉안처 남원 금강사) 제작에 차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2년 뒤인 1652년에는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제작에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인물이어서 무염파와 회장과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생각된다. 도우가 수조각승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운흥사 아미타삼존불상 외에도 칠곡 송림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1657년)이나 원 봉안처를 알 수 없는 나주 죽림사 목조삼세불좌상(1664년)을 도우와 함께 차조각승이나 제 3위의 조각승으로 제작하고 있어 도우와의 각별한 관계를 엿볼 수 있고, 또한 1666년 회장이 진도 쌍계사 지장보살상을 제작할 때 차조각승으로 참여하고 있어 회장과도 여전히 협력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경옥, 경신, 옥순은 도우의 보조 조각승으로 운흥사와 용연사 아미타삼존불상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송림사 불상제작에도 참여했고 회장과도 함께 작업했던 조각승들이어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도우와 회장 사이의 관련성이 유추된다.

<문헌자료>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파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1, 2006.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문화재전문위원

1. 현상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아미타삼존 불좌상으로, 주존 아미타불은 시무외인을 지은 오른손을 정강이 바로 위로 낮게 두고, 좌우 보살상은 바깥쪽의 팔을 높이 들어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기하였다. 이런 기법은 조각승 청헌에게서 시작하여 승일, 응혜, 희장 등으로 이어진 청헌과 조각승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수인 형식이다. 머리의 앞뒤 깊이가 매우 두껍고 신체가 건장한 점도 청헌과 특히 희장과 불상 양식과 유사하다. 오른쪽 가슴의 대의 자락이 약간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중앙에 직선으로 흘러내린 폭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연하고 대칭으로 옷주름들이 배치되어 있는 점도 희장풍과 동일하다.

조각승 도우는 1633년 高敞 禪雲寺 대웅전의 木造三方佛坐像을 조성하는 불사에서 法海, 無染에 이은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635년 靈光 佛甲寺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시에는 수조각승 무염, 차조각승 勝日을 이어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51년에 東草 新興寺 극락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시에는 무염을 이은 차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즉, 도우는 17세기 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승 유파인 無染派에서 차조각승으로까지 올랐던 무염파의 대표적 조각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5건의 불상들은 무염파의 작풍과 상이하며, 운흥사 삼존상처럼 오히려 희장과 작풍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수조각승 시기의 불사에 희장과 조각승들이 많이 참여한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성발원문

“歲次順治十年昭陽大荒落閏七月日最頂山燧巖寺佛像造成時記文……畫員道祐 信罔 敬玉 敬愼 應澤 雪敏……”로 기록되어 있는 발원문이 아미타불, 관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 복장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의하면 1653년에 수조각승 도우를 비롯하여 信罔 敬玉 敬愼 應澤 雪敏 등 6인의 조각승에 의하여 아미타삼존상이 조성되어 운흥사의 전신인 수암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경옥, 경신, 응택 등은 희장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각승들이며, 신경은 무염파, 희장과와 모두 관련이 있었던 조각승이다. 불상의 희장과적 요소와 함께 조각승들의 인적 구성에서도 희장과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3. 문헌자료

*「達成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³⁴⁾ 1653년 윤7월, 白絹墨書, 40.5×55.0cm.

34) 송은석 석문.

發願文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道

時維

歲次順治十年昭陽大荒落閏七月日最頂山燧巖寺³⁵⁾

佛像造成時記文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證明太浩

持殿敏澗

佛像大施主裴吉南兩主

大施主孔龍起兩主

黃金大施主禹愛男兩主

腹藏大施主朴訥(叱)金兩主

烏金大施主郭戒宗兩主

畫員道祐

信罔

敬玉

敬愼

應澤

雪敏

玉淳

緣化秩

別座彦澤

供養主性彦

惠悅

本寺秩

大禪師靈智

知事 信玄

舍主 戒淳

典座 印鑑

首僧 懷俊

靈允

自閑

元俊

玉求

學令

楚雲

妙瓊

學林

靈覺

楚湜

道明

尙敏

尙暉

小者秩

尙連

性哲

印寬

道成

學贊

杜岩

一學

法璘

以見

龍吉

得敏

春伯

春發

愛云

愛卿

35) 운흥사의 옛 이름.

鶴伊		雪天	月江
化主敬海	行均 行眞	仁建	泗上
	行湛 惠應 性均 性淳 懶仁 熙衍 覺崇 普濟 惠熙 弘洽 惠熏		

*「達成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記」³⁶⁾ 1653년 윤7월 27일, 대좌 상면 목서.

順治九年癸巳六月二十一日伐木七月初一日定役潤七月二十七日
開眼點眼法堂安于也又靈泉寺佛像化主敬海別座彦澤等初
發良心願我後生同成佛位之願同得九品之蓮臺³⁷⁾後人詳覽愼之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觀世音
彌陀佛九品蓮花臺三種淨觀
大勢至

*「達成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重修記」³⁸⁾ 1995년 3월 18일, 대좌 상면 목서.
處土金億根

36) 송은석 석문.
37) 臺는 습+土
38) 송은석 석문.

供養主李順蘭

總務 性默

住持曹元正觀

大韓佛教曹溪宗 雲興寺

乙亥年三月十八日

佛紀二五三九年³⁹⁾開眼佛事

證明 性陀大宗師

*「達成 雲興寺 木造觀音菩薩坐像 造成發願文」⁴⁰⁾ 1653년 윤7월, 白絹墨書, 40.0×53.5cm, 주지스님 보관.

發願文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時維

歲次順治十年昭陽大荒落閏七月日最頂山燧巖寺

佛像造成時記文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證明太浩

持殿敏澗

佛像大施主裴吉南兩主

大施主孔龍起兩主

黃金大施主禹愛■■■■⁴³⁾

腹藏大施主■■■■■■⁴⁴⁾

烏金大施主郭■■■■■■⁴⁵⁾

畫員道祐

信罔

敬玉

敬愼

本寺秩

大禪師靈智

知事 信玄

舍主 戒淳

■座⁴¹⁾ 印鑑

■僧⁴²⁾ 懷俊

靈允

自閑

元俊

玉求

學令

楚雲

妙瓊

學林

靈覺

楚湜

道明

尙敏

尙暉

小者秩

尙連

39) 서기 1995년

40) 송은석 석문.

41) 아미타불과 大勢至보살 발원문에는 典.

42) 아미타불과 大勢至보살 발원문에는 首.

43) 아미타불과 大勢至보살 발원문에는 男兩主.

44) 아미타불과 大勢至보살 발원문에는 朴訥(叱)金兩主.

45) 아미타불과 大勢至보살 발원문에는 戒宗兩主.

應澤	性哲	以見
雪敏	印寬	龍吉
玉淳	道成	得敏
緣化秩	學贊	丕明
別座彦澤	一學	春伯
供養主性彦	杜岩	春發
惠悅	法璘	愛云
鶴伊	雪天	愛卿
化主敬海	行均 行眞	月江 仁建
	行淡 性均 性淳 懶仁 熙衍 覺崇 普濟 惠熙 弘洽 惠熏 惠應	泗上

*「達成 雲興寺 木造大勢至菩薩坐像 造成發願文」⁴⁶⁾ 1653년 윤7월, 白絹墨書, 40.0×53.5cm.

46) 송은석 석문.

發願文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時維

歲次順治十年⁴⁷⁾閏七月日最頂山燧岩寺⁴⁸⁾

佛像造成時記文

王妃殿下壽齊年	本寺秩		
主上殿下壽萬歲	大禪師靈智	弘洽	
世子邸下壽千秋	知事 信玄	惠熏	
證明太浩	舍主 戒淳	弘旭	
持殿敏澗	典座 印鑑	學林	
佛像大施主 裴吉南兩主	首僧 懷俊	靈覺	
大施主 孔龍起兩主	靈允	楚湜	
黃金大施主 禹愛男兩主	自閑	道明	
腹藏大施主 朴訥(叱)金兩主	元俊	尙敏	
烏金大施主 郭戒宗兩主	玉求	尙暉	
畫員道祐	學令		
信罔	楚雲		
敬玉	妙瓊		
敬愼		性哲	小者秩
應澤		印寬	尙連
雪敏		道成	以見
玉淳		學贊	得敏
緣化秩		杜岩	龍吉
別座彦澤		一學	春伯
供養主性彦		法璘	春發

47)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발원문에는 昭陽大荒落이 추가

48) 운흥사의 옛 이름. 아미타와 관음보살 발원문에는 燧巖寺.

惠悅		雪天	愛云
鶴伊	行均	愛卿	
化主敬海		行眞	月江
	行湛	仁建	
	惠應	泗上	
	性均		
	性淳		
	懶仁		
	熙性		
	熙衍		
	覺崇		
	普濟		
	惠熙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달성군 가창면 오리 최정산에 위치하고 있는 운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찰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826~836)때 운수대사가 창건하여 동림사(東林寺)라 하였으며, 이후 곡산으로 옮기면서 수암사(巖巖寺)라 하였고,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긴 후 운흥사(雲興寺)라고 개칭하였다고 한다.

운흥사의 대웅전에는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이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는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정확치는 않으나 불전명과 봉안된 존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후대에 이안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아미타여래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1653년(효종 4)에 조성된 것이다. 불상을 조성하면서 모든 중생의 성불(成佛)과 왕실(王室) 삼전하(三殿下)의 수명장수를 발원하였고, 불상의 제작에는 태호(太浩)스님의 증명 아래 수조각승 도우(道祐)와 보조 조각승 신경(信罔)⁴⁹⁾, 경옥(敬玉)⁵⁰⁾, 경신(敬愼)⁵¹⁾, 응택(應澤), 설민(雪

49) 조각승 신경은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회장)과 1652년 원주 정수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수조각승 무염). 1657년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 1644년 전남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도우) 등을 제작하였다.

敏)⁵²⁾, 옥순(玉淳)⁵³⁾ 등 7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고, 이외 佛像大施主 裴吉男을 비롯하여 黃金大施主 朴訥(+叱)金, 腹藏大施主 郭戒宗 兩主 등의 재가신도와 다수의 승려들이 동참하였다. 한편 본존불의 대좌 상면의 묵서명에는 불상 조성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順治九年癸巳六月二十一日伐木七月初一日定役閏七月二十七日」

開眼點眼法堂安于也……

觀世音

彌陀佛九品蓮花臺三拜淨觀

大勢至

이에 따르면, 순치 9년⁵⁴⁾ 계사(1653) 6월21일 벌목하고 7월 1일 공사를 시작하여 윤 7월 27일에 점안식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불상의 존명이 아미타 여래와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본존 아미타여래는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하하고 중대에 용문이 투각된 부정팔각의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둥글게 처리한 머리에는 따로 만든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였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는 불명확하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모양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이목구비도 뚜렷하다. 고요히 뜬 시선은 사바세계를 굽어 살피듯 자비롭고, 얇은 입술에는 양 입가를 살짝 눌러 열린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불륨있는 가름한 얼굴에 돌출한 작은 코, 양감이 풍부한 얼굴에서 무염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속초 신흥사 아미타불상의 여운이 남아 있으나 양감이 다소 줄었고, 코도 작고 세장해졌다.

착의는 상의 위에 대의를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걸친 이중착의식으로 대의 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간결하고 힘 있는 철선묘를 위주로 표현하였으며, 선의 깊이는 얇은 편으로, 강약의 변화없이 거의 일정하다. 넓은 가슴에는 꽃잎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멧을 낸 군의의 끝단이 표현

50) 조각승 경옥은 1648년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승일)과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회장),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회장), 1664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도우) 등을 제작하였다.

51) 조각승 경신은 1655년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과 1657년 칠곡 송림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회장), 1664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조각승 도우)을 제작하였다.

52) 조각승 설민은 1664년 나주 죽림사 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승 도우)을 제작하였다.

53) 조각승 옥순은 1649년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시왕상(수조각승 영철)과 1655년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조각승 도우)을 제작하였다.

54) 순치 9년 壬辰年으로 순치 10년이 癸巳年이다. 기록 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되었고, 볼록하게 솟아 오른 복부에는 상의와 대의가 W자형으로 교차하였고, 왼쪽 어깨 뒤로 넘긴 대의 자락은 날카로운 나뭇잎 모양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결과 부좌한 무릎은 수직에 가까우며, 오른발을 아래로 주걱모양으로 드리운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부채살이 펼쳐지듯 주름들이 밀도 높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주름 표현은 2년 후에 같은 지역에 조성된 달성 용연사 아미타여래삼존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도우 조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불상의 비례는 신체에 비해 머리가 다소 크지만, 어깨는 넓고 무릎은 넓고 깊어 당당한 형태미를 보여주지만, 이후에 조성된 불상에 비해서는 다소 양감이 절제된 아담한 형태미를 보여 도우의 초기의 조각경향을 읽을 수 있다.

좌우 협시보살상의 개성 있는 얼굴도 본존과 마찬가지로 통통하게 살집이 올라 귀여운 인상을 주며, 착의법도 본존불과 같이 이중착의식(二重着衣式)이며, 가슴에는 불상과 달리 비스듬히 접은 군의(裙衣)가 표현되었다. 보관은 꽃모양으로 능을 준 2단 보관으로, 보계를 가릴 만큼의 높이에 구름문, 봉황문, 화염문, 화문, 관대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여 장엄하였다. 동관으로 잘라 붙인 것은 최근에 후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무로 제작된 것은 원래의 장식으로 판단된다. 머리는 2갈래의 상투로 단정하게 땀아 올렸으며, 보관의 턱을 이루는 앞뒤 머리와 보계는 세밀하게 빗질하듯 머리카락을 표현하였다. 양 어깨에는 귀의 뒤쪽과 귓볼을 가로질러 내린 2가닥의 머리카락을 날실과 씨실을 엮듯 복잡하게 엮은 뒤 다시 세 갈래로 흘러내렸는데, 이는 스승 무염(無染)과 함께 제작한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1년)의 협시보살상의 보발표현이나 용연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협시보살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귀에는 꽃모양의 귀고리를 부착하였고, 둥글게 돌아간 귓바퀴의 안쪽에는 둥글게 돌아간 귓바퀴의 안쪽에는 상·하각을 짧고 깊은 음각선으로 나타내었고, 물방울처럼 늘어진 귓구멍을 표현하였다. 귀의 형태와 세부 표현은 속초 신흥사 아미타여래삼존상과 유사하나, 이곳에서는 이각(耳殼)을 좀 더 크고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차이점이다.

손의 위치는 서로 대칭이 되게 표현하고 양손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처럼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연봉과 연잎으로 구성된 긴 줄기를 잡고 있다. 특히 관음보살은 가지 끝 연잎부분에 주구가 달린 정병을 올려놓아 관음보살임을 나타내었다. 관음보살상의 손목에는 문양을 넣지 않은 띠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고, 대세지보살은 착용하지 않았다. 손가락은 길고 율동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손바닥에는 ‘卍’모양의 손금을 뚜렷이 새겨 넣었다. 노출된 오른발은 크고 평면적이며, 나뭇잎 모양의 소맷자락이 발가락을 덮고 짧게 흘러내렸다.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형태나 비례, 주름의 표현, 양감 등은 본존불과 거의 같다.

수조각승 도우는 무염(無染)을 보조하여 1633년에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

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1635년에는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1651년에는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을 조성하였다. 이후 수조각승이 되어 1653년에 본 운흥사 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하여 1655년에는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좌상을, 1657년에는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을, 1664년에는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그는 무염의 조각전통을 계승한 무염파 조각승으로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17세기 중엽 경에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존상의 복장에서는 다량의 경전과 함께 후령통(喉鈴筒), 발원문 등이 다량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으나, 본존에서 출토된 발원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복장하였다.

○ 조성 발원문

비단, 40.5×55, 1653년

發願文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時維」

歲次順治十年昭陽大荒落閏七月日最頂山燧巖寺」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世」

世子邸下壽千秋」

상단

證明 太浩」

持殿 敏濶」

佛像大施主 裴吉男兩主」

大施主 孔龍起兩主」

黃金大施主 禹愛男兩主」

腹藏大施主 朴訥叱金兩主」

烏金大施主 郭戒宗兩主」

畫員 道祐」

信問」

敬玉」

敬愼」

應澤」

雪敏」

玉淳」

緣化秩」

別座 彦澤」

供養主 性彦」

惠悅」

學伊」

化主 敬海」

[중단]

本寺秩」

大禪師 靈智」

知事 信玄」

舍主 戒淳」

典座 印鑑」

首僧 懷俊」

靈允」 自閑」 元俊」 玉求」 學令」 楚雲」 妙瓊」 性哲」 印寬」 道成」 學贊」 杜岩」 一
學」 法璘」 雪天」 行均」 行眞」 行湛」 惠應」 性均」 性淳」 懶仁」 熙衍」 覺崇」 普濟」 惠熙」
弘洽」 惠熏」

[하단]

學林」

靈寬」

楚湜」

道明」

尙敏」

尙擘」

小者秩」

尙連」

以見」

龍吉」

得敏」

春伯」

春發」

愛云」

愛瑯」

月江」

仁建」

泗上」

○본존 대좌목서명

①

順治九年癸巳六月二十一日伐木七月初一日定役閏七月二十七日」

開眼點眼法堂安于也又靈泉寺佛像化主敬海別座彥澤等」

發良心願我□生同成成佛道之願同得九品之蓮臺□人謙(?)覽愼之」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②

觀世音

彌陀佛九品蓮花臺三拜淨觀」

大勢至」

③

證明 性陀大宗師」

佛紀二五三九年開眼佛事」

乙亥年三月十八日」

大韓佛教曹溪宗 雲興寺」

住持 曹元 正觀」

總務 性默」

供養主 李順蘭」

處士 金億根」

□ 문화재전문위원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은 전적과 다라니류로 구분된다. 전적은 1종이고, 다라니류는 2종이다. 삼존불에 각각 나누어 낱장을 몇 장씩 합쳐 납입되었던 것으로 종류별로 나누어 합친 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수량	규격(cm)	연 대	판본	비고
1	妙法蓮華經	546매	47.0×58.0	[효 중 4 (1653)]	목판본	장정이 안 된 낱 장 형태임.
2	寶篋眞言 一切如來心秘 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236매	51.0×39.0	[효 중 4 (1653)]	목판본	朱印本
3	六字大明王眞言	126매	41.7×25.0	[효 중 4 (1653)]	목판본	朱印本

1. 妙法蓮華經

- 수 량 : 546매
- 규 격 : 세로 47.0cm, 가로 58.0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無衣
- 연 대 : [효종 4(1653)]
- 현 상 : 장정하지 않은 낱장 형태임.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효종 4(1653)].

板物(546장), 圖, 四周單邊, 半廓 25.8cm×20cm, 有界,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47.0×58.0cm. 楮紙.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華經

弘傳序: 祥邁 注

刻手表記: 권1의 1板的 下魚尾에 陰刻 ‘信章’

複卷: 권1; 5질, 권2; 5질, 권3; 3질, 권4; 5질, 권5; 4질, 권6; 4질, 권7; 4질

○ 내용 및 특징

이 『묘법연화경』은 장정하지 않고 낱장으로 삼보살상에 나누어 넣어서 접은 흔적과 꺾임이 있다. 목판본이며, 간기도 없어서 정확한 간행연대를 알 수 없다. 효종 4(1653)년에 불상을 조성할 때 인출해서 복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1~7까지 권차는 갖추었으나 각권이 3~5帙이 있으나 장차는 정확하지 않다. 완전본도 아니고 낱장으로 되어 있어 가치는 희박하다.

2. 寶篋眞言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 수 량 : 236매
- 규 격 : 세로 51.0cm, 가로 39.0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朱印本)
- 형 식 : 낱장
- 연 대 : [효종 4(1653)]

서지사항

236매, 四周單邊, 半廓 41.0×19.0cm, 有界, 7行21字.

- 내용 및 특징

낱장으로 되어 236매가 효종 4(1653)년에 불상을 조성할 때 인출하여 복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寶篋眞言의 정식명칭은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인데 밀교계통의 경전이다. 복장 의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다라니이다.

3. 六字大明王眞言

- 수 량 : 126매
- 규 격 : 세로 41.7cm, 가로 25.0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朱印本)
- 형 식 : 낱장
- 연 대 : [효종 4(1653)]

서지사항

126매, 四周單邊, 匡廓 37.3×15.2cm, 有界, 18行

- 내용 및 특징

효종 4(1653)년에 불상을 조성할 때 인출하여 낱장으로 복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眞言은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불교의 비밀스러운呪文이란 뜻이다.

<문헌자료>

대구광역시 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 : 대구광역시,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편, 「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장인진, 임남수, 최은령, 배현숙 위원 의견)」, 대구 : 대구광역시, 2011.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5. 홍가신선생 교지(洪可臣先生 教旨)

가. 검토사항

‘홍가신선생 교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도지사로부터 ‘홍가신선생 교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2.04.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07.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19호
- 명 칭 : 홍가신선생 교지(洪可臣先生 教旨)
- 소 유 자 : 남양홍씨 문장공파 종중
-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만전당길 120번길 3-20번지
- 수 량 : 9건 9점
- 규 격 : 서지기술 참조
- 재 질 : 비단, 저지(楮紙)
- 판 중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조성연대 : 서지기술 참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5)洪可臣諡號教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9건 9점이다.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文壯公 洪可臣의 淸難一等功臣教書を 비롯하여 文壯公과 관련된 古文書들로, 朝鮮時代 中期의 李夢鶴의 난과 관련된 歷史 및 政治史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 中期와 後期の 古文書學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또한 조사 고문서 중의 淸難功臣教書와 관련하여 淸難功臣 3等に 封爵된 忠翼公 辛景行의 淸難功臣教書와 그와 關聯文籍들은 이미 寶物 第1380號 <辛景行淸難功臣教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5)洪可臣諡號教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9건 9점 중 <(5)洪可臣諡號教旨(1707)> 1건 1점을 제외한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8건 8점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청난공신 3등에 봉작된 忠翼公 辛景行의 淸難功臣教書와 關聯文籍들은 이미 寶物 第1380號 <辛景行淸難功臣教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청난공신 1등에 봉작된 文壯公 洪可臣의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또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관리·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南陽洪氏 文壯公派 宗中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홍가신 청난공신교서를 비롯하여, 홍가신이 관직에 제수되거나 또는 청난공신 1등에 녹훈되어 부모 및 그의 처에게도 법전에 의거하여 관직을 추증 받으므로써 발급된 교지인데 도장이 없는 증시교지를 제외한 8점만 지정가치가 있다. 홍가신의 청난공신교서는 임난 직후인 宣祖 37年(1604)에 발급된 교서로서 공적 내용과 그에 따른 포상내역이 상세히 기

록되어 있어 당시의 공신 포상 규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임난 이후부터 발급된 교서에서는 수급자의 성명 아래에 ‘書’字가 추가로 기재되어 양식이 변화되었다. 재료도 종이가 아닌 비단을 사용하여 특별히 제작되어 공신 각 개인에게 발급되는 유일문서로서 희소성이 있다. 따라서 역사학 및 고문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는 매우 높다.

청난공신교서는 이미 보물 제1380호 辛景行 淸難功臣敎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명칭은 ‘洪可臣 淸難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로 하여 증시교지를 제외한 8점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명칭 : 홍가신 청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書誌記述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의 세부적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1) 洪可臣淸難功臣敎書

敎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書 / 國王(宣祖) 發給 ; 洪可臣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朱絲欄, 全43行 24字 內外 ; 36.8×132.0cm. 絹.

製述者: 李楨(1559-1625)

書寫者: 李福長(1570-?, 李奎報의 10世孫)

賜給年: 萬曆三十二(선조 37, 1604)年十月日

內容: 敎/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書// 王若曰大勳出自儒者久切嘉尙之心懋賞合加功宗斯舉褒/ 崇之典涓穀朝而展禮頒策命而揚休惟卿學問有源/ 操履無玷文章本經術早稱泮宮英游直聲動朝端進/ 陟烏府妙選多士倚元城爲領袖貴璫避淳夫之風稜/ 莅百濟之故邦義烈表章於前哲守三輔之名郡遺愛/ 顯刻於豐碑逮洪陽作牧之辰值域中多壘之日謂外/ 攘必先內修故忠言迺進於藥石謂地理不如人和故仁政/ 每軫于瘡痍人皆擬朝陽之鳳凰

予則恃尹鐸之保障豈意門庭之有寇復見潢池之弄兵藉讖謠而橫行禍烈/綠林之倡亂恣誘脅而屯結譎似白蓮之聚徒或稱僧俗/將軍或作文武從事兇鋒猝陷於五邑虐焰殆遍於兩湖痛/列郡無男兒守臣相繼而面縛徒擁兵若髻婦節使旁觀/而色沮約日指京都孰遏熾張之勢揚兵逼巨鎮益肆割/據之謀儻非城守之有人幾乎天討之無主躬田子版鍤/勵守土有死之心手臧生鼓旗激遇難不避之節巡城則/山川壯其氣勢誓衆則風雲助其聲威羽檄星馳收召/同盟之士義旅雲集爭奮戮力之誠技雖窮公輸之九/攻志益堅晉陽之三版若防制水四隣賴以爲安如虎在/山一境恃之無恐漢家神箭知兇膽之自銷楚幕棲/烏見游魂之已遁快施鯨鯢之戮坐致寰宇之清犯/大義流毒黔黎雖重予之慙德剪兇渠迅掃氛祲實/由乃之精忠苟非平昔所養之至剛曷能今日所立/之甚偉是謂眞儒之無敵深喜茂烈之非常獨有/顏眞卿玄宗發歎而增秩削平李師道行立受賞/而進階況此蓋世之元功允協敦封之異數肆策卿/爲清難功臣一等圖形垂後超三階爵其父母妻子/亦超三階無子則甥姪女婿超二階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仍賜伴尙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紀成績于鍾鼎旣篤不忘之恩保令名於桑榆/益勵匪躬之節故茲教想宜知悉// 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 崔湖/ 三等/ 辛景行/ 林得義// 萬曆三十二年十月 日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0×10.0cm)

保存狀態: 원래 軸裝이었으나 현재 本文만 傳存하고 狀態는 良好하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清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既指定事例: 寶物 第1380號 辛景行清難功臣教書 및 關聯文籍. (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

(2) 洪可臣妻 李氏夫人 教旨

教旨 / 國王(宣祖) 發給 ; 洪可臣妻 李氏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宣祖 35(1602)].

1枚 ; 67.0×56.8cm. 楮紙.

賜給年: 萬曆三十(선조 35, 1602)年十二月二十六日

內容: 教旨// 李氏爲貞夫人/者// 萬曆三十年十二月二十六日// 嘉善大夫漢城府右尹洪可臣妻依法典從夫職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3×10.0cm)

保存狀態: 上·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清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3) 洪可臣妣 申氏夫人 教旨

教旨 / 國王(宣祖) 發給 ; 洪可臣妣 申氏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70.0×52.5cm. 楮紙.

賜給年: 萬曆三十二(선조 37, 1604)年十一月十六日

內容: 教旨// 贈貞夫人申氏贈貞敬夫人/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妣依承/傳追贈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0×10.0cm)

保存狀態: 上·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清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4) 洪可臣妣 成氏夫人 教旨

教旨 / 國王(宣祖) 發給 ; 洪可臣妣 成氏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70.0×53.7cm. 楮紙.

賜給年: 萬曆三十二(선조 37, 1604)年十一月十六日

內容: 教旨// 贈貞夫人成氏贈貞敬夫人/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妣依承]/傳追贈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0×10.0cm)

保存狀態: 上·下段에 一部缺落과 剝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5) 洪可臣諡號教旨

教旨 / 國王(肅宗) 發給 ; 洪可臣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肅宗 33(1707)].

1枚 ; 70.0×107.0cm. 楮紙.

賜給年: 康熙四十六(숙종 33, 1707)年十二月日

內容: 教旨//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行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都摠管寧原君致仕/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寧原/府院君洪可臣贈諡文莊/公者// 康熙四十六年十二月 日

印文: 無

保存狀態: 上·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特記事項: ‘施命/之寶’가 없으며, 原本의 模寫本으로 추측된다.

(6) 洪可臣 寧原府院君 封爵教旨

教旨 / 國王(宣祖) 發給 ; 洪可臣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光海君 7(1615)].

1枚 ; 70.3×66.3cm. 楮紙.

賜給年: 萬曆四十三(광해군 7, 1615)年七月二十四日

內容: 教旨//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寧原君致仕洪可臣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寧原府院君者// 萬曆四十三年七月二十四日// 親功臣追贈事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4×10.0cm)

保存狀態: 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7) 洪昱 贈職 教旨

教旨 / 國王(宣祖) 發給 ; 洪昱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宣祖 35(1602)].

1枚 ; 70.0×52.5cm. 楮紙.

賜給年: 萬曆三十(선조 35, 1602)年十二月二十六日

內容: 教旨// 奉直郎行掌苑署掌苑/洪昱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者// 萬曆三十年二月二十六日// 嘉善大夫漢城府右尹洪可臣考依大典追贈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0×10.0cm)

保存狀態: 左·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8) 洪昱 贈職 教旨

教旨 / 國王(宣祖) 發給 ; 洪昱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70.0×54.8cm. 楮紙.

賜給年: 萬曆三十二(선조 37, 1604)年九月十四日

內容: 教旨//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洪昱贈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者// 萬曆三十二年九月十四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考依大典追贈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0×10.0cm)

保存狀態: 左·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9) 洪昱 益寧府院君 封爵 教旨

教旨 / 國王(宣祖) 發給 ; 洪昱 受給. -- 筆寫本. --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70.0×59.0cm. 楮紙.

賜給年: 萬曆三十二(선조 37, 1604)年十一月十六日

內容: 教旨// 贈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洪昱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益寧府院君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考[依承]傳追贈 [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0×10.2cm)

保存狀態: 左·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補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指定事項: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 現狀

南陽洪氏 文壯公(洪可臣)派 宗中에는 影幀 1點과 古文書 30點이 소장되어 있다. 고문서는 功臣教書 1點, 教旨가 28點, 分財記 1點이다. 教旨는 洪昱(3), 洪可臣(2건), 洪宇寬(1), 洪完(1), 洪日章(4), 洪僑(8), 夫人(9) 등 28점이다. 교지 중 洪可臣과 洪僑의 教旨는 자신들의 官職除授에 따른 것이었으나, 餘他の 教旨인 曾祖·祖·考와 曾祖妣·祖妣·考妣 등의 教旨는 洪可臣과 洪僑의 顯達에 따라 賜給된 教旨들이다. 이들 고문서의 賜給時期는 17세기 초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이며, 忠淸道 地方의 고문서 중에서는 비교적 오래된 자료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그리고 分財記도 비록 일부 훼손이 있으나 광해군 12(1620)년의 자료라는 점에서는 17세

기 상속관행을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南陽洪氏 文壯公(洪可臣)派 종중에 전래되는 30점의 古文書 중에서 조사대상의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5)洪可臣諡號教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9건 9점이다.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文籍>은 洪可臣 이래로 南陽洪氏 文壯公派 宗中에 전존하는 고문서로 현재 忠淸南道 牙山市 鹽峙邑 大洞里 山1의 洪可臣紀念館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의 대부분 一部에 缺落과 剝落 등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南陽洪氏 文壯公(洪可臣)派 종중에 전래되는 30점의 古文書 중에서 조사대상의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5)洪可臣諡號教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9건 9점이다.

(1) 洪可臣淸難功臣教書

文書名은 “教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書”이며, 宣祖 37(1604)년 10월에 洪可臣(1541-1615)을 ‘奮忠出氣合謨迪毅淸難功臣’ 1등으로 封爵한 教書이다. 본 教書의 製述者는 李愷(1559-1625)이며, 書寫者는 李奎報의 10世孫인 李福長(1570-?)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上·下段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淸難功臣教書>의 기존의 指定事例는 寶物 第1380號 <辛景行淸難功臣教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을 들 수 있다.

(2) 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宣祖 35(1602)년 12월 26일에 洪可臣의 妻 李氏를 ‘貞夫人’으로 贈職한 教旨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上·下段의 一部에 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3) 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宣祖 37(1604)년 11월 16일에 洪可臣의 妣 申氏를 ‘貞敬夫人’으로 追贈한 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上·下段의 一部에 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4) 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宣祖 37(1604)년 11월 16일에 洪可臣의 妣 成氏를 ‘貞敬夫人’으로 追贈한 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上·下段의 一部에 缺落과 剝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5) 洪可臣諡號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숙종 33(1707)년 12월에 洪可臣을 ‘文莊公’으로 贈諡한 교지이다. 印文이 없으며,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上·下段의 一部에 缺落과 剝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그러나 본 고문서에는 ‘施命/之寶’가 없으며, 原本의 模寫本으로 추측되어, 國家指定文化財로서의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6) 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光海君 7(1615)년 7월 24일에 洪可臣을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寧原府院君’으로 追贈한 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上·下段의 一部에 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7) 洪昱贈職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宣祖 35(1602)년 12월 26일에 洪可臣의 考 洪昱(1521-1579)을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贈職한 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上·下段의 一部에 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8) 洪昱贈職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宣祖 37(1604)년 9월 14일에 洪可臣의 考 洪昱을 ‘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로 贈職한 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左·下段의 一部에 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9) 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

文書名은 “教旨”이며, 宣祖 37(1604)년 11월 16일에 洪可臣의 考 洪昱을 ‘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益寧府院君’으로 贈職한 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左·下段의 一部에 缺落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으나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文壯公 洪可臣의 淸難一等功臣教書를 비롯하여 文壯公과 관련된 고문서들로, 朝鮮時代 中期의 李夢鶴의 난과 관련된 歷史 및 政治史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 中期와 後期의 古文書學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5)洪可臣諡號教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9건 9점 중 <(5)洪可臣諡號教旨(1707)> 1건 1점을 제외한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8件 8點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 고문서 중의 淸難功臣教書와 관련하여 淸難功臣 3等에 封爵된 忠翼公 辛景行의 淸難功臣教書와 관련 문적들은 이미 寶物 第1380號 <辛景行淸難功臣教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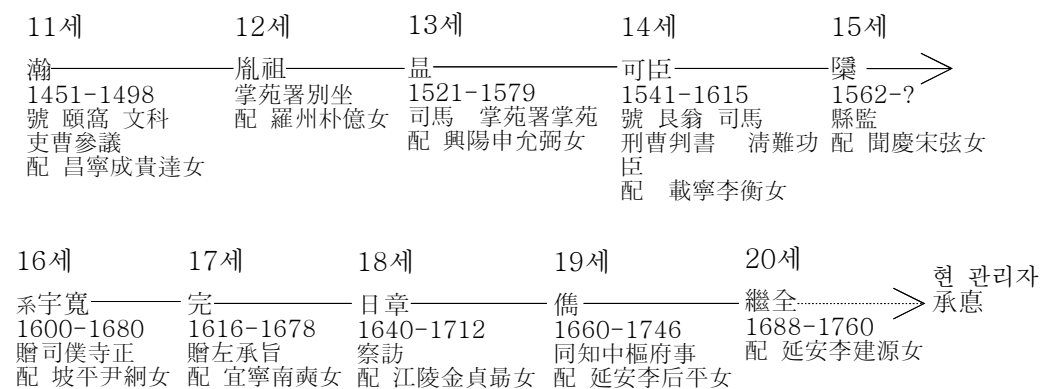
○ 南陽洪氏世系 및 洪可臣의 家系

□ 南陽洪氏世系

- 始 祖 諱先幸 仕高麗 官金吾衛尉別將同正
- 二 世 諱叔 檢校將軍
- 三 世 諱光呂 衛尉主簿同正
- 四 世 諱淳 尙衣直長同正
- 五 世 諱儒大 官署令
- 六 世 諱之瑞 禮賓寺丞同正
- 七 世 諱德義 武科奉翊大夫工曹典書
- 八 世 諱子傲 仕本朝 文科嘉靖大夫戶曹參判 妣貞夫人綾城具氏
- 九 世 諱益生 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 贈兵曹判書 妣貞夫人文化柳氏
- 十 世 諱貴海 武科慶尙左道水軍節度使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妣贈貞夫人驪興
閔氏
- 十一世 諱瀚 文科通政大夫吏曹參議·知製敎 贈嘉善大夫吏曹參判 罹戊午史禍 妣贈貞夫人昌寧成氏
- 十二世 諱胤昌 通訓大夫內膳寺判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 妣贈貞夫人安城李氏
- 十三世 諱昱 奉直郎 掌苑署掌苑 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
筵觀象監事·世子師·益寧府院君 有隱德高行 妣贈貞敬夫人興陽申氏 妣贈貞敬夫人昌寧成
氏
- 十四世 諱可臣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 崇政大夫 行刑曹判書·五衛都摠府都摠管·寧原君致仕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傳·寧原府院君·贈諡文莊公
號晚全 以學行顯 妣贈貞敬夫人載寧李氏
- 十五世 諱榮 通訓大夫 行漢城府庶尹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妣贈
貞夫人陽川許氏 正憲大夫行吏曹判書 贈議政府左贊成箴之女

□ 洪可臣의 家系

南陽洪氏 文壯公派 洪可臣 後孫家の 家系圖를 간략히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11세 洪瀚(1451-1498)은 문과를 거쳐 성종 16(1485)년 문과에 급제하여 副提學을 거쳐 吏曹參議에 올랐다. 연산군 4(1498)년에 사화를 만나 慶興府에 유배되었다. 12세 洪胤祖는 掌苑署別坐을 지냈고, 13세 洪昱(1521-1579)은 掌苑署掌苑을 지

냈다.

14세 洪可臣(1541-1615)의 자는 興道, 호는 晩全堂 혹은 良翁이다. 명종 22(1567)년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선조 4(1571)년에 康陵參奉으로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선조 27(1594)년에 홍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선조 29(1596)년에 홍주에서 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민병을 규합하여 무장 朴名賢·林得義 등과 함께 난을 평정하였고, 선조 37(1604)년 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淸難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아산의 仁山書院과 온양의 靜退書院에 봉안되어 있다.

15세 洪櫟(1562-?)은 현감을 지냈고, 18세 洪日章(1640-1712)은 察訪을 지냈고, 19세 洪儁(1660-1746)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 洪可臣

洪可臣(1541-1615)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南陽이고 자는 興道이며 호는 晩全堂·良翁이다. 부친은 洪晝이며, 모친은 申允弼의 딸이다. 閔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명종 22(1567)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선조 4(1571)년에 康陵參奉이 되었을 때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아 禮賓寺主簿에 특진되고 이어 형조좌랑·지평을 거쳐 선조 17(1584)년에 안산군수를 지냈다. 선조 21(1588)년에 수원부사로 있을 때 救荒의 공이 있어 표창을 받았으나 평소에 鄭汝立과 가까이 지냈다가 선조 22(1589)년에 정여립의 모반사건 때 파직을 당하였다가 선조 26(1593)년에 파주목사가 되고, 이듬해(1594) 홍주목사로 부임하여 선조 29(1596)년에 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민병을 규합하여 무장 朴名賢·林得義 등과 함께 난을 평정하였다. 그 뒤로 강화부사·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개성부유수 등을 지내고, 선조 37(1604)년에 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淸難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이듬해(1605)년에 寧原君에 책봉되었다. 광해군 초에 장례원정·한성부우윤 겸 지의금부사 등을 거쳐 광해군 2(1610)년에 형조판서에 이른 뒤 관직에서 물러나 아산에서 卒去하였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주로 師門의 촉망을 받았으며, 체계적인 학문을 전수받아 문장으로서 조직적인 華實의 매력을 갖춘 외에 성리학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斯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理氣의 본질을 우주의 본질로서 간파하여 기와 이로 보고, 기와 이의 순환과정에서 만물이 생성하며 음양으로 조화·분리되는 理氣一元論에 동조하면서, 生死分離를 주장하는 노자철학과 인간생명을 虛無寂滅로 떨어뜨리는 佛教觀을 배척하였다. 아산의 仁山書院과 온양의 靜退書院에 봉안되었다.

○ 기 타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는 洪可臣 이래로 南陽洪氏

文壯公派 宗中에 전존하는 고문서로 현재 忠淸南道 牙山市 鹽峙邑 大洞里 山1의 洪可臣紀念館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의 대부분 一部에 缺落과 剝落 등이 있으며, 數次에 걸친 裱貼 등 補修의 흔적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專門的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 근거 기준

淸難功臣 3等에 封爵된 忠翼公 辛景行의 淸難功臣敎書와 關聯文籍들은 이미 寶物 第1380號 <辛景行淸難功臣敎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淸難功臣 1等에 봉작된 文壯公 洪可臣의 <洪可臣淸難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도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문헌자료>

忠淸南道 文化財委員會編, 「洪可臣先生敎旨 寶物指定申請書」(성봉현·이해준 교수
수의 洪可臣家 古文書 文化財指定 調査 意見書), 2012.

晩全堂 洪可臣紀念館編, 『亂中에 亂을 평정한 晩全堂 洪可臣. 牙山 : 晩全堂 洪可臣紀念館』, 2009.

晩全堂 洪可臣先生 文集復刊委員會編, 『晩全堂 洪可臣先生 文集』, 南陽 洪氏 대
곡종중 復刊委員會, 2006.

朴乙洙, 『晩全堂 洪可臣 研究』, 韓國藝總牙山支部, 2006.

<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1380호 <辛景行淸難功臣敎書 및 關聯文
籍>. (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

□ 문화재전문위원

○ 書誌記述

(1) 洪可臣淸難功臣敎書

敎書, 발급자 : 國王(宣祖), 수취자 : 洪可臣, 筆寫本.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朱絲欄, 全43行 24字 内外 ; 36.8×132.0cm. 絹.

製述者 : 李愷(1559-1625), 書寫者 : 李福長(1570-?, 李奎報의 10世孫)

賜給年 : 萬曆 32年(선조 37, 1604) 10月 日

印 文 : 施命之寶(10.0×10.0cm)

<내용>

教/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書// 王若曰大勳出自儒者久切嘉尚之心懋賞合加功宗斯舉褒/ 崇之典涓穀朝而展禮頒策命而揚休惟卿學問有源/操履無玷文章本經術早稱泮宮英游直聲動朝端進/陟烏府妙選多士倚元城爲領袖貴璫避淳夫之風稜/莅百濟之故邦義烈表章於前哲守三輔之名郡遺愛/顯刻於豐碑逮洪陽作牧之辰值域中多壘之日謂外/攘必先內修故忠言迺進於藥石謂地理不如人和故仁政/每軫于瘡痍人皆擬朝陽之鳳凰予則恃尹鐸之保障豈/意門庭之有寇復見潢池之弄兵藉讖謠而橫行禍烈/綠林之倡亂恣誘脅而屯結譎似白蓮之聚徒或稱僧俗/將軍或作文武從事兇鋒猝陷於五邑虐焰殆遍於兩湖痛/列郡無男兒守臣相繼而面縛徒擁兵若髻婦節使旁觀/而色沮約日指京都孰遏熾張之勢揚兵逼巨鎮益肆割/據之謀儻非城守之有人幾乎天討之無主躬田子版鍤/勵守土有死之心手臧生鼓旗激遇難不避之節巡城則/山川壯其氣勢誓衆則風雲助其聲威羽檄星馳收召/同盟之士義旅雲集爭奮戮力之誠技雖窮公輸之九/攻志益堅晉陽之三版若防制水四隣賴以爲安如虎在/山一境恃之無恐漢家神箭知兇膽之自銷楚幕棲/烏見游魂之已遁快施鯨鯢之戮坐致寰宇之清犯/大義流毒黔黎雖重予之慙德剪兇渠迅掃氛祲實/由乃之精忠苟非平昔所養之至剛曷能今日所立/之甚偉是謂眞儒之無敵深喜茂烈之非常獨有/顏眞卿玄宗發歎而增秩削平李師道行立受賞/而進階況此盖世之元功允協敦封之異數肆策卿/爲清難功臣一等圖形垂後超三階爵其父母妻子/亦超三階無子則甥姪女壻超二階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仍賜伴佾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紀成績于鍾鼎旣篤不忘之恩保令名於桑榆/益勵匪躬之節故茲教想宜知悉// 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 崔 湖/ 三等/ 辛景行/ 林得義// 萬曆三十二年十月 日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 : 원래 軸裝이었으나 현재 본문만 전하고 있고,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 :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기 지정사례 : 寶物 第1380號 辛景行淸難功臣教書 및 關聯文籍 (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

(2) 洪可臣妻 李氏夫人 教旨

教旨, 발급자 : 國王(宣祖), 수취자 : 洪可臣妻 李氏. 筆寫本. [漢城] : [吏曹], [宣祖 35(1602)].

1枚 ; 67.0×56.8cm. 楮紙.

賜給年：萬曆 30年(선조 35, 1602) 12月 26日

印 文：施命之寶(10.3×10.0cm)

<내용>

教旨// 李氏爲貞夫人/者// 萬曆三十年十二月二十六日// 嘉善大夫漢城府右尹洪可臣妻依法典從夫職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상단 및 하단에 一部缺落이 있고, 楷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보인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3) 洪可臣妣 申氏夫人 教旨

教旨, 발급자：國王(宣祖), 수취자：洪可臣妣 申氏. 筆寫本. [漢城]：[吏曹], [宣祖 37(1604)].

1枚；70.0×52.5cm. 楮紙.

賜給年：萬曆 32年(선조 37, 1604) 11月 16日

印 文：施命/之寶(10.0×10.0cm)

<내용>

教旨// 贈貞夫人申氏贈貞敬夫人/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妣依承/傳追贈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상단 및 하단에 一部缺落이 있고, 楷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4) 洪可臣妣 成氏夫人 教旨

教旨 / 발급자：國王(宣祖), 수취자：洪可臣妣 成氏. 筆寫本. [漢城]：[吏曹], [宣祖 37(1604)].

1枚；70.0×53.7cm. 楮紙.

賜給年：萬曆 32年(선조 37, 1604) 11月 16日

印 文：施命之寶(10.0×10.0cm)

<내용>

教旨// 贈貞夫人成氏贈貞敬夫人/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
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妣依承]/傳追贈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 : 상단 및 하단에 一部 缺落과 剝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 :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5) 洪可臣諡號教旨

教旨, 발급자 : 國王(肅宗), 수취자 : 洪可臣. 筆寫本.

1枚 ; 70.0×107.0cm. 楮紙.

賜給年 : 康熙 46年(숙종 33, 1707) 12月 日

印 文 : 無

<내용>

教旨//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行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都
摠管寧原君致仕/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寧
原/府院君洪可臣贈諡文莊/公者// 康熙四十六年十二月 日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 : 상단 및 하단에 一部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
적이 있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 :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특기사항 : ‘施命之寶’가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原本으로 확정할 수 없다. 후대에
원본을 필사한 模寫本으로 추정된다.

(6) 洪可臣 寧原府院君 封爵教旨

教旨, 발급자 : 國王(宣祖), 수취자 : 洪可臣. 筆寫本. [漢城] : [吏曹], [光海君
7(1615)].

1枚 ; 70.3×66.3cm. 楮紙.

賜給年: 萬曆 43年(광해군 7, 1615) 7月 24日

印文: 施命之寶(10.4×10.0cm)

<내용>

教旨//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寧原君致仕洪可臣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寧原府院君者// 萬曆四十三年七月二十四日// 親功臣追贈事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 : 하단에 一部缺落이 있고, 襟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 :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7) 洪昱 贈職 教旨

教旨, 발급자 : 國王(宣祖), 수취자 : 洪昱. 筆寫本. [漢城] : [吏曹], [宣祖 35(1602)].

1枚 ; 70.0×52.5cm. 楮紙.

賜給年 : 萬曆 30年(선조 35, 1602) 12月 26日

印 文 : 施命之寶(10.0×10.0cm)

<내용>

教旨// 奉直郎行掌苑署掌苑/洪昱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者// 萬曆三十年二月二十六日// 嘉善大夫漢城府右尹洪可臣考依大典追贈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 : 左·下段에 一部缺落이 있고, 襟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 :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8) 洪昱 贈職 教旨

教旨, 발급자 : 國王(宣祖), 수취자 : 洪昱. 筆寫本.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70.0×54.8cm. 楮紙.

賜給年 : 萬曆 32年(선조 37, 1604) 9月 14日

印 文 : 施命之寶(10.0×10.0cm)

<내용>

教旨//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洪昱贈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者// 萬曆三十二年九月十四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考依大典追贈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 : 左·下段에 一部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 :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9) 洪昱 益寧府院君 封爵 教旨

教旨, 발급자 : 國王(宣祖), 수취자 : 洪昱. 筆寫本. [漢城] : [吏曹], [宣祖 37(1604)].

1枚 ; 70.0×59.0cm. 楮紙.

賜給年 : 萬曆 32年(선조 37, 1604) 11月 16日

印 文 : 施命之寶(10.0×10.2cm)

<내용>

教旨// 贈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洪昱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益寧府院君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考[依承]傳追贈 [施命之寶]

<보존 및 지정 사항>

보존상태 : 左·下段에 一部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다.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지정사항 :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

○ 現狀

南陽洪氏 文壯公(洪可臣)派 宗中の 소장 고문서는 총 30점으로 功臣教書 1점, 教旨 28점, 分財記 1점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핵심 문서는 흥가신이 청난1등공신에 책봉되면서 사급받은 공신교서 1점이다. 숫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教旨 28점은 흥가신의 부친 洪昱(3점)에서 시작하여 洪可臣(2), 夫人(9), 손자 洪宇寬(1), 증손자 洪完(1), 4세손 洪日章(4), 5세손 洪儒(8)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 있고,

시기적으로는 17세기 초반에서 18세기 중반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홍가신과 홍준의 교지는 본인이 封爵을 사급받거나 관직을 제수받은 문서이고, 그 밖에는 홍가신과 홍준의 顯達에 따라 부인을 봉작한 문서와 증조부모·조부모·부모 등 3대를 추증한 문서들 가운데 일부가 남아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홍가신의 공신책봉과 관련하여 3대를 추증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分財記는 광해군 12(1620)년의 자료라는 점에서 17세기 호서 지역 사족가의 상속관행을 반영하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1건에 불과하여 해당 가문의 시기적인 추이 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부 훼손된 상태도 아쉬운 점이다. 결국 이 집안의 문서는 홍가신의 공신책봉 및 그에 파생된 문서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총 30점의 古文書 중에서 이번의 조사대상인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5)洪可臣諡號教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9건 9점이다.

이들 조사 대상 고문서는 홍가신 이래로 南陽洪氏 文壯公派 宗中에서 대대로 전하며 보존해 온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忠淸南道 牙山市 鹽峙邑 大洞里 山1에 위치한 洪可臣紀念館에서 保管·維持·管理하고 있다. 조사 대상 고문서의 보존 상태는 대부분 一部에 缺落과 剝落 등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쳐 補修의 흔적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원상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 내용 및 특징

南陽洪氏 文壯公(洪可臣)派 종중에 전래되는 30점의 고문서 중에서 조사대상인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1)洪可臣淸難功臣教書, (2)洪可臣妻李氏夫人教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教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教旨(1604), (5)洪可臣諡號教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1615), (7)洪昱贈職教旨(1602), (8)洪昱贈職教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1604) 등 9건 9점이다.

洪可臣淸難功臣教書

문서명은 “教書”이다. 宣祖 37년(1604) 10월에 洪可臣(1541-1615)을 ‘奮忠出氣合謨迪毅淸難功臣’ 1등으로 封爵한 功臣教書이다. 製述者는 李愷(1559-1625), 書寫者는 李奎報의 10世孫인 李福長(1570-?)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본 문서의 보존 상태는 상단 및 하단에 일부 결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淸難功臣敎書>에 대한 기존의 지정 사례는 寶物 第1380號 <辛景行淸難功臣敎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가 있다.

洪可臣妻李氏夫人敎旨

문서명은 “敎旨”이다. 宣祖 35년(1602) 12월 26일에 洪可臣의 妻 李氏를 ‘貞夫人’으로 封爵한 교지이다. 홍가신이 嘉善大夫 漢城府 右尹에 임명될 때 그의 직책에 준하여 처 이씨에게 정부인의 외명부 직첩을 하사한 문서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상단 및 하단에 一部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洪可臣妣申氏夫人敎旨

문서명은 “敎旨”이다. 宣祖 37년(1604) 11월 16일에 洪可臣의 妣 申氏를 ‘貞敬夫人’으로 追贈한 추증교지이다. 淸難功臣 正憲大夫 寧原君 兼五衛都摠府都摠管에 봉작된 홍가신의 3대를 추증한 문서 중의 하나로 그의 직책에 준하여 사망한 모친 신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하고 있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상단 및 하단에 一部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洪可臣妣成氏夫人敎旨

문서명은 “敎旨”이다. 선조 37년(1604) 11월 16일에 洪可臣의 妣 成氏를 ‘貞敬夫人’으로 追贈한 추증교지이다. 淸難功臣 正憲大夫 寧原君 兼五衛都摠府都摠管에 봉작된 홍가신의 3대를 추증한 문서 중의 하나로 그의 직책에 준하여 사망한 또 다른 모친 신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하고 있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상단 및 하단에 一部 缺落과 剝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洪可臣諡號敎旨

문서명은 “敎旨”이다. 숙종 33년(1707) 12월에 洪可臣에게 文莊公의 시호를 내린 추증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상단 및 하단에 一部 缺落과 剝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다. 본 고문서의 특이 사항은 ‘施命之寶’가 찍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왕이 발급한 추증교지에는 ‘시명지보’를 찍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문서는 원본 문서로 확정할 수 없다. 오히려 후대에 원본을 필사한 模寫本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문서는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상태로 판단된다.

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教旨

문서명은 “教旨”이다. 光海君 7년(1615) 7월 24일에 洪可臣을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寧原府院君’으로 追贈한 추증교지이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상단 및 하단에 一部 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洪昱贈職教旨

문서명은 “教旨”이다. 宣祖 35년(1602) 12월 26일에 洪可臣의 考 洪昱(1521-1579)을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贈職한 추증교지이다. 홍가신이 嘉善大夫 漢城府 右尹에 임명되었을 때 3대를 추증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 사망한 부친을 그의 직책에 준하여 추증하고 있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상단 및 하단에 一部 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洪昱贈職教旨

문서명은 “教旨”이다. 宣祖 37년(1604) 9월 14일에 洪可臣의 考 洪昱을 ‘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로 贈職한 추증교지이다. 淸難功臣 正憲大夫 寧原君에 봉작된 홍가신의 3대를 추증한 문서 중의 하나로 사망한 부친을 홍가신의 직책에 준하여 正憲大夫 이조판서로 추증하고 있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左·下段에 一部 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洪昱益寧府院君封爵教旨

문서명은 “教旨”이다. 宣祖 37년(1604) 11월 16일에 洪可臣의 考 洪昱을 ‘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益寧府院君’으로 贈職한 추증교지이다. 淸難功臣 正憲大夫 寧原君 兼五衛都摠府都摠管에 봉작된 홍가신의 3대를 추증한 문서 중의 하나로 사망한 부친을 홍가신의 직책에 준하여 추증하고 있다. 현재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左·下段에 一部 缺落이 있고, 裱貼 등 수 차례에 걸친 補修의 흔적이 있어 원상태 회복 및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는 文壯公 洪可臣의 淸難一等功臣 관련 문서가 중심을 이룬다. 그를 淸南1등공신으로 책봉한 功臣敎書를 중심으로 그의 공신 책봉에 따른 3대 추증 문서들 가운데 부모를 추증한 문서 및 홍가신의 사망 이후 그를 추증한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신 책봉 이전 홍가신의 행적을 반영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가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에 제수될 당시 그의 처에게 발급된 외명부 직첩 및 부친을 추증한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는 홍가신과 관련한 일괄 문서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조선중기 李夢鶴의 난과 관련한 역사 연구를 구체화하고, 호서지역 사족가의 존재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조선시대 고문서학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 고문서 <洪可臣淸難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1)洪可臣淸難功臣敎書(1604), (2)洪可臣妻李氏夫人敎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敎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敎旨(1604), (5)洪可臣諡號敎旨(1707),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敎旨(1615), (7)洪昱贈職敎旨(1602), (8)洪昱贈職敎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敎旨(1604) 등 9건 9점 중 원본의 模寫本으로 추정되는 <(5)洪可臣諡號敎旨(1707)> 1건 1점을 제외한 (1)洪可臣淸難功臣敎書(1604), (2)洪可臣妻李氏夫人敎旨(1602), (3)洪可臣妣申氏夫人敎旨(1604), (4)洪可臣妣成氏夫人敎旨(1604), (6)洪可臣寧原府院君封爵敎旨(1615), (7)洪昱贈職敎旨(1602), (8)洪昱贈職敎旨(1604), (9)洪昱益寧府院君封爵敎旨(1604) 등 8件 8點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남양홍씨 문장공파 종중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홍가신이 淸南공신 1등으로 녹훈되면서 사급된 淸南공신교서를 비롯하여 홍가신과 관련된 고문서들이다. 이 문서 9점은 忠淸南道 有形文化財 第219號로 지정되어 있다. 종류별로 구별하면 교서 1건, 교지 8건 이다.

조사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南陽洪氏 文壯公派 宗中 高文書 目錄

	지 정 신 청 명 칭	발급연대	수량	지 정 명 칭	지정여부
1	洪可臣 功臣教書	1604	1	洪可臣 清難功臣教書	지정대상
2	洪可臣妻 李氏 夫人教旨	1602	1	洪可臣妻 李氏 告身教旨	지정대상
3	洪可臣妣 申氏 夫人教旨	1604	1	洪可臣妣 申氏 追贈教旨	지정대상
4	洪可臣妣 成氏 夫人教旨	1604	1	洪可臣妣 成氏 追贈教旨	지정대상
5	洪可臣 諡號教旨	1707	1	洪可臣 贈諡教旨(副本)	지정제외
6	洪可臣 寧原府院君 封爵教旨	1615	1	洪可臣 追贈教旨	지정대상
7	洪昱 贈職教旨	1602	1	洪昱 追贈教旨	지정대상
8	洪昱 贈職教旨	1604	1	洪昱 贈職教旨	지정대상
9	洪昱 益寧府院君 封爵教旨	1604	1	洪昱 贈職教旨	지정대상

1) 洪可臣 清難功臣教書

○ 규 격 : 36.8×132.0cm.

○ 수 량 : 1매

○ 재 질 : 絹本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宣祖 37(1604)년 10월

○ 發 給 者 : 國王(宣祖)

○ 受 給 者 : 洪可臣

○ 製 述 者 : 李愼(1559-1625)

○ 書 寫 者 : 李福長(1570-?)

○ 현 상 : 공신교서의 형태는 원래 끝에 축이 있어 말아서 보관하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된 권축장인데 이 교서는 어느 시기에 전·후반을 제거하고 상·하단을 잘라내어 본문만 액자에 넣어 후손들이 볼 수 있게 벽에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이 변형된 날장 형태이며, 다행히 뒷면 하단부에 있었던 교서를 짓고 쓴 ‘李愼製 李福長書’는 맨 끝 하단에 잘라서 붙여 놓았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 教書 全文 :

教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

臣書/

王若曰大勳出自儒者久切嘉尚之心懋賞合加功宗斯舉褒/
崇之典涓穀朝而展禮頒策命而揚休惟卿學問有源/
操履無玷文章本經術早稱泮宮英游直聲動朝端進/
陟烏府妙選多士倚元城爲領袖貴璫避淳夫之風稜/
莅百濟之故邦義烈表章於前哲守三輔之名郡遺愛/
顯刻於豐碑逮洪陽作牧之辰值域中多壘之日謂外/
攘必先內修故忠言迺進於藥石謂地理不如人和故仁政/
每軫于瘡痍人皆擬朝陽之鳳凰予則恃尹鐸之保障豈/
意門庭之有寇復見潢池之弄兵藉讖謠而橫行禍烈/
綠林之倡亂恣誘脅而屯結譎似白蓮之聚徒或稱僧俗/
將軍或作文武從事兇鋒猝陷於五邑虐焰殆遍於兩湖痛/
列郡無男兒守臣相繼而面縛徒擁兵若髻婦節使旁觀/
而色沮約日指京都孰遏熾張之勢揚兵逼巨鎮益肆割/
據之謀儻非城守之有人幾乎天討之無主躬田子版鍤/
勵守土有死之心手臧生鼓旗激遇難不避之節巡城則/
山川壯其氣勢誓衆則風雲助其聲威羽檄星馳收召/
同盟之士義旅雲集爭奮戮力之誠技雖窮公輸之九/
攻志益堅晉陽之三版若防制水四隣賴以爲安如虎在/
山一境恃之無恐漢家神箭知兇膽之自銷楚幕棲/
烏見游魂之已遁快施鯨鯢之戮坐致寰宇之清犯/
大義流毒黔黎雖重予之慙德剪兇渠迅掃氛祲實/
由乃之精忠苟非平昔所養之至剛曷能今日所立/
之甚偉是謂眞儒之無敵深喜茂烈之非常獨有/
顏眞卿玄宗發歎而增秩削平李師道行立受賞/
而進階況此盖世之元功允協敦封之異數肆策卿/
爲清難功臣一等圖形垂後超三階爵其父母妻子/
亦超三階無子則甥姪女婿超二階嫡長世襲不失其/
祿宥及永世仍賜伴佾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
一百五十結銀子十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
於戲紀成績于鍾鼎旣篤不忘之恩保令名於桑榆/
益勵匪躬之節故茲教想宜知悉/
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 崔 湖/
三等/
辛景行/ 林得義/
萬曆三十二年十月 日 [施命之寶]

○ 내용 및 특징

청난공신은 선조 때 李夢鶴(?~1596)의 난을 평정한 공신들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선조 25년(1596) 7월 戰亂 중 징병, 부역, 징발 등의 고통에 시달린 하층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사회경제적으로 피폐해가고, 민심도 흉흉해지자 불평불만에 가득 찬 민중을 선동하여 이몽학이 충청도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켜 林川, 定山, 靑陽, 大興을 잇달아 함락시키고 여세를 몰아 洪州城을 침범하자 홍주목사 洪可臣은 朴名賢, 林得義 등과 함께 이를 토벌하고 난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웠다. 1604년(선조 37) 10월에 청난공신을 녹훈하였는데 1등 공신은 홍가신, 2등 공신은 박명현, 최호, 3등 공신은 신경행, 임득의 등 모두 5인이다.

홍가신(1541~1615)은 조선 중기 문신·학자, 자는 興道, 호는 晩全堂·艮翁, 본관은 南陽. 閔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선조 4(1571)년에 康陵參奉이 되어 禮賓寺主簿·형조좌랑·지평을 거쳐 안산군수·수원부사·과주목사를 지냈다. 선조 29(1596)년에 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홍주목사로서 민병을 규합하여 武將 朴名賢·林得義 등과 함께 난을 평정하였다. 그 뒤로 강화부사·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개성부유수 등을 거쳐 선조 37(1604)년에 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淸難功臣 1등에 녹훈되고 광해군 초에 장례원정·한성부우윤 겸 지의금부사, 형조판서를 지냈다. 체계적인 학문 수업과,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고,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아산의 仁山書院과 온양의 靜退書院에 봉안되었다.

이 문서는 宣祖 37年(1604) 10월에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홍가신에게 청난공신 1등에 녹훈하고서 내린 교서이다.

淸難功臣敎書은 수급자, 功績內容, 特典과 褒賞, 等位別 功臣名單 그리고 發給日字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서 첫머리 ‘敎 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 正憲大夫 寧原君 洪可臣書’에 이어 공적에 대해서는 큰 공이 선비에게서 나왔으니 홍가신의 學識 및 文章力과 전략술, 충성심 등을 극찬하고, 공신의 特典과 褒賞으로는 圖像을 그려 後世에 길이 남기고, 본인과 父母·妻子를 3階級 올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 甥姪이나 女婿를 2계급 올려 주고, 嫡長이 世襲하여 그 祿을 잃지 않게 하며, 영원히 赦宥의 特典을 받으며 伴尙 10人, 奴婢 13口, 丘史 7名, 田 150結, 銀子 10兩, 表裏 1段, 內廐馬 1匹 등을 하사 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청난공신은 1등에 洪可臣, 2등에 朴名賢 崔

湖, 3等에 辛景行 林得義 등 총 5人이다. 그리고 끝 부분에 ‘萬曆三十二年十月 日’의 發給 年月日을 적고 그 위에 「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본 敎書의 製述者는 李愷(1559-1625)이며, 書寫者는 李福長(1570-?)이다.

청난공신의 책훈에 관한 내용은 『宣祖實錄』(宣祖 37年(1604) 10월29일 乙亥條)에 보이는데 ‘表裏 1段’이 추가된 것만 다르고 모두 일치한다.

청난공신은 임진왜란 평정에 큰 공을 세운 宣武功臣과 宣祖를 扈從한 扈聖功臣과 함께 宣祖 37年(1604)에 녹훈되어 등급 별로 같은 賞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청난공신교서는 청난공신의 대우와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인물, 공신교서의 양식과 문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학 및 고문서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청난공신 가운데 3등으로 녹훈된 신경행 청난공신교서는 보물 제1380호 辛景行 淸難功臣敎書 및 關聯文籍(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으로 지정되어 있다.

2. 洪可臣妻 李氏 告身敎旨

- 규 격 : 67.0×56.8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宣祖 35(1602)년 12월 26일
- 發 給 者 : 國王(宣祖)
- 受 給 者 : 洪可臣妻 李氏
- 현 상 : 상하단이 부분적인 손상으로 일부 결락된 부분이 있으나 원문 판독에는 지장이 없음. 구김이 있어 문서 끝은 말려져 있다.
- 敎旨全文 :
敎旨/ 李氏爲貞夫人者/
萬曆三十年十二月二十六日/ 嘉善大夫漢城府右尹洪可臣妻依法典從夫職
- 내용 및 특징 :
宣祖 35(1602)년 12월 26일에 홍가신이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에 임명되자 그의 처 이씨도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위에 따라 ‘貞夫人’으로 올려주었다. 이 교지는 그 때 받은 것이다. 발급일자 위에는 「施命之寶」(10.3×10.0cm)를 찍었다. 정부인은 정2품 또는 종2품의 文·武 官員 처에게 주던 外命婦 품계의 하나이다. 홍가신 부인은 載寧 李氏는 李衡의 따님이다.

3. 洪可臣妣 申氏 追贈教旨

- 규 격 : 70.0×52.5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관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宣祖 37(1604)년 11월 16일
- 發給者 : 國王(宣祖)
- 受給者 : 洪可臣妣 申氏
- 현 상 : 상하단부에 부분적인 훼손으로 일부 결락되었고 뒷면은 배접되어 있다.
- 教旨全文:

教旨/ 贈貞夫人申氏贈貞敬夫人/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
妣依承/傳追贈

- 내용 및 특징 :

宣祖 37(1604)년 11월 16일에 홍가신이 청난공신 정현대부 寧原君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되면서 어머니 신씨도 정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문서이다.
발급일자 위에는 「施命之寶」(10.0×10.0cm)를 찍었다.

어머니는 興陽申氏로 金堤郡守 允弼의 따님이다. 홍가신은 선조 22년(1589)에
生母 喪事를 당했다.

4. 洪可臣妣 成氏 追贈教旨

- 규 격 : 70.0×53.7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관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宣祖 37(1604)년 11월 16일
- 發給者 : 國王(宣祖)
- 受給者 : 洪可臣妣 成氏
- 현 상 : 하단부가 훼손되고 문서 후반부는 본문이 1행이 잘려서 결락되었다.

○ 教旨全文:

教旨/ 贈貞夫人成氏贈貞敬夫人/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妣
依承]/傳

○ 내용 및 특징

宣祖 37(1604)년 11월 16일에 홍가신이 청난공신 정현대부 寧原君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되면서 어머니 성씨도 정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문서이다.
발급일자 위에는 「施命之寶」(10.0×10.0cm)를 찍었다.

5. 洪可臣 贈諡教旨

○ 규 격 : 70.0×107.0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관 중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숙종 33(1707) 12월

○ 發 給 者 : 國王(宣祖)

○ 受 給 者 : 洪可臣

○ 현 상 : 上·下段과 끝부분에 一部缺落이 있으며 뒷면은 배접되어 있다.

○ 教旨全文:

內容: 教旨/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行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
衛都/摠府都摠管寧原君致仕/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
事/監春秋館事世子傅寧原/府院君洪可臣贈諡文莊/公者/ 康熙四十六年十
二月 日

○ 내용 및 특징

숙종 33(1707) 12월에 홍가신에게 文莊公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는 교
지이다. 文莊에 대한 諡註는 ‘勤學好問曰文’ ‘履正志和曰莊’ 이다. 학문을 권하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文’ 이라 하고 바른 길을 행하며 화한 것을 뜻하는 것을
‘莊’ 이라 한다.

『肅宗實錄』 숙종 19년(1693) 1월 2일 병오조에 “판서 홍가신의 시호를 文莊으
로 내려주고”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문서는 14년 후인 숙종 33(1707)년의 문
서이다. 또한 발급일자에 보이는 「施命之寶」가 없다.

문서에 도장이 없는 것은 시행되지 않는 副本이기 때문에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장이 없는 문서는 지정된 예가 없다.

6. 洪可臣 追贈教旨

- 규 격 : 70.3×66.3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光海君 7(1615)년 7월 24일
- 發 給 者 : 國王(宣祖)
- 受 給 者 : 洪可臣
- 현 상 : 하단부에 一部 缺落이 있으며, 배접되었다.
- 教旨全文:

教旨/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寧原君致仕洪可臣贈大匡輔國崇祿大
/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寧原府院君者/ 萬曆四十三年七月二十四日/ 親功臣追贈事

○ 내용 및 특징

光海君 7(1615)년 7월 24일에 분충출기합모적의 청난공신 승정대부 영원군 홍가신을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세자부 영원부원군으로 추증하는 문서이다.

발급일자 위에는 「施命之寶」(10.4×10.0cm)를 찍었다.

7. 洪晙 追贈教旨

- 규 격 : 70.0×52.5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宣祖 35(1602)년 12월 26일
- 發 給 者 : 國王(宣祖)
- 受 給 者 : 洪晙(1521~1579)
- 현 상 : 하단부와 문서 끝이 손상으로 인하여 결락되어 배접을 하였다. ○
- 教旨全文:

教旨/ 奉直郎行掌苑署掌苑/洪晙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者/萬曆

三十年二月二十六日/

嘉善大夫漢城府右尹洪可臣考依大典追贈

○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宣祖 35(1602)년 12월 26일에 봉직량 행 장원서 장원 홍운을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로 추증하는 교지이다. 홍가신이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에 임명되자 그의 아버지 홍운도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추증되었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10.0×10.0cm)를 찍었다.

8. 洪昱 贈職教旨

○ 규 격 : 70.0×54.8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宣祖 37(1604)년 9월 14일

○ 發給者 : 國王(宣祖)

○ 受給者 : 洪昱

○ 현 상 : 하단부에 손상이 있으며 훼손으로 인하여 글자가 일부 결락되었고 뒷면 전체는 배접되었다.

○ 教旨全文:

教旨/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洪昱贈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者/ 萬曆三十二年九月十四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考依大典追贈

○ 내용 및 특징

宣祖 37(1604)년 9월 14일에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증직되었던 홍운을 다시 정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증직하는 교지이다. 당시 홍가신이 청난공신 정헌대부 영원군으로 책봉됨에 따라 그의 아버지에게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이 교지가 발급되었다. 발급일자 위에는 「施命之寶」(10.0×10.0cm)를 찍었다.

9. 洪昱 贈職教旨

○ 규 격 : 70.0×59.0cm.

○ 수 량 : 1매

- 재 질 : 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朝鮮 宣祖 37(1604)년 11월 16일
- 發 給 者 : 國王(宣祖)
- 受 給 者 : 洪晙(1521~1579)
- 현 상 : 하단부에 손상이 있으며 훼손으로 인하여 글자가 일부 결락되었고 뒷면은 배접을 하였다
- 教旨全文 :
 教旨/贈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洪晙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益寧府院君者/ 萬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洪可臣考[依承]傳追贈
- 내용 및 특징 :
 宣祖 37(1604)년 11월 16일에 正憲大夫 吏曹判書 兼知義禁府事に 증직되었던 홍운을 다시 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 觀象監事 益寧府院君으로 贈職한 교지이다. 홍가신이 청난공신 정헌대부 영원군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됨에 따라 그의 아버지도 추증한 것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10.0×10.2cm)를 찍었다.
- 기타
 南陽洪氏 文壯公派 宗中에 전존하는 고문서는 家傳문서로서 현재 忠淸南道 牙山市 鹽峙邑 大洞里 山1의 洪可臣紀念館 수장고에 保管·管理되고 있다.

<문헌자료> 「」

- 忠淸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洪可臣先生教旨 寶物指定申請書(성봉현·이해준 교수 의 洪可臣家 古文書 文化財指定 調査 意見書)」, 2012.
- 晚全堂 洪可臣紀念館 編, 『亂中에 亂을 평정한 晚全堂 洪可臣』, 牙山 : 晚全堂 洪可臣紀念館, 2009.
- 晚全堂 洪可臣先生文集 復刊委員會 編, 『晚全堂 洪可臣先生 文集』, 牙山 : 南陽 洪氏 대곡종중 復刊委員會, 2006.
- 朴乙洙, 『晚全堂 洪可臣 研究』, 牙山 : 韓國藝總牙山支部, 2006.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 2012,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9.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1380호 <辛景行淸難功臣敎書 및 關聯文籍>. (靈山辛氏忠翼公派宗中, 2003. 08. 21)

6. 묘법연화경 권3~4, 5~7
(妙法蓮華經 卷三~四, 五~七)

가. 검토사항

‘묘법연화경 권3~4, 5~7’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3.8.29)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권3~4, 5~7
(妙法蓮華經 卷三~四, 五~七)
- 소유자 : 보문사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보문동3가)
- 수 량 : 5권 2책
- 규 격 : 전체 34.3×21.8cm, 반곽 23.5×15.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
- 제작연대 : 1470년(성종 원년)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版本으로 佛經·佛敎學 研究와 書誌學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術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며, 조사본 「妙法蓮華經」과 同一한 版本이 이미 寶物 第1147-2號(卷1-2, 天藏寺 所藏, 修德寺聖寶博物館 寄託)와 寶物 第1147-1號(卷3-4, 5-7, 아단문고 所藏)의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어 조사본 「妙法蓮華經」도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조사본 「妙法蓮華經」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 城北區 普門寺길 20의 普門寺는 한때 菩薩像과 함께 조사본 「妙法蓮華經」을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前例가 있을 뿐 아니라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되지 않은 寺刹인 만큼,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완벽한 保存과 管理을 위하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機關으로의 寄託을 통하여 守藏·管理되었으면 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선전기에 왕실에서 주도하여 간행한 불경이다. 김수온의 발문에 간행 시기와 연유가 분명하게 남아 있고, 보존상태도 원래의 표지만 결락되었을 뿐 온전하다. 또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등 일류 각수들이 참여함으로써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출하여 먹색이 진하고 고르다. 한 책(권5~7)의 서배(書背)에는 비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비단 표지의 포배장 형태의 장정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동일한 판본 중에는 아단문고 소장의 보물 제1147호가 1470년의 초인본으로 보인다. 보문사 소장의 이 판본은 글자의 깨짐과 계선의 마멸상태로 보아 초인본은 아니고, 성종연간(1470~1494)에 간행된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일한 판본으로는 보존상태가 온전하고, 인쇄상태와 지질도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이 『묘법연화경』은 성종 1년(1470) 4월에 세조비 貞熹大王大妃가 世祖, 睿宗, 懿敬王[德宗]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대 일류 각수가 참여하여 판각하였기 때문에 우아하고 정교하다. 난외의 각수명은 간본 연대 추정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며, 金守濫 跋文은 간행동기 및 판각시기가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왕실 판본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조 왕실에서 이루어진 판각 중 정성을 기울인 판본 중의 하나로 자획 하나 하나가 뚜렷하며 판 전체가 균형있고 먹색도 진하고 인쇄도 깨끗하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보물 제1164호와 동일한 판본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비 고 : 표지결실(서배면 비단 잔존)
- 참고사항 : 지정본 : 보물 제1147-2호(권1-2). (天藏寺 所藏, 修德寺 聖寶博物館 寄託), 보물 제1147-1호(권3-4, 5-7)(雅丹文庫 所藏)

○ 현 상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서울시 城北區 普門寺길 20의 普門寺에 의하여 所藏·保管·維持·管理되고 있으며, 한때 普門寺의 菩薩像과 함께 도난을 당하였으나 후에 되찾은 典籍文化財이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保存狀態는 表紙의 缺失을 제외하면 매우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되지 않은 普門寺에 의해 守藏·管理되고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姚秦, 344-413)이 漢譯한 7卷 28品の 佛教經典으로 ‘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예로부터 모든 經典 중의 經典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초기 大乘經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佛教經典이다. 「妙法蓮華經」은 天台宗의 根本經典으로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佛教專門講院의 隨意科目으로 채택되었으며, 「華嚴經」과 함께 韓國 佛教思想을 확립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經典

이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妙法蓮華經」의 대부분은 姚秦의 鳩摩羅什(344-413)이 漢譯한 譯本에 宋朝의 戒環(?-?)이 宋 欽宗(靖康 1, 高麗 仁宗 4, 1126)년에 註解한 7卷本이며, 戒環(?-?)의 註解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그 내용이 韓國佛敎의 흐름과 일치하고 文章이 簡潔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木板으로 刊行된 가장 오래된 「妙法蓮華經」은 全羅南道 靈光의 佛岬寺 冥府殿의 十王像에서 卷3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략 150여종의 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板本の 系統은 參與 主體나 刊行 手段에 따라 크게 成達生版本系와 甲寅字版本系, 乙亥字版本系, 貞熹王后版本系, 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진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鳩摩羅什의 漢譯本을 成宗 元(1470)년에 세조의 왕비인 貞熹王后(1418-1483)가 세상을 떠난 世祖와 아들 睿宗·懿敬王(후에 德宗으로 追尊)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刊行한 이른바 貞熹王后版本의 初印으로 추정된다. 調査本 「妙法蓮華經」은 全7卷 중 卷3-4, 5-7의 5권 2책본으로 卷頭題와 卷末題는 ‘妙法蓮華經’이며 版心題는 ‘法華經’이다.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은 세로 23.5cm 가로 15.9cm이며, 本文은 界線이 있는 8行 13字이다. 板心에는 上下大黑口와 上下內向黑魚尾가 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34.3cm 가로 21.8cm로 대형본이다. 本文에는 작은 白圓의 句讀點이 있으며, 紙質은 上품의 印經紙이고 전후의 表紙는 결락된 채 假裝形態로 남아 있다. 원래의 장정은 包背裝이었던 듯 書背를 包背하였던 絹織物이 그대로 殘存하고 있다. 당시 유통된 「妙法蓮華經」은 戒環의 註解가 붙은 板本이 대부분이었으나,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板本은 薦度儀式을 위한 讀誦用으로 제작하여 鳩摩羅什이 漢譯한 原文만 板刻하고 읽기 편하도록 작은 白圓의 句讀點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각 張의 오른쪽 아래에 權頓一·高末終·張莫同·李永山 등 刻手의 이름이 있어 여러 사람이 번갈아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刻手들은 모두 당대 一流의 刻手로서 매우 精巧한 새김으로 板刻의 完成度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印出의 墨色도 매우 선명하다.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術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 卷7의 末尾에는 成化 6(1470, 甲寅, 成宗 1)년에 쓴 金守溫(1410-1481)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어 刊行의 動機와 時期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國家的으로는 佛敎를 배척하고 儒學를 숭상하는 政策을 표방하였으나 王室 內部에서는 오히려 佛敎를 信仰하였던 일단을 엿 볼 수 있다. 조사본 「妙法蓮華經」은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版本이며, 佛敎學 및 佛經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術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본 「妙法蓮華經」과 동일한 版本이 이미 寶物 第1147-2號(卷1-2, 天藏寺 所藏, 修德寺 聖寶博物館 寄託)와 寶物 第1147-1號(卷3-4, 5-7, 雅丹文庫 所藏)의 國家文化財로 指定되어 있어, 조사본 「妙法蓮華經」도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조사본 「妙法蓮華經」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 城北區 普門寺길 20의 普門寺는 한때 菩薩像과 함께 조사본 「妙法蓮華經」을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前例가 있을 뿐 아니라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되지 않은 寺刹인 만큼, 조사본 「妙法蓮華經」의 완벽한 保存과 管理을 위하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機關으로의 寄託을 통하여 守藏·管理되었으면 한다.

<문헌자료>

鳩摩羅什譯, 『妙法蓮華經』 卷3-4, 5-7, 木版本. [漢城] : [發行者不明], [成宗 1(1470)]. 普門寺 調査本.

鳩摩羅什譯, 『妙法蓮華經』 卷1-2, 木版本, [漢城] : [發行者不明], [成宗 1(1470)]. 天藏寺 所藏本(修德寺聖寶博物館). 寶物 第1147-2號.

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 卷3-4, 5-7, 木版本, [漢城] : [發行者不明], [成宗 1(1470)]. 아단문고 所藏本. 寶物 第1147-1號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이 『묘법연화경』은 2011년 3월에 도난당했다가 회수된 보문사 대웅전 목조 불상의 복장유물 중의 하나이다. 원문만 수록된 『묘법연화경』으로 1470년(성종 1)에 판각된 목판의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전 7권 중에서 권3~4, 권5~7의 5권2책이며, 반엽은 8행13자, 크기는 35.6×21.6cm이다. 앞뒤표지는 결락되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다.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경전의 하나로 보통 『법화경』이라고 한다. 구마라집(344~413)이 406년에 한역한 경전이 많이 간행 유통되었고, 송나라의 계환이 주해한 7권본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되었다. 전 7권중 권3에는 약초유품·수기품·화성유품, 권4에는 오백제자수기품·수학무학인기품·법사품·견보탑품·제바달다품·권지품, 권5에는 안락행품·종지용출품·여래수량품·분별공덕품, 권6에는 수희공덕품·법사공덕품·상불경보살품·여래신력품·약왕보살본사품, 권7에는 묘음보살품·관세음보살보문품·다라니품·묘장엄왕본사품·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있다. 권7이 끝난 뒤에 있는 김수온(1410~1481)의 발문에 따르면, 이 책은 정희대왕대비가 세종, 예종,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화 6년(1470, 성종 1)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동일한 판본 여러 종이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곧 보물 제936호(1482년의 후인본인 권6~7의 1책, 복본), 제950호(1488년 7월의 후인본인 권5~7의 1책), 제1147호(1470년의 초인본인 권3~4, 5~7의 5권2책), 제1164호(성종연간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권3~4의 1책), 제1240호(초인본으로 추정되는 권3~4의 1책) 등이다. 이 책은 아단문고 소장의 보물 제1147호와 권책수는 5권2책으로 동일하다. 다만 글자의 깨짐과 계선의 마멸상태로 보아 아단문고 소장본과 같이 1470년의 초인본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물 제1164호와 같이 성종연간의 후인본으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문헌자료>

정왕근,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 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http://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전 7권 중에서 권3~4, 권5~7의 5권2책이다. 불복장 납입시에 앞·뒤표지를 떼었기 때문에 가철 형태로 되어 있다. 권5~7은 책배에 쪽빛색의 비단이 남아 있어 비단표지의 포배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서지사항:

묘법연화경 권3~4, 5~7(妙法蓮華經 卷三~四, 五~七)/ 鳩摩羅什(後秦) 譯.

木版本. [성종연간(1470~1494)]

5卷2冊(권3~4, 5~7). 四周雙邊, 半郭 23.5×15.9cm, 有界, 半葉 8行13字, 大黑 口, 上下內向黑魚尾, 34.7×21.7cm. 楮紙. 線裝本.

卷首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華經

跋 文: 成化六年(1470)夏 四月有日我/太王大妃殿下傳旨于臣若曰經/所以載法經之行即法輪之/行而續/佛慧命於無窮也惟法華一經我/佛極唱大乘 法文無尚於此今爲/世祖大王/睿宗大王/懿敬王超生極樂證大涅槃之願 /楷寫是經鉅梓已訖爾.....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知事臣金守溫 奉教謹誌

○ 내용 및 특징

『妙法蓮華經』은 천태종의 所衣 경전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의 하나이다. 『法華經』이라고 略稱되며, 『華嚴經』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鳩摩羅什(344~413)이 406년에 번역한 漢譯本과 송나라의 계환이 註解한 註解本 全 7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이 『妙法蓮華經』은 전 7권 중에서 권3~4, 권5~7의 5권2책이며, 零本이다. 권7 말에 있는 金守溫(1410~1481)의 발문에 의거하면 成宗 元年(1470) 4월에 世祖妃인 貞熹大王大妃 尹氏가 世祖, 睿宗, 懿敬王[德宗]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하였는데 당대 일류 각수가 참여하여 판각하였기 때문에 정교하다.

각 권차 권수제에 이어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의 譯者 표시가 있고, 『法華經』 전 28품가운데 5~28품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반엽 8행 13자의 大字本으로 변란 欄外 하단에는 洪改未致, 張莫同, 崔今同, 崔得山, 李永山, 朴仲連, 朴君實, 高末終, 權頓一, 禹仁守, 등 15세기 중엽의 유명한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본문에는 계환의 주해가 있지 않고 등근 표점이 있어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이와 동일한 판본 8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번호	권책수	소 장 처	간행년도	지정일
1	보물 제936-1호	2권1책 (권6~7)	이건희	1482년(성종 13) 姜希孟 跋文	1987.12
2	보물 제936-2호	2권1책 (권6~7)	이건희	1482년(성종 13) 姜希孟 跋文	1987.12
3	보물 제950호	3권1책 (권5~7)	국립중앙박물관	1488년(성종 19) 乙亥字 跋文	1988.06
4	보물 제959-4-9호	3권1책 (권5~7)	경주 기림사 소조비 로자나불 복장전적	1474년(성종 5) 墨書 跋	1988.11
5	보물 제1147-1호	5권2책 (권3~7)	아단문고	1470년(성종 1) 김수온 발문	1993.01
6	보물 제1147-2호	2권1책 (권1~2)	천장사 (수덕사성보박물관)	1470년(성종 1)	2008.03
7	보물 제1164호	2권1책 (권3~4)	구인사	성 종 년 간 (1470~1494)	1993.06
8	보물 제1240호	2권1책 (권3~4)	통도사	1470년(성종 1)	1996.04

이 책은 보물 제1471-1호와 비교해보면 권3~7의 권책수와 동일하나 광곽 및 글자

의 깨짐과 계선이 끊어진 상태로 보아 인출시기는 성종 1년(1470)의 초인본은 아니고 성종연간(1470~1494)의 후인본에 해당하는 보물 제1164호와 동일본으로 판단된다.

貞熹大王大妃가 주관하여 대자본으로 판각 후 성종 1년(1470) 초인본이후 왕실에서는 성종 13년, 19년, 25년이전에 후인본으로 인출되었고 그 후 중종조부터 숙종조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사찰에서 번각되어 유통되었다.

○ 기타

이 『묘법연화경』 권3~4, 5~7의 5권2책은 서울 성북구 보문사 대웅전 목조보살좌상에 복장되었던 복장품으로서 2011년 3월에 도난당했다가 회수된 경전이다.

<문헌자료>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87,88,93,96지정편)』, 서울, 계문사, 1988, 1889, 1994, 1997.

천혜봉, 「목판본 -국왕 및 왕실판본 -」,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9.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http://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7. 이천 영원사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利川 靈源寺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가. 검토사항

‘이천 영원사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3.8.28)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천 영원사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利川 靈源寺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 소유자(관리자) : 영원사(용주사 효행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저로869번길 309-2
- 수 량 : 1점
- 규 격 : 22.4×38.2cm, 두께 0.08cm
- 재 질 : 동(銅)
- 제작연대 : 855년(신라 문성왕 17)
- 제작자 : 金立之 撰
- 명문 및 특기사항

■ 정면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翰林郎新授秋城郡太守臣金立之奉教撰」聞經之言有爲功德厥數萬端而利物」無邊者莫若崇建塔廟伏以」國王曆劫修善位冠人天而愍有情之」沈浮苦海環廻六途將設拯濟之門」導引淨域者無越於建立無垢淨塔」於是竭罄至誠誓渡含靈爰選海內」之匠以採他山之石雕鐫累塔藏諸」舍利恭願此功德廣越天溥高躋」有頂利彼蠢動含靈復願」國王永主人天會其報盡之日捨粟」散之名齊於无上之位」維唐大中九年歲在乙亥夏首閏月日建」

[해제] 국왕 경응(慶膺)이 무구정탑을 만들고 발원하는 글.

한림랑(翰林郎)으로서 새로이 추성군(秋城郡) 태수(太守)를 제수받은 김립지(金立之)가 국왕의 명을 받아 지음.

듣건대 경전에서 말하기를 공덕을 짓는 데에는 만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만물에 무한한 이로움을 주는 것은 탑을 짓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옅드려 생각컨대 국왕께서는 여러 겁(劫) 동안 선행(善行)을 행하셔서 지위가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서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제 또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고힘(苦海)에 떠다니면서 육도(六途)에 순환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장차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어 부처의 정토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구정탑(無垢淨塔)을 건립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을 서원하시고서 전국의 장인(匠人)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고, 여러 산의 좋은 돌을 골라 캐어서 여러 층의 탑을 만들고 사리를 그 안에 봉안하였습니다. 공손히 바라건대 이 공덕이 멀리는 하늘이 끝나는 저편 너머까지, 위로는 높고 높은 곳 너머까지 미쳐서 저 꿈틀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왕께서는 영원히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업보가 다하여 돌아가시는 날을 당하셔서 곡식을 나누어 (보시한)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당(唐) 대중(大中) 9년, 을해(乙亥)년 윤(閏) 4월일에 세움.

■ 배면

奉教宣修造塔使從弟舍知行熊州祁梁縣令金銳」都監修造大德判政法事啓玄」檢校修造僧前奉德寺上座清玄」專知修造僧康州咸安郡統教章」同監修造使從叔行武州長史金繼宗」同監修造使從叔新受康州泗水縣令金勳榮」檢校使阿干前執事侍郎金元弼」檢校副使守溟州別駕金嶷寧」專知修造官洗宅大奈末行西林郡太守金梁博」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奇言」勾當修造官前倉

府史金朴基

[해제] 왕명을 받은 수조탑사(修造塔使)는 (국왕의) 종제(從弟)이며 사지(舍知)로써 웅주(熊州) 기량현령(祁梁縣令)인 김예(金銳).

도감(都監) 수조 대덕(修造 大德)은 판정법사(判政法事)인 계현(啓玄).

검교(檢校) 수조 승(修造 僧)은 전봉덕사(前奉德寺) 상좌(上座)인 청현(淸玄).

혜지(專知) 수조 승(修造 僧)은 강주(康州) 함안군(咸安郡)의 군통(郡統)인 교장(敎章).

동(同) 감수조사(監修造使)는 (국왕의) 종숙(從叔)이며 武州長史인 金繼宗.

동(同) 감수조사(監修造使)는 (국왕의) 종숙(從叔)이며 새로 강주(康州) 사수현령(泗水縣令)을 제수받은 김훈영(金勳榮).

검교사(檢校使)는 아간(阿干)으로서 전임(前任) 집사시랑(執事侍郎)인 김원필(金元弼).

검교부사(檢校副使)는 명주(溟州) 별가(別駕)인 김의령(金嶷 寧).

혜지(專知) 수조관(修造官)은 세택(洗宅) 대나마(大奈末)로써 서림군(西林郡) 태수(太守)인 김양박(金梁博).

구당(勾當) 수조관(修造官)은 전임(前任) 창부사(倉府史)인 김기언(金奇言).

구당(勾當) 수조관(修造官)은 전임(前任) 창부사(倉府史)인 김박기(金朴基).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시도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이 탑원기는 이미 발견된 염거화상 탑지나 황룡사 찰주본기기가 아직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점과 비교하여 우선 지방 문화재로 권고함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미 탑원기에 관련된 조사 보고서와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비슷한 내용의 통일신라 금속제 명문판을 함께 조사한 후 이들과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發願者와 記文의 撰述者가 명확하고 刻法이 당시의 典型이던 雙鉤法인 점 그리고 秋史 金正喜가 模寫한 底本의 實物

이라는 점 등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評價된다. 그러나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靈源寺 所藏)와 거의 비슷한 時期에 제작된 <廉巨和尚塔誌(844)>(國立春川博物館 所藏), <刹柱本記(872)>(國立慶州博物館 所藏), <仲和三年銘舍利器(883)>(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研究를 실시하여 그 結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함께 指定하는 方案을 勸告하고자 한다.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국왕 경응이 만든 무구정탑에 발원 하는 글(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을 새긴 이 금도금 동판은 상구한 세월을 견디고 존재하고 있는 것만도 특기 할만 한 일일 뿐 아니라 그 희소성을 더욱 귀중한 가치로써 크게 부각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서예의 측면에서 볼 때 9세기 당시의 서풍을 가늠할 수 있는 서예사적 가치는 물론 쌍구(雙鉤)의 방법으로 표현해낸 독특한 기록양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를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탑원기 동판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함량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앞뒀면 모두 얇은 도금층이 탈락되어 부분적으로 흑색의 부식 피막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 표면 소지층은 순동에 가까운 화학 조성이며 이 위에 아말감 도금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육안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관찰한 결과, 출토 후 표면의 파티나 녹층을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제거할 시 발생된 표면 마찰상이 확인된다. 이후 재부식이 발생되어 흑색의 산화동 형태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과학적 보존처리(녹의 안정화, 표면 세정, 수지 경화 등)가 필요하며 적정 온·습도 등의 보존 관리가 요구된다. 동 문화재는 향후 불교 공예 연구에 귀중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개최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는 경기도 수원의 용주사(龍珠寺) 말사인 이천 영원사(靈源寺)에서 1968년 대웅전을 해체하던 중 기단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이후 사찰에서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2011년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기탁되어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세로 22.4cm×가로 38.2cm의 판형에, 앞뒷면에 탑을 건립하게 된 배경과 발원 내용, 조탑(造塔)에 관여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쌍구체의 유려한 글씨로 음각되었다.

원래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는 통일신라 46대 문성왕(재위 839~857)이 대중(大中) 3년(855)에 탑을 세우면서 납입한 금동판 형태의 발원문이다. ‘경응’은 문성왕의 휘(諱)이며 ‘무구정(無垢淨)’은 통일신라시대에 탑을 건립하는데 신앙적 근거가 되었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의미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의 성분은 순동(Cu), 금(Au), 수은(Hg) 등이 검출되었으며 아말감수은기법에 의해 도금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전면에는 많은 스크래치 자국이 있고 일부는 전체 상태가 매우 새것처럼 닳여있어 발견 당시 녹이 덮혀있던 것을 발견자가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 금속 성분 등으로 벗겨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손상이 없으며 대부분의 문자가 잘 판독된다.

제작방법은 우선 동판을 주조한 뒤 매끈하게 다듬고 도금을 하였으며 그 위에 글의 정확한 배열을 위해 줄 칸을 친 다음 이 위에 작은 정으로 조금씩 글을 새기는 축조蹴彫 방식으로 음각하였다, 이처럼 줄을 쳐 구획을 둔 뒤 글을 새기는 방식은 왕궁리출토 은제도금 금강경판이나 민애대왕 석탑기(863) 에서도 볼 수 있고 염거화상 탑지에서도 사용된 방법이다. 또한 이곳에 사용된 글자의 새김 기법 역시 글자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쌍구법(雙鉤法) 으로서 <염거화상탑지>(844년), <황룡사구층목탑 찰주본기>(872년), <중화3년명 경통>(883년) 등 통일신라 금속판 등에 동판에 글씨를 새길 때 자주 사용된 당시의 각명 기법 가운데 하나로서 글 획의 힘찬 동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쌍구체의 각법은 당시 획을 어느 순서로 만들어 갔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글씨체를 살펴보면 탑원기와 김정희의 모사본으로 전해지는 이 자간(字間), 결구(結構) 등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탑원기에서 보이는 필획이 보다 더 정밀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결구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내용

원래의 <탑원기>는 1824년에 석공石工이 경주 남산 창림사 삼층석탑을 도괴할 때 무구정광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된 것이다. 당시 금석학에 조예가 깊던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이를 모사해 두었고 그 모사본이 『慶州南山の佛蹟』(1940년)에 수록되어 세상에 전하고 있었으나 원래 탑원기의 행방을 알 수 없던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탑원기가 김정희의 모사본으로만 전하는 것과 내용, 체제, 서체 등이 모두 동일한 점에서 당시 사라진 탑원기로 추정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황 판단에는 영원사가 안동 김씨의 원찰(願刹)로, 1827년에는 김조순(金祖淳)의 시주로 중건되고 이 시기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은 김정희와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점을 통해 1824년 창림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무구정탑원기는 김정희를 통해 김조순 일가로 들어갔으며 그것이 1825년 영원사가 중창할 때 대응전의 진단구(鎭壇具)로 기단에 매납(埋納)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황상에 불과한 것이지 발견 당시의 사진이나 정확한 조사기록이 없어 현재의 발견 탑원기는 결국 그 출토 상황에 대해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다만 금속판의 성분과 글자의 각명 방법, 글자체 등이 당시에 제작된 통일신라 9세기의 금속 명문판 들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글씨의 획 필체 등에서 결코 현대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많은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탑원기는 현재까지 근래의 위작이나 모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탑원기 원판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명문판이란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

○ 현 상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京畿道 利川市 栢沙面 松末里 436번지의 靈源寺의 소유이며, 현재 소유자의 기탁으로 京畿道 華城市 松山洞 168번지의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하여 所藏·保管·維持·管理되고 있는 工藝文化財이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의 保存狀態는 初期의 녹을 벗겨낼 때의 굵직한 연한 흔적을 제외하면 매우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되어 있는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해 守藏·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新羅國王 慶膺(文聖王, 在位 839-857)이 「無垢淨光大多羅尼經」의 내용에 따라 無垢淨塔을 造成할 것을 發願하는 記文을 글자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雙鉤法으로 새긴 銅版으로, 이러한 刻法은 興法寺 <廉巨和尚塔誌(844)>를 비롯하여 皇龍寺 <刹柱本記(872)>와 <仲和三年銘舍利器(883)> 등 통일신라시대에 銅版에다 글씨를 새길 때 즐겨 사용하던 類型이다. 記文은 새로 秋城郡太守에 제수된 翰林郎 金立之(?-?)가 王命을 받아 唐朝 大中 9(乙亥, 855, 文聖王 17)년 무렵에 撰述한 것이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의 전면에는 “聞經之言有爲功德厥數萬端而利物/ 無邊者莫若崇建塔廟伏以/ 國王曆劫修善位冠人天而愍有情之/ 沈浮苦海環廻六途將設拯濟之門/ 導引淨域者無越於建立无垢淨塔/ 於是竭罄至誠誓渡含靈爰選海內/ 之匠以採他山之石雕鐫累塔藏諸/ 舍利恭願此功德廣越天濶高躡/ 有頂利彼蠢動含靈復願/ 國王永主人天會其報盡之日捨粟/ 散之名齊於无上之位/ 維唐大中九年歲在乙亥夏首閏月日建”의 無垢淨塔을 造成하는 動機와 功德 등이 자세히 敍述되어 있으며, 後面에는 王명을 받아 無垢淨塔을 造成하는데 참여한 “奉敎宣修造塔使從弟舍知行熊州祁梁縣令金銳/ 都監修造大德判政法事啓玄/ 檢校修造僧前奉德寺上座清玄/ 專知修造僧康州咸安郡統敎章/ 同監修造使從叔行武州長史金繼宗/ 同監修造使從叔新受康州泗水縣令金勳榮/ 檢校使阿干前執事侍郎金元弼/ 檢校副使守溟州別駕金嶷寧/ 專知修造官洗宅大奈末行西林郡太守金梁博/ 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奇言/ 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朴基” 등 11인의 職銜과 姓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이는 신라 제46대 文聖王이 그의 17(855)년에 지금의 慶州 南山의 昌林寺에 三層石塔을 建立하면서 그 造成의 來歷을 봉안한 發願文의 銅版으로 세로 22.4cm, 가로 38.2cm, 두께 0.08cm의 純銅에 鍍金한 版形이며, 금속성분의 분석결과 순동(Cu), 금(Au), 수은(Hg) 등이 검출됨으로써 아말감수은기법으로 동판에 금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순조 24(1824)년에 昌林寺에 三層石塔에서 「無垢淨光大多羅尼經」과 함께 발견되어, 당시 金石學의 大家인 秋史 金正喜(1786-1856)에 의하여 模寫本이 제작된 底本의 實物이다. 秋史의 模寫本은 朝鮮總督府가 慶州 南山 일대의 佛蹟을 조사·정리한 「慶州南山の佛蹟」(1940)에 수록되어 세상에 알려졌으나 底本인 實物의 傳存與否는 不明하였다. 그러나 龍珠寺의 末寺인 靈源寺에서 1968년에 大雄殿을 解體하다가 基壇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이후 줄곧 靈源寺에 秘藏되다가 2011년에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기탁되었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秋史의 模寫本과 內容이나 體制 및 書體 등이 모두 동일한 靈源寺 所藏品이다. 靈源寺는 조선시대 후기의 名門巨族인 安東金氏의 願刹로 1827년 金祖淳(1765-1832)이 시주함으로써 重創되었으며, 김조

순의 아들 金迪根(1785-1840)이 秋史와 石交에 비유될 정도로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점에서 1824년 昌林寺 三層石塔에서 출토된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秋史를 통하여 金祖淳 일가로 들어갔다가 靈源寺를 重創될 때 大雄殿 基壇에 埋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發願者와 記文의 撰述者가 명확하고 刻法이 당시의 典型이던 雙鉤法인 점 그리고 秋史 金正喜가 模寫한 底本의 實物이라는 점 등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評價된다. 그러나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靈源寺 所藏)와 거의 비슷한 時期에 제작된 <廉巨和尚塔誌(844)>(國立春川博物館 所藏), <刹柱本記(872)>(國立慶州博物館 所藏), <仲和三年銘舍利器(883)>(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研究를 실시하여 그 結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함께 指定하는 方案을 勸告하고자 한다.

<문헌자료>

金立之撰,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銅版, [慶州] : [慶膺(文聖王)], 文聖王 17(855) 製作. 靈源寺 所藏(龍珠寺 孝行博物館 受託).

□ 문화재위원

○ 현 상

바탕은 22.4×38.2cm 크기 0.08cm 두께의 동판이다. 여기에 도금한 후 雙鉤의 형식을 쫓아 내용을 정밀하게 새긴 것이다. 과거 어느 스님이 쌍구의 필선에 생겨진 古蒼의 청녹을 닦아 내었다고 전해지며 그 흔적이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다소의 흠이라고는 하겠다. 그러나 그 가치의 대체를 손상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내용 및 특징

전면에는 조탑의 경위와 發願의 事實을, 배면에는 조탑에 관련한 官人들의 직책과 성명을 새겼다.

글씨를 볼 때에 隋唐의 楷書風에 근거한 통일신라시대의 서풍으로서 이는 그 이후 고려중기 이후나 조선시대 전반에 유행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필치이다.

쌍구 필선의 특징은 글씨를 쓴 필획의 순서대로 새겼으며 그 동시대에 만들어진 「중화3년사리기」, 「염거화상탑지」, 「황룡사찰주본기」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모사본과 짧은 記文이 남아있는 점이 방증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 영천시 八公山에 소재한 은해사의 「銀海寺」 현판이 이 탐기를 새긴 형식을 쫓아 시도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일련의 정황을 가히 짐작케 한다.



참고자료 - 은해사 현판

○ 기타

추사의 짧은 記文에 보면 갑신년 봄에 석공이 경주창림사탑을 헐었을 때에 얻었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의 전래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자에 이천 영원사에 보관되어 오던 것을 용주사의 無門禪師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기탁하도록 했다는 정도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앞뒀면 모두 얇은 도금층이 탈락되어 부분적으로 흑색의 부식 피막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 표면 소지층은 순동에 가까운 화학 조성이며 이 위에 아말감 도금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육안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관찰한 결과, 출토 후 표면의 파티나 녹층을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제거할 시 발생된 표면 마찰상이 확인된다. 이후 재부식이 발생되어 흑색의 산화동 형태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과학적 보존처리(녹의 안정화, 표면 세정, 수지 경화 등)가 필요하며 적정 온·습도 등의 보존 관리가 요구된다. 동 문화재는 향후 불교 공예 연구에 귀중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보고 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동산 2013-05-014

1. ‘증도가자(證道歌字)’ 국가문화재 지정 관련 향후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증도가자’ 국가문화재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나. 대상문화재 개요

- 명칭/수량
 - 증도가자/ 101점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소재 : 이정애/서울 종로구 다보성
- 크기/재질
 - 각 가로 12.55~16.68 × 세로 11.62~15.57mm / 금속

다. 주요경과

- 2007.2.~3월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존재 확인
- 2007.11.~2008. 2.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분석조사
- 2010.9.2. 다보성미술관(김종춘)에서 ‘증도가자’ 언론에 공개
- 9.3.~10.15. 다보성미술관(대표 : 김종춘)에서 특별전시함.
- 12.2. KBS역사스페셜에서 방영
- 2011.6.17. ‘고려시대 금속활자 증도가자 학술 발표회’ 개최
- 9.20. 문화재청 국정감사 시 증도가자 문제 제기
- 10.6.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접수

- 명칭/수량 : 증도가자/101점
- 소유자(보관처) : 이정애(다보성)
- 10.28. 증도가자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
 - 참석자 : 남권희, 류부현, 김성수, 옥영정, 이승철
 - 회의결과 : 증도가자는 진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증도가자의 해외유출·훼손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보관을 권고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추진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 추진 필요
- 2011.12.13 2011년 제6차 동산문화재분과 위원회에서 지정가치 검토 소위원회 개최토록 의결됨
- 2012.10.11 증도가자 가치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참석자 : 신승운, 박문열, 전경목, 송하경, 서병패, 이오희
 - 회의결과 : 증도가자의 출처, 내력 등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향후 보다 폭넓은 조사가 요구됨. 따라서 추후 진위판별이 이루어진 후 국가문화재 지정절차의 진행이 바람직함.
- 2013.1.29 증도가자 실건조사
 - 참석자 : 신승운, 박문열, 전경목, 송하경, 서병패
 - 조사결과 : 증도가자 활자의 진위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 후에 지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3.2.14 2013년 1차 문화재위원회 보고(지정 보류, 출처·내력조사, 연구 필요 등)
- 2013.2.22, 7.15, 9.5 소유자측(이정애), 민원제기
- 2013.9.10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증도가자’ 종합학술조사 관련 협의
- 2013.9.11 소유자측(김종춘) 면담(조속한 지정 재요청)

라. 출처소명 내용

- 구소유자 박진규
 - 1995년 일본 오사카 이즈미시, 구키야 마코토로부터 구입(금속활자 등 일괄매입 약 100만엔/골동품으로 부산공항세관 통해 반입시 골동품으로 세관신고서, 반입증명서 작성 없었음.)

- 매입 1-2개월 후 김환재에게 매매 위탁, 금속활자 등 일괄하여 판매함 (약 1,500만원/관례상 계약서 생략)
- 구소유자 김병구
 - 김환재로부터 금속활자 1백여 점 구입함(계약서 생략)
 - 2010. 8. 15일에 이준영에게 금속활자 판매함(계약서 생략)
- 신청인 이정애
 - 2010. 8. 15일에 김병구로부터 구소유자 이준영(신청인 이정애의 친오빠) 금속 활자 구입(매매확인서 제출/13.9), 신청인이 소유함(가족으로서 계약서 생략)

마. 자문회의 결과보고

-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3. 10. 7(월)/문화재청 9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남권희(서지학, 경북대학교 교수), 조형진(서지학 강남대학교 교수), 이재정(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서병패(서지학,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 조남철(보존과학, 공주대학교 교수)
 - 선주선(서예사, 문화재위원)
 - 임인호(금속활자장)
- 회의 결과
 - 기존 연구성과 많으나 국가기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 검증이 요구됨.
 - 해당 각 전문가 참여한 서지학적 비교연구, 과학적 검증(적정한 샘플링) 외 역사학, 금속공예사 등 전문가 참여한 종합학술조사연구가 필요함.
 - 고활자 기초연구사업 병행하여 향후, 활자 진위판단시 기초자료 기반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지정신청건 ‘증도가자’ 외에 230점이 추가 보고되는 등 모든 현존작에 대한 진위판단 등을 위해 광범위한 활자 연구사업이 필요함.

바. 향후계획

- ‘증도가자’ 종합학술조사 계획수립(‘13. 12월)
- ‘증도가자’ 지정조사 추진

사. 의결사항

- 원안접수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국가문화재 지정추진 보고

가. 보고사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나. 추진경과

- 문화재청-국립박물관 지정업무 협의회 개최('10.1월)
-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의 지정 확대에 대한 양 기관 합의('13.8.9)
- 제1차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의회” 개최('13.8.22)
- 지정절차, 추진방법 등에 대한 실무자 사전 협의('13.10.2)

다. 추진방향

-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의 모델 사업으로 인식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정 신청시 일괄신청, 지정조사시 기초자료 협조체계 유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지정’을 주요사업으로 인식, 연차적 추진
 - 추진(안) : 5년 계획 / 150건 내외(국립중앙박물관에서 1차 선정작업 중)
- 지정조사 및 지정은 문화재청의 고유 행정업무임으로 문화재청에서 주관·추진
-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유물이 지정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대상 선정
- '13년 지정조사는 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국립박물관 대표문화재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지정조사 추진
- '14년 이후는 지정조사의 효율성을 감안, 유형별 또는 소재지별로 추진 검토

라. '13년도 추진계획

- 지정대상 유물 1차 선정(국립중앙박물관)
- 대상유물 검토 및 조사자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3.10월 중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지정 확대 실행협약서” 체결('13.7월 초)
- 유형별 대표문화재 지정조사 추진('13.11월 초)
- 문화재위원회 검토사항 부의('13.12.12)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